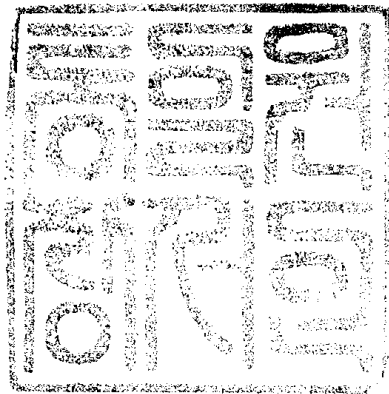


통분 93-12-84

'93 北韓·統一研究 論文集(VII)

北韓의 經濟·社會·文化 分野

1993



統 一 院

당원에서는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전문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책의 일환으로 연구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3개의 연구과제를 위촉하였는 바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① 統一政策 ② 南北交流協力 ③ 北韓體制 및 政策變化展望 ④ 北韓의 軍事 ⑤ 韓半島 周邊情勢 ⑥ 北韓의 行政 및 法制 ⑦ 北韓의 經濟·社會·文化 등 7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는 관련분야에 대한 참신한 문제 의식과 예리한 논증 등으로 높이 평가할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당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통일 및 북한문제를 연구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993년 12월

통일원 정보분석실

〈 收 錄 論 文 〉

- ◇ 북한 연구방법론1
 -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일 연구 -
- 강 정 인(서강대학교)

- ◇ 북한의 경제개혁과 작업조직과의 관계63
 - 이 은 진(경남대학교)

- ◇ 북한 국어사전 예문의 사회통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151
 - 이 성 연(조선대학교)

- ◇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195
 -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 장 경 모(국방정신교육원)

- ◇ 북한에서의 우리나라 건축 역사연구 성과와 평가287
 - 이 왕 기(목원대학교)

- ◇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과 그 배경에 대한 고찰369
 - 전 경 옥(고려대학교)

北韓 研究方法論

研究責任者：姜正仁(西江大學校)

목 차

<요약문>

I. 들어가는 말	9
II.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	18
1.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진보성'	19
2. 공통된 기준의 설정가능성	21
3. 양 접근법과 적용영역	25
4. 양 접근법과 상호 보완성	29
5. 양 접근법과 상호 배척성	40
6. 구조와 현상의 문제	44
III. 맺는말	53
* 참고문헌	61

〈요 약〉

이 논문은 사회과학 방법론상의 보편적 문제와 남한에서의 북한연구에 특유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북한 연구방법론”이라는 제하에서 최근 남한 학계에서 북한 연구방법론의 모색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음미하였다. 이를 위해 70년대 후반에 발표된 안병영의 “북한연구의 방법론”에 제시된 ‘외재적 접근법’과 기존의 방법론에 반발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인 송두율, 강정구, 이종석 등이 북한사회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 제기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비교·검토하였다. 송두율을 비롯한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연구에 주로 쓰이던 기존의 접근법들인 전체주의이론, 산업사회론에 근거한 수렴이론 등이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곧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치나 척도에 따라 분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사회를 ‘안’으로부터, 곧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비판하는 기존의 북한 연구방법론은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분석하기 때문에 통칭하여 ‘외재적 접근법’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병영이 자신의 논문에서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는 북한연구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들은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비판하는 이른바 ‘외재적 접근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내재적 접근법은 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의 진보적인 소장 북한연구자들간에 급속하고 광범하게 파급되었다. 그 결과 남한학계에서 북한연구의 동향은 크게 기존 학자들이 취하는 외재적 접근법과 신진 소장학자들이 택하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자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데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외재적 접근법은, 내재적 접근법이 적절히 비판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가치기준이나 척도를 북한사회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사회의 독자성과 고유성

을 무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북한현실을 왜곡되게 해석한 적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법 역시 일정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내재적 접근법이 종래 남한사회와 학계에 만연되어 있던 반복의식 및 반공의식을 청산, 극복하고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를 그 체제가 추구하는 이념과 논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적절한 이해에 기여한 공로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 사회주의체제의 독자성과 고유성에 대한 해명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해 왔으며, 사회주의사회와 자본주의사회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양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왔다. 요컨대 부정적인 측면에서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은 양자 공히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양 접근법은 일정한 한계내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틀을 제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필자는 북한연구를 둘러싼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방법론상의 논쟁이 근본적으로 인문·사회과학 일반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을 각각 체제 '안'의 행위자(actor)의 시각과 체제 '밖'의 관찰자(observer)의 시각을 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행위자의 시각과 관찰자의 시각은 때로 일치하고, 때로는 모순되며, 또 때로는 상이하지만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철학자와 사회이론가들은 단일의 일관된 현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택해서는 안 되며, 사회현상을 행위자와 관찰자의 입장에서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복잡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북한 연구방법론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추상적으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 중 어느 접근법이 더욱 적실성이 있는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대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상호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필자는 '본론'에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

법 중 추상적으로 어느 접근법이 더욱 적실성이 있고 우월한가를 논의하기 보다는,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전제하고, 양자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를 다음 여섯 가지의 논점을 통해 좀더 치밀하게 분석, 고찰하였다. 먼저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반면, 외재적 접근법은 그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보는 북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은 주어진 현상에 대해 언제나 상호 모순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며,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상호 합의하여 긍정적·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관찰대상인 현실영역의 특성에 따라 내재적 접근법이 잘 적용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 외재적 접근법이 잘 적용되는 영역이 있다. 예컨대 북한의 토지 개혁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데는 외재적 접근법이 더 적합한 경우와 같은 예들이 많을 것이다. 넷째, 어떤 현상의 경우에는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병존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에 걸쳐 일어난 북한의 이른바 '종파싸움'을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건설노선을 둘러싼 투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마키아벨리식의 권력투쟁으로 해석하여 양 해석을 병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체사상의 기능에 관해서도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을 병존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주어진 현상에 관한 양 해석이 상호 모순되어 그것들은 병존적으로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각 해석의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정합성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재적 접근법을 '현상'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으로, 외재적 접근법을 '구조'를 중시하는 구조주의적 접근법으로 비유하여 양자의 복잡한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 물론 이 여섯 가지의 논점은 사회과학의 가장 난해하고도 첨예한 방법론상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가 시도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논점을 북한연구에 적절한 한도내에서 개괄

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닌다.

결론에서 필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후, 이에 근거하여 남한학계에서의 '잘못된' 북한연구 관행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북한 연구방법론에 관해 지니고 있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북한 연구방법론: '내재적(內在的)' 접근법과 '외재적(外在的)' 접근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일 연구

I. 들어가는 말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이 사용하는 방법론, 개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자의식(critical self-consciousness)을 필요로 한다.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세계를 관찰, 인식하고자 하는 주체는 자신이 과연 어떠한 입장과 상태에서 관찰과 인식에 임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기점검(self-examination)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문연구에 사용되는 방법론, 개념 및 이론들은 외부세계를 단순히 중립적으로, 투명하고 왜곡없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주체의 주관적인 입장과 상태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속성이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학문연구에 사용되는 방법론, 개념 및 이론들은 현실을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전체로 재구성하여 지적으로 이해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계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는 철학적·인식론적 문제로서 사회과학이건 자연과학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학문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론상의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남한에서의 북한연구는 정치적·역사적 상황이 빚어낸 북한학 특유의 문제에 직면한다. 제2차 세계대전후 냉전의 형태로 정립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는 해방후 남북한의 분단을 초래하였고,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해 남북한 인민의 의식에 휴전후 40년동안 철저히 내면화되었다. 이는 남북한에서 각각의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중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을 철저히 주입, 고취시킨 데서 그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역대정권은 분단 이후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공산주의 일반과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일방적으로 왜곡, 강조함으로써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건전하고 비판적인 이해를 가로막아 왔다. 또한 최근까지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연구가 대체로 정부의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여 수행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결과 적대의식과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채색된 기존의 많은 북한연구가 의도적으로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 확대한 반면 긍정적인 측면은 무시, 왜곡함으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방해해 왔다. 물론 이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냉전적 대립으로 인해 각 진영의 타진영에 대한 연구가 이데올로기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보편적 문제의 한국적 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남북한의 경우에는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 확대재생산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론상의 보편적 문제와 분단 및 한국전쟁으로 인한 정치적·역사적 상황이 빚어낸 북한학 특유의 문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올바르고 적절한 이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체되어 왔다.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의 대상이자, 또 하나의 주체인 북한에 대한 적절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민족적 과업인 통일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기존의 북한 연구방법론들이 빠져 있는 이데올로기적 함정과 편견을 극복하고, 다가올 통일 조국의 입장과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작업은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이러한 학문적 작업의 토대로서, 최근 남한학계에서 적절한 북한 연구방법론의 모색을 둘러싸고 전개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대립과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외재적 접근법이란 70년대 후반에 발표된 안병영(1982)의 “북한 연구의 방법론”에 제시된 다양한 접근법들--예컨대 역사문화론적 접근법, 전체주의적 접근법,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내재적 접근법은 안병영이 제시한 기존의 접근법에 반발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인 송두율(1988), 강정구(1990), 이종석(1990) 등이 제기한 접근법을 말한다. 송두율을 비롯한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연구에 주로 쓰이던 기존의 접근법들인 전체주의이론, 산업사회론에 근거한 수

렴이론 등이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곧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치나 척도에 따라 분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사회를 '안'으로부터, 곧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비판하는 기존의 북한 연구방법론은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분석하기 때문에 통칭하여 '외재적' 접근법이라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¹⁾ 내재적 접근법은 80년대 후반 이후 남한의 진보적인 소장 북한연구자들간에 급속하게 파급되었다.²⁾ 그 결과 남한학계의 북한연구 동향은 크게 기존 학자들이 취하는 외재적 접근법과 신진 소장학자들이 택하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

양 접근법에 관해 우리는 내재적 접근법이 체제 '안'의 행위자의 시각을, 외재적 접근법은 체제 '밖'의 관찰자의 시각을 취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체제 '안'과 '밖'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다. 다만 주어진 체제를 그 체제의 지배적인 이념, 규범, 관행, 개념 등을 위주로 하여 보느냐 아니면 외부적인 이념, 논리 등을 위주로 하여 보느냐에 따른 구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⁴⁾ 따라서 자신의 접근법을

1) 강정구는 명시적으로 내재적 접근법에 대비하여 "외재적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1990, 26).

2)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와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그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논의는 불가피하게 강정인(1993)의 '들어가는 말'에서 옮겨온 것임을 밝혀 둔다.

4) 가령 북한을 방문하여 관찰하는 여행자라 해도 북한사회에 관해서 외재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고 내재적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다. 재미교포인 조광동이 쓴 『더디가도 사람생각하지요』(1991)는 일반 방문기와는 달리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서 곧 행위자의 입장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고자 고심한 대표적인 방문기이다. 가령 조광동은 자신의 취재원칙에 관해 "...북한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일지라도 그들 입장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1991, 12).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에 거주하는 인민이라고 해도, 망명자나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칭하지 않았지만, 이온족이 “북한사회의 ‘신발’을 신고 북한주민의 ‘안경’을 끼고”(1988, vi), 북한사회에 접근하는 방법, 곧 관찰자로서 일단 자신의 가치, 선입관 등을 배제하고 관찰대상인 북한인민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지우는 현상학적 접근법을 제안했을 때, 이온족이 제안한 접근법은 (뒤에 자세히 논의할 것처럼) 기본적으로 체제 ‘내’의 행위자의 시각에서, 곧 내재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북한사회를 바라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사회의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북한의 엘리트와 일반인민들이 지니고 있는 이념, 목표, 가치, 의도, 동기 등을 중시한다. 또한 이러한 이념, 목표, 가치 등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사회의 문화, 규범, 개념, 범주에 따라서 사회현상을 해석하고자 한다.

내재적 접근법은 단순히 북한 연구 뿐만 아니라 인류학 및 비교정치학에서도 이미 상당한 호응을 확보하고 있다. 내재적 접근법은 인류학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상이한 문화권에서 사는 종족이나 부족을 이해하고자 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 집단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행위가 기우제(祈雨祭)인지, 전쟁준비행위인지, 그 부족의 우두머리를 추대하는 행위인지, 규범일탈자를 처벌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이러한 단일행위의 복합된 행위인지--가령 우두머리를 뽑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인지--를 인지(identify)하기 위해서는

월남자들이 망명이나 월남을 결심하면서 흔히 느끼듯이, 북한사회를 사회주의 이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외부적 시각에서, 곧 외재적 접근법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철학적으로 이러한 관찰자와 행위자의 시각대립의 비근한 예는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 나오는 소크라테스(Socrates)와 트라쉬마코스(Thrasymachus)의 정의(正義)에 관한 대논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주로 체제 내부의 행위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가지거나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定義)한 반면, 트라쉬마코스는 외부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강자의 이익에 다름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행위일반에 대한 해석을 놓고 대립되는 방법론상의 논쟁을 행위자와 관찰자의 입장으로 정리한 논의에 대해서는 피트킨(Pitkin 1972, 241-63)을 참조하라.

그들의 의도, 목표, 습속, 관행 등을 이해하는 것이 '선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다.⁵⁾

한편 비교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서구의 학자들이 제3세계의 정치·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학문적 한계와 결함을 비판하기 위해 종종 '종족중심주의(ethnocentrism)' 또는 '유럽중심주의(Europocentrism)'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근본적으로는 서구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연구대상인 사회를 이론화하여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곧 외재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가치나 이념을 은연중에 그 사회에 강요, 부과하는 셈이 되고, 따라서 그 사회를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60년대에 풍미했던 서구의 근대화이론은 목적론적(teleological)이고 유럽중심주의라는 이유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비교정치학분야에서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연구의 경우 서구적인 기준과 발상에 따라 해석하고자 하는 외재적 접근법은 소련 및 동구의 공산국가들이 서구와 상이한 문화적 유

5) 물론 이것도 사례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다. 가령 원주민들의 정확한 의도나 동기 또는 그들의 문화, 습속 및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류학자가 원주민들이 패를 지어 일부는 북을 치고, 일부는 덧을 만들어 배치하며, 일부는 멧돼지를 몰고, 일부는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아서 사냥감을 잡는 행위를 보고나서, "저들의 행위가 종교적 축제인지 유희인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른바 '사냥행위'에 종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처럼 행위의 속성 및 관찰자의 기준과 개념에 따라 그 행위를 인지하거나 해석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다(Pitkin 1972, 258). 하지만 외부의 관찰자가 자신의 개념, 관습, 문화적 풍습의 기준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다가 여행국의 풍습과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풍습과 문화의 기준에 근거해서 여행국 구성원들의 행위를 잘못 해석한 데서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풍습과 문화의 관점에서 그들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해석하고자 노력하는데, 바로 이러한 태도가 사회과학에 있어서 내재적 접근법의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서구의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는 상이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경우 외재적 접근법은 종족중심주의나 유럽중심주의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의 전제하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이데올로기 중심주의(ideologico-centrism)에서 비롯되는 한계와 결함 때문에 비판받게 된 셈이다.

이처럼 북한학 연구를 둘러싼 방법론상의 논쟁은 그 구체적인 발현 양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문·사회과학 일반의 방법론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든즈(Anthony Giddens 1986)가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인문·사회과학의 방법론을 간략하게 논의한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대립은 분석철학의 행위이론이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alism)에 의해 대표되는 '주관주의(subjectivism)'와 구조주의 및 기능주의에 의해 대표되는 객관주의(objectivism)의 대립, 인문과학에서 텍스트(text) 해석의 방법을 둘러싼 구조주의 및 후기구조주의와 이른바 의도주의 이론(intentionalist theories)의 대립, 그리고 사상사에서 스킨너(Quentin Skinner)와 같은 학자가 취하는 사상가의 의도와 당대의 맥락을 강조하는 입장과 사상의 시대 초월적 의미를 강조하는 고전주의의 대립과--물론 중요한 점에서 다르지만 그 발상에 있어서--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의 개략적인 논의에서 밝혀졌듯이, 내재적 접근법은 단순히 북한 연구 뿐만이 아니라, 인류학·사회학·정치학 등 사회과학 일반에 걸쳐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최근에 발표한 "북한 연구방법론: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1993)에서 내재적 접근법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주의의 이념 및 그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사회주의의 성과를 해석하기 때문에, 외재적 접근법이 간과 내지 왜곡하기 쉬운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적확하게 포착,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을 사용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인식, 비판하는 것이 종종 현실을 왜곡하거나 일면적으로 드러내는데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사회주의사회를 연구함에 있어서 한편으로 외재적 접근법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의 가치나 기준만을 도입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주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편협하게 이해함으로써 양 접근법의 대립을 사실상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양 접근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양 접근법은, 적절히 이해하면, 반드시 이데올로기적 시각의 차이만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고심한 나머지 이를 과장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송두윳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체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논리전개를 하기도 한다. 셋째,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고 이에 관해 침묵하거나, 가볍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역사필연적인 산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내재적 접근론자들 스스로 주장하는 내재적 접근법의 '비판적' 기능이 소홀히 되고 만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세 가지 단점은 내재적 접근법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결함이라기보다는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함은 내재적 접근법에 관한 논리구성이 다소 허술한 송두윳의 주장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넷째,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내재적 접근법은, 특히 그 비판적 기능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시피한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논리로는, 최근 시장경제의 도입과 정치적 다원주의로 치닫는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거의 설명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최근 필자가 발표한 논문의 속편(續篇)으로서--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 양 접근법의 상호관계를 구명(究明)함으로써 필자 나름의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를 매듭짓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외재적 접근법 및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취하는 기본적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외재적 접근법이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가치기준이나 척도를 북한사회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사회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무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북한현실을 왜곡되게 해석한 적이 많았다는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비판적 지적에 필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법 역시 일정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내재적 접근법이 한편으로 종래 남한사회와 학계에 만연되어 있던 반북의식 및 반공의식을 청산, 극복하고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를 그 체제가 추구하는 이념과 논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적절한 이해에 기여한 공로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 사회주의체제의 독자성과 고유성에 대한 해명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장한 반면 부정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해 왔다. 나아가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외재적 접근법의 폐단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외재적 접근법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의 배타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양 접근법간에 상호 대립적인 측면은 물론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해 왔다. 요컨대 부정적인 측면에서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은 양자 공히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양 접근법은 일정한 한계내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가 취하는 기본적 입장은 내재적 접근법과 외

재적 접근법 중 어느 한 접근법이 '옳고' 다른 접근법은 '그르다'라는 방법론적 일원주의(一元主義)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기실 복잡미묘하고 모순된 사회현상을 하나의 이론틀이나 접근법으로 다 설명해낼 수 없으며, 설명하고자 하는 현실의 주어진 영역의 특징, 거기에 적용되는 담화의 특성,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목적 및 가치지향성에 따라서 상이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양한 접근법을 중첩적으로 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논의한 행위자와 관찰자의 시각을 적용하여 말한다면 행위자의 시각과 관찰자의 시각은 때로 일치하고, 때로는 모순되며, 또 때로는 상이하지만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철학자와 사회이론가들은 단일의 일관된 현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택해서는 안 되며, 사회현상을 행위자와 관찰자의 입장에서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복잡한 임무를 부여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⁶⁾

6)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지지한다. 그런데 송두울은 "북한사회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1988, 104)라고 자신의 논문의 모두(冒頭)에서 선언함으로써,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마치 '정당한' 방법론과 '부당한' 방법론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있고, 나아가 내재적 접근법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방법론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가, 즉 방법론적 일원주의에 서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사실 남한에서의 전통적인 북한연구가 주로 외재적 접근법, 특히 전체주의적 접근법을 남용함으로써 북한 현실의 일정한 측면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부각시키고, 다른 중요한 측면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장애물로 작용했다라는 학문적 풍토에 대한 반발로서 송두울의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적 태도가 외재적 접근법 일반에 확대되어서는 아니되며, 나아가서 내재적 접근법만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주장으로 비약되어서도 안된다고 본다. 외재적 접근법이 지닌 이론적 취약성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남한의 경우 좀더 중요한 문제는 외재적 접근법이 지닌 한계를 자기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나아가 이를 남용한 연구자들의 학문적 태도, 곧 학문적 풍토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이종석은 다음과 같이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승인하고 있다: "...특정한 하나의 접근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1990, 92).

II.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

‘들어가는 말’에서 이미 밝혔듯이, 필자는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 중 추상적으로 어느 접근법이 더욱 적실성이 있고 우월한가를 논의하기보다는,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전제하고, 양자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를 다음 여섯 가지의 논점을 통해 좀더 치밀하게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반면, 외재적 접근법은 그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보는 북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은 주어진 현상에 대해 언제나 상호 모순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며,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상호 합의하여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관찰대상인 현실영역의 특성에 따라 내재적 접근법이 잘 적용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 외재적 접근법이 잘 적용되는 영역이 있다. 예컨대 북한의 토지개혁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데는 외재적 접근법이 더 적합한 경우와 같은 예들이 많을 것이다. 넷째, 어떤 현상의 경우에는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병존적으로 적용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에 걸쳐 일어난 북한의 이른바 ‘종파싸움’을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건설노선을 둘러싼 투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마키아벨리식의 권력투쟁으로 해석하여 양 해석을 병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체사상의 기능에 관해서도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을 병존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주어진 현상에 관한 양 해석이 상호 모순되어 그것들은 병존적으로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각 해석의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정합성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재적 접근법을 ‘현상’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으로, 외재적 접근법을 ‘구조’를 중시하는 구조주의적 접근법으로 비유하여 양자의 복잡한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 물론 이 여섯 가지의 논점은 사회과학의 가장 난해하고도 첨예한 방법론상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가 시도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논점을 북한연구에 적절한 한도내에서 개괄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닌다.

1.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진보성'

북한학 연구자들이 흔히 인식할 법하듯이,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지하거나 부각시키는 데 적합하고 외재적 접근법이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거나 강조하는 데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북한연구의 실태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일반화가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특히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대표적인 외재적 접근법의 하나인 전체주의 접근법이 주로 사회주의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외재적 접근법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독자성을 내재적 접근법보다 중요시해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반드시 '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외재적 접근법의 하나인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은 제3세계의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사회주의체제가 근대화나 공업화에 있어서 우월한 업적을 성취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상이한 발전전략을 채택한 중국과 인도의 공업화나 경제발전을 비교하여 중국이 성취한 바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재적 접근법의 비판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내재적 접근론자들 역시 기존 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미흡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아가서 당 정(黨政) 엘리트의 관료화, 새로운 계급의 발생과 불평등의 심화, 일반 생산대중

의 정치로부터의 소외와 정치체제의 비민주성, 시민적 자유보장의 미흡, 생산력의 정체로 인해 인민들의 물질생활 향상이 미흡한 점,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을 예로 들며 사회주의체제를 준엄하게 비판할 수 있다. 실상 사회주의자인 트로츠키(Leon Trotsky)가 러시아 혁명을 '배반된 혁명'이라고 비난하고,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가 러시아혁명에 내재한 관료제의 위협을 경고한 것도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가한 비판이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사회경제적 평등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북한체제가 사회주의 이념인 무계급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실패했으며, 나아가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체제내에서 발생·심화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반면(김용기 1987), 남북한 체제의 사회경제적 평등성을 외재적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인민들이 전체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경제적 평등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강정인 1992). 즉 북한체제의 평등성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공인, 지향하는 바에는 훨씬 미달하기 때문에 혹독하게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탈색하여 북한을 여타 비슷한 처지의 제3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성과가 주목할만 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비판적인 의도를 가진 연구자는 내재적·외재적 접근법을 교대로 사용하면서 북한체제의 비판과 결합을 지적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북한체제가 단지 사회주의체제라는 이유만으로, 곧 자본주의체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때는 잠정적으로 내재적 접근법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동원하여 북한체제의 현실이 사회주의 이념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상 남한의 대부분의 비판적 연구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김일성체제를 세

계 역사상 유례없는 전체주의체제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도 반한다고 지적하거나(이상우 1988) 또는 주체사상을 1인의 절대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체제이데올로기라고 외재적으로 비판한 후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본래의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경우(이용필 1990)가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원래 내재적 접근론자가 아니지만 방법론상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재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사례로 김용기(1987)의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김용기는, 이미 지적한 것처럼,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사회주의의 무계급 평등이념에 비추어 북한사회의 불평등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연구에 있어서 이른바 ‘진보적’ 소장학자들은 북한사회의 ‘긍정적’ 측면이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접근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해야 적절히 파악될 수 있는 반면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사회의 이해를 가로막는 보수·냉전적인 연구결과만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는 듯한데, 이는 외재적 접근법--전체주의적 접근법을 예외로 한다면--이 남한의 북한연구자들에 의해 남용된 결과이지 외재적 접근법에 고유한 속성은 아니다. 따라서 내재적 접근법이 사회주의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지하거나 부각시키는데 적합하고 외재적 접근법이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거나 강조하는 데 적합하다는 식의 인식이나 연구관행은 잘못된 것으로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2. 공통된 기준의 설정가능성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체제가 표방하고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다르다고 하며 북한체제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일정한 공통된 기준이나 척도--대개의 경우 외재적 기준이나 척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를 설정하여 양체제를 비교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는 물론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을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남북한체제를 공통된 척도에 따라서 평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남북한체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각 체제가 개혁, 수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상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항목들은 외재적 접근법에 의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이다. 예컨대 송두율(1988, 111-13)은 북한경제체제의 특수성을 논하면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송두율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북한 농업의 성공', '도농간의 격차극복과 과도도시화의 문제의 해결' 및 '자급자족적 경제운용'은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는 내재적 접근법 뿐만 아니라 외재적 접근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송두율이 처음에 엄격하게 구별한 것처럼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공유점이 전혀 없는 엄격하게 분리된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두율은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서 북한을 다른 공산주의 국가나 제3세계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북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의 기준, 곧 농업생산력의 발전, 도농간의 격차감축 등은 자본주의국가의 성장전략에도 호소력이 있는 기준이라는 점이다.⁷⁾

자본주의체제에서 국민총생산을 추계할 때 쓰는 평면적인 GNP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지적하기 전에 비교공산주의연구에서 이미 널리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외재적 접근법의 일종인 비교공산주의 접근법에 따라 공산주의체제를 자본주의체제와 비교한 화이트(Stephen

7) 따라서 우리는 송두율 자신이 북한체제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항목을 선택함에 있어--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내재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재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긍정적인 업적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White)와 동료연구자들은 일정한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여 공산주의체제가 일반적인 경제력이 서구자본주의국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복지 및 평등의 차원에서는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평가를 내린다. 화이트 등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체적으로 대다수 비공산국가들에서보다 공산국가들에서 훨씬 더 균등하게 분배"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치화 하여 제시한다(화이트 외 1989, 288).⁸⁾ 즉 그들은 사회복지의 공통된 지표로 인구 1만명당 주택수, 의사수 및 병원침대수, 출생 1천명당 유아사망율, 평균수명, 성인문맹퇴치율, 인구 1만명당 대학생수를 비교한 결과 공산주의국가들의 업적이 자본주의국가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한 그룹으로서의 공산국가들의 업적은 많은 측면들에서 특히 주택과 의료 분야들에서 주요 자본주의국가들의 그것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떨어지지 않는다. 사실, 많은 측면에서 적어도 일부 공산국가의 업적은 영국과 미국의 그것과 같거나 더 높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산국가들의 일인당 국민총생산의 수준이 훨씬 더 낮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하나의 인상적인 업적이다(화이트 외 1989, 291).

서재진도 북한의 신중단계급의 반체제화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북한의 학력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1972년부터 이미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고, 1977년부터 고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77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후부터 교육투자를 더욱 강화하여 해마다 대학과 전문학교를 신설하고 있는데 1987년 말 현재 대학은 244개이고 대학과 전문대학에 49만 4천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1990년 현재 146만의 대학졸업자가 있다고 한다. 또한 서재진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성인중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및 대학생 비율에서 북한은 중국, 홍콩, 소련 및 남한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서재진 1991, 604-05,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화이트 외(1989, 284-90)를 참조하라.

이러한 비교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탈색시키고--이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도--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지표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재적 접근법을 적용하더라도 공산국가들이 적어도 197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낮은 수준의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실상의 문맹퇴치, 광범위한 의료혜택 등 괄목할만한 사회·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화이트 외 1989, 284-98). 다만 정치영역에서 특히 시민적 자유나 민주화의 측면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주목할만한 업적을 성취했다고 주장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화이트 등은 지적한다(화이트 외 1989, 229).¹⁰⁾

이러한 연구들은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 공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보편적인 가치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생산력의 발전, 평등의 실현, 자유의 제고, 인간의 존엄성의 확보와 같은 범주들은, 비록 체제가 상이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에 편차는 있겠지만, 양체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나 이념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업의 존재,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에서 불평등의 심화, 체제에 대한 비판의 자유의 결여, 양심수나 무고한 인민의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재판과 처형, 경제성장의 둔화, 범죄의 만연, 청소년의 타락, 학문의 침체와 교조화, 생활필수품이나 (생활의 안락을 증진하고 노동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구소비재 등의 결핍, 환경파괴 및 공해의 증가와 같은 항목은 내재적

9) 하지만 필자는 서재진이 인용한 『조선중앙연감』(1988)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중국의 1982년도 통계, 홍콩의 1981년도 통계, 소련의 1979년도 통계 및 남한의 1980년도 통계와 북한의 1987년도 통계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 비교연도가 정확하지 않은 감이 있다. 서재진(1991, 614)을 참조하라.

10) 화이트 등이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적 민주화의 정도를 평가한 작업에 관해서는 화이트 외(1989, 277-84)를 참조하라.

구분	생활화된 한자어
동사	加工하다, 架空하다, 假拂하다, 稼動하다, 加捧하다 외 20여개 어휘
형용사	可能하다, 可當하다, 假量없다, 可笑롭다, 假借없다 외 10여개 어휘
부사	가령(假令), 가부간(可否間), 가급적(可及的) 등

남북한은 국어순화와 말다듬기로 한자어를 비롯한 외래어를 우리 말로 바꾸어 사용해 나가고 있으나, 오랫동안 한자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많은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어는 점차 사용이 감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한자어와 관련된 어휘에서는 ‘지난날에 사용했던 말’, ‘한문투의 말’, ‘낡은 사회에서 사용했던 말’, ‘봉건사회에서 사용했던 말’, ‘전날에 사용했던 말’, ‘낡은 양식에서 사용했던 말’, ‘봉건적 관념에서 사용했던 말’, ‘착취사회에서 사용했던 말’ 등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자제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남북한 사전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언어중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한자어는 다음과 같다.

가가대소(呵呵大笑), 가가례(家家禮), 가각(苛刻), 가간사(家間事), 가감(可堪), 가감지인(可堪之人), 가거(家居), 가거(街渠), 가결(加結), 가계비(家計費), 가고(家故), 가관(加冠), 가교(駕轎), 가구(街衢), 가국(家國), 가군(家君), 가권(家券), 가극(暇棘), 가극(暇隙) 외 102개 어휘

그리고 남한에서도 한자어들을 가능한 한 우리 말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

미국의 도미니카침공과 소련의 체코침공,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사태 개입 등을 비교하면 이데올로기적 수사학은 다르지만 강대국의 기존 영향력의 고수와 패권주의의 추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양국의 대외적 행위가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분쟁과 중소의 국경분쟁을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떠나 자국 영토에 대한 이익의 추구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적 행위는 국제관계가 기본적으로 무정부적 질서이며 모든 국가가 안보딜레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세력팽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해명된다. 더욱이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현대적 상황에서 어떤 국가도 자기충족성(self-contained whole)을 지닐 수 없으며, 국제 정치·경제적 요인이 한 나라를 제약하는 범위와 강도는 점차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질서의 변화나 급전은 불가피하게 각 국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 국가의 반응 역시 표방하는 이데올로기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유사한 속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사회주의국가라 할지라도 단순히 내재적 논리로 환원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게 되며, 외재적 접근법이 적실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예컨대 주체사상과 같은 변인이 북한의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력이 전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의 관심의 방향에 따라, 주체사상의 북한체제에 대한 규정력을 연구하는 학자는 북한의 대외 정책에 주체사상이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다 보니, 중소분쟁에서 북한이 취한 태도 등 북한의 대외정책의 독자성을 주목하고 이를 주체사상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반면, 북한체제가 국제질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국제정치학자는 국제질서의 북한 대외정책 규정력에 몰두하다가 주체사상의 영향은 괄호 속에 묶은 채, 안보딜레마와 세력균형이론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해석은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상호 공존가능하고, 보완성이 있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상호 모순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양 접근법에 따른 해

석을 적절히 배합하고 그 비중을 음미하는 작업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내재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종석이 남북관계를 국제관계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비과학적 분단 지향적 인식”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종석은 남한학계의 기존의 남북 분단에 대한 연구태도를 “분단규정성에 대한 인식도 기존의 북한 연구가 편의적인 연구영역의 분류 결과 국제정치학의 일부로 포섭됨으로써 남북관계를 국제관계의 일환으로 보는 비과학적 분단지향적 인식 속에서 거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이종석 1990, 89)라고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론적 시각의 도입을 촉구한다. 필자 역시 이러한 주장에 담긴, 곧 국제관계적 시각이 ‘분단지향적’일 수 있다라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국제관계’의 일환으로 보는 태도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조할 수 없다. 물론 남북한관계에는 단순히 국제관계적 시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분단국가에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이종석의 지적은 분명히 타당하지만, 동시에 남북한관계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두 개의 국가간에 존재하는 국제관계적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주제와 연구자의 관심 여하에 따라 국제관계적 시각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며, 따라서 ‘비과학적’이라고 비판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일반적인 대외정책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전망과 논의 역시 내재적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근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붕괴·변혁이라는 국제적 변수의 고려하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즉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이미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포함한 국제 정치·경제적 변수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개혁·개방에 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재적 논리, 북한의 경제사정, 기존엘리트들의 권력에 관한 전략적 계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일성은 과거에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공언한 바 있는데, 최근에 보여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 역시 사회주의의 내재적 논

리에 따른 해석보다는 과거 우방이었던 소련 및 동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과 안보위기라는 국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아가 '하나의 조선'이라는 명분하에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이나 강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반대했던 북한이 최근에 남한과 함께 돌연히 유엔에 가입한 사실이나 그후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수교를 추구하는 등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상의 두드러진 변화는--그들의 외교적 발언이나 수사적 정당화가 어떠하든간에--'사회주의'나 '하나의 조선'이라는 내재적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변전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기민한 대처라는 차원에서 외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¹¹⁾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체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주

11) 가령 북한은 남한의 유엔단독가입신청에 즈음하여 소련도 반대를 하지 않고 중국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조짐이 여러 가지로 분명해지자 유엔가입신청을 하였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북한 동시 UN가입이나 어느 일방의 단독가입은 '두개의 조선'을 고착화시키는 반통일적 정책이라는 논리하에 이를 반대했으며, '하나의 조선' 정책을 대외정책의 기본틀로 추구해 왔다. 이는 또한 '남조선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김일성정권의 통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북한외교부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UN가입성명을 내면서 가입신청을 하였다. (내외통신, 761호, p.4) 한편 남한의 재야와 운동권의 일부세력은 북한의 그러한 전통적인 논리에 동조하여--내재적 접근법을 취하면서--남한의 UN단독가입에 반대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태도를 돌변하여 유엔에 가입하고 말았으며 남한의 반대세력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 사례는 이른바 북한의 내재적 논리에 따라 남한의 UN단독가입에 반대하거나 또한 남한단독가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UN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일부 운동권 세력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르나,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일부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사고보다 훨씬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남한 독점자본가의 대명사격인 정주영이나 김우중을 초빙하여 남한 자본의 유치 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사를 타진한 것 역시 원칙적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목표와 방법이라는 내재적 논리의 차원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장하는 것처럼, 외재적 접근법보다 내재적 접근법이 더 적실성이 있는 영역이 있다. 북한이 정권수립이후에 취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농업집단화 등 사회주의적 개혁조치, 중공업우선 산업화정책 등 사회주의적 산업화전략, 그리고 계획경제와 연관된 정책은 당연히 외재적 접근보다는 사회주의 체제건설이라는 내재적 논리에 따라 접근할 때 훨씬 잘 이해된다. 또한 권력분립보다는 권력집중을 채택한 북한의 헌법, 노동당 중심의 당-국가체제,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생산방식,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寫實主義)를 추구하는 북한의 문예정책, '문화어' 중심의 언어정책 역시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이 외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보다 현실을 더 잘 조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생산력의 강화에 많은 자원과 자본을 투자해야 하며 남한보다 경제력이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해 온 것은 '선성장(先成長) 후분배(後分配)'라는 자본주의의 발전도식에 입각해 볼 때는 조금 하거나 낭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궁극적 목표가 인민들의 복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북한의 내재적 논리에 따르면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즉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 저발전의 상태에서 교육, 보건 등 사회복지분야에 선진자본주의국가에 못지 않게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적 자유권보다도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음미하면 더욱 명료하게 해석된다.

4. 양 접근법의 상호 보완성

북한사회의 일정한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어진 영역에 따라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 중 어느 하나가 적실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내·외재적 접근법은 상호 경합관계에 있고, 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은 모순됨이 없이 병존할 수 있고, 각 해석이 현상의 다차원성을 해명하는 데 있어 일견 모순되지만 보완성을 띠기도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각 해석이 상호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

으로는 어느 해석이 배척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북한 사회의 일정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할 때, 어느 한 접근법을 고집하기보다는 내·외재적 접근법을 병용 또는 배합하여 현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해석해야 할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하는 북한의 사회현상은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이라는 북한사회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서도 규정받지만 동시에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전통적 요소, 산업사회적 요소, 국제정치적 요소, 권력추구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 욕망 등--에 의해서도 규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추구라는 이념적·내재적 변인과 외재적 변인들인 전통적 요소, 산업사회적 요소, 국제정치적 요소 등은 상호 보완적으로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호 모순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서로 얽혀서 복합적인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에 따른 각 해석이 미묘하고도 복잡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현실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 이데올로기의 규정력을 강조하는 내재적 접근법은 물론 산업사회적 요소나 전근대적인 전통사회의 요소를 면밀하게 관찰할 것을 요구하는 외재적 접근법을 교대로 병용해야 할 것이다. 즉 체제내적 행위자의 시각과 체제외적 관찰자의 시각을 끊임없이 왕복하여야 할 것이다.¹²⁾

또한 체제외적 관찰자의 시각을 취하는 외재적 접근법이 단일한 시각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외재적 접근법을 우리는 단일하고 동질적인 서구의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적 기준과 가치에 입각하여--가령 전체주의적 접근법,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 산업사회론 등의 외재적 접근법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적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본다는 점에서--접근하는 방법으로 상징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학계의 편협한 관행 및 2차 세계대전 이후

12) 실상 북한체제에 관한 많은 연구들 역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중시하는 한편, 그밖의 권력정치적 측면, 관료제적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등을 검용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냉전구도가 학문에 깊이 침투하여 내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외재적 접근법은 관찰자의 시각과 관찰자가 주어진 현상이나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다양하고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 밖의 관찰자의 시각을 취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단일한 기준이나 잣대로 환원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호관계를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외재적 접근법이 단일한 시각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예시하기 위하여 가령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성대하게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호화로운 장식을 가미하는 행위를 생각해 보자.¹³⁾ 대부분의 신도나 목사들은 이러한 행위를 기독교적인 가치와 목표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주로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종교적 행위의 일환으로 해석할 것이다(내재적-긍정적 접근). 하지만 경제학자는 그 행위를 비생산적인 부문에 지출하는 (나아가 경제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로 해석할 것이다(경제학적 접근). 한편 건축가나 예술가는 건축의 양식 및 장식 등에 주목하면서 이를 주로 건축예술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다(예술적 접근). 다른 한편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신도나 목사는 그런 행위를 일종의 세속적인 물질숭배풍조에 감염된, 곧 종교의 참된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내재적-비판적 접근). 또한 기독교나 종교 일반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 역시 이를 신도나 목사의 물질적 허영심이나 집단적인 자기 과시욕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비판할 수 있다(외재적-비판적 접근). 마지막으로 부동산업자는 교회의 입지, 건물의 규모 및 다양한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를 목사와 신도들이 재산을 축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서로 모순됨이 없이 공존하거나 보완적일 수 있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13) 아래의 예는 피트킨(Pitkin 1972, 257)에 나오는 예를 필자의 필요에 맞게 확대, 수정한 것이다.

모순되며, 일부는 잠재적으로 모순되는 등 상호 복잡한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경제학자, 예술가 및 부동산업자의 해석은 그 활동의 종교성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에 부가된 해석으로서, 내재적 접근론자(종교적 행위론자)의 해석과 평온하게 공존할 수 있다. 그들은 각각 그러한 종교행위를 통해서 비생산부문에의 투자, 예술활동 및 축재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종교활동은 동시에 경제적 활동, 예술적 활동 및 부동산 투자행위로서의 측면을 겸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가의 건축 및 장식에 대한 해석은 교인들이 신을 경배하기 위해 예술적인 노력을 얼마나 진지하고 신앙심 깊이 기울였나에 관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보강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신도와 비판적인 신도는, 다같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행위의 해석에 있어 내재적으로 접근하지만, 진정한 종교적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상이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된 해석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일체의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판자의 해석은 내재적-긍정적 접근자의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된다. 또한 부동산업자의 해석은 내재적 접근론자의 해석과 상호 공존할 수 있으나--종교적 의도에서 주로 비롯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 축재행위가 된 경우--부동산 투기의 의도가 종교적 의도보다 강할 경우 그 행위의 종교적 의미가 상각되어 급기야 내재적 접근론자의 해석과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인 모순 관계에서 있다. 그 경우에 부동산업자의 해석은 그 행위가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의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기실 부동산투기의 동기와 의미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 종교성을 부인하는 해석으로 비약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건축 및 장식과 같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 가지 다른 동기에 의해 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또한 직접적인 동기와 상관없이 다른 종류의 행위의 측면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의 시각과 해석에 따라 다양하고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다양하고 상이한 해석은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 행위의 본질적 속성,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결과, 해석자가 그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등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각각의 해석이 나름대로의 입장과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는 점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교회의 건축 및 장식이라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만약 북한체제에서 찾아 본다면 가령 우리는 주체탑의 건축이나 거대한 김일성 동상의 건립행위와 같은 기념비 건설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다수의 북한 인민과 엘리트는 그러한 행위를-- 수령·당·대중은 일체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행적이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뜻을 높이 기리는 행위라고 해석할 것이다. 반면에 남한의 비판자들은 물론, 소련이나 중국의 관찰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사회주의의 본령에 위배되는 개인숭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해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학자는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로 허덕이는 북한체제에 있어서 비생산적 부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다른 요인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활동으로--체제내적인 경제학자라면 북한 사회주의의 경제적 발전을 지체시키는 행위라고--해석할 것이다. 다른 한편 건축가는 이를 소련이나 기타 사회주의국가의 건축양식 또는 자본주의국가의 건축물과 비교하며 그 예술성의 차원에서 해석하고자 할 것이다. 정치학자는 이를 사회주의의 이념 자체는 탈색시킨 채, 현 정권의 정당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심리학자는 김일성의 유년기를 분석하여, 이를 어린시절의 심리적 박탈 경험에 대한 보상 욕구의 발현으로 또는 권력의 헛된 과시욕구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종교학자는 모든 종교를 금지한 북한체제에서 김일성주의는--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일종의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징탑의 건설행위 역시 북한인민들의 잠재적인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교회의 건설 및 장식행위와 마찬가지로 북한정권이 추진하는 상징탑이나 상징적인 조형물을 건설하는 건축활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역시 일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서로 모순됨이 없이 공존하거나 보완적일 수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직접적으로 서로 모순되며, 일부는 잠재적으로 모순되는 등 상호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일정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할 때는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을 경합적으로 적용하여, 거기서 나오는 해석들의 상호관계를 주의깊게 음미하면서 현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설명해야 할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제시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총론적인 논의와 비유를 좀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해석과 이를 둘러싼 논쟁에 적용시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북한의 경제를 사회주의 이념의 추구라는 내재적 논리와 외재적 접근법의 하나인 산업사회론적 시각을 병용하여 공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령 사회주의체제의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시장생산이 아니라 계획생산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다르지만, 생산의 방식이나 조직에 있어서 대량화·획일화·동시화·표준화·관료화 등 산업사회의 공통된 특징은 자본주의체제는 물론 사회주의체제에도 관철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측면을 산업사회론은 중시한다. 위의 설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체제에서 일어나는 현상 역시 사회주의체제건설이라는 내재적 논리와 가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 적절하게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와 시각을 위주로 고안된 외재적 접근법 역시--예컨대 산업사회론--나름대로 주어진 현상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¹⁴⁾

또한 우리는 북한체제의 일정한 현상에 대해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시각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시각을 병용하여 상호 모순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각 해석간에 존재하는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가령 북한에서는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노동자로서 2년 이상의 직장생활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를 외재적 기준인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신속성·능률성·생산성 등의 차원에서 볼

14) 최근 소련 및 동구권의 변혁을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로부터의 욕구분출로 해석하는 견해 역시 근본적으로는 산업사회론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소개로는 서재진(1991, 575-78)을 참조하라.

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정구가 지적한 것처럼 이 제도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시키고 노동을 신성시하며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반영으로 해석하면 전혀 새로운 제도로서 우리에게 드러난다(강정구 1990, 19-20). 그리고 이러한 양측면을 종합하여 우리는 북한의 대학진학전 의무노동제도가 노동을 신성시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있어서 훌륭한 제도이지만, 다른 한편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생산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비능률적인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물품이 화려한 색상·디자인·포장기술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체제가 그 체제의 성격상 자본주의체제와는 달리 교환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에 전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강정구 1990, 24). 하지만 동시에 외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디자인, 포장 등이 세련되지 못한 북한의 물품은 자본주의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수출을 통한 외화조달--북한이 기술개발 및 경제발전에 필요로 하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외재적 접근법의 교차적 적용은 재미교포인 조광동의 북한방문기에서도 쉽게 목격된다. 조광동에 따르면 그가 안내원에게 예정에 없던 '파격적'인 요구를 할 때마다 안내원은 "토론하겠습니다" 또는 "조직해 보겠습니다"라고 응답하면서 선뜻 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 그는 이러한 반응을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기 위한 핑계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북한의 실정과 안내원의 태도에 익숙해진 후, 그는 자본주의-개인주의사회와는 다른 집단주의사회로서 북한은 개인의 이니셔티브보다는 집단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토론과 조직을 통한 집단과의 사전 협의 및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고백하고 있다(조광동 1991, 38-42). 조광동의 처음의 해석이 아마도 외재적 접근에 따른 해석이었다면 그의 나중의 해석은 내재적 접근에 따른 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최초로 내린 조광동의 외재적 해석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자본주의-개인주의사회에서는 어떤 청을 거절할 때 외부적인 장애 등을 이유로 제시하는 것을 완곡한 거절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광동은 개인주의사회의 가치관에 입각한 해석에 따라 안내원의 응답을 단순히 핑계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얻게 된 내재적 해석을 최초의 외재적 해석과 대비하여 조광동은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니셔티브를 불필요하게 억제하고, 그에 따라 체제의 효율성이 자본주의-개인주의체제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그 결과 관광사업의 부진 등--는 점을 그와 같은 조그만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예는 하나의 활동이나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 하나의 시각이나 이론이 보편적인 설명틀로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사회의 일정한 측면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가령 2000여년 동안 정치학의 고유한 연구대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권력을 둘러싼 투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과 지배가 종식되지 않는 한, 보편적인 정치현상으로서 어느 사회에서나 관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비록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발현형태가 다르기는 하겠지만--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에서도 당연히 발견된다. 따라서 여기에 근거한 권력정치이론, 집단갈등접근법 또는 엘리트 접근법은 북한사회에도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현실의 권력정치에 관한 마키아벨리의 정치이론은 이데올로기의 다양성, 사회경제적 차이, 종교적·윤리적·문화적 편차를 초월하여 권력정치가 전개되는 상황이면 어디에나 적용된다. 권력정치의 현실에 관한 마키아벨리의 통찰력은 조선시대 양반의 당파싸움, 세익스피어 당시 영국의 궁정정치, 스탈린치하 크레믈린에서 일어난 권력투쟁, 현대 남한의 파벌정치, 그리고 북한의 종파싸움 모두에 적용되어 적절한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재적 접근법은 권력투쟁을 둘러싼 인간사회의 보편적 특성을 지적하고, 이데올로기의 다양성, 사회경제적 차이, 종교적·윤리적·문화적 편차에 따른 권력투쟁의 발생원인, 발현양상 및 결과를 강조하는 내재적 접근법은 그 고유성 및 특

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요컨대 일정한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외재적 접근법은 외부적인 관찰자의 시각에서 주어진 사회의 보편성을 조명하고,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내의 행위자의 시각에서 그 특수성을 드러내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서게 된다.

가령 이데올로기적 선호와 감정의 개입도에 따라 논쟁이 좌우되는 북한 체제 대신 우리가 비교적 담담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조선사회의 당쟁을 예로 들어 보자. 조선사회가 유교사회라는 점에서 우리는 유교적 이념의 구현이라는 내재적 논리에 따라 이조시대 양반들의 당쟁을 연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권력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연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은 상호 배척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조선시대 양반들간의 권력투쟁의 구체적인 원인, 전개양상 및 결말은 현대 남한 정치권의 권력투쟁이나 스탈린치하의 크레믈린에서 벌어진 공산당내 엘리트간의 권력투쟁과 많은 편차를 보이겠고, 이러한 차이점은 특히 명분과 형식을 강조하는 조선의 주자학과 예학을 전제함으로써 더욱 이해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실학자인 성호 이익이 지적한 것처럼 관직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진 양반의 숫자가 많았다는 차원에서, 곧 유교적 이념을 탈색하고 단순히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조선 양반계급의 당쟁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교적 이념을 탈색한 외재적 접근법이 이 경우 당쟁의 보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파벌투쟁과 숙청을 포함한 '종파싸움'을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야기된 정책적인 대립을 중심축으로 하여 파악하는 것이 사회주의 이념과 북한체제의 독자성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서대숙(1990)처럼 사실상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탈색하고 북한체제 외부의 관찰자 입장에서 정권을 둘러싼 북한엘리트간의 권력투쟁에서 김일성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체사상에 관해서도 비슷한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주체사상

을 북한사회 내부의 행위자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북한이 겪은 특유한 경험을 집성한 이데올로기적 결정체(結晶體)로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외부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체제엘리트들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조한 통치 이데올로기로 볼 수도 있다. 즉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주의에 관한 북한 특유의 이념으로 주체사상을 보는 반면 권력정치론에 입각한 외재적 접근법은 집권엘리트의 정당성 확보라는 권력의 차원에서 주체사상을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내부의 종파싸움이나 주체사상은 이와 같은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주로 북한 사회주의의 이념과 실천의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데 반해 외재적 접근론자들은 권력투쟁과 정당성확보라는 차원에서 본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해석이 상호 모순됨이 없이 공존할 수 있다. 즉 “종파싸움은 북한체제 엘리트들간의 권력투쟁인데, 주로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둘러싼 대립을 통해 표출되었다” 또는 “주체사상은 북한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북한체제가 겪은 독특한 경험을 이론화하여 가미한 것이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양 해석을 병존시킬 수 있다.

내재적 접근론자나 외재적 접근론자나 ‘진지하게’ 북한 사회연구에 임할 경우 이러한 이중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다만 주로 어느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¹⁵⁾ 하지만 남한의 학자들은 이러한 현실 해석에 수반되는 모호성과 이중성을 무시하고 어느 한 측면을 다른 한 측면보다 일방적이고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로 대다수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외재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적 잣대를 가지고 북한체제의 비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이 중심이 된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여기에 반발하여 반론을 전개하다 보니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부정적인

15) 이 점에서 전인영(1990)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양 접근법을 적절히 배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측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를 북한체제에 특유한 이념이나 역사적 배경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건설전략에 관해서도 이러한 이중적인 해석의 병존이 가능하다.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개혁, 생산수단의 국유화, 계획경제의 채택 등 자본주의국가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경제발전정책을 채택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외부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본주의국가와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데올로기를 탈색시킨 채,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건설전략을 공업화정책이나 근대화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른바 저들이 말하는 사회주의건설이란 후진국의 공업화 정책의 일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소평체제의 중국이 1978년 이래 채택한 실용주의적 개혁·개방정책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라는 사회주의의 내재적 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후진국의 공업화정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개별 사회주의국가의 공업화정책이 자본주의국가와 상이함은 물론 각 사회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의 특이성, 혁명적 전통과 과정의 상이성, 선행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유산의 차이에 따라 사회주의국가간에도 일정한 차별성이 존재하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근대화이론이나 산업사회론에 따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텔로스(telos)적 요소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자체를 외재적 접근에 따라 후진국의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일반 인민들을 그러한 목표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재적 접근법의 일종인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은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차별성보다는 근대화 내지 발전이라는 공통성의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받아들인다. 10월혁명 50주년을 기념하여 쓴 "소련경험의 교훈"이라는 글에서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스위지(Paul Sweezy)는 소련이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에 걸쳐 '유례없

이 신속한 '공업화'를 달성하여 사회주의체제를 나찌의 침공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고 나아가 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체제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데서 소련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마르크스와 레닌이 예견했던 대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혹평한 바 있다(Sweezy 1980, 19-20). 스위지는 외재적 접근법에 입각하여 소련의 공업화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에 입각해서 소련사회의 현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곧 현실의 이념부정합성의 차원에서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즉 공업화의 성취도에 있어서 여타 후진국과 비교할 경우 소련의 성공은 치하할만 하지만,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서구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많은 제3세계의 급진 민족주의적 지도자들에게 사회주의식의 발전전략이 호소력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공산사회라는 '이상' 사회의 매력도 있었지만 소련이 사회주의적 공업화 정책, 곧 불균형발전을 통한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여 유럽의 후진국의 지위에서 혁명후 30년도 채 되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으로 일약 부상하게 되었다는 '현실'이 놓여 있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우리는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드러내고, 외재적 접근법은 그 체제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연구자들은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을 경합적으로 적용하여 북한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고 또한 양자의 관계를 음미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두 해석이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양립가능한 경우로서 우리는 "둘다 맞아."라고 응답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상호 모순적이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중 하나의 설명이 더욱 적실성이 있고 다른 설명은 단지 부차적임에 불과하다고 답변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5. 양 접근법의 상호배척성

그러나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접근법에 따른 해석이 상이하고,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나아가 어느 한 해석이 현실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배척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사회의 현상에 관해 다양한 접근법에 따른 해석들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 각 해석이 담고 있는 추론의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정합성이 궁극적으로 그 해석을 받아 들일 것인가를 결정하겠지만, 동시에 각 연구자가 가진 이데올로기, 세계관, 북한연구에 관심을 갖는 이유 등도 주어진 해석의 취사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해석을 버리고 다른 해석을 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주어진 해석이 그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정합성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배척된 구체적인 예로 우리는 양호민의 3대혁명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양호민은 북한정권이 1973년부터 시작한 '3대혁명'에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나온 상이한 해석을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정합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궁극적으로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을 배척하고 외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을 취하였다. 그는 북한의 3대혁명(즉 사상·기술·문화혁명)을 연구하면서 3대혁명이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설명인 김일성의 '계속혁명론'에 입각한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의 준비작업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논문의 전반부에서 사회주의이론에 따른 김일성의 '계속혁명론'의 관점에서, 즉 내재적 관점에서, 그리고 중국의 경험과 비교하는 비교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의 3대혁명의 발생과정을 검토한다(양호민 1987, 148-150). 이어서 양호민은 먼저 사회주의의 다음단계인 공산주의와 결부하여 레닌, 스탈린 및 모택동이 사상·기술·문화에서의 3대혁명을 주창한 사실을 지적한다(162). 그러나 양호민은 이러한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왜 김일성이 70년대에 들어와서 3대혁명을 주장하기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양호민은 김일성의 연설문 및 북한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이 1970년대에 들어서서 공업, 농업부문 및 당사업에서 여러가지 결함·혼란·모순에 직면하게 되

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3대혁명이 명목상으로는 김일성의 직속하에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일성의 장남인 김정일의 지도하에 수행되고 있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공식적인 문헌의 분석을 통해 지적하면서 3대혁명소조가 한편으로 북한경제의 침체 내지 파국을 사상·기술·문화혁명의 강행으로 타개해 보려는 김일성의 특수돌격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한편 김정일의 권력계승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성세대들을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서 미리 추방하여 김정일의 정권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치선봉대였다고 해석한다(177). 결론적으로 양호민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당 및 국가 엘리트의 세대교체, 경제적 위기의 타개,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표는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주장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공적인 건설이라는 전제하에) 공산사회의 건설을 위한 계속혁명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즉 자본주의사회나 사회주의사회에 통유한 경제난의 타개, 엘리트의 세대교체 및 김정일에 의한 권력인수 준비작업은 내재적 접근론에 따른 계속혁명론으로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호민의 결론에 따르면 북한당국이나 엘리트들이 말하는 것은 '갑'(계속혁명)이지만 실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을'(김정일의 권력승계 준비작업)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진지하게 추구되고 있고, 현실에서 의미심장한(significant) 성과(실패를 포함하여)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이 취하고 있는--성공의 전제하에 또는 실패에 대처하여--후속조치들이 갑이라는 활동과 설득력있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내재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현실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가 그러한 명시적인 의도나 목표와 불일치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이 적절치 않음을 양호민은 발견한다. 그리고 나서 현실에 드러난, 공식적인 설명과 모순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북한당국은 갑을 위해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지만, 기실 을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에 훨씬 더 부합한다는 점을 양호민은 밝혀낸다. (따라서 갑은 표면상의 명분에 불과하고 을이 심층적인 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에 따라 동일한 현상을 정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자들간에는 대체로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자연계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동 시대 동일문화권의 정치이론가라고 할지라고 같은 정치현상에 대해서 이론가들은 쉽게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는 1789년에 발발한 프랑스대혁명을 둘러싸고 제시된 보수주의자인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자유주의자인 톰 페인(Tom Paine) 그리고 사회주의자인 마르크스의 상반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소련 및 동구권의 변혁을 둘러싼 논쟁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가령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실현불가능하다고 믿는 연구자는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사회주의의 실패'로 규정하고 '올 것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설명을 일관된 논리로 전개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연구자는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가시화되지 않았을 때는 고르바초프의 설명을 따라 (진정한) '사회주의의 강화'로 받아들였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현실화되어도 좌파 성향을 띤 연구가는 여전히 '왜 현존사회주의가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성취되었어야 하는가?' 등 사회주의 이념의 이론과 실천상의 문제점을 부단히 연구하면서 대안적인 이론과 실천의 모색에 몰두할 것이다. 그 결과 양자의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한 해석이 동일할 수 없으며, 각자는 자신의 이론적 시각에 부합한 해석을 고집할 것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이론가들의 상반된 해석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인에 기인할 경우 그러한 해석은 상호 화해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16)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찰주체와 외부세계인 관찰대상이 상호 독립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상명사로 지칭되는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관찰주체와 관찰대상의 관계, 곧 개념과 현실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인 측면보다 상호 의존적이고 불가분적인 측면이 더 많다. 이러한 개념(언어)과 현실(세계)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이 사회현상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현실의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방법론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내재적 접근법이 강조하는 바에 따라 1차적으로는 북한이 사회주의이념에 따라 제시하는 공식적인 설명을 존중해서 주어진 현상을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해석이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잘 들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흔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설명의 배후에 있는 이면적 동기, 주변 상황의 여러 가지 측면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 나름대로의 외재적 기준이나 이론틀을 고안하여 주어진 현상을 재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외재적 접근법에 따라서 주어진 현상을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을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과 비교하면서 두 해석의 일응 모순된 측면이 발견될 경우 우선 두 해석을 종합하거나 병용시키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만족스러운 해석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곧 모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해석의 논리적 일관성 및 현실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그러나 새로운 사실이나 해석이 발견될 때까지 '잠정적'인 지위를 갖는--해석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세계관이나 이념의 차이에 따라 주어진 현상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도출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해석들이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반증(反證: falsification)되거나 입증(verification)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순이 해소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6. '구조'와 '현상'의 문제

남한에서 적절한 북한 연구방법론을 둘러싼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대립은 사회과학의 근본적인 방법론으로서 대립하고 있는 현상학적 접근과 구조주의적 접근의 대립과 유사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내재적 접근법은 현상학적 접근법과 유사하고 외재적 접근법은 구조주의적 접근

자연과학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며, 주어진 현상에 대한 상쟁하는 해석을 단순히 현실정합성에 근거하여 취사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Pitkin(1972, 99-115)을 참조하라.

법과 유사하다. 이온죽은 적절한 북한사회의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북한연구가 남북관계의 역사적·정치적 상황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접근”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상학적 접근법을 제안한다(이온죽 1988, 22). 이온죽은 관찰자가 “일단 자신의 가치, 선입관 등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보고 이해하는 의미의 세계를 준거틀로 삼아 그 사회의 성격을 파악,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온죽 1988, 21).

이온죽의 현상학적 접근법에 송두울 등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어렵지 않게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온죽이 말하는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보고 이해하는 의미의 세계를 준거틀”로 삼는 현상학적 접근법과 송두울 등이 말하는 북한체제를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인 목표나 이념에 비추어 그 성과를 분석한다는 내재적 접근법은 양자 공히,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한, 사회주의의 목표나 이념을 준거틀로 삼아 북한사회의 현실과 성과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내재적 접근법과 현상학적 접근법은 북한사회를 외부의 관찰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부의 행위자의 측면에서, 행위자의 이념·가치·동기·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발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온죽의 현상학적 접근 역시 북한체제에 대한 외부적인 가치판단을 중지하고 행위자의 의도와 의미에 따라서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관찰자가 외부적 가치판단과 선입관--특히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가치판단과 시각--으로 북한사회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외재적 접근법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현상학은 실존철학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이데올로기·형이상학·과학 등 자칭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깊은 회의로부터 출발하며 인간의 주관성 및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객관적인 세계에 관해 ‘사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Things are not what they seem)’라고 주장하는 우월적인 통찰력

을 과거에는 형이상학이, 현대에는 과학이 주로 대표하게 되었다. 현대 과학의 도구와 방법이 너무나 강력하여 과학적 지식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 결과 상식을 벗어난 과학적 진리의 압도성은 감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깊이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현대과학의 발전에 의해 야기된 총체적인 회의와 비현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현상학자들은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의 지각과 경험에 복귀할 것을 충고한다. 따라서 현상학은 추상적인 형이상학이나 과학을 떠나서 인간의 경험과 (추상적인 형이상학 및 과학이 기반하고 있는) 순수의식(pure consciousness)의 실재성을 강조한다. 현상학적 인식론의 핵심적 주장은 과학과 모든 전래된 통상적인 해석이 가르치는 바를 잠정적으로 제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실재와 존재에 관한 모든 질문을 유보하고 경험에 소여된 본질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⁷⁾

하지만 현상학적 접근법의 취약점은, 앞서 언급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재적 접근론자들이 쉽게 동조할 법한 구조주의자의 주장을 상기하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구조주의는 사회성원인 행위자의 가치·이념·목표 등에 비추어 이해하는 '현상'으로서의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와 행위자의 의도·의지·목표 등과는 독립하여 존재하면서 사회현상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서의 사회적 실재를 구별하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실재(the ultimate reality)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즉 사회 현상의 궁극적인 의미와 해석은 행위자의 주관보다는 객관적인 구조에 따라서 음미되고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주의자는 구조

17) 필자의 현상학에 대한 논의는 Pitkin (1972, 318-20)의 논의를 발췌·압축한 것으로 거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이온족의 현상학적 접근법이나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적 선입관을 배제할 것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체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일체의 형이상학적 해석--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현상학의 입장과 엄밀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란, 함축적이든 명시적이든, 경험적--즉 현상적--차원에서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설과 모델을 통한 이론적 활동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구조는 현실의 일부이지만... 경험적 현실의 일부는 아니다”(Godelier 1973, 341). 따라서 외재적 접근론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가설과 모델은 이러한 이론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¹⁸⁾

만약 사회현상의 본질적 의미가 이처럼 행위자의 의도·동기·목표를 초월하고, 행위자가 직접 인지하고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관찰자의 시각을 통해서, 곧 주어진 행위의 배후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행위자의 시각--가치·이념·목표 등--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 ‘과학’ 역시 행위자의 시각보다는 관찰자의 시각에서 사회현상을 초연하게 관찰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있다. 즉 인간의 주관적인 의도나 목표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자연과학의 인과법칙처럼 사회현상에도 이러한 과학적인 법칙이 관찰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법칙을 발견하고 적용하여 인간사회를 이해하고 변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회 ‘과학’의 기본적 전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과학화’의 경향은 마르크스주의의 사회과학에 오면 더욱 현저해진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 곧 구조와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경험되는 방식간에는 내재적인 간극이 존재하며 과학자의 임무는 이러한 외양(外樣: appearance)과는 상이한 실재(reality)를 재구성하는 것이다(Geras 1973, 286-87). 즉 과학적 연구는 외양의 배후에 숨어 있는 실재인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며(Geras 1973,

18) 필자의 구조주의에 대한 논의는 고들리에(Godelier 1973, 334-43)가 마르크스와 레비 스트로스(Lévi-Strauss)의 구조주의를 논의한 데 의존한 바가 크다.

285), 만약 사물과 본질이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면 모든 과학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은 사회의 상부구조인 이데올로기·법률·종교·정치현상 등은 행위자의 의식에 입각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지와는 독립하여 존재하고 행위자가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되는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러한 사적 유물론 역시 정치적·사회적 현상을 사회 성원들이 스스로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념·가치·목표 등과 독립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있다.¹⁹⁾

요셉 블로흐(Joseph Bloch)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보완, 설명하면서 역사적 사건이 행위자의 의식, 인식 또는 의도와 독립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역사는 그 최종적인 결과가 항상 많은 개인 의지들의 갈등에서 분출된다. ...따라서 상호 교차하는 무수히 많은 힘들 그리고 일련의 무한한 그 힘들의 집적된 총화(parallelograms)는 하나의 결과, 곧 역사적 사건을 산출한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의욕하는 바는 다른 모든 개인에 의해 좌절되며 그 결과 나타나는 바는 어느 누구도 의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역사는 자연적인 과정처럼 진행된다(Tucker 1978, 761).

따라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구조는 일정한 외양(현상)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²⁰⁾

19)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신의 삶의 사회적 생산에서 인간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독립된>... 특정의 제관계 속에 들어간다. ...한 개인에 관한 여타 사람들의 의견은 그 개인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내용 여하에 그대로 의거하고 있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변혁시기를 그 시기 자체의 의식에서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의식은 물질적 생활의 모순들, 곧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현존하는 갈등으로부터 설명되지 않으면 안된다”(Tucker 1978, 11-12).

20) 물론 이러한 외양의 인식이 구조에 대한 자연발생적 인식의 출발점이 됨을 마르크스는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학적 접근의 효용을 전적으로 부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자본주의체제의 과학적 이해는 그 가시적인 사회관계의 배후에 숨어 있는 내적 구조를 발견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내적 구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구성된 생산양식을 의미한다(Godelier 1973, 335-36). 사회 구성원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내적구조의 이해를 통해서 마르크스는 관찰된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가치이론 및 잉여가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유통과정에 나타나는 등가교환의 외양(현상) 속에 숨어 있는 부등가교환 곧,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생산과정에서 발견하였다. 그의 소외이론 역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초월적으로 극복한 공산사회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상징함으로써, 곧 외재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을 인지(identify), 설명하고 있다.

굳이 현상과 구조의 이분법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많은 정치·사회적 현상이 이른바 '의도되지 않았던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로서 포착될 것인데,²¹⁾ 이러한 현상을 내재적 접근법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 '의도되지 않았던 결과'의 문제는 사회과학에서 많은 이론가들을 괴롭혀온 주제이다. 무릇 사회과학자가 탐구하는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을 매개, 구성하는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통례이다. 즉 사회현상은 많은 사람의 의도·동기·목표에 따른 동질적 또는 이질적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계기적(繼起的)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복합작용을 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떤 행위자도 애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Vernon 1979, 59-67). 특히 정치적 조치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개입되기 때문에, 정치 행위자나 정부가 애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가 비일

인하는 것은 아니다(Godelier 1973, 337-38).

21)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역사에 있어서 필연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지극히 난해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의도되지 않았던 결과'의 문제를 상세히 고찰한 논문으로는 Vernon(1979, 57-73)을 참조하라.

비재하다. 따라서 집권엘리트 또는 일반 행위자의 의도를 벗어나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현상은 북한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표·가치·의도만을 준거틀로 삼는 내재적 접근법으로는 포착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고, 대개의 경우 외재적 접근법의 부가적 또는 보완적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다.²²⁾

행위자의 의도와 시각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또한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동기와 이유를 원용하는 프로이드류의 정신분석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데 무력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여하는 의도, 동기 및 목표는 많은 경우에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은 잠재의식적인 동기나 충동의 단순한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발견한 결론이다. 정신분석학의 이러한 통찰은 단순히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계급 또는 인간사회 일반으로 확대, 적용되어 '집단적인 잠재의식'의 범주도 인정한다. 이른바 마르크스주의가 지적하는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으로서의 이데올로기' 역시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과 입장을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한 결과 생성된 '전도된 의식(inverted consciousness)'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화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도움으로 그 이론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행위자들의 표면적인 의도·인식·목표 등을 살펴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러한 표면적인 의식의 배후에 깔린 잠재의식적인 동기나 충동도 아울러 고찰하여야 할 것인데 표면적인 현상을 중시하는 내재적 접근법이 후자의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이념·가치·목표 등의 추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신분석학이나 사회심리학 등 외재적 접근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북한 김일성체제하에서의 핵심 엘리트간의 권력투쟁

22) 강정구(1990, 26-33)가 북한연구에 있어 내재적 접근법 이외에도 '총체적 접근법', '역사 추상형 비교방법론', '역사적 접근법' 등을 제안한 것을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을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가치와 무관한, 심리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석은 “김일성가계 내의 권력투쟁을 3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서모-장자 간 갈등으로 묘사한” 유석렬의 논문을 인용한 다음에 그와 같은 서술을 가지고는 북한체제를 제대로 규명해 낼 수 없다고 비판한다(이종석 1990, 82). 필자도 유석렬의 분석에 대한 이종석의 이러한 비판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만약 김일성의 후처인 김성애가 자신의 친자인 김평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옹립하고자 고심하고 이로 인해 김정일 세력과 김성애 세력간에 심각한 권력다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가치를 중시하는 내재적 접근법보다는 정신분석학적 방법에 따라서 서모-장자간의 갈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북한체제를 분석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전반적 이해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종석의 비판에 필자는 공감하지만,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탈색하고 북한체제를 김일성 1인에게 절대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전제적인 왕권체제에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유석렬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서모-장자 간의 갈등이 북한체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이라고 주장할 법하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사회주의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입장과 가부장적인 전제적 왕권체제 또는 전체주의체제로 파악하는 입장 중 어느 견해가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데 더 적절한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상학적 방법은 현실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를 제시하며, 현상에 대한 이해가 구조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의식의 출발점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현상의 배후에 놓여 있는 구조의 발견과 설명이 구조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의식을 폐기하지는 못한다. 요컨대 구조는 현상의 역할과 결과를 수정할 수 있으나 불식하지는 못한다(Godelier 1973, 337-38). 그러나 구조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자의 의도·동기·목표와 독립하여 또는 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사회적 현상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한 현상은 종종 내부적인 행위자의 시각보다 외부적인 관찰자의 시각을

통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적절하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행위자--엘리트이건 일반 시민이건--의 시각(가치, 이념, 목표) 등을 중시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내재적-현상학적 접근법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 역시 구조적 분석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부수적 현상'이고 어떠한 현상이 '근본적 현상' 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나아가 북한연구와 관련하여 현상학적 접근법은 추가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상학적 접근법은 사회성원들이나 북한 당국이 선전목적상 발표하고 행동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고--가공된 선전이 창조하는 실재와 있는 그대로의 실재와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애로에 봉착한다. 더욱이 정치적 현실을 구성원들의 공유된 의식과 동일시하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극단적인 이론은 외양과 현실의 구분을 해체할 것이다. 따라서 이온죽의 현상학적 접근법 역시 외재적 접근법인 구조주의적 접근법이나 심리분석적인 접근법에 의하여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 북한사회의 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지향, 의미망 및 동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사회구성원의 의도와 예상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사회변화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결함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반면에 구조주의적 이론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현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없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적 이론은 사회성원들의 관념·목표·의도를 전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차적인 현상(epiphenomenon)으로 파악하고 독자적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는 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주의적 접근법 중 극단적인 이론은 사회구성원의 내면적 의식과 연관된 사회현상의 복잡성 및 애매함(ambiguity)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닌다.

III. 맺는말

지금까지 필자는 북한사회의 연구방법론으로서 대립적인 두 입장인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내재적 접근법이 그 '진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호관계의 일단(一端)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앞의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사회의 연구방법론으로서 각각 그 장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대립되는 방법론상의 전제에 입각해 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사회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이처럼 대립되는 방법론상의 전제를 필자는 내재적 접근법이 사회 '안'에 있는 행위자의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해 외재적 접근법은 사회 '밖'의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정리했다.²³⁾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을 각각 행위자의 입장과 관찰자의 입장으로 정리한 후에 필자는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북한연구에 있어서 외재적 접근법을 배격하고 내재적 접근법의 우월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태도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나 핏킨(Hanna F. Pitkin)이 사회현상의 인지 및 이해에 있어서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과 비슷한 학문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지적한 다음 구절을 인용하고자 노력했다: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건 이질적인 문화권 사이에서건] 행위(action)는 궁극적으로 이중적이며, 외부적인 관찰자가 볼 수 있는 것과 행위자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여기서 '안'과 '밖'이 비유적인 약어라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많은 사회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행위자와 관찰자가 일치된 입장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각자의 입장에 따른 해석이 빈번히 일치되지 않고, 종종 모순된다는 데 있다.

행위자 스스로 이해하는 바가 아니라 이중성이야말로 바로 행위를 구별짓는 것이다. 의도성(intentionality)이 아니라 이중성이야말로 사회과학 본연의 문제를 제기한다(Pitkin 1972, 261).

바로 이러한 이중성이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사회현상을 자연과학자의 탐구대상인 자연현상과 구별짓는 특징이며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 동일한 종류의 방법론을 채용하거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이다(Pitkin 1972, 240, 261). 인간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사회현상은 당연히 이러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모순적인 중층구조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와 사회이론가들은 단일의 일관된 현실(a single consistent reality)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두 입장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사회현상을 행위자와 관찰자의 두 입장에서 동시에 보아야 한다.²⁴⁾ 따라서 필자는 북한연구를 둘러싼 남한학계의 방법론 논쟁이 보여준 것처럼 이분법적인 대립의 경향을 확대재생산하기보다는 행위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내재적 접근법과 관찰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외재적 접근법이 복잡미묘한 대립과 보완의 상호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보여 주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북한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을 분석할 때는 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을 고집한 나머지 그와

24) 현실세계에서 우리는 통상 이 두 입장을 활용하여 우리의 행위와 타인의 행위를 본다. 다음과 같이 자기 행위에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행위를 놓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나는 이러한 의도에서 A라는 행위를 하는데 갑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B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병은 자기 말대로 A라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외양 뿐이고 실상은 B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많은 북한연구자들도 자신들이 의식하건 안하건 이러한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연구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방법론을 논의할 때,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개인적인 이데올로기상의 차이를 포함한--어느 한 입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견지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단지 부분적인 설득력을 가진 데 불과한 입장을 현실의 이해와 해석에 있어 거의 유일한 접근법인 양 완고하게 주장한다.

모순된 해석을 왜곡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이러한 두 입장에 따른 해석과 설명이 서로 어떻게 엮어져 복잡하고 중층적인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4-5년 사이에 급속하고 돌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사회주의체제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내재적 접근법의 적실성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적인 차원에서 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물론 이는 단순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내재적 접근법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재적 접근법에 입각해서도 사회주의권의 붕괴 원인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외재적 접근법 역시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만족스럽게 설명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돌발적인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통해서 사회주의체제의 바람직함과 필연적 도래를 전제로 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보적' 추동력이 급속하게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이 내재적 접근법의 효용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재적 접근법을 취하는 남한의 소장 북한연구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 수준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해 왔다고 생각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역사발전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며, 현존 사회주의국가들도,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어 왔다. 또한 이러한 신봉과 믿음의 바탕에는 사회주의사회가 그 이념과 논리에 있어서 자본주의사회보다 우월하며, 특히 자본주의체제가 표방, 추구했지만 그 체제의 물질적 토대의 속성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모든 가치들--자유, 평등, 풍요 등--을 훨씬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신념이 깔려 있었다. 더욱이 진보사관을 취할 경우 인류의 미래를 선점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가 자본주의사회보다 우월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이론의 과학성(사회주의 도래의 불가피성)과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강한 신념에 입각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체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외재적 접근법을 배제하고 내재적 접근법의 배타적 적실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²⁵⁾ 왜냐하면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이념은 필연적으로--계급의식과 계급투쟁이라는 역사에 있어서 주의주의적(主意主義的: voluntaristic) 요소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해석이 여하튼--역사에 실현될 것이며, 나아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가 자본주의-시민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표보다 도덕적인 차원--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의 소멸, 자유와 평등의 동시적 실현, 비이기적인 인간성의 실현,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한 풍요로운 생활의 보장--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고 굳게 믿는다면, 현존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를 적용하여 그 성과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최적인 방법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존의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진적인 사회주의의 이념에 따라--곧 외재적 접근법을 취하여--설명하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졌다. 자본주의체제가 필연적으로 더 바람직한 사회주의체제로 이행한다면 현재의 자본주의체제의 상황을 사회주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검토함으로써 자본제사회의 어떠한 측면이 역사의 진행을 가로 막고 있는지를 구명함으로써 그 이행과정을 앞당기거나 순탄하게 하는 작업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유럽의 봉건사회 말기를 자본제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반면에 사회주의의 전진에 따라 역사의 퇴영물이 될 것이 분명한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가치나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체제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마치 봉건시대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자본주의체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25) 반면에 전체주의적 접근법,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 산업사회론에 입각한 수렴론적 접근법을 취하는 외재적 접근론자들은 사회주의 이론의 과학성 또는 도덕적 우월성을 승인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논리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것처럼 당연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믿어졌다. 요컨대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사회를 설명하거나 현존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함에 있어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곧 단일한 잣대에 따라, 해석하는 태도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졌다.²⁶⁾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물론 이 논문에서는 내재적 접근법의 적실성의 위기로 표현된다--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체제경쟁을 함에 있어 물질적 생산력을 포함한 여타 영역에서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해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 잠재되어 있었고, 사회주의 이념이 명실상부하게 역사상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존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붕괴와 목하 진행중인 개혁의 방향이 사회주의 이념과 실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현실화되었다.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이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보다는 경제발전, 산업화, 사회복지, 사회경제적 평등 등의 분야에서 우월한 업적을 성취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비교하는 준거틀로서 삼은 대상은 단순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상태로부터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이 아니라 서방의 선진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국가였다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사회 복지제도나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에서 일면 우월한 업적을 성취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밖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훨씬 미흡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대체로 평가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엘리트는 물론 인민 대중들이 서방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점차 시인하게 되

26) 하지만 사회주의이론의 과학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곧바로 내재적 접근법만이 올바른 접근법으로 판명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시각을 거부하고 봉건사회를 그 사회 나름의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듯이, 자본주의사회에도 자본주의적 시각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었다. 그 결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사회주의권 내부에서 스스로 부식되어 갔으며, 이는 사회주의권이 체제 내부로부터 붕괴되어갔다 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위기 이외에도 마르크스주의의 탄생 직후부터 사회주의 이념의 과학성, 곧 사회주의의 필연적 도래여부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마르크스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간에 전개된 사회주의의 실천전략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기회의를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실현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실천전략에 대한 논쟁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신념은 표면상 유지되고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혁명의 성공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확산은--선진 자본주의국가인 서구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지 못한 사실로 인한 이론상의 불안감(과 실현된 사회주의체제가 그 내용에 있어서 기대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사회주의의 실천에 대한 신념을 그런대로 광범위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등장 이후에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실현된 사회주의체제의 이념 부정합성과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혁명의 불발 및 그 반대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체제의 변영, 다른 한편, 최근 사회주의권의 돌연한 붕괴와 뒤따른 개혁이 시장경제 및 다원주의적 정치형태를 지향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이념이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으로서, 곧 '진보적' 이념으로서 역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의 바람직함은 여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게 느껴질 때, 대중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 이념의 현실적인 호소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주의의 실천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현 시점에서, 자본주의체제를 사회주의의 이념과 실천에 입각하여 비판하는 작업 역시 과거와는 달리 '존재하지도 않은 유토피아'를 전제로 하여 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설득력이 없는 '말의 잔치'로 느껴진다.²⁷⁾ 비슷하게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북한체제라 할지라도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에 따라 분석하고 설명하는 태도 역시 이념의 '현실정합성' 또는 현실의 '이념정합성'의 차원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즉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느껴질수록,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사회주의체제를 설명하는 것 역시 그 적실성이 약해지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마치 연금술(鍊金術)로 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된 후에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연금술로 금을 만들 수 있다고 고집하고, 그 결과 나온 금과 유사한 물질을 금이라고 우기는 경우, 관찰자 역시 행위자의 의도와 목표에 따라 연금술을 통해서 금을 만드는 작업이 어떻게 관철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태도이다. 오히려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수성을 강조하지 말고 그 이데올로기의 보편적 측면에 착목하여,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후발국의 근대화 내지 산업화의 중요한 대안적 전략으로 보는 것과 같은 외재적 접근법이 더욱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연금술의 역사를 행위자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화학의 발전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²⁸⁾

27) 사회주의의 도덕적 우월성 및 실천적 전망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시민민주주의의 가치에 따라 비판하는--종래 냉전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생각되던--외재적 접근법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기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다원주의 지향으로 치닫는 개혁의 방향은 이러한 외재적 접근법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28) 이 비유에 함축된 바와 같이 필자는 연금술을 통해서 행위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어쩌면 '금'의 제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화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사실을 인정하며,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의 실험 역시 소중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실패를 '위대한' 실패로 만드는 작업은 역사의 진보를 믿는 자들에게 남겨진 몫이다. 소진되어가는 사회주의 이념과 운동의 진보적 추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또하나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위치로 밀어낼 수 있는 새롭게 혁신된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 때 내제적 접근법은 새로운 생명력을 되찾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글문헌

- 강정구. 1990. “연구 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
 까?”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 11-37. 서울: 을유문화사.
- 강정인. 1992. “북한사회의 평등성.” 『동아연구』 제24집, 111-151. 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강정인. 1993. “북한 연구방법론: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 1-54. 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고병철. 1990. “주체사상의 형성과 사상 체계 분석.” 최명(1990), 87-111.
- 김용기. 1987. “계급의 불명등구조와 계급정책.”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
 화』, 187-218.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서대숙. 1990. “정권수립과 변천과정” 최명 (1990), 57-86.
- 서재진. 1991. “북한사회 계급구조의 재편과 사회변동.”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
 망』, 575-617.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송두울. 1988.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2월), 104-16.
- 안병영. 1982. 『현대공산주의연구』. 서울: 한길사.
- 양호민. 1987. “3대혁명의 원류와 전개.”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1』, 143-87.
 서울: 한울.
- 이상우. 1988. “김일성 체제의 특질.” 이상우 외. 『북한 40년』, 11-30. 서울: 을유문
 화사.
- 이온죽. 1988.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용필. 1990. “주체사상과 그 기능.”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102-41. 서울: 을유
 문화사.
- 이종석. 1990. “북한연구방법론,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 (가을), 75-98.
- 전인영. 1990. “주체사상의 형성배경과 이론체계.”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65-101. 서울: 을유문화사.

조광동. 1991. 『더디가도 사람 생각하지요』. 서울: 지리산.

최명 편. 1990. 『북한 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스테판 화이트·존 가드너·조오지 셰플린저. 서규선·박재주 옮김. 1989. 『공산주의 정치체계』. 서울: 인간사랑.

영어문헌

- Geras, Norman. 1973. "Marx and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bin Blackburn, ed. Ideology in Social Science, 284-305. New York: Random House.
- Giddens, Anthony. 1986. "Action, Subjectivity and the Constitution of Meaning." Social Research 53:3 (Autumn), 529-45.
- Godelier, Maurice. 1973.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Capital*." Robin Blackburn, ed. Ideology in Social Science, 334-68. New York: Random House.
- Pitkin, Hanna F. 1972. Wittgenstein and Justice.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weezy, Paul M. 1980. Post-Revolutionary Societ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Tucker, Robert C., ed. 1978. The Marx-Engels Reader. Secon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Vernon, Richard. 1979. "Unintended Consequences." Political Theory 7:1 (February), 57-73.

北韓의 經濟改革과 作業組織과의 關係

研究責任者 : 李 殷 珍(慶南大學校)

목 차

<요약문>

I. 서 론	7
1. 문제제기	72
2. 연구의 방법과 기존 문헌검토	74
3. 북한의 사회주의 생산이론	77
4. 헝가리연구에서 나온 연구방법론	79
II. 노동자의 자발성	84
1.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	85
2. 독립채산제	90
3. 노동강도의 강화	93
4. 당 일군을 통한 대중동원	99
5. 사회주의 이념	102
6. 자력갱생의 원칙	112
III. 기술혁신	115
1. 연합기업소와 계약제도	120
2. 공장당위원회의 역할	126
3. 노동자의 정치적 동원	135
4. 가용 노동력의 증대	136
IV. 결 론: 사회주의적 작업방식과 경제발전의 전략	138
참고문헌	144

北韓의 經濟改革과 作業組織과의 關係

李 殷 珍 (慶南大, 社會學)

<요 약 문>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함께, 북한에서도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즉 주체사상이나 유일 지도이념의 관리체계에서, 주체경제의 관리체계 혹은 '균중노선에 의한 관리체계'로의 變身을 꾀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舍營法을 도입하고 경제특구를 설정하는 등의 부분적인 개방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止揚, 정치적인 측면에서 마찰을 빚어 오긴 했지만 일부 소비재 부문에서의 경쟁에 의한 能率 報償制度의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개혁을 작업조직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즉 작업조직의 무엇이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야기되는가를 확정하려는 시도이다. 문제의 근원은 분명히 노동자들의 생산현장에서의 자발성의 부족과 기술 혁신의 지체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 독립채산제, 당의 일군을 통한 대중동원, 생산단위의 대규모화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자력갱생원칙을 갖는 폐쇄경제체제의 옹호, 공장지배인과 기사장에 대한 공장당위원회의 우위, 생산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일, 성인인구의 계속되는 노동력 유입 등은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글은 근로자 잡지(1990년과 1991년), 노동신문(1990-1993년 6월중 8개월간)까지의 기사를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식은 기사내용을 내용대로 분석하는 교과서 분석과, 이들의 내용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평가하는 문맥분석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문맥분석에서는 중국과 헝가리 등 이미 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분석한 글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1) 노동자들의 자발성의 문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 아직 사회주의 노동보수제를 통하여 능률급의 도입을 과거보다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

지는 도덕적인 자극을 물질적인 자극보다는 강조하고 있어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몇가지의 현실분석에서는 이미 현물평가제가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이 밝혀 졌다.

즉 독립채산제가 근로자들의 본위주의와 이기주의를 조장시킨다고 주장하면서도 생산을 자극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생산자들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물질적 자극을 받도록' 개인적인 단위, 작업조단위, 공장단위, 연합소단위에서 차별적인 임금을 생활비, 장려금, 상금의 명목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권한이 공장당위원회에 있고, 당의 일군들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상황에서는 경영상의 기여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즉 표현에 따르면, 국가, 연합소, 공장, 조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공정한 분배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혁신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겉으로는 1956년의 천리마 운동을 편 것처럼 자력갱생의 원칙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력갱생의 주요 방식은 기술혁신을 강조하기 보다는 노동력의 집중적 투입과 노동시간의 연장과 같은 노동강화로서 이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 1월 10일 노동당 중앙위에서 생산성 향상과 절약을 위해 「全人民突擊」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에서 나타난다. 김일성도 신년사에서 증산, 절약 투쟁을 위해 「전군중적 운동」과 「속도창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운동의 제안은 대부분 과거의 방식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그 원인과 처방이, 적어도 그들의 공식적인 표현에서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주로 소위 '당 일군을 통한 대중동원'이라는 방식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노동력동원방식이 되고 있음에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군들이 생산 현장에 들어가 생산노동자들과 같이 생활하여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여 운동을 하는 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자발성이라는 것이 아직도 당의 일군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반증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1960년대의 '대안의 사업체계'가 형식주의, 관료주의, 기관중심주의(사무실과 문서놀음)를 타파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면 최근의 운동은 주로 노동자들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그 자발성은 스

스로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보다는 당의 일군에 의하여 선동되거나, 이끌려 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자발성이다. 따라서, 생산노동자들의 조직이라고 생각되는 공장 직맹위원회도 여전히 당의 의사를 하향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아니면 당의 의사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곧 노동자들의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여 그 문제를 풀어 자발성을 고양시키려는 것보다는 지도된 자발성, 또는 강요된 자발성을 고양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노동자들은 군중토의에서 그들의 작업조건의 애로나 분배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성의 고양을 주된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노동력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분업적인 효율과 경영상의 문제해결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한다'는 논리를 아직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모자라는 것은 찾아 내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용감하게'라고 강조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즉 문제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상의 문제에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공장내에서만 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도의 노력수요는 도안의 노력원천으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드러나듯이 지나친 자력갱생적 폐쇄경제적인 원칙은 국가단위 내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서 오히려 효율성의 저해와 국민경제 영역의 분할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의 효율성 증대라는 것은 구호에서만 맴돌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연합기업소를 하나의 완전한 체계로 만들고, 즉 과거의 국가의 지도하에 물자의 수송을 맡았던 단위가 이제는 연합소 단위로 넘어가고 있어 단위경제의 조정의 해결을 단위를 키움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연합기업소간의 계약제도를 통하여 생산단위간의 교환문제를 국가의 주도가 아닌 연합소주도 또는 어느 정도의 시장체제에 맡기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을 주인으로 만든다고 하여도, 또는 대중이 설비관리의 담당자라고 주장하여도, 이는 사회주의의 이념적인 요소만 고려한 구호에서 나타나고, 현실적으로는 노동자 개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는 체제에서 생존전략을 짜나가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2) 기술혁신의 과제: 북한은 기술혁신의 개념을 각 작업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장 단위에서의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대규모의 기술혁신을 이루는 방식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연합기업소 형식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독립채산제 하에서의 작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물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공장당위원회의 요구를 경영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투자를 위한 기금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합기업소 자체가 서로에게 경쟁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북한 국민경제 내에서의 제한된 경쟁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이 유발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공장당위원회의 역할이 다시 부각된다. 즉 공장당위원회는 주로 노동력의 효율적인 동원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에 지배인이나 기사장은 기술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장당위원회는 여전히 공장운영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의 기술혁신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공장의 조직에서 당공장 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 한 기술혁신이 어려워리라는 것이다. 공장당위원회는 노력동원을 통한 또는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한 생산성향상을 30년이상 강조해온 상황에서 그들의 변신은 곧 정치적 및 물질적인 기득권을 상당부분, 공장의 지배인이나 기사장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생산에 이용되지 못한 노동시간의 분석에서도 노동자들이 게을러서라기 보다는 공장내의 기술적인 조건이나 외부적인 원인이 10배이상 중요한 현실에서, 사회주의적 사상교육을 통한 노동력의 동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찾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다.

한정된 기술 속에서는 물론 노동조직을 개선하여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의 제고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생산외적인 동원의 억제, 생산외적인 정치적인 규율이 노동자들의 생산적인 규율보다 앞서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경우 노동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작업시간의 개선으로 표현되는 출퇴근질서, 작업교대규율, 노동시간 이용규율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로자잡지에 30년이상 지적되는 작업시간 엄수의 주장이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치적인 고려가 경제적인 생산의 고려보다도 아직 앞서고 있다는 것은 반증하고 있다. 이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생산노력을 마

음대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 일'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구학적으로 노동연령층이 계속 노동력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는 노동력의 동원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타당한 선택으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작업조직의 변화와의 관계

1. 서론

1. 문제 제기

북한은 1980년대에 이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방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지향, 산업간 불균형 조정, 경쟁에 의한 능률보상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개방화로서 시도된 합영법의 도입, 경제특구의 설정은 그 실적은 미미했고, 산업간 불균형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군비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공업에 치중하기 위한 군수산업 등의 중공업의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경쟁에 의한 능률보상제도를 일부 소비재 생산부문에서 능력별 임금제의 형태로 실시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 마찰을 빚어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부분적인 경제개방과 동시에, 1956년 천리마 운동을 편 것처럼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급자족(autarchy)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이 1990년 1월 10일 노동당중앙위에서 생산성 향상과 절약을 위해 「全人民 突擊」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에서 드러난다. 또한 김일성도 신년사에서 1990년도 주력방향을 석탄, 전력, 철강재 증산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증산, 절약 투쟁의 「전군중적 운동」과 「속도창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에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생산요소중의 기술과 노동의 측면에서 원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즉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김우중(대우 그룹 회장)은, “단지 어느 공장에서는 한가지만 알면 열가지 문제를 풀수 있는데 그 한가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기

도 했다”(동아일보, 1992년 1월 27일)고 한다. 이는 핵심적인 기술 몇가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 북한 노동당 중앙위가 결정한 「全人民突擊」운동에 대한 한 신문(서울경제신문, 1990년 1월 30일)의 사설에서도 나타난다. 즉 북한이 전개하려고 하는 생산성 향상운동을 노동력의 집중적 투입과 노동시간의 연장과 같은 노동강화로써 이루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기술혁신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점을 비판한다.

또는 문제의 원인을 매우 애매하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에서 구하기도 한다. 이를 김우중은 “한편 경공업은 원가개념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비해 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사설에서는 “사실 경쟁이 없고 이윤동기가 없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생산성의 향상이란 좀처럼 바라기 어려운 것일 수 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장훈(기자)은 국제정세가 신데탕트시대로 접어 들은 점과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노력동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개혁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1990년 1월 12일, “북한경제, 심각한 딜레마” 한국일보).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경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우리의 시각에서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북한의 연구는 북한경제의 성격과 발전을 규정하는 개별요소들이 어떠한 방법과 형상으로 자신의 과거를 사회주의적으로 구성해 왔고, 현재 무엇을 가지고 경제발전의 주체형의 구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래의 여러 변화가능성 중 어떤 부분을 주요한 측면으로 드러낼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경제개혁의 중요과제로 등장한 작업조직의 개편에서는 생산관계를 중핵으로 설정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계와 소유형태의 변화, 경제관리 메카니즘과 경제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즉 근로자 자주관리의 내포와 외연의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 짐으로써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권에서의 경제의 애로를 노동자의 근로의욕의 저하로 진단하고 그 원인을 사회주의에서의 노동의 특성, 노동조직의 특성, 임금제도의 특성과 실제운영, 노동동기부여에서의 사회주의 이념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최근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경제개혁도 결국은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시행착오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전통적 소련식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던 중앙집권적 행정명령식 경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고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유형태의 다양화(국공유 및 사유)와 함께 국가 전담식의 관리체계에서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체제개혁은 아직까지는 찾아 볼 수 없지만, 주체사상이나 유일지도 이념아래 초기고전 소련식 모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관리체계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에 맞는 경제관리 체계, 즉 주체의 경제관리체계 혹은 군중노선에 의한 관리체계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변신하려고 노력하여 왔다(이태욱, 1992: 35)고 평가된다.

2. 연구 방법과 기존 문헌의 검토

가. 국내외 연구동향

북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메카니즘 및 경제운영 방식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 예를 들면 민족통일연구원의 제 1회 국제학술회의(1991년 10월)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전망”에서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온 근로의욕의 저하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루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로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정치적 통제, 경제의 행정적 관리와 작동방식, 그로 인한 경제의 정치에로의 종속, 중앙집권적 관료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지 1990년 1월 29일자에 실린, 포스터-카터 교수(영국의 리즈대학 교수)의 “동구의 변화 - 김일성에 충격” (동아일보, 90년 1월 30일자에서 재인용)에서도 드러난다. “경제가 초기의 활력을 잃은지는 오래 되었다. 20년의 정체로 인해 통제 경제체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다.” 같은 맥락에서 포린 어페어스, 1990년 2월호에 실린 로버트 스칼라피노교수(버클리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장)의 “아시아와 미국 - 다가오는 도전들” (조선일보, 1990년 2월 11일자에서 재인용)에서도 “그같은 (북한과 한국과의 경제력 -

인용자 첨가) 격차는 북한이 낡은 스탈린주의 경제전략에 집착하면서 극히 과다한 군사비용을 지출해온 결과이다”라고 지적한다. 다시말해 경제관리에 있어서 물질적 유인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수단과 정치적 동원에 역점을 둔다는 경제적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핵심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경제구조의 개선과 주민생활의 향상, 경제관리체계의 개혁 등을 경제개방을 통하여 추구함으로써 낙후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경제발전은 효율성의 증대와 기술개발을 통해서만 추동되는 것이다(정상훈, 1986; 황태연, 1989)라는 견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는 북한의 자립경제노선은 과학기술 혁명의 창조적 성과를 수용할 수 없다(황태연, 1989)고 하는 비관적인 견해까지 도출되는 것이다. 박형준과 김태영의 논문(1992)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노동의 문제는 기껏해야 한 인구학자가 분석한 “특히 60-74년간 출생한 인구가 노동력으로 진입했고 또 계속 진입하고 있어 이들의 훈련과 산업에의 적정배치가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상태, 1991: 43)는 정도의 견해가 전부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작업의 핵심이자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노동자의 작업동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연구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자료

매월 간행되는 근로자 1990-1991년, 일간으로 발행되는 노동신문 1990년 1월, 1991년 1월, 1992년 3월, 1993년 1-4월, 6월의 8개월치가 분석되었다. 두가지 잡지와 신문이 모두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 당의 역할이 주로 다루어 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기사는 주로 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는 당의 방침을 홍보 내지 잘 알려지는 데 주된 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당의 역할을 현실의 기능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당이 아닌 다른 행위자의 역할이나 제도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결국 북한 정치 경제의 운용에서의 당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이며 모든 문제가 당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

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경제체제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당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부수적으로 연구의 방법론은 헝가리를 연구한 학자들의 글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으며,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과정은 주로 중국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분석하였다.

다. 연구의 방법론

연구의 방법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점을 보일 것이다.

(1) 일련의 경제개혁의 조치속에서 나타난 작업조직의 변화를 1) 경제개혁의 사회경제적, 주체적 필요성, 2) 그것의 전개과정, 영향, 그리고 파생된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구조의 성격변화(고현욱, 1987)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한다.

(2) 작업조직의 설계에서 나타나는 중앙계획과 노동자조직간의 관계, 물질적 유인과 도덕적 유인과의 관계의 상보적 과정과 중층적 실현과정을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구성하여 설명한다.

(3) 북한의 소비와 축적, 계획과 시장, 집권화와 분권화, 지도와 대중노선, 물질적 관심과 도덕적 자극 등의 상호 대립적인 양범주간의 결합의 논리를 분석한다(배합이론의 내적 양의성과 그것의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지적하는 연구는 사카이 다카이, 1990).

라. 예상효과

사회주의적인 작업조직과 자본주의적인 생산조직의 차이와 유사점을 밝힘으로써 이론적인 차원의 논의와 실제적인 차원의 논의를 구분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작업방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과정의 논의를 사회주의권까지 포괄하는 수준으로 비약하게 된다.

3. 북한의 사회주의 생산이론

북한에서의 생산이론은 최근에 상당한 정도의 경영기법을 동원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계획된 생산량만 채우는 식의 생산에 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표현된다. 김덕윤(1990)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법에는 i.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방법과 ii. 노력자수를 늘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노동생산능률을 끊임 없이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전제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즉 노동생산능률이란 “일정한 생산물 생산 또는 작업수행에 지출된 사람들의 로동의 효과성”을 의미한다. 이 때, 노동생산능률은 물질적 부의 생산에 지출된 로동과 그 결과에서 얻어지는 생산물 사이의 량적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노동생산능률을 높인다는 것은 i. 단위 노동시간에 종전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ii.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종전보다 적은 노동시간을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김일성 저작집, 13권: 450)도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i. 기술의 발전, ii. 생산조직의 개선, iii. 일하는 사람의 기술기능과 사상의식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덕윤도 i. 생산의 필수적 요소를 이루는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ii. 기계설비들의 성능과 생산성을 높이며, iii. 생산기술공정들사이, 생산의 순차적 공정에 따르는 기계설비들 사이의 능력상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생산능률 향상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노동생산능률을 올리는 것이 왜 사회에 유용한지도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생산목표량의 달성이란 과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으나 이제는 계획경제의 사회에서도 효율성의 개념이 도입되는 것을 이념적으로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김덕윤은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 것은 생산적 투자를 늘이기 위한 축적의 원천이 되는 사회 순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사회 순소득은 i. 생산을 확대하고, ii. 사회문화시설을 건설하며, iii. 물자에비를 조성하는 데 씌여지는 것으로 합리화한다. 이 때 확대된 생산은 결국 생산 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생산자들의 노력보수를 지불하는 데 쓰이

기 위한 것이다.

생산에서 능률의 도입은 결국 새로운 조직의 발전과 지표의 개발로 나타난다. 김하광(1991)은 경제조직사업은 사람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짜고 들며, 그에 필요한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경영활동의 과학화, 합리화 정도는 중요하게 원가, 수익성을 비롯한 경제적 지표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경영활동의 질적 상태를 일정한 범위에서 개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특히 벌금, 위약금, 연체료, 작업휴지 손실 그리고 용도에 맞지 않는 자재의 구입과 같은 비생산적 지출과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방법으로 계량계측제도를 바로 세울 것을 제시한다. 기준화사업과 독립채산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 효과성을 차요시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낡은 사업기풍을 철저히 없앨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용설(1991)은 보다 구체적으로 경영활동 분석을 제안한다. 이 때 경영활동분석이란 “기업관리운영 정형을 수자 자료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내부예비를 찾아내고, 그것을 동원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과학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업소 경영활동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생산조직, 노력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가 포함된다. 또한 경제적 지표로서 노동생산능력성장, 생산물의 원가, 고정재산의 이용, 원단위 소비기준이 설정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법으로 생산계획수행정형, 자재공급 및 이용정형, 생산물 원가, 재정계획수행정형, 기업소재정상태, 연쇄식 분해법과 상관분석법을 비롯한 분석수법과 현대수학적 수법, 전자계산기를 받아들여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기업소나 공장 내에 원가검토 회의, 재정검열위원회, 결산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곧바로 실행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본격적인 경영계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헝가리연구에서 나온 연구방법론

사회주의 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헝가리에 대한 논문들을 검토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개혁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고 성공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예로 들어 북한의 정책을 분석하려고 한다.

Stark(1985)은 주로 행위자들간의 관계에서 정책이 형성되어 나온 것으로 파악한다. 즉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에서 정책의 형성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헝가리에서 1982년 1월부터 시작된 작업 파트너십을 작업장의 경영자와 노동자들간의 협상과 교섭의 산물로서 보는 것이다. 이 제도는 양측이 공장내에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추가로 가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동기화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같은 내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공장내 정치의 새로운 교섭기술의 장과 새로운 어려움을 만들어 냈다.

또한 작업 파트너십제도는 헝가리 사회전체의 연합과 갈등의 정치적인 산물이다. 특히 개혁주도 정치적인 세력과 개혁을 반대해온 핵심 산업노동자들의 전략적인 집단과의 새로운 연합의 산물이다. 즉 작업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개혁의 전체적인 정치와 공장내의 정치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그 의미가 파악된다.

Burawoy(1985)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을 생산정치와 국가정치가 합쳐져 있는 데에서 구하고 있다. 이러한 합침은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다. 즉 밑으로부터는 집합적인 자율경영체제이고, 위로부터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사회주의체제를 중앙에서 재화와 용역을 배분하는 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상호교환과 정치적인 전제는 상호 합치되면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와 노동자 경영체제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국가사회주의는 잉여를 중앙에서 수취하며 따라서 코르나이의 용어에 따르면, '강성 재무' 제약을 받게된다. 국가사회주의는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한다. 따라서 계획에 대한 협상이 행해진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 단독으로 또는 경영자들의 묵인아래, 流用하거나 생산량에 대한 제약이 행해진다.

생산관계가 생산과정의 동학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공급의 제약과 중앙 계획자에 의한 공급의 결정은 노동과정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나, 고용수준의 불확실성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공급이 불규칙적인 경우에 생산과정의 시간적인 순서를 지속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또한 공급품의 형태와 질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작업의 제조정과 기계의 제조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Stark(1985)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조직은 중앙계획자, 기업소의 경영자, 노동자들간의 끊임 없는 협상과정의 산물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매우 단정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는 과다한 자본의 사내유보와 노동력의 부족'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이영와 부족도, 압축적으로 중앙계획자와 기업경영자와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문제는 결국 공장내에서의 노동자의 교섭력과 제2경제의 기반을 이룬다. 세 행위자는 다른 양자의 갈등을 유발시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율성을 확립하려고 시도한다. 여기에서의 가정은 모든 행위자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자와 노동자는 중앙계획자의 불확실한 부과에 맞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원을 과다하게 비축한다.

또한 중앙계획의 변동에 의하여 야기되기도 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는 공급 제약은 노동과정의 끊임 없는 제조정을 야기한다. 작업구조의 유동성과 기계사이에 노동자들을 재배치해야하는 끊임 없는 요구는 생산을 탈속련화하는(구상와 실행을 분리시키는 데)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다른 표현으로하면 과학적 관리의 어려움이 야기된다. Stark(1985)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한다. (1)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알수 없는 일은 위에서 부과되는 계획목표이다. 가끔 이러한 목표는 계획기간의 중간에 갑자기 바뀐다. 동시에 경영자는 체계에 내재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린다. 동시에 가장 분명한 불확실성은 "부풀기" 원칙에 사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계획 목표를 성공하면 할 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량의 계획목표가 할당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의 실제성과에 근거해서 미래의 목표가 책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경영자들은 자본주의의 갯수당임금 노동자들이 취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즉 생산량을 속이고, 생산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생산물을 숨기고, 기업경영자 상호간에 서로 속도경쟁을 하지 않기 위하여 비공식

적 한계량을 정한다. 각각의 경영자들은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나, 동시에 다음의 높은 불확실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가능한 양을 유보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보량을 숨기고, 투자 자금의 최소량을 과장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경영자들은 저사용된 자원을 보유하도록 장려된다.

동시에 경영자들은 실제 필요한 량보다 더 많은 량의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많은 노동자들은 공급부족에 따른 지연이나 목표의 변동에 따른 유효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유보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은 갑자기 물려드는 수요에 대비하여 충분한 노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내부에 유보된 자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아마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일 것이다.

경영자들이 더 많은 노동자들을 확보하려는 열망은 그들의 기본 봉급과 보너스가 그들이 관리하는 임금기금의 규모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더 강화된다.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록, 중앙권력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조금을 위한 협상에서 '정치적인 자본'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즉 계획은 노동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엄격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낸다.

즉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은 노동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서 생긴 인구학적인 요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실은 서구보다는 동구가 참여율이 높다. 노동과 같은 자원의 부족은 경제적인 의미에서와 같이 물리적인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차라리 주어진 자원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즉 자원의 부족과 과잉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는 자원은 저사용되면서 낭비되고 동시에 부족한 것이다. 노동의 경우에도 그렇다.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력 부족을 말할 때, 기업에서는 덜 사용된 형태의 잉여노동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업이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인 것이라면, 노동력 부족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항상적인 것이다.

(2) 노동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은 분명히 노동자들에게는 경영자들과 협상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준다. 즉 한가지 방식은 회사를 그만두는 전략이다. 즉 임금이 높고 보너스가 많은 일로, 그리고 생산할 당이 적은 좋은 직업으로 옮길려고 위협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노동자들은 이런 면에서 성공한다. 즉 조사에 의하면, 직업을 옮기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 졌다.

노동규범의 정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경영자들은 시간연구를 주장하며, 중앙계획자들은 미리정해진 시간가치에 따른 추상적 행동연구를 주장한다. 경영자들의 시간연구는 노동자들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공장마다, 기업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임의적이며, 갈등적이며, 다툼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지방노동시장의 엄격한 조건에 맞추어 더 많은 통제력을 준다.

노동기준을 정하는 것은 또한 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작업성과를 측정하는 것 보다는 임금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노동기준은 규범을 강제하려는 것보다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영자들의 전략이다. 노동자들은 엄격한 노동시장, 기업의 어려움, 그리고 경영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의 협조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공장에서 일상적인 협상과 교섭의 감추어진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임금기금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경영자의 능력에 한계를 제공하지만 노동자들은 또 다른 수단이 있다. 즉 제 2경제에서 일하는 것이다. 제 2경제가 성장하는 요인중에 하나는 노동자들이 제 2경제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경영자들도 임금을 올리거나 노동규범을 내리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 2경제의 존재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협조를 얻어 내는데 경영자들에게 유리하다. 경영자들은 오히려 공급 부족이 생겼을 때 제 2경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론 경영자들의 제 2경제에 대한 의존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에 노력을 절약하려 함으로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관점에서는 정규적인 일과 제 2경제에서의 일은 서로 다른 계산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적인 일은 보장된 고용, 연금, 사회보장비용을 가져오고 제 2경제의 일은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 노동자들은 어느 일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저울질한다. 경영자들은 기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유보하지만, 노동자들은 생산에서 노동을 유보한다. 노동조직의 수준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모순은 생산수단은 사회화되어 있는 반면(국가통제에 있는 반면),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은 아직도 직접생산자의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노동력을 노동으로 바꾸어야 하는 큰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셈이다.

경영자로서는 두가지 선택이 있다. 즉 노동자들, 특히 핵심노동자들의 협조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있다. 다른 하나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주변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경우는 그렇다. 동시에 같은 방식을 쓸 수도 있다. 즉 주변적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강압하고, 핵심적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의 정도가 외연적인 축적의 시기이냐 아니면 내포적인 발전의 시기인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것이다. 내포적인 발전은 노동력의 부족에서부터 시작한다. 중앙집권적인 계획에서 분권화된다는 것은 수직적인 명령체계의 완화를 의미하지만 반면에 수평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당의 개입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II. 노동자의 자발성

북한 경제가 실패한 또는 어려움에 직면한 원인으로서 거시적인 이유와 작업조직 내부의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시적인 이유로는 체제유지의 속성과 비용을 들고, 작업조직내부의 문제로는 노동자의 자발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기술혁신의 실패를 들고 있다.

McCormack(1993)은 북한의 80년대의 발전 전략이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즉 80년대 속도운동은 별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인민은 지쳐있고, 기계는 낡아있고, 중앙지시의 계획은 융통성과 소비자 피드백의 기제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1980년대의 북한의 경제동력이 느려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로 세가지를 든다. (1) 북한의 자립경제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상 소련의 원조에 의거한 모델이었다. 따라서 원조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립경제 모델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2) 군사관련 산업으로의 항상적인 자원 이전은 결국 사회적인 수요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냉전의 해소와 이에 따른 자원의 적정배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3) 정치적인 대규모 동원체제와 종교적인 지도방식은 경제비용을 가중시켰다. 체제유지가 중앙계획적인 방식과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대중동원에 의존한다면 경제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병인(1992)은 작업조직내부에서 특히 근로자들이 열성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8월 28일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묘사하면서 현장의 근로자들이 매우 열성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근로자들에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책임지려는 립장이 바로 서 있지 않은 문제, 어깨를 들이밀지 않고 아글타글 애쓰지 않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당의 일군들과 기술자들도 잘 움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조직정치사업을 벌였으나 “이 문제는 좀처럼 잘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상 사회주의 이념이 투철하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었다. 즉 “모든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달라 붙는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1.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

김하광(1990)은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를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 노동의 질과 량에 따라 그들에게 보수를 주는 제도”로 정의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매개 근로자들이 지출한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일한 것만큼, 번 것 만큼 보수가 차례지게 하는 사회주의적 보수제도인 것이다.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주의의 과도적인 성격이 반영된 제도이다. i. 우선, 아직 생산력이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 못한 점을 든다. 따라서 일정한 분배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기준은 지출한 노동의 양과 질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하에서는, 일한 것만큼, 번 것 만큼 보수를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ii. 둘째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공업노동과 농업노동, 증노동과 경노동을 비롯하여 노동에서의 차이가 남아 있다. 즉 노동력의 지출과 노동강도, 노동의 숙련정도와 노동조건 그리고 노동의 질적 수준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 셋째로, 사람들의 머리 속에 적게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으려는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어 완전한 공산주의적인 분배는 실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노동은 아직 생활상 제일차적 요구로 되지 못하고 생활상 수단으로 된다. 따라서, 개인적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다. 즉 놀고 먹으며 남의 등에 붙어 살려 하거나 일을 적게하고 보수를 많이 받으려는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같은 “과도기적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각과 도덕적 의무감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만으로는 근로자들을 발동할 수는 없으며 물질적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 방법으로는 노동정량을 제정하고, 생활비등급과 노력일 평가 기준을 바로 정하고, 여러가지 노동보수 지불형태와 방법을 옹계 적용가능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술경제적 기준을 옹바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근로자들의 노동능력, 기계설비들의 상태, 도달된 과학기술수준, 노동실적 등을 옹바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보수제를 주장하면서도 극복하여야 할 두가지 편향을 지적한다. i. 그 하나가 노동에 대한 보수에서의 평균주의이다. 근로자들이 수행한 노동

의 양과 질에는 관계없이 무원칙하게 다 같은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주의는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열의를 떨어 뜨릴 수 있으며 쉽고 험한 일만 하려는 경향을 낳게 되고 사회에 놓고 먹는 건달꾼이 생겨나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ii. 노동에 대한 보수에서 지나친 차이를 두는 것도 경계한다. 다만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가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 자극이란 근로자들의 생산결과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평가하여 주어 그들이 생산열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시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보수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특히 평가에서 고려하는 사항이 주로 무엇인가에 따라 실제의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현재까지의 정보는 북한의 공장에서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보수제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기록은 거의 없다.

북한에서도 직업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북한 편집부(1972)는 북한의 직업들의 보수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직업별 월수입 (\$1.00 = 2.36원)

구분	직업	봉급
정당 및 사회단체	相 級	250원
	副相級	170
	군당인민위원장	100
	군당 지도원	50
	職盟 위원장	60
	職盟 지도원	40
	社勞靑 위원장	50

	社勞靑 지도원	35
	女盟 위원장	40
	구락부 주임	50
<hr/>		
교직원	대학교수	150-190원
	고등기술학교 교원	95-110
	기술학교 교원	90- 95
	중등교원	80- 90
	인민학교 교원	40- 70
<hr/>		
노동자 및 사무원	3급	39원
	4급	52
	5급	68
	6급	84
	7급	103
	8급	109
	지배인	184원
	부지배인	92
	기사장	157
	부기사장	105
	部長	65
	필기원	52
	사무원	47

교원봉급 평균 40%인상 (69년 10월), 노동자 사무원 봉급 평균 31.5%인상(70년 9월 1일)을 概算한 수치임.

그간 북한을 다녀온 수행원 및 기자들이 단편적으로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추상하여 작성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소득이 작업의 생산성과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일본의 경제인들이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임금실태는 다음과 같다. “탄광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산업노동자 임금이 평균 200원인데 비해 평균 600원으로 높다. 특히 굴진을 담당하는 노동자 중에는 1,200원의 수입을 올리는 자도 있다. 노동자에게는 계획이 부과되고 있는데 초과달성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할증임금이 지불된다.” 이러한 보고는 분명히 어느정도, 생산성에 따른 임금의 차등이 행해지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안중기계 연합기업소의 책임자 및 기술자 임금은 250원이고, 일반노동자는 110원정도라든가, 모란봉피복 합영공장의 임금은 공화국의 일반 수준보다 높다(日朝貿易會, 1992)는 표현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차별되게 지급된다는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 임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된다는 것과 생산성임금제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생산성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노동당이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와 경영자가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와도 다르게 작용한다.

그러나 아래의 자료들은 북한의 경우에도 물질적인 자극이라고 표현되는 생산성임금제의 도입은 분명히 생산성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치(1992)는 평양 금속건재 공장사업의 예에서 물질적인 자극의 장점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 알아보니 예견했던 것 보다 성과가 크지 못했다.... 절약대상들에 대해서는 목표가 있었지만 개별적으로는 자기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절약한다는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 특히 공장적인 총화는 정치적 평가를 잘해주는 것과 함께 절약을 많이 한 작업반이나 개별적인 사람에게는 그만큼 물질적 보상이 차례지게 하였다.... 월생산총화에 참가하여 이런 편향을 알게 된 초급당비서 박창남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초급당 일군은 협의회를 조직하고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

김성태(1965)도 일찍이 현물평가의 유리한 점을 지적한 바있다. 건설부문의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복리의 증가를 건설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생산에 대한 노동자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아래의 표는 수행된 작업의 현물량과 질에 따르는 정확한 분배의 조방은 건설사

업의 정상화, 건설물의 질과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한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현물평가제에 의한 노동생산능률의 성장

	도입전 6개월	도입후 6개월
평양동구		
종업원 1인당 생산액	100	157
월평균 노임	100	120
사리원 농촌		
종업원 1인당 생산액	100	178
월평균 노임	100	112

김광동(1991: 147)은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물질적 자극은 정치도덕적 자극에 대한 ‘안받침’으로만 규정하였고, 그 원칙적인 중요성과 의의만이 강조되었다”고 평가한다. 즉 “북한의 공장관리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구충족의 과정이 가지는 적극적 의미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고, 물질적인 노동동기 부여의 문제를 자본주의적인 것이라는 시각이거나 사상도덕적 동기부여에 대한 종속적인 의의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장종엽,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당의 투쟁,” 우리당의 강화발전에 있어서 레닌적 당건설원칙의 창조적 구현, 조선로동당 출판사: 91)고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인 노동보수제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보여진다. 그러나 평가주체의 문제, 평가발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서 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 독립채산제

리경재(1991)는 독립채산제를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 밑에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독립채산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가치형태에 의한 경제적 타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때 타산이라 함은 생산단위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말이다. 즉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할 수록 가치형태를 이용하여 이미 마련하여 놓은 기계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의 이용율을 높이고, 연료, 원료, 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적은 지출로써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타산을 짜고 들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수익성지표를 개발한다.

수익성은 기업소 경영활동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질적 지표의 하나이다. 수익성을 높여야 독립채산제의 요구를 옳바로 실현할 뿐 아니라, 나라의 재정토대를 튼튼히 하여 확대재생산을 확실히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수익성은 단순히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하여도 좋은 것이다. ‘제품의 생산과 판매량을 늘이고 원가를 낮추며 이윤을 많이 내게 함으로써 수익성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적인 노동보수제와 동시에 실시된다. 즉 독립채산제는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과 물질적 관심성을 전제로 한다. 독립채산제에서는 원가, 가격과 같은 가치법칙과 관련된 경제적 공간들을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생활비, 상급, 장려급, 기업소기금과 같은 물질적 자극공간들도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즉 이윤실행정도에 따라 기업소기금과 상급기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주용설(1991)에 따르면 독립채산제는 “근로자의 생산열의를 높이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료와 자재, 자금, 노력을 엄격한 계산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하며, 생산을 끊임 없이 발전”시키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의 부정적인 효과를 세가지 지적하고 있다. (1) 첫째,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본위주의와 이기주의를 조장시켜 생산활동과 재정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또한 각 공장에서 가격을 제 마음대로 정하여 적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즉 국가 관리하에 있는 가격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격체계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 있지는 않으나 아직까지는 국가가 정하는 가격체계를 유지하고, 변동가격제나 시장가격체계는 발달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3) 셋째로, 각 생산단위에서 필요없는 설비와 자재를 사들이거나 체화, 사장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독립채산제의 단위로는 공장과기업소 단위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도입된 연합기업소에서는 2중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다. 배미옥(1990)은 연합기업소에서의 2중 독립채산제를 설명한다. 연합기업소에서의 2중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연합기업소를 단위로 하여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거기에 망라된 아래 공장, 기업소들을 단위로 하여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기업소적인 관리운영사업에 복무하는 일군들은 연합기업소의 생산계획실행 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받게 된다. 연합기업소에서는 해당시행세칙에 따라 장려금을 받거나 변상금을 물며, 연합기업소적인 이윤계획 실행정도에 따라 기업소기금을 세우고 쓰게 된다. 이와 같이 연합기업소는 계획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로서만이 아니라 노력과 생산수단의 합리적인 이용하고, 국가계획수행을 비롯한 경영활동 결과에 대하여 당과 국가 앞에 책임질 수 있는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독립채산제 단위, 사회적 생산의 경영단위로 되고 있다.

연합기업소적으로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많은 이익을 내게 되면 그에 의한 혜택을 연합기업소와 아래 공장, 기업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반대로 연합기업소적으로 계획을 미달하고 손실을 보게 되면, 연합기업소와 아래 공장, 기업소들이 그것을 보상하는 데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하부단위의 평가기준은 2가지를 동시에 적용한다. i. 연합기업소가 준 계획을 얼마나 수행하였는가 하는 것과 ii. 연합기업소적인 계획수행에 어느 정도 이바지 하였는가 하는 것을 결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연합기업소에 이바지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i. 아래 공장, 기업소가 연합기업소 또는 모체기업소에 연료, 원료, 자재를 얼마나 보장하였는가 ii. 기업소들의 계획 수행에 영향을 준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연합기업소 체제에서의 2중독립채산제의 효과는 i. 생산을 자극하고, ii.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활동을 자극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통하는 것이다. 즉, 생산자들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물질적 자극을 받도록 경제적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또한 많이 번 단위에서 보수가 많이 차례지게 하고 적게 번 단위에는 보수가 적게 차례지게 함으로써 모두가 사회주의적인 보수체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보수제를 비롯한 물질적 자극공간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자극은 근로자들의 생산결과들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평가하여, 그들의 생산열의를 높이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수단으로는, 생활비, 장려금, 상금 등의 경제적 공간을 이용하여 물질적으로도 자극하게 된다. i. 생활비를 분배하는 기준은, 연합기업소 관리일군들은 연합기업소적인 생산계획실행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받도록하며, 아래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은 개별적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계획실행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받도록 한다. ii. 둘째로 장려금의 기준은, 연합기업소적인 이윤계획과 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이윤계획 수행정도를 옳바로 평가하고 이윤분배 몫을 해당공장, 기업소의 실정에 맞게 생산을 늘리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종업원들의 문화 후생사업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 iii. 셋째로, 연합기업소는 또한 기업소 기금의 일부를 아래 공장, 기업소들과 개별적 일군들을 위한 상금으로 쓸 수 있다.

연합기업소 체제에서의 2중독립채산제는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산제 단위 되었던 연합기업소를 독립채산제단위로 정하고 연합기업소 범위 내에서 생산적 연계를 잘 보장하여 생산 정상화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기업소 체제에서의 독립채산제의 효과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리명찬(1993)은 남포유리 연합회사의 예에서 참모부가 중요한 일을 했음 지적한다. 즉 지금까지는 주로 당에 의존하던 것을 연합기업소의 참모부가 생산이 늘어나는 조건에 맞게 유리사와 부원료 등 원료, 자재의 보장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면서 유리용해공정과 인상공정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였다고 한다. 즉 대형유리 용해로 현장에 내려간 참모부의 일군들은 현장기술자들과 용해공들이 서로의 힘과 창조적 지혜를 합쳐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었다는 것이다. 특히 절단공들은 새로운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절단 실 수율을 더욱 높이는 성과를 가져 왔다고 한다.

3. 노동강도의 강화

북한에서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조직을 개편하는 것, 테일러리즘적인 분업체계의 도입, 사회주의적인 경쟁의 도입, 본보기의 도입, 또한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동원의 방식을 띄고 있다. 북한에서 노동행정은 노동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다. 즉 리재운(1991)은 혁명적 노동생활 기풍을 세우는 것이 노동행정사업에서 나서는 기본 과업이라고 주장한다.

기관본위주의와 개인리기주의, 소극성,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새기준, 새기록 창조운동을 벌려, 노동정량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노동자들 사이에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부르조아적 생활풍조가 침습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을 하기 싫어 하고 건달을 부리며 편안하게 살려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먼저 노동에 대한 교양을 충실성 교양, 집단주의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다. 노동생활에서 낡은 습성을 없애고 자본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노동풍조가 발을 붙일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게 한다. 또한 노동생활을 정규화하고, 규범화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근로자들이 제정된 출퇴근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 한편 해당 부문과 계절적 특성에 맞게 출퇴근 질서를 옹호 세우며 작업교대 규율, 노동시간 이용 규율, 작업 총화규율을 비롯한 노동규율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테일러리즘을 이용하여 작업의 세분화를 도모하고 노동자들로부터 그들의 지식을 제거하여 매우 단순하게 일에 임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적 관리의 기초이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시도되고 있었다. 명홍숙(1993년)은 이러한 예를 평양피복공장에

서 보여준다.

즉 지금까지 당면생산에만 눈을 돌리던 것을 이제는 기술관리에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즉 공장에서는 참모장인 기사장이 책임지고 기술지령체계를 세우고 운영하게 하고 있다. 기술과에서는 부서의 성원들을 직장, 작업반을 담당시켜 매일 현장에 나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조건을 손금보듯 알게 하였다.

이러한 기술자들이 생산 현장에서의 작업과정을 자세하게 안 결과는 곧 매일 매일의 생산에서 기술지령서를 보내게 된다. 예를 들면 작업반에 생산지령서와 함께 기술지령서를 보낸다. 거기에는 생산하게되는 남자 옷저고리와 바지는 어떤 재질에 어떤 색깔로 하는 것이 밝혀져 있었고, 견본천까지 붙여져 있었다. 그리고 재봉실은 어느 색깔에 어느 번호의 재질을 쓰며 바지밑다리 쪽에서 여유 혼술은 얼마나 주며 저고리 등골선의 안띠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등이 다 구체적으로 써 있었다. 이 하나의 기술지령서에만도 지령내용이 20여가지를 넘는다고 한다. 기술지령체계를 세우고 활발히 운영한 효과는 결국, 공장안의 모든 기술자들이 아래 실정을 환히 알고 늘 일거리를 찾아 사업을 전개하는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장내의기술을 공장의 참모부에서 참악하여 다음으로는 전문화 생산방법을 추진한다. 즉 공장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즉 평양피복공장에서는, 최근에 공장에서는 생산을 더욱 늘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의 전문화를 세분화되게 하고 있다. 제 3직장 2작업반의 경우, 작업반 성원 60여명중에 기성복 저고리 완성공정을 맡은 기능공은 5명이었다. 이들은 지난 날에는 제각기 저고리 완성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것을 이 공정에서만도 5개공정으로 또다시 공정을 세분화하여 흐름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안소매감치는 공정, 앞안단 수문 침뜨기 공정, 깃감침 공정, 기슭단 감침공정, 소매완성공정 등 5명이 매공정을 하나씩 맡아 하도록하였다. 이러한 전문화의 실시는 작업능률의 향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매단추다는 작업에서 3회전하던 것을 한회전으로 바꾸어 같은 시간에 작업능률은 4배로 높인 것, 저고리 안과 겹을 붙이는 작업에서 묶음식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제품당 작업시간을 1.8분이상 줄인 것은 전문화생산방법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유명양(1993)은 개성신발공장에서 과학적 관리법의 도입효과를 보여준다.

“수많은 파고무를 동원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들은 가족신, 비닐신, 천신 생산에서 피형기를 받아들여 생산능률을 높이게 하였다. 제화공장의 노동자들은 작업준비를 잘하고 공장간 맞물림을 잘조직하여 흐름식 생산을 적극 추진시켜 나감으로써 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제 7작업반과 제9 작업반원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켜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다.”

김명치(1993)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전략이 당의 간부에게 노출되어 이를 시정당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합리화의 한 과정으로 파악된다. “어느날 저녁 연합기업소 책임비서 김성팔동무는 평조작업반에 들어갔다. 그런데 조각 운모판을 모아 붙이고 있는 로동자의 손동작이 그리 날래지 못하다는 것을 감촉하였다....노래는 합창으로 변했다...이런 일은 지배인이 혼자서 결심하고 주관적으로 기업관리를 하던 때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기본적인 방식중의 하나로 북한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은 서로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모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되도록 짧은 시간단위로 작업성과를 평가하여 게시하는 것이다. 최일호(1990)는 황해 제철 연합기업소 강철직장의 예를 들고 있다. 같은 생산조건에서 교대별 생산실적이 차이가 난 이유를 교대별 작업실태로 분석한다. 이 원인으로 (1) 치차처럼 맞물려야 할 작업준비에 빈틈이 있고 (2) 쇠물 루실이 많은 점을 발견한다. 여기에서 초급당 위원회일군들은 직장일군들과 생산자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식시켰다. 아울러 매 교대마다 경험있는 오랜 기능공들과 기술자들을 들여 보내, 기술혁신 운동을 벌리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예를 오혜옥(1990)은 평양 종합방직 공장 직포종합직장 4직포직장을 든다. 즉 공장의 4직포직장 돌격조원들은 사회주의 경쟁을 못고 생산을 내밀고 있었다. 당시에 보름동안의 생산경쟁 총화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돌격조원 상호간에도 벌어진 사회주의 경쟁에서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설 시각이 왔다. 그런데 직장에 갖배치되어 온 한 직포공의 기계가 뜻밖에 멈춰 섰다. 이를 알

아 본 한 직포공이 도와준다. 그러나 멈추어 선계를 돌보는 직공은 사양한다. '이젠 결승선에 들어 섰는데 어서 가서 기대를 보세요'. 그러나 같이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와준다. 또한 막바지 생산 시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직공들도 성원을 보낸다. 즉 3소대원들이 서로 도우며 혁신의 불길을 높여 가고 있을 때 2소대 전투원들이 작업장으로 달려 나왔다. 그들은 이미 교대를 마쳤으나 3소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전투를 고무하기 위하여 북을 치고 징을 울렸다. 이튿날 4직포직장 작업장에는 소대별 생산실적을 표시한 커다란 "경쟁 도표판"이 나붙었다. 그런데 그 경쟁 도표판의 붉은 줄들은 똑같은 계선에 올라가 있었다.

또한 기계를 돌보는 직공 개개인이 스스로 작업방식을 개량하고 다기능공이 되는 과정도 기술하고 있다. 즉 전투기록장을 이용하여 순회시간을 1분더 단축하고, 북 교체시간도 20초를 단축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또한 직공이 수리를 배워 시간낭비를 막는다는 것이다. "수리기술을 배우겠습니다. 제 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수리공들이 해주기만을 바란다면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

리정호(1990)는 평양제사공장에서 "경쟁 도표"의 효율성을 예시한다. 공장의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게시판을 세우고, 하루 하루 증산경쟁 도표를 게시한다. 또한 증산과 절약으로 얻은 성과를 같이 기록하기도 한다. 기술과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공장이 현대화된 실정에서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다고 하면서 자동조사기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만가동시킨다면 여기서만도 20-30%의 증산예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하였다. 여기에 종업원들은 너도 나도 자기생각을 내놓았다. 이러한 증산절약실적은 경쟁도표에 하루하루 기록된다는 것이다.

김경준(1990)도 동흥산 피복 공장에서 경쟁도표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1) 작업현장마다에는 매 시간별로 '작업수행정형'을 게시한다. 또한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합리화한다. (2) 공장에서는 기계공들의 옆에다 자제를 정상적으로 날라주고 생산한 제품들도 기계공들이 움직이지 않고 자제를 날라다 주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명홍숙(1993)은 평양신발공장에서 경쟁도표의 효과를 보다 정열적으로 그린 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도표와 같은 방식은 대부분 경공업의 생산에 나오는 생산성 향상의 방식으로 판단된다. 공장구내의 여기저기에 <<당 중앙위원회 구호를 높이 받들고 준전시기간에 양양된 혁명적 기세로 로트직장 심봉섭작업반원들 하루과제를 매일 2배이상!>>, <<열렬히 축하한다. 이미도달한 최고수준을 또다시 돌파한 한호성, 양만식 작업반원들>> 이런 커다란 대형 속보판들이 세워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 큼직한 글씨로 하루과제를 만나절에 끝내는 투쟁 성과를 보기도 하였다.

김진주(1993)는 박천견직공장에서 속보판의 효과를 보여준다. 구내에 준비하게 늘어선 속보판들, 그리고 직장안에는 '방직은 예술이다'라는 글발이 붙어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기자는 당음과 같이 묘사한다. "밝은 불빛에 반짝이는 약산단을 바라보며 하루계획을 몇 프로씩하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김순덕동무는 웃으며 작업반 한켠에 붙어있는 속보판을 가리켜 보았다. 눈길을 끄는 속보판에는 방금 나붙은 듯 물기를 머금은 속보들이 새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오늘 계획 100%>>. 우리를 안내한 초급당일군이 시계를 보고나서 이 속도면 오늘 계획도 120%는 문제없다고 귀뜸해 주었다."

김기두(1993)는 신의주 신발공장의 예를 든다. "작업반간, 기대간 사회주의 경쟁을 못고 승벽내기로 전투를 벌리고 있는 감피직장의 제봉공들은 구목기를 2대씩이나 되살리고 모든 재봉기마다 만가동시켜 일정계획을 109%씩 넘쳐 수행" 한다는 것이다.

경쟁도표를 사용하는 외에도 본보기를 사용하여 생산을 독려하는 방식도 이용하고 있다. 즉 박지홍(1991)은 제 2금속공장건설 연합기업소 제관공장에서 이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초급 당위원회는 우선 모범적인 세포를 본보기로 내세운 다음 그 모범과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당세포들이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초급당위원회는 제관품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제관 1직장 절단작업반 당세포를 모범단위로 정하고 당의 의도에 맞게 그 세포당원들이 실천활동에서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도와

주고 이끌어줄 분공을 초급당비서 신귀봉동무에게 주었다.... 여기에 공장의 행정경제일군들이 생산지휘와 조장사업을 얼마나 책임적으로 하는가 하는데... 생산지휘와 보장사업을 맡은 일군들은 다 당세포에 소속되어 당생활을 하며 자기의 당생활을 당세포앞에서 총화한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의 책임적인 일군들이 속한 당세포의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그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리지영과 김현(1992)은 신의주 선박공장에서 노동력이 동원되는 2가지 예를 들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자발성을 당의 힘에 의하여 강제하는 것이다.

(1) “일부 일군들은 당면한 배무이 생산과제가 아름차고 에로조건도 없지 않는데, 우에 제기하여 걸린 문제를 풀든가 혹은 련관기업소들과 협동생산하는 방법을 택하여 공장의 부담을 덜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책임진 정치적 참모부이다. 공장 초급당위원회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공장앞에 나선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곧 위원회를 열었다.... 선체직장에 나간 초급당위원회의 한 위원은... 기계가공직장에 나간 초급당위원회의 한 위원도... 완성직장에 나간 한 일군도...”

(2) “생산을 지휘하는 한 일군이 용접작업반의 현존능력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배무이 기일이 좀 늦어 질것 같은 데 계획을 좀 미룰 수 없겠는가 하는 의견을 초급당위원회에 제기했다.... 초급당위원회 일군은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나갈 생각을 할 대신 초급당위원회 결정을 어기려는 그 일군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난 뒤 용접작업반에 들어가 실태를 료해하고, 작업반장 함문영 동무와 고급기능공들인 김동무와 류동무를 비롯한 ... 이 때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당조직의 의견에 따라 기대별, 작업반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전부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기동 예술선동대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일터가 들썩하게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렸다.”

김명치(1993)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노동자들이 동원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1)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도 찾아 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당세포들에서 전동기 생산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당원들이 앞장서도록 했으며 현장방

송과 숙보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렸다. 그리고 당조직의 지도 밑에 사로청조직에서는 청년돌격대를 무어 긴장한 모퉁이를 막았으며, 직맹조직에서는 직장, 작업반별 단기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였다. 당, 행정일군들은 생산자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불러 일으켰다.”

(2) “그 생산문제가 제기됐을 때 시안의 다른 공장에서 원심주조해 오자는 안, 단조품으로 해결하자는 안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자체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자진하여 맡아 나섰다... 발명으로되는 40여건의 새 기술이 도입되었고, 합리화안까지 합치면 200여건이나 된다....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30여년간을 기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주교동무는 말한다.”

4. 당 일군을 통한 대중동원

북한의 작업조직은 기본적으로 당조직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관리되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이 개입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공장내에서의 당의 역할은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표현되는 동원작업이 주를 이룬다. 본절에서는 공장내의 당의 조직의 현황, 당 일군이 당면한 과제, 공원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김광동(1991)은 북한의 공장내 노동단체의 활동과 노동동원을 보여준다. 그는 북한의 각 공장에 조직되어 있는 공장당위원회의 산하에서 노동자 대중조직의 형태로 존재하는 공장 직맹위원회, 공장 민청위원회 및 공장 여맹 위원회 등의 노동단체의 위상 공장내에서의 역할을 노동동원의 측면에서 1960년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의 성립에 지배적인 힘으로 작용했던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점차 경제법칙의 작용과 경제적 자극체계의 확립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어야 할 때, 생산, 소비, 분배, 교환의 기본 단위인 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다. 북한의 기업관리는 해방직후에는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일시적 ‘자치관리기관’인 각각의 공장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었다. 그후 1946년 12월 부터는 소련의 기업관리체제와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와 지배인 단독책임제에 의한 중앙집권식 국영기업관리 체계가 정착되었다. 1950

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는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양식의 정립에 치중하였다. 공장과 기업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제에 의하여 운영되며, 성(위원회)-국-기업의 계통에 의한 공업관리체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 계통으로 관리되었다. 즉 3급이하의 기업은 군단위의 군당위원회의 관리하에 있으며, 2급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도당위원회를 통하여 중앙의 지도를 받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일부의 특급기업의 경우에는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다. 그리고 경제 기술적인 지도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공업성, 화학공업성 등의 7개성과 부문별 전문 부서인 국의 지도를 도의 계통에 따라 달리 받는다.

1961년에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정립된다. 이는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이 공업의 지도와 관리에 구체화된 것이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의 철폐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관료주의, 기관중심주의를 배제하고 대중노선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당이 공장을 장악하여 공장의 최고기구가 될과 동시에 당조직과 당활동을 통하여 대중의 정치, 사상적 의식을 적극화시킴으로써 공장과 노동자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된 것이다. 대안의관리체의 특징은 (1) 생산지도와 기술지도를 통합하여 공장지배인의 제 1대리인인 기사장이 생산지도부, 계획부, 기술부로 구성되는 참모부를 담당함으로써 통일적 집중적 생산지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2) 공장에 필요한 자재를 옷기관이 책임을 지고 공급함으로써 각공장이 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들이는 노력과 낭비를 축소하는 중앙공급식 자재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3)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장 자체에 후방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등 노동자의 생활문제까지를 책임지는 방법이다. (4)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공장당위원회가 집체적 지도기관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배인 단독책임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운영과 생산활동에서 활동이 없던 공장당위원회를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 하여 당조직과 당활동을 통하여 공장과 기업소 내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3」 공장안의 당과 기업조직

 공장당위원회

공장당집행위원회

당위원장

지배인

직맹, 민청, 여맹,

기사장, 행정부지배인,

조직부, 교육부, 선전선동부.

업무부지배인, 하방공급부지배인

작업반들

직장

 량병원 편집, 경제지식: 공업, 농업, 상업 (조선로동당 출판사): 4; 서남원, 1966, 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 (서울: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196

공장당위원회가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이며, 동시에 최고의 지도기관이다. 공장당위원회는 공장내의 일체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배인이나 기사장의 사업과 같은 행정, 기술지도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며, 당위원회는 해당공장의 '정치적 영도기관'이다. 즉 공장당위원회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이다("공장당위원회 사업의 가일층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 1963년 6월, 11호). 조직부는 당조직사업, 특히 간부사업을 주로하며, 선전부는 당원들과 종업원들 속에 당정책을 침투시키며, 그들을 당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한다. 교육부(양성부)는 공장대학을 비롯한 공장에서 운영하는 각학교와 노동자구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을 맡아 지도한다.

따라서, 공장당위원회의 역할은 1) 공장과 노동자를 통제하며, 노동자들이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노동에 참가하게 하는 정치적 기구이자, '경제외적 통제의 기구'이다. 2) 대규모기업의 공장당 조직체계에서조차도 제품의 질과 생산성의

향상, 기술개발, 경영, 관리연구 등과 관련된 전문부서가 없이 공장당 위원회가 공장의 최고지휘부의 역할을 함으로써 당위원회의 활동이란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인 노동자에 대한 선전, 선동의 방법을 통한 노동력 강화를 유일하게 정책화시키고, 이를 추동해 낼 수 있는 내적 구조인 것이다. 3) 일반 노동자들은 각 당조직이나 공장당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없다. 4) 지배인은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기능만 있다. 5) 노동자의 사상사업이 중요하다.

직장별로는 '직장근로자 단체위원회', 작업반 단위로는 '근로자 초급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노동단체들의 역할은 노동 및 생산 규율을 강화시켜서 군중을 국가계획실행에 동원하는 사업과 국가재산과 물자를 보호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또한 군중의 증산경쟁운동, 우수한 사업에 대한 선전사업,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 및 노동보호사업을 해야한다(김일성, 1949). 직업동맹과 같은 모든 대중노동단체는 공장내에서 당의 직접적인 조직편제속에 포함되어, 당의 하부기구로 되어 있으며, 공장지배인은 당과 직업동맹의 부위원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동맹의 간부들의 선택도 당과 당위원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 진다. 직업동맹의 공장내 활동에 있어서도 직업동맹을 포함한 모든 노동단체들은 공장수준에서 '천리마 작업반'운동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맡는다. 그리고 노동단체들은 '사회주의적 경쟁'을 조직하고 '노동영웅'과 새로운 정책을 선전하면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현실적으로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노력동원 요구되는 경제발전 전략에는 적합하다고 보여지나, 내포적인 발전전략이 요구되는 시기에는 그 방향이 노동자들의 자발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재부족을 비롯하여 작업공구, 작업공정, 기술조건 등 대부분의 생산에 나타나는 문제가 원료, 생산수단과 기술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상의식만 높이는 것을 중시하였다.

「표 4」 생산에 이용되지 못한 노동시간의 원인별 구성, 평양전기공장

원인	구성
자재부족	53.2%
공구불충분	2.7
공정 불합리	2.6
기술조건 불비	4.0
정전 및 기계사고	7.8
오작품	3.6
작업장 이탈	6.4
지각	.3
조퇴	1.3
기타	18.1
총계	100.0%

편성, 1965,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 - 평양전기공장의 실험”, 근로자, 12월, 24호

즉 실재는 계획된 생산을 추진하는 데 있는 늘상적인 것보다는 긴급히 제기되는 새로운 생산을 문제를 융통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기제가 전혀 없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북한에서는 공장의 생산력의 증진에서 제기되는 과업의 문제에 있어서, 기술개발이나 생산시설의 새로운 도입의 문제가 중심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적으로 어떻게 주어진 설비와 노동력을 가지고 최대의 생산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표 5」 노동절약의 원천별 분석표

원천	분포
기술혁신	
기계화, 자동화	5.4%
선진기술도입	15.0
기술조건 도입	19.0
소계	39.4%
노동행정사업의 개선	
노력의 합리적 이용	9.0%
작업시간 개선	33.0
작업일수 이용개선	4.3
기술수준 제고	7.6
기타	6.7
소계	60.6%
합계	100.0%

직맹단체는 생산협의회를 조직하여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공장내의 모든 사람들의 참여속에서 제기하고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받아들여도록 되어 있다(박영근, “우리나라에서 공업관리체계의 개선강화”,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승리). 그러나 작업반에서 생산협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반 앞에 부과된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완수 및 초과 완수하며 생산을 정상화” (천리마 기수독본, 직업동맹 출판사, 1963)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게 만들 으로서, 노동자들의 책임의식과 책임완수를 결의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상은 아

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공장관리자나 국가기관의 관료주의적 태도에 대한 견제의 활동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김창석(1991)은 당의 일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경제조직 사업은 생산자 대중이 맡겨진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조직적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경제기술적 조건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기계설비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도록 해야한다. 또한 기술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며, 지방산업 공장을 현대화해야 한다. 최근에는 유희노력으로 가내 작업반과 부업반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조직하고 공업 부산물과 농토산물, 자연원료, 재배원료를 적극 동원 이용하여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 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의 일군들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률(1991)은 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현재의 경제상황은 협동생산과 수송사업을 개선하며 늘어나는 원료, 자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비관리, 자재관리, 노력관리, 재정관리, 생산지도를 개선하고, 온갖 낡은 경제관리잔재를 극복하고, 낡은 사상 잔재들을 빨리 없애야 한다.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을 틀어 쥐고, 계산과 분석을 잘하며 타산을 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일군들은 계획, 생산, 분석에서는 설비와 자재, 노력, 자금과 같은 재생산 요소들의 현실태와 그 발전 전망을 옹계 타산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채산제, 원가, 가격, 수익성, 노동보수제와 같은 경제범주들을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부문, 단위별로 방식상학, 실무학습, 기술 강습, 기술기능 전수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아래단위 일군들의 경제 실무적 자질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일군들의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는 역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것이다. 물론 동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작업자만이 가장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체가 된다

는 관점에서 이다. 특히 사회주의 공장의 문제인 내부의 낭비를 제거하는 데는 작업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일군들의 일차적인 과제는 내부의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동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량봉학(1990)은 내부예비동원에 일군들의 역할이 막대함을 강조한다.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사업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 일터마다에 잠재하고 있는 생산성장의 가능성들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지난날과는 달리 쉽게 찾을 수 있는 예비가 적어진 조건에서 그것을 동원하자면 일군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사색하며 옳은 묘술과 방법론을 세워 대중을 힘있게 발동할 뿐만 아니라 생산조직, 기술지도, 노력관리, 자재 보장, 재정관리 등 모든 경영활동을 실속있게 짜고 들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모자라는 것은 찾아 내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을 동원하여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 “예비를 아는 것도 생산자 대중이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생산자 대중이다. 대중을 발동시키자면 그들이 내부예비 동원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이 사업을 목적 의식적으로 벌려 나가도록 조직 정치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

리종관(1990)은 이러한 예를 3월 25일 공장에서 발견한다. 초급당비서는 당, 행정일군들에게 전원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모두가 ‘대중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개한다. 일군은 작업에서 진행하는 토의에도 참가하여 근로자들의 사상을 계발하였으며, 많은 노동자, 기술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다. 그 이유는 ‘대중이 발동되면 예비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김기성 작업반원들은 초급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여러 직장, 작업반들에 내려간 당의 지도일군들도 근로자들의 군중토의를 도와 주어 예비동원사업을 전개한다. 기술혁신도 기술자들을 동원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유시영(1991)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리로서 인민대중의 동원을 주장한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에 주인답게 참여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일이나 마지못해 하거나 집단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고용노동자와 아무런 차이도 없게 된다. 그러나 무턱대고 강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요구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인민대중의 이해관와 요구에 맞게하는 방편으로, 개별적 집단과 개인이 사회에 제공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한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생산의 계획적 발전과 생산물 분배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주인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허윤(1991)은 설비관리에 대중동원방식을 설명한다.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은 기계설비를 주인다운 입장에서 알뜰히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기술적으로 개조하여 생산능력과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대중적 설비관리 운동으로 정의된다.

기계설비는 생산과정에 물리적으로 마멸된다. 지난 시기에 벌어진 설비관리 운동은 주로 스스로 검사하고 스스로 수리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경제실무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나 현재 필요한 대중에 의한 설비관리운동은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가며 설비들을 보수하고 가동시키는 데 요구되는 예비부속품과 공구, 지구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다. 또한 생산시설과 환경을 깨끗이 꾸려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5. 사회주의 이념

서재영(1991)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추동력에는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 사회주의 경쟁, 물질적 자극을 비롯한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라고 주장한다. 경제관리에서 물질적 자극도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는 기초우에서만 생산발전을 옹계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방법을 위주로 틀어 쥐고 나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물질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절대화하는 데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정치적 방법이란 생산자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 일으켜 그들을 경제과업 수행으로 조직동원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관리의 전 과정에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철식(1990)은 특히 당위원회를 통한 집체적인 지도를 통하는 것이 사회주의적인 경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경제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의하여 풀어나가는 원칙과 방법에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시기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당위원회들에서는 집체적 협의제를 더욱 강화하며 모든 일군들이 생산자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으로 근로자들을 생산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 일으키도록 해야한다.”

채형식(1991)은 솔직히 현재 북한의 문제가 소위 공급의 불안정에 있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해결방식에는 자체의 자원을 이용할 것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선차적인 고리는 원료, 연료, 동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는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기본 방향은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것이다. 인민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려면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 기술로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전자계산기화하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공업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생산공정들을 정비 보장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선포된 북한의 준전시상태는 궁극적으로 공장내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최근의 공장에 대한 기사에서는 거의 다 준전시상태를 강조하여 생산을 다그치고 있었다. 허훈일(1993)은 단천광산기계공장의 예를 보여 준다.

“이곳 일군들은 준전시상태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주강직장의 노동자들은 전화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는 투쟁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1) 생산공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2) 모든 기대 설비들에 새로운 공구, 지구들을 적극받아들여 노동생산능률을 종전보다 훨씬 높여 ...

주물공장의 노동자들은 원수들이 언제 어느때 덤벼도 일격에 소멸할 수 있게 만반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면서 헌신적인 노력투쟁을 벌려 유도로의 보수기일을 종전보다 1/3로 줄이고...

제관작업반 당원들과 노동자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로력조직을 빈틈없이 짜고 들어 공정간 련대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로동신문(1993. 1. 21)은 사설에서 계속 청산리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즉 "우리 일군들은 우에서 대주면 더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원료와 자재, 설비 등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온갖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주장하기도 한다. 로동신문(1991. 1. 7)은 사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주장한다.

"아무리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여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생산을 발전시켜 나갈수 없다....대안의 사업체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옳게 보장한다는 것은 당위원회가 공장, 기업소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되어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 통제하고 대중을 경제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며 경영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을 말한다....당위원회는 당간부들, 행정기술간부들과 핵심적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당 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철저히 자기위치에서 책임적으로 일하며 자주 모여 앉아 협의하는 것이다."

라정빈(1991)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지배인 유일관리제와 직접비교한다. 즉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이기는 하지만 낡은 자본주의적 경

제관리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광범한 생산자 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그 어느 한 개인이 경제관리 운영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혼자서 결정하고, 처리하거나 광범한 생산자 대중을 행정적 방법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호령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몇몇 관리일군들의 수공업적 타산이나 지배인 한사람의 소총명에 의해 바로 진행되는 제도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안의 사업체계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생산자 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적극성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한다. 즉 대중의 집체적인 힘과 당위원회 집체적 지도가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 핵이 되는 것이다.

대중과의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당위원회에 당 및 경제지도일군들과 핵심적인 기술자, 노동자들이 참가시키고, 당의 노선과 정책에 맞게 공장앞에 맞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과 방도를 세우고,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게 되어, 당의 의도가 아래로 짙짙 내려가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리원경(1992)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특징을 사상론이라고 강조한다. 즉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고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에 기초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이며 정치적 방법을 위주로 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경제관리체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사업체계라 하더라도 일군들이 대중과 동떨어져서 대중을 발동하는 사업방법을 잘 구현하지 못한다면 대중이 진실로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생산자 대중이 옳은 지도와 결합될 때에만 생산과 관리사업이 옳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일군들의 옳은 조직 지휘사업이 보장될 때에야 대중이 경제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대안의 체계에서는 생산 노동조직내에 있는 전구성원을 관리의 책임자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체계

- (3) 길: ①길을 내다.
 ②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8), <1, 383>
- (4) 땅: ①우리 땅에 기여든 침략자를 모조리 몰아내다.
 ②고향땅에 뿌리를 내린 새 세대들이 공산주의이상촌을 꾸려간다. (4), <747>
- (5) 바위: ①박동무는 바위야, 함부로 건드리지 말게. (1), <83>
- (6) 태양: 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반들고 따르며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 (1), <97>¹⁵⁾

2.3 추상명사

- (1) 감사: ①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이다.
 ②당중앙위원회의 감사를 전달하다. (2)¹⁶⁾
- (2) 격분: ①동무의 잘못에 격분할것이 아니라 집단이 진지하게 달라붙어 고쳐 주어야한다. (1), <27>
- (3) 기쁨: ①기쁨에 못이기다.
 ②김일성장군 그이께서 우리 3천만 민중의 선두에 서시여 혁명을 령도하시며 겨레의 운명을 량어깨에 떠메시고 곳곳이 나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죽음을 앞둔 이 마당에서나마 똑똑히 깨달았다는 것은 평생을 독립을 위해 바친 그에게 있어서 다시없는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4), <156>
- (4) 뜻: ①뜻을 이루다.
 ②나라의 울타리가 되려는 뜻을 품고 10여년동안 깡그리 정력을 기울여 닦아온 무술을 정작 써야할 이때에 못쓰고 방안에 처박혀있어야 한단말인가. (5), <399>
- (5) 마음: ①나는 김일성전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일이 주마등처럼 머리로 스쳐지나자 감격적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15) 고유어인 '해'의 빈도수는 344회다. 예시한 6개의 예문들은 평범한 내용이었다. 성구풀이 '해와 달이 다하도록'의 예문에서는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가사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실고 있다.)

16) 단어의 빈도수가 표시되지 않았음.

리명찬(1993)은 최근에 대한의 사업체계가 적용되는 상황을 룡강전동기공장
에서 보여준다. “수도건설장에 수백대의 전류변성기를 빠른 시일안에 생산보장
할 데 대한 긴급과업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더구나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 것
은 부원료인 특수경화제가 딸리는 것이었다. 해당부서에서 부원료를 가져온다
해도 시일이 퍼그나 걸릴 것이었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책임일꾼들이 모여앉아 진지하게 토론해 보았으나
신통한 방도가 나설지 않았다.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려 보자. 그러면 묘안이 나올 것이다. ... (1) 기능공을 기대에 고정담당
시키면 얼마간의 부원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제기도 나오고, (2) 혼합비율을 새
롭게 해보자는 혁신적인 안도 제기되었다. 여러가지 제기된 안들은 사실 한두
사람의 머리로써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기능공들인 구건일, 김승철
동무들이 부원료 건조시간을 줄이고 혼합방법을 새롭게 하면, 많은 예를 비를
찾을 수 있다고 제기하자, 모두가 그게 좋겠다고 지지해 나섰다... 100대분의
부원료를 가지고 40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대공들과 기술자들이 환성
을 올릴 만도 하였다... 생산자 대중이 공장의 주인, 기업관리의 주인으로서 자
기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었다면 ‘그런 예비를 이미전에 찾아
냈을 것’이라는 것...”

6. 자력갱생의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은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 즉 다른 연합기업
소, 독립채산제, 특히 대한의 사업체계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력갱생을 하지 않으면, 생산의 여러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느 부문에서 자력갱생을 하고 어느 부문
에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 또는 자력갱생의 원칙으로서 해결
되지 않는 문제는 어떠한 해결방식이 모색되는가, 자력갱생은 결국 기술 또는
노동력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냐가 더욱 중요한 경제발전 전략의 관건
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물자의 부족, 즉 원료나, 중간재의 부족에 대
하여 자력갱생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력갱생의 단위도 매우 협

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규모의 경제의 잇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즉 한 연합소 내, 또는 공장 내에서도 작은 작업반단위나, 직장단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남아 있었다.

로동신문(1993년)은 덕천 탄광기계 공장의 예를 들어 원료의 부족이 노동자들의 절약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공장에서는 일군협의회, 참모회의들에서 탄차바가지 생산을 프레스화할데 대한 문제, 탄차바퀴 생산에서 주강능력을 늘이기 위한 문제, 그리고 탄차 베어링 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기 위한 문제 등이 거듭 토론되었다...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정머리 생산기지도 훌륭히 꾸려 놓았다... 일군들이 앞장서고 대중이 분발하니 결국 한개 직장을 새로 꾸릴 대담한 목표가 세워지고 ‘우에 손을 내미는 일이 없이’ 공장 자체의 기술과 로력으로 전동기 수리직장을 꾸리는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한순송(1991)은 원료의 부족 뿐만아니라, 기계의 설계까지도 자력갱생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10월 5일 자동화 종합공장 기계화직장에서 보여준다.

“실장 김종택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강력한 설계조가 무어졌다... 김종택 동무는 한장의 설계도면을 펴 놓은 채 오래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설계도면대로 설비를 만들자면 제작에서 품이 많이 드는것은 물론, 값비싼 자재가 적지 않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기술협의회가 열렸다. ... 공훈기계제작공인 김윤선동무와 고급기능공들인 고정룡(조립작업반장), 한 병도 동무(30년을 프레나공으로 일해온)들을 비롯한 직장의 로동계급은 설계원을 돕기위하여... 김종택동무는 고정룡동무의 손을 잡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종합머리부 제작이었다.”

허훈일(1993년)은 락원기계연합기업소에서 발생한 부품의 부족과 물의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의 사업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온 기업소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들끓는 속에 작업장마다에서는 시간마다 혁신적인 새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졌다.

(1) 그러던 지난 어느날, 신포항 주철직장 로동자들 앞에는 뜻밖의 정황이 조

성되었다. 용해처리공정의 주입구부분에서 중요부분품을 한시바삐 교체하지 않으면 주형작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 때 이들에게는 당장 교체할 새부분품도 없었고 시간도 긴박했다....그들은 우에서 부분품을 보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로 주입구체계를 개조하여 소재생산을 계속하기 위한 투쟁에 달라 붙었다....소재가공에 합리적인 절삭방법을 받아들이고, 부족되는 자재와 설비부분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매일 작업과제를 200-250%, 최고 300%로 넘쳐 수행하였다.

(2) 물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모두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리고 또 달리었다. 그리하여 대형양수기 수압은 몇시간 후가 아니라, 단 20분후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III. 기술 혁신

기술혁신은 분명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이는 특히 최근들어 부쩍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경제인들이 북한을 관찰한 보고서, 남한 학자의 분석과 북한에서 발간하는 로동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보여진다. 일본경제인들은 남포精鍊 연합기업소에 대한 보고에서, 기존설비는 대체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설치된 것이어서 현재 공장의 재건을 결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 설비가 오래 된 것이어서 공장의 작업환경이 좋다고는 할 수 없어 수차에 걸쳐 이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日朝貿易會, 1992)고 쓰고 있다.

박동철(1992)이 북한의 섬유, 신발, 식료품공업을 분석한 글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지적되고 있다. 즉 북한은 현재 “신발 및 식료품공업 부문에서 신규투자는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공장에 대한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신발생산의 품질향상과 생산증대 및 식료품 공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신발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신발생산공정은 밑창 제조부문, 갑피 제조부문, 조립부문의 공정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북한의 신발생산은 갑피 제조부문과 조립부문의 생산공정을 갖추지 못한 단순공정 시스템만 필요한 비닐화 중심 생산의 취약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신발의 품질향상 및 대량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발창을 수지로 바꾸고 사출기로 찍어내는 제조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로동신문의 기사를 분석해 보면 물론 전반적으로 1990년에 비해서 점차로 생산의 문제를 다루는 기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생산문제를 다루는 기사중에 30%가 기술 혁신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즉 70%정도는 노동의 강화를 주로 다루어 생산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기사로 표출하고 나머지 30%정도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강조하는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력 향상 중에서도 기술혁신에 대해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기법으로는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사가 많이 발견되어 실제로 연합기업소의 효과나 시장경제의 도입이나 개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로동신문의 기사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 많은 공장에서 외국에서 특히 서방제국에서 기계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은 기사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당의 역할에 의하여 기술이 혁신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 경제의 주된 기술혁신 방법으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시장경제나 개방의 방식을 도입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

북한 현재의 경제를 분석한 글에 의하면 해외의 기계가 많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을 방문한 일본경제인들의 보고서에서 3개의 기업에 대한 보고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는 1986년 3월에 착공해서 1988년 6월에 완공되었다. 이 시멘트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200만톤이며, 종업원 1인당 연간생산량을 2,200톤이다. 설치된 생산공정은 모두 자동화되어 있고, 除塵裝備가 완비되어 제진율은 90%이상이라고 한다. 이 공장은 생산공장이 집약되어 있고 구래의 공장에 비해서 1/6면적에서 효율화가 도모되고 있었다. 설비는 북한의 기술자가 설치한 것이지만 기계와 기타의 것은 외국(독일 지멘스사제가 많은 것 같다)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공장내 세개의 건물과 설비는 자력으로 건설, 제조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대안 중기계연합기업소는, 1975-1978년시점에 서구제국(특히 독일, 프랑스 등)으로부터 대형기계를 도입, 장비하였으며, 국산기계도 적절히 배치하고 있었다. 모란봉 피복 합영회사는 1992년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형 수퍼로부터 오리지널의 소재, 디자인을 제공받았으며 봉제 및 가격면에서 호평을 받았다(日朝貿易會, 1992. 11.)고 한다.

신혁필(1993)이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로동계급과 3대혁명 소조원들의 활동을 기술하면서 3가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출선구 착공기 개조, 가동하면서 조피기를 보수하는 것, 압연롤의 수명을 늘리는 3가지 사례 모두 당의 일꾼들이 주도하여, 공장내의 자원을 동원하여 기술적인 난관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직장의 일꾼들이 이 기술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곳 로동자와 기술자들과 마주 앉아 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했다. 출선구 착공기 개조전투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용광로직장의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

조원들은 출선구 착공기를 조립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운전을 마지막 단계에서 다그쳐 나가고 있었다.”

“이무렵 일부 일꾼들은 조피기를 멈춰 세운다음 보수정비할 결심을 보이였다. ‘아니다, 순간도 조피기를 멈춰 세울수 없다...’ 분과 초를 다투는 이순간 이렇게 결심을 굳힌 1작업반장 정광준 동무가 ‘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외치며 식힘장치 구역으로 뛰어 들어갔다.”

“만능압연기의 만가동, 만부하 보장을 위하여 중요부분품인 압연롤의 수명을 늘이기 위한 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 이곳 압연공들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 생산공정에 분사식 롤 냉각장치를 새롭게 만들어 도입함으로써 롤의 수명을 종전보다 3배 늘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할 수 있게 하였다.”

심지어는 외부의 지원이 가능한데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시장기제나 북한아니나 공장외부와의 교환에 의해 공급의 부족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한순송(1991)이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압연직장 노동자들에 대한 글에서 나타난다.

“초급당비서 김종일 동무가 입을 열었다.... 당시 우리나라 형편에서 그러한 강재를 생산하기 곤란하니 다른 나라에서 새 압연기를 들여오든가 해당한 강재를 주문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책임기사 서승룡동무는 작업장들인 송선철, 조봉학 등 동무들과 토론한 끝에 가열로의 새로운 장입방법을 창안하여, 어렵다던 강편 장입에 성공하고... 전기수리작업반에서는 자동화기사인 양광운동무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직장의 3대혁명소조 책임자 김영철동무와 소조원들인 김승철, 엄승일, 리기섭, 차현도 등들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동화 설비의 설계를 한달 동안에 해낼 것을 결의하여 나갔다.... 기업소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자재를 신청하라고 하였다. 그때 직장장 김무용동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동무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무들이 결코 쉬운 일을 택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는 레투구명뚝는 설비의 자동화를 3대 혁명소조와 합심하여 자체의 힘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여러 차례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일을 밀고 나갔다. 초급당 위원회에서

는 당의 뜻을 받들 한마음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기술혁신조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직장적인 현상용모를 조직하였다. 직장출입문 입구에 큰 통을 만들어 놓고직장의 모든 동무들이 자동전화장치에 도움을 줄수 있는 도면과 의견서들을 적어서 그 통에 넣도록 하였다.... 류영애동무를 비롯한 기중기 운전공들이 전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달려온 것이다.”

기술혁신은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당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당은 대중을 원활하게 동원하여 그들 스스로 일을 하게끔 추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손영희(1990)가 평양종합방직 공장을 기술한 것에 나타나고 있다.

“정방기 단독 흡입장치를 만들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는 벌써 한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락착을 짓지 못한채 여러가지로 의견이 분분했다. 협의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방직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정방기의 고속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 나섰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과 다른 기술자들 속에서는 다른 방직 공장에서도 해 본적이 없는 기계설비인데 구체적인 기술적 타산이 없이 우리 힘으로 꽤 해낼수 있겠는가고 머리를 저었다. 초급당일군들은 일부 기술일군들이 신심이 없이 주저한다고 자신들까지 맥을 놓는다면 방직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관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자들의 반영 - 정방기 가락회전수를 높이며 일을 보다 험하면서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니 해 볼만한 일이다. 일군들의 반영 - 간단치 않은 기계이다. 현존 기계설비를 가지고 가락회전수를 높이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방직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자면 노동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일군들의 관점부터 바로 잡아주어야 했다.” 초급당일군들은 일부 일군들이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정방기 단독 흡입장치부터 만들어 설비의 현대화에 대한 관점과 립장부터 바로 잡아주기 위한 구체적 안을 세웠다. (1) 이어 열린 초급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정방기 단독 흡입장치를 두달동안에 제작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 기사장에게는 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협의회를 조직하며 이를 통하여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활동을 강화하도록할 데 대한 분공을, (3) 지배인에게는 직장, 작업반들에 호소하여 동을 비롯한 자재를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책임적으로 보장할 데 대한 분공이 주어졌다....정방기 단독흡인장치에서도 기본을 이루는 전동기 내부결선방법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자 일부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신심이 없어 하였다....이렇게 생각한 초급당 일군들은 백덕남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을 데리고 전기직장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였다....(1) 이렇게 결심한 초급당위원회 선전부 일군들은 로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마다에 예술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에서 나오는 명대사를 써 붙이게 하여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당조직의 결정을 기어이 집행해 나가는 당원들의 투쟁을 되새겨 보게하고 (2) 전투장이 워작 끊게 경제선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기동적으로 벌려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선 작업자들이 고분 고분 당의 지도를 따라주는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완곡하지만 신철웅(1993)의 모란 피복생산 협동조합에 파견된 3대 혁명소조원 김홍철동무에 대한 기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1991년에 초급 당조직과 의논한 다음 직장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일을 보다 능률적으로 할 수 없겠는가를 알아 보았다. 하루의 단추조립량이며 제품 합격률 등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고 두팔을 걷어 붙이고 작업을 도와주는 3대 혁명소조원의 모습에서 조합원들은 그가 무엇때문에 안타까와 하고 걱정하는가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늘 해오던 일인데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소조원을 안심시키려 하는 것이었다...김홍철동무는 지체없이 전자기식 맞단추 조립기 창안에 달라 붙었다. ..기계공장과 설계기관들을 찾아 다니며...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짧은 기간 문헌조사를 끝내고 기계부분에 대한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김홍철동무는 그 중요한 원인이 낡은 기계설비인데다가 기계가 육중하고 전기안전상태가 불비하여 누구도 개조할 엄두를 내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조합의 기술자들과 함께 지체없이 이 문제 해결에 달라 붙었다. 작업현장에 침식을 옮기고 밤낮을 이어가며 기술문건들과 새로운 작용원리들을 연구하였으며 필요한 자재도 해결해 나갔다.”

당이 아닌 지배인이 기술혁신을 시작한 기사는 하나에 불과하여 실제상황이 어떠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지배인의 역할이 당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기사는 최창진(1993)의 희천 철제

일용품 공장 사례에 나타났다.

“여러차례의 기술협의회가 열리고 진지한 토론이 거듭되었다. 일군들의 의견은 여러가지였다. 놋을 녹이기는 쉽다쳐도 프레스 몇대밖에 없는 공장에서 여러가지 제품생산에 필요한 형타가 문제라는 것, 더우기 소재기지를 꾸린다쳐도 기계공장의 도움이 없이는 압연기를 자체로 제작하기 어렵다는 것... ‘이 때에 지배인은 일군들로부터 머리를 쓰고 달라 붙는다면 능히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방도를 찾고 대중을 불러 일으키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이것만큼은 큰 공장 신세를 져야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했다.... 모두가 머리를 쓰며 방도를 찾아나가는 과정에 그것을 마침내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아래의 글에서는 최근에 진행중인 북한의 제도개혁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합기업소 체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어서 북한의 가장중요한 기술혁신 기체인 노동당의 역할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평가하고, 북한의 노동력구조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경제발전 전략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1. 연합기업소와 계약제도

북한의 글에서는 박영근(1991)이 가장 명료하게 연합기업소 체제를 기술하고 있다. 연합기업소는 기본적으로 계획단위이다. 종래의 체계는 여러 계획화의 환절들을 거쳤으나, 새로운 체계는 국가계획기관의 지도밑에 연합기업소가 직접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연합기업소체계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모든 지표를 다 맡아 계획화하던 지난 날과는 달리, 계획지표들을 국가계획기관 지표와 연합기업소 지표로 나눈다.

연합기업소 체계의 특징은 개인소유나, 대규모 공업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기업소는 여러 기업간의 협동생산을 진행하여, 기본적으로 이 범위안에서 자체로 생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연합기업소 참모부는 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노력, 설비, 자재 보장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시초원료 생산

에서 부터 모체공장의 주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생산요소들을 정확히 결합해 나가게 된다. 연합기업소는 또한 자재상사와 운수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합기업소는 하나의 계획 및 생산의 단위가 된다. 이러한 대규모화된 기업은 규모가 큰 대규모 기업소일수록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 자동화한 기술수단들을 먼저 받아 들이는 잇점을 얻을 것을 예상한다.

연합기업소 조직은 1973년에 나타나고 있지만 공업관리의 기본단위로 전면 도입한 것은 1985년 7월 이후이다. 연합기업소를 기본 단위로 도입한 것은 공업의 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부문간, 지역간, 기업간의 생산연관이 복잡다양해져서 이같은 변화에 맞도록 사회적 생산조직과 관리운영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편으로 자본주의에서의 트러스트나 콘체른과 유사하다. 아마도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의 재벌체제를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는 수직적 결합형태이다. 즉 “원료,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소들과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소들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창한 공업생산 유기체”이다(최진성, 1974).

연합기업소의 조직형태는 셋으로 나눌 수 있다. (1) 첫번째 형태는,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모체기업을 중심으로 그것과 생산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문의 공장, 기업소로 조직 편성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제철소를 모체기업으로 관련된 원료(철광업소)와 수송수단으로 편성된 연합기업이다. (2) 두번째 형태는, 일정지역내 같은 부문의 여러기업과 그들의 공통의 연관을 가진 보조부문의 공장, 기업소로 편성 조직된 것이다. 이 형태의 연합기업소는 채굴공업부문에 많은데 탄광, 콘크리트와 갱목제조공장, 설비보수 사업 등을 포함한 연합기업소를 말한다. (3) 세번째 형태는, 전국적 규모에서 부문별로 전문화된 공장, 기업소를 망라한 조직형태이다. 예를 들면 기계총회사와 같은 전국의 공작기계공장과 베어링생산에 관련된 공장기업소를 결합 조직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주로 기계공장과 경공업 부문에 많이 조직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품의 종류가 많고 품질에 대한 높은 기대때문에 생산의 전문화와 협업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칭도 다양하게 불리운다. 즉 연합기업소, 회사, 연합회사, 총회사, 관리국, 총국이라고 불리운다.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계획대상으로 삼는 것도 있지

만 地區계획위원회가 하는 연합기업소도 있다. 하여간에 국가계획지도아래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계획, 생산, 집행단위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기업소 조직형태이다(연합기업소는 사회주의 공업에서 새로운 기업소 조직형태,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9: 68).

현재 북한에서 연합기업소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전체 경제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연구가 거의 없다(서진영, 1990: 304).

「표 6」 북한의 연합기업소 현황 (1989년 현재)

광공업 부문: 서천지구 광공업연합기업소, 양강도 광업연합기업소, 황남흑생 광업연합기업소, 혜산지구광업연합기업소, 김덕광업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광업건설연합기업소,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 강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천내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평북지구 중소탄광연합기업소

기계공업부문: 락원기계연합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소, 6월4일 차량연합기업소, 룡성기계총국, 만경대 기계공장, 승리자동차종합공장, 금성뜨락또락종합공장, 4월 25일 기계공장, 4월 3일공장, 5월 10일 종합공장, 8월 8일 공장, 10월 5일 자동화 종합공장, 신의주자동화 기구공장, 함흥 자동화기구공장, 사리원 축전기공장, 평성축전기공장, 희천영예군인 저항기공장, 단천 영예군인 반도체공장, 대동저항기 공장, 룡강축전기공장

제철 및 조선공업부문: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남포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제2금속공장건설연합기업소, 남포조선 연합기업소, 함북조선연합기업소, 강선제강연합기업소

건설건재공급부문: 고무산세멘트공장, 김책세멘트연합기업소, 부래산세멘트공

장, 부산리세멘트공장, 상원세멘트 연합기업,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승호리세멘트 공장, 씨리카트벽돌공장, 2.8세멘트연합기업소, 전천세멘트공장, 천내리세멘트연합기업소, 평양수지건재공장, 함흥목재가공공장, 해주세멘트공장

화학공업부문: 길주팔프공장, 2.8비닐론연합기업소, 순천비닐론연합기업소,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정주미량원소 과린산석회연합기업소, 화학공장건설연합기업소

전력공업부문: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청진화력발전연합기업소

북한에서 발행되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연합기업소를 정리한 것이다.

출처: 서진영, 1990: 303과 조선중앙연감(1991):172-177에서 추가하였음.

「표 7」 연합기업소의 산하기업소 구성

연합기업소	산하공장기업소
-------	---------

홍남 비료 연합기업소: 홍남비료공장, 만덕광산, 동방광산, 동암광산, 고원탄광화학기계공장, 화학설비대보수사업소, 자재상사

2.8 비닐론 연합기업소: 2.8비닐론공장, 만풍광산, 부대산광산, 염화비닐공장 모빌론공장, 운곡탄광

신의주 화학섬유 연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신의주팔프공장, 압강화학공장, 공립화학공장

청진 화학섬유 연합기업소: 청진화학섬유공장, 길주페르공장, 화성탄광, 상화탄광, 화성화학공장, 길주경관지공장, 스투트공장, 길주경제림사업소

출처: 김윤환, 1990, "북한경제체제의 형성과정"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54

1985년부터 전면적으로 연합기업소 중심의 공업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북한의 현행체계는 부문별 관리원칙에 따라 정무원의 부, 위원회와 연합기업소로 구성되고 있다. 부와 위원회는 부문별 중앙지도기관으로서 정무원의 통일적 지도 아래 장기적 발전 및 기술발전에 주력하면서 산하의 연합기업소의 생산과 경영 활동 전반을 지도관리한다. 그런데 일부 지방 중소규모의 연합기업소(지방건설 건재총국과 같은)는 도 행정경제 위원회가 지도한다. 따라서 현행체계는 연합기업소가 공업관리의 중심단위가 되어 전에 부와 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던 때의 권한을 부여받아 생산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체계에서는 관리기구가 간소화되었을 뿐만아니라 권한이 분권화되었다(이태욱, 1992: 50).

연합기업소 조직형태를 도입하면서, 북한은 연합기업소와 산하기업소를 동시에 독립채산제 단위로 설정하고, 그리고 연합기업소에다 경영상 권한을 많이 부여하면서 독립채산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면, 이전에 국가가 공급하던 기업의 유동자금을 기업이 스스로 은행차입을 할 수 있고, 원리금변제를 하는 것, 기업의 소규모 건설 및 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은 스스로 기업이 충당할 수 있게 한 것 등이 있다. 2중독립채산제는 연합기업소와 산하기업소의 관계에서 산하기업소의 활동을 연합기업소의 계획수행에 종속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합기업소가 애초에 구상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기술지도의 효과를 다룬 기사는 하나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아직은 적어도 기술혁신의 분야에서는 연합기업소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원인은 분명치는 않으나 하나는 노동당의 역할을 과장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실제의 기여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아직 연합기업소의 의미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아서, 자력갱생의 원칙의 단위에 연합기업소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노동당의 주도적인 역할과 자력갱생의 원칙은 애초에 의도한 연합기업소가 기술혁신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질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참모부의 긍정적인 기능을 묘사한 기사는 리명찬(1992)의 대안 중기계 연합기업소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키면서... 생산과의 지도원이 전투가 벌어지는 발전설비 1가공직장에 내려 갔을 때였다. ... 새로운 드릴 장비를 직장자체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참모부에 제기하여 해결받겠는가... 훌륭한 장비를 기대공에게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참모부의 일꾼들이 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담당부기사장은 물론 생산과와 기술과, 공구직장의 일꾼들까지 현장에 나와... 하기에 오후 교대에 새로운 드릴을 받아가지고 가공속도를 거의 3배로 높인 대형선반의 기대공은 ...”

연합기업소체계와 같이 도입된 것이 계약제도이다. 연합기업소간에 거래를 계약 제도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의 계획하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계약에 의거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박영근(1990)은 계약제도를 자재 공급 방법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계약제도에 의한 자재공급이란 수요자기업소와 공급자기업소들이 국가세부계획에 의거하여 계약을 맺고 상품거래 형식으로 자재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정무원 위원회, 부와 중앙자재 총연합상사의 지도 밑에 연합기업소들이 직접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고 상업거래 형식으로 자재를 주고 받는 체계이다. 연합기업소는 다른 연합기업소들과 계약을 맺고 자재를 주고 받는 계약단위이며,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 등 생산 수단들을 직접 공급하는 자재 공급의 기본단위이다. 그 이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자재공급 계약에는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의 품종, 규격, 재질, 시기와 공급 통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수요자 기업소가 지닌 계약의무 내용이 밝혀 진다.

상품화폐 관계를 이용하여 생산수단의 분배와 유통을 합리적으로 조직한다. “공장 기업소들이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채산을 맞추면서 기업관리를 합리적으로 해나가면서, 가치형태를 이용하여 생산물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필

요 노동의 크기를 정확히 계산하여 거기에 든 비용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수단들을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거저 주고 받거나 늑거리로 망탕 주고 받을 것이 아니라,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엄격한 계산에 기초하여 팔고 사는 형식으로 주고 받아야 한다. 계약 체결 권한과 함께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공장기업들에서 자재소비기준을 초과하거나 유용낭비하여 자재를 계획보다 더 사들이며 필요없는 자재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없앨 수 있게 하며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 규율을 세우며 유동자금의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한다."

계약제도는 결국 지나친 국가집중적인 계획경제와 완전한 시장경제를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1) 만일 생산수단의 유통에서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공급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상업적 형태의 이용을 무시하게 되면, 기업소들의 책임성, 창발성이 마비되고 수많은 자재를 낭비하게 되며 나아가서 전반적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 (2) 이와는 반대로 물질적 자극공간의 이용과 기업소의 독자성을 절대화하면서 생산수단을 상품화하고 국영기업소들사이에 자유 매매 계약을 허용하게 되면, 생산과 유통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공장 당위원회의 역할

북한은 다른나라의 경제개혁에 비해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장경제의 도입을 늦추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장경제의 도입이 과연 본래 의도한 대로 경제성장과 인민의 물질적인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회의적인 글들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북한에서의 당의 역할이 과연 경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명확히 분석된 다음에야 그 개혁의 방향과 당의 역할에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태욱(1992: 52)은 소련과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물론 중국에서도 과거의 공장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원칙에 따라 당의 권한이 컸지만 지금은 당권보다 행정권이 강화되고 공장당위원회의 역할이 약화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골간으로 하면서 당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방직후에는 공장 관리위원회가 공장을 보호하고, 부흥건설해 가기위해 조직되었고, 이 조직은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대표로 구성된 일시적 자치관리기관이었다. 1946년 8월 '북조선 인민 임시위원회'는 주요산업 국유화령을 발표하면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1946년 12월에는 독립채산제와 지배인(기업장) 유일관리제(단독책임제)를 도입하여 공업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지배인 단독책임제는 소련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장 일인 영도체제와 중국의 당위원회 영도 아래에서의 공장장 책임제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이다. 지배인 밑에는 부지배인과 기사장, 제2기사장, 감독관을 두고 지배인을 보좌했지만 기업운영 책임은 지배인 단독으로 졌다. 기업소의 현장관리는 공장인민위원회의 지도아래 공장 관리위원회가 담당하였다.

기업소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었지만 실제로는 자본, 자재,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엄격하였다. 기업소는 원칙적으로 자본을 정부예산에서 할당받지만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는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성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자재공급은 성, 국의 배정계획에 따라 각 기업소가 구입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실은 각 기업소의 지배인이나 기사장의 인적 유대관계에 따라 자재 공급이 영향을 받았다(김일성,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올데 대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권: 20).

자원분배의 궁극적 결정권은 당 지도부가 가지며, 당 지도부의 가치관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계획은 계획당국인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작성되나, 기본 방향은 당의 정치국에서 결정한다. 공장, 기업소의 관리운영체계는 부문별 중앙기관(省)의 지도아래 공장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는 지배인 단독 책임제인 것이다. 지배인 단독책임제는 공장, 기업소 관리운영의 권한이 지배인 한사람에 집중되어 공장의 모든 결정 권한이 한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규모확대에 따라 지배인 단독 책임제에는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 이기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생산자 대중의 창조력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어 새로운 관리지도 체계를 모색한다.

여기에서 1960년 청산리 협동농장의 김일성지도에 의해 창출된 ‘청산리 방법’이 나온다. 이러한 군중동원에 의한 관리방법이 제조업에 적용된 것이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즉 1961년 大安의 전기공장에서 행한 현지도를 통하여 공업 관리운영에 도입된 것이다. 즉 군중노선을 구현한 기업관리 체계인 것이다.

이후 북한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남과 때를 같이 하여 ‘천리마 운동’이란 대중동원 운동을 전개하면서 근로자 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배인 단독 책임제’를 ‘집단 관리제’로 바꾸었다. 즉 지배인 단독 책임제는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이라고 지적하면서(김일성,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3권: 105),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출하였다. 군중노선에 의거한 공업관리인 대안체계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오히려 중앙집권적 관리체제로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계획의 일원화와 세분화’ 방침을 1965년에 정하여 대중노선과 과학성을 강조하면서 관리운영에 있어서 통일적 계획성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고뢰정, 1988: 110). 이 현상은 1960년대에 소련이나 동구에서 분권화란 경제개혁을 통하여 생산력발전으로 경제난관을 돌파하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이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인 대중노선에 의거한 관리체계를 창출한 것은 경제기술사업보다 정치사업, 즉 사람과의 사업을 본질로 내세워 군중동원을 통한 경제난관을 타개하려고 시도한 것이다(이태욱, 1992: 45).

대안의 사업체계 조직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공장(기업) 당위원회를 최고 기관으로 하는 집단지도체계, (2) 통일적, 종합적 생산지도체계, (3)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와 후방공급체계가 그것이다. (1) 공장당위원회를 최고기관으로 하는 집단지도체계의 확립은 이전의 지배인 단독책임제와는 달리, 공업 관리운영에 있어서 당의 지도성 강화를 도모하고, 당이 정치지도체계를 기업관리에 추가하는 한편, 당의 정치지도체계와 국가의 행정, 기술지도체계를 조합시켜서 통일적인 공장지도체계를 수립하자는 의도이다. 당의 지도적 역할과 정치와 경제의 불가분의 원칙,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이다. 공장 당위원회가 기업을 관리 운영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체계로 되어 있다.

(2) 둘째, 통일적 종합적 생산지도체계는 종래 체계에서 별개로 이루어져 있던, 지배인이 담당하던 생산지도와 기사장이 담당하던 기술지도를 모두 단일한

지도체계아래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종합적으로 지도한다는 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공장참모부'를 설치하여, 지배인은 공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된 행정 및 경제활동 전체를 책임지고, 기사장은 지배인의 제 1대리인, 공장 참모장으로서 계획의 작성, 생산의 조직, 기술지도 등 생산의 전과정을 통일적으로 장악하여 일원적인 지도를 하는 체계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집단적 협의제 아래 매주 1회 공장참모부 회의를 열며, 매일 1회 공장 참모 성원회의와 직장담당 성원회의를 열어 기업수준으로부터 생산현장에 이르는 생산지도체계를 통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3) 셋째,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와 후방공급체계란 생산의 정상적인 조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재공급체계를 중앙집중적으로 조직하고, 근로자 생활에 대하여 전면적인 책임을 지는 후방공급체계를 말한다. 종래의 자재공급체계는 개개의 기업이 성과 관리국이 발표하는 지시서에 의해 기업사이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였다. 여기서 발생하는 노력과 낭비를 제거하고 자재공급을 일원화하며 생산의 조직, 지도에 임하는 상급기관이 책임을 지는 중앙공급적 형태를 고안한 것이 새로운 방식이다. 즉 상급기관인 성이나 관리국이 책임지고 위로부터 기업이나 생산현장에 통일적으로 공급하는 중앙집중적인 체계이다.

또한 예전에는 근로자 區의 인민위원회, 상점, 협동농장 등이 따로 행했던 공급활동을 여러기관을 포함하는 경영위원회를 통하여 공급기관이 긴밀한 연계를 가져서 물자공급에서부터 서비스 시설, 보건, 위생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조직으로 바뀐 것이다. 즉 기업소 공장 내에는 후방관리담당 부지배인과 후방 공급부서를 설치하여 근로자 대중에게 소비물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기금의 분배를 일원화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는 후방공급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군중노선에 의거한 경제관리, 다시 말하여 '주체의 경제관리'의 본질은 '생산자 대중을 경제관리의 참다운 주인으로 직접적 담당자로 되게 하며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자들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에서 지켜야 할 행동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것은 네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당의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군중노선을 관철하는 기초위에

과학성의 보장이다.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각 단위의 창의성을 올바르게 결합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의 모든 부문이 상호 밀접하게 결합한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어 전사회적 규모를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획성과 균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정치사업과 경제기술사업,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켜야 한다. (4)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는 기초 위에서 지방과 그리고 대중의 창의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관리운영체계라야 된다. 즉 경제관리의 주인인 근로대중이 소외되고 관료주의와 주관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1) 중앙기업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지도통제를 받으며, 중앙인민위원회 지휘감독 하의 정무원의 경제부서(위원회와 부의 총국)와 도(직할시)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의 행정집행관리를 맡는다. (2) 지방기업소는 군, 시(구역)당위원회 및 리당세포의 당의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지방인민위원회 지휘감독하의 도(직할시)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의 재정집행관리를 받는다. (3) 중공업이 따로 있다.

정무원 산하에는 1989년 1월 현재 (1) 국가계획위원회(중앙 및 직계 지방계획위원회)가 계획기능을 담당하며, (2) 집행기능은 정무원소속 경제분야 각 위원회(대외경제, 건설건설공업, 교통, 화학 및 경공업, 인민봉사, 국가과학기술, 농업, 전력공업, 수산, 국가건설, 전자자동화공업) 및 각 부(기계공업, 자원개발, 선박공업, 무역, 상업, 재정, 체신, 금속공업, 합영공업, 도시경영, 화학공업, 원자력공업, 철도, 대외경제사업, 노동사업, 상업, 건설)의 산하 각 총국 및 국, 그리고 지방행정위원회 산하 각 위원회 및 국이 있다. 위원회는 조정과 지도방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좀 더 많은 결정 권한이 하부기관에 맡겨져 있고, 부는 공장 기업소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 하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체계를 의미한다. (3) 중앙인민위원회(최고 인민위원회의 의결 및 승인을 받으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통제를 받고, 행정적으로는 주석의 아래에 있으며 정무원을 관리한다)와 지방인민위원회가 감사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헌법상의 조항일 뿐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 직접 현장감시활동이 주로 이용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특징은 이태욱(1992: 47)에 따르면 다음의 5가지를 든다. (1) 관료주의, 기관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지도 체계를 취한다. (2) 관료주의, 개인주의, 주관주의적인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업관리에 군중노선을 취한다. (3) 개인의 지도체계가 아니라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집단 지도 체계이다. (4) 경제기술사업보다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5) 도덕적 정신적 자극을 물질적, 경제적 자극 보다 강조하고 있다.

리장록(1990)은 평양 고무공장 초급당위원회의 3가지 예를 든다.

(1) “초급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풀어나가기로 결심하고 우선 당, 근로단체, 행정경제 일군들로 몇개의 조를 무은 다음 그들을 피대, 호스, 콘베아 직장과 분공장들에 내려 보내어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매 단위앞에 제기된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내게 했다. 초급당비서 허영창동무는 행정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콘베아 직장에 나갔다....초급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 .. 그리하여 공장안의 당세포들, 근로단체 조직들, 행정의 부서들이 움직이게 했으며 일군들이 짐을 더 많이 지고 앞장서 나가게 했다....이 세사람(초급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은 퇴근길에서도, 공장의 구내길을 걸으면서도,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사업을 늘 의논하고 있었다...특히 이 공장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3위 1체를 보장하는 데서 공장초급당비서가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2) “어느날 초급당비서는 준비직장에 나가 초급당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대로 올해 생산준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알아 본 적이 있었다...곧 그 길로 공장 지배인, 기사장을 찾아가 밀폐롤기 보수현장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였다...그러자 지배인은 보장부문의 일군들을 발동하여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으며, 기사장은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전투지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

(3) “초급당일군은 곧 지배인과 기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기사장이 생산은 자신이 책임지고 밀고나갈테니 넘려말라고 했다. 그러자 지배인이 공장안의 사무원들이 사회적 운동을 벌려 공사를 해제끼자고 했다.”

리영호(1993)는 10월 30일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 소조의 예를 든다.

“3대혁명소조원 함성호 동무는 6호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낡은 기계를 새롭게 개조하여 리용율을 높였고 소조원인 한일철동무는 한 로동자의 새로운 발기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 도와주어 가공속도를 2배나 높이면서 제품의 질을 훨씬 끌어 올리게 하였다. 소조원 고영진, 리태창, 김영철 동무를 비롯한 많은 동무들은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대담하고 통이 큰 기술혁신안을 제기하고 그 실현에 적극 달려 붙었다...소조원 김명희동무는 한 동무를 담당하여 낮에는 함께 일하면서 가르치고 과외시간이면 마주 앉아 과학 기술적 원리들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터득시키기에 애썼다.”

한창호(1992)는 재령군에 파견된 3대 혁명소조의 예를 든다.

“우선 자기들이 나가 있는 단위들에서 한개 작업반씩 맡아 그를 모범기술혁신 작업반으로 만들 대담한 투쟁목표를 세웠다...식료공장의 맛내기 간장 작업반...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수출 피복공장...재봉실 소비량 측정기를 도입하여 그 소비량을 이전보다 낮추게 하였다.”

로동신문(1991)은 6월 4일 차량 종합공장 당위원회 사업의 예를 들고 있다.

“종합공장 당위원회에서는 당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과 경제과업수행에서 새롭고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면 당위원회를 열고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가 어김없이 집행되게 하기 위하여 책임비서, 지배인, 기사장 이 세사람이 늘 마주 앉아 협의하고 그시그시 정황에 따라 행당한 대책을 세워 나간 것이다...그래서 (1) 책임비서는 기관차수리를 맡은 단위의 오랜 기능공들을 일일이 만나 담화하면서 해결방도를 토의 했으며, (2) 지배인은 자재보장부문일군들과 같이 수리할 매기관차를 돌아보면서 수리하는데 무엇이 더 요구되면 그것을 언제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를 타산했다. (3) 기사장은 기술집단을 이끌고 수리현장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면서 기술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풀 방도를 찾았다....(1) 즉 책임비서는 당위원회 일군들을 데리고 전투현장에 나가 당세포회의도 지도하고 해설담화사업도 진행하면서 당원들과 노동자들을 불러 일으켰으며, (3) 기사장은 기술자들과 오랜 기능공들과 함께 이미 있던 기관차의 부속품을 되살려 쓰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2) 한편 지배인은 보장부서 일군들과 같이 기관차 수리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을 전투현장에 제 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조직의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종합공장의 당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행정경제일군들이 움직였다.”

한병인(1992)은 또 다른 공장의 예를 들고 있다.

“한편 초급 당위원회는 당일군들과 행정경제 일군들이 사업에서 일치성을 보장하며 당일군들은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상 권위를 높여주는 사업을 잘하고 행정규율을 철저히 세워 그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경제 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의 사업조건도 충분히 보장해 주고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는 사업도 잘 안받침해 나갔다.... 지배인 허정웅 동무는 조직사업과 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짜고 드는 한편... 또한 기사장 김웅건 동무는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공장에 흔한 산화철과... 기술부기사장 로룡준, 설계원 정석범 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도 자동차 대신...”

로동신문(1993)은 제 2급속공장 건설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또한 당원들의 실정과 책임일군들의 직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일군들에게 한 단위씩 맡겨주어 그 단위를 실속있게 도와 주도록 하였다. 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한래룡 동무를 비롯한 당위원회 일군들은 물론 지배인 최기종, 기사장 민원식 동무를 비롯한 많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초급일군들과 같이 사업을 조직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 주었다.”

손종만(1993)은 남포 유리제품 수출공장에서 당의 조직을 이용해 성공한 기술혁신을 두개 소개하고 있다.

(1) “공장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생산의 첫공정인 원료 배합공정과 유리용해공정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실현하도록 심화시켰다. 현장에 내려간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유리용해로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게 하면서, 기능공들과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 용해로의 열 보충공정을 개조함으로써 많은 기름과 전기를 절약하게 하였다. 이렇게 많은 것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년초에 비하여 1.2배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2)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린 제병직장의 당원들과 기대공들은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작업공정을 흐름식으로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1.4분기계획을 20여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로동신문(1993)은 고원철도 영예일 군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 소조원들이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과정을 싣고 있다.

“자동철판절단기를 만들어 생산에 도입하면서도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했던 철판자투리를 놓고 마음을 쓰는 영예일군들의 진정을 목격한 홍차국동무는 철판자투리를 남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못제작기계를 만들며, 나아가서는 영예일군들이 보다 험하고 흥겹게 일할 수 있도록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체계를 자동화하는데 자기의 정력과 지혜를 다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기술문헌들을 깊이 연구하고 당조직과 오랜 기능공들의 방조를 받아가며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고 부속품을 가공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홍차국은 연이어 로라식 절단기, 형타가공기, 원료비빔기계들을 창안하여 생산에 도입할 수 있었다.”

안문수(1993)는 청수화학공장 카바이드직장 2호전기료에서의 당세포 비서의 주도아래 효율적인 기계를 만드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기료의 전기분배 공급장치를 새롭게 개조하여 수많은 동과 로력을 절약하고 보수기일을 앞당길데 대한 의견은 매우 가치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어디 세포비서 혼자서 일인가?... 공장기술집단도 이들의 사업을 적극도와 주었다. 당세포비서가 실천적 모범으로 앞장에서 당원들을 이끌고 집단이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어렵게만 보이던 전기분배공급장치는 성공적으로 개조되었고 따라서 수많은 동과 로력이 절약되었고 보수기일도 앞당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카바이드 생산에서는 혁신이 일어 났다.”

3. 노동자의 정치적 동원

리광(1991)은 김종태 전기기관차 종합공장 단조직장에서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작업시간 전후에 정치적인 교양을 위해 시간을 할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초급당비서 조순남동무...그 무렵 각 작업반에서는 첫교대 성원들이 시간을 앞당겨 나와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독보한 데 이어 작업준비를 다그치고 있었다. 현장에 내려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이신작척의 모범을 보인 초급당비서, 직장장, 직맹초급단체 위원장 동무들의 혁명적 기풍은 직장당원들과 노동자들의 사기를 부쩍 든구어 주었다....초급당비서 조순남동무가 작업반장 김성남, 세포비서 백영철, 기대장 리태순 동무들을 둘러 보며 말했다...현장에서 즉시 고리를 포착한 초급당비서 조순남, 직장장 박승록 동무들은 직장자재조달원 유준원동무를 만났다...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유준원동무는 가열해서 절단하는 방법으로 하면 3톤합마를 리용해서도 소재를 넉넉히 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3톤합마작업반원들은 지체없이 여기에 적극 호응해 나섰다...”

손영희(1991)는 평양알루미늄 제품공장에서 주체사상 교육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예를 보여준다. 즉 공장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나 교양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야하는 정치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동무들이...그러나 일부 동무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가공직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고 있는 리동무와의 학습담화도 이렇게 시작되었다....초급당 일군은 그가 한 말을 실마리로 하여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방식상학에는 행정일군들과 세포비서, 선동원, 학습강사들이 빠짐없이 다 참가하도록 하였다....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면하게 조명갯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를 주체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은이 나도록하는데 모를 박고 그 준비사업을 짜고 들었다. (1) 모든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발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을 반복하여 학습하도록 한 것, (2) 세포들에서 주체사상과

관련한 명제들을 뽑아 카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2일에 한 번씩 되돌려 가며 학습하게 하고는 저녁작업 총화뒤끝에 학습한 내용을 자체실정과 결부하여 대중 앞에서 발표하게 한 것 등이 그러한 실례들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동원을 위한 시간의 소요는 결국 공장노동자들이 생산 활동에 쓰는 노동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외에도, 생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교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가 나오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4. 가용 노동력의 증대

김기찬(1990)은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노동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우선 현실적으로 “노력을 무질서하게 유용 낭비하거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생산노력을 마음대로 다른일에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장, 기업소들에서 노력조직을 잘하지 못하여 노력을 낭비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력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i.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ii. 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창조적 능력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i. 아무리 현대적인 기계기술수단들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노력전선에 인입되어 해야할 일은 무진장한 것이다. 노동대열에 새로 인입되는 각급 학교 졸업생들과 제대군인 배치를 잘하며 일시적으로나마 노동전선에 인입되지 못하고 있는 유향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 이용해야 노력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

박상태(1991)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력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자료에 대해서는, 1992년 1월에 실시한 센서스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직 신빙할 만한 것이 없기는 하지만, 매우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 즉 25세 미만인구가 남한은 전체인구의 46.3%인데 비해서 북한은 53.7%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1960-1974년에 출생한 인구가 노동력으로 진입했고 또 계속 진입하고 있어 이들이 훈련과 산업에의 적정배치가 발전을 좌우하게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ii. 이미 노동대열에 인입된 근로자들의 사회적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더 많은 노력 예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1) 노력의 부문별 균형을 옳게 보장하며 (2) 근로자들의 능력과 체질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부문별 균형이란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지역별 균형을 말한다. 노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데서 생산부문 종원수를 우선적으로 늘리면서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비생산 종원원수를 규정하며 생산부문안에서도 기본 생산부문, 특히 직접부문의 노력비중을 높이고 보조부문과 간접부문의 노력비중을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별 노력균형을 보장하는 데서는 도의 노력수요를 도안의 노력원천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들의 능력과 체질에 맞게 배치한다 함은, 노력전선의 주공에 청장년들을 배치하여야 하며,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작업대상을 바로 정하고 거기에 여성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IV. 결 론: 사회주의적 작업방식과 경제발전 전략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사회주의 경제개혁이 작업방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나를 검토하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 발전전략이 작업장의 변화와 어떤 관계에 봉착하고 있나를 이해할 수 있고, 전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84년에서 1988년까지는 계획적 상품경제를 모델로 제시하였다. 기업의 자율권을 강화하며, 집체기업이나 개체기업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국영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었다. 1988년에서 1991년의 기업에게 이양되었던 권한이 일시적으로 중앙정부로 회수되었다. 1992년에 이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그 모델이 되었다. 특히 全民소유제의 대기업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었다(이문형, 1992).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업의 자주권의 확대대상으로는 기업의 생산계획권, 원자제조달권, 생산제품의 판매권과 가격 결정권, 자금 사용권, 임금과 장려금에 대한 처분권, 노동인사권 등을 들 수 있다. 1978년 하반기부터 사천성에서는 기업과 종업원들의 물질적 욕구를 자극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었다. 1979년에는 국영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위한 5가지 조치를 하였다. (1) 이익을 내는 기업에는 이윤유보제를 실시한다. (2) 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유상제도를 실시하고 유휴 고정자산에 대한 임대를 허용하며 유동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신용대출 제도로 전환한다. (3) 신제품 개발비용을 기업이 유보한 유보이윤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국가의 계획을 초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5) 실험기업에게는 직원채용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중하위 직원에 대한 임면권과 기업의 조직개편에 대한 자율권도 부여한다.

1980년 9월에는 국가경제위원회가 향후의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즉 (1) 이윤유보에 대한 기업의 처분권을 보장하고, (2) 독립채산제와 손익 책임제를 실시하며, (3) 기업이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4) 기업이 계획외로 초과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기업에 처분권을 보장한다. (5) 정부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변동가격제를 적용한다. 이후 1984년 5월의 “국영기업의 자주권에 대한 임시규정”, 1988년 4월의 “全民소유제 공업기업법”을 도입하였다.

O'Brien(1992)은 중국의 개혁을 설명하면서 공장간 또는 공장과 국가간의 거래의 형식이 물질적인 것에서 재정이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적한다. 즉 코르나이가 헝가리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개념인, '연성 재정제약'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수출지향적인 기계와 전기장비생산업체 고위경영자들을 대상으로 1988년에 설문조사한 것에 따르면 그들은 중앙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많은 자율성과 양보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봉급과 보너스 기금과 분배, 세금을, 당원들의 결정으로부터 상당히 양보와 면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외부기관은 조직(선전, 안전, 병원, 노동조합과 같은)을 바꾸거나 당원이 아닌 사람을 생산직으로 보낸다고 할 때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자율성이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자들은 계속해서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상급기관과 또는 세금, 안전, 전력, 환경, 물,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의 협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은 사소한 것에 대한 귀찮을 정도의 통제, 항상적인 협상, 그리고 기업의 자금과 노동력을 질시하는 많은 시어머니의 증가등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다.

지방행정관서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생산에 할당하는 시간보다 지방관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주요 재정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지만, 간혹 그들이 무엇을 가져가기 위해 협의를 해야 한다. 선물과 대접에 대한 요구가 점점증하고 있다.

지역 또는 산업규제는 재투자, 보너스와 육아, 탁아, 영화티켓, 휴일의 식사등과 같은 복지비용에 할당비율을 정해 놓고 있다. 대개 5:3:2이며, 또한 6:2:2, 3:3:4인 곳도 있다. 경영자들은 재투자의 비율을 줄이고, 복지비용은 현재정도가 좋고, 보너스를 높이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경영자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상급기관과 상의한다. 노동자들의 동기, 자신들의 인기와 공장의 사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자금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고 부족한 것은 상급기관이나, 차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이윤에 대한 55%의 세금은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대규모의 기업이나 정부의 기업인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을 벌주고 해고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경영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해고는 하기가 어렵다. 경영자들

은 가능하면 현재 수준의 18%를 감원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의 승인을 구하지 못하고, 공장내의 조화를 깨뜨릴까 보아, 또는 누구를 내보내야 되는 지에 대해 경영자와 당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못하게 된다. 지나치게 많은 노동력에 대해서는 당과 노동조합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상급기관에서도 해고를 반대한다. 또한 경영자들도 해고할 경우, 심지어는 신체적인 폭력의 위협까지 무릅써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은 노동력에 대해서는 매우 한정된 자율성과 협상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1987년부터는 국영대기업에는 경영책임제, 소형기업에는 임대제를 도입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기업의 자율과 책임강화를 추진하였다. 1988년 말 현재 전국예산내 공업기업중 95%가 기업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형태로는 다음의 6가지가 있다. (1) 이윤과 기술개조를 정부에 보장하고 임금총액과 경제효율을 경제효율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2)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의 이윤을 매년 체증시키는 비율로 국가에 상납하는 것이다. (3) 계약시 국가의 상납이윤액을 먼저 결정하고,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비율대로 국가와 분배하는 것이다. (4) 손실이나 이윤을 사전에 정하고 예상 손실액을 초과한 기업은 그에 대한 손실을 책임지는 방법이 있다. (5) 업종별 투입산출에 대한 청부제가 있다. (6) 국가에 우선 55%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이윤중 30%는 국가가, 70%는 기업이 갖는 방식이다.

임대제란 국유제의 전제하에 소유권과 경영권을 완전 분리하여 국가가 일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기업을 임대하고, 임대기간동안 임차자는 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하는 대신 국가의 간섭없이 기업경영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자는 주로 기업이 소재해 있는 지방 정부이며, 임차자는 개인 또는 몇사람, 다른 기업, 또는 직원전체일 수도 있다.

공장장책임제는 정치와 기업의 분리, 즉 당과 기업의 분리를 의미한다. 기업의 지도체제를 과거 당서기 중심에서 전문경영인인 공장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장장이 기업의 대표권, 경영권, 인사권, 자산과 자금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Walder(1991)는 중국에서 1989년의 정치적인 위기에 노동자들이 등장한 것을 보고 이전의 경제개혁이 노동자에 대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1989년의 천안문사태는 결국 중국의 노동자통제에 실패했다는 것을 용변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간헐적인 작업속도 저하와 같은 태업, 생산물의 질에 대한 무관심, 작업중지, 결근, 작업장내의 공구및 물건에 대한 도둑질이 공장내에서 퍼져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특징적인 정치적으로 결정된 임금구조에서는 공산당의 역할이 막강했었으나 이제 그 역할은 1980년대에 경영자들에게 넘어져 왔었다. 아직은 해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작업성과가 불량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는 경영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벌을 줄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즉 이들을 공장내의 낮은 임금분야로 이동시킴으로서 가능하였다. 따라서 직무의 보장과 벌은 새로운 갈등의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과 경영자들사이의 갈등은 첨예화되었다. 끊임없는 태업, 상호양보, 불안한 적대감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개혁은 1980년대초에 시도된 계획과 재무에 대한 개혁에서 촉발되었다. 새로운 개혁에서 경영자들은 국가나 당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들까지 포함한 기업의 이익을 수호해야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바뀌었다. 따라서 임금과 다른 부수 급부는 중앙의 기관이나 지역의 기관에서 기업차원의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생산성과급이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자, 급여의 수준과 평등성에 대한 문제로 바뀌게 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할 것인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불만은 결국 감정적인 주장과 태업으로 이어지고 대부분의 공장에서 기존의 설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임금차이를 최소화하고 임금의 상승을 개인과 집단의 성과의 차이에 연동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공장간의 차이는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공장간의 차이는 개혁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나 공장을 떠나지는 않으려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성과가 직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일에는 수동적이고, 열의가 없어져 갔다.

기업합병과 기업집단의 육성: 국가계획 임무를 달성한 기업은 생산품종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대기업을 모체로 하여 소유제의 경계를 넘어 기업종간, 이지역간 기업합병을 통해 대기업 집단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1988년말까지 2,856개의 기업이 3,424개의 기업을 합병하였다. (1)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채무를 인수하고 합병한다. (2)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 소속의 정부로부터 기업을 사들인다. (3) 주식매매에 의한 방식이다.

주식제 도입: 1992년 8월 현재 3,700개가 주식제 기업으로 허가되었으며, 1,000여개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선호하는 이유는 (1)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 (2) 생산설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이나 주식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3)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이외에 주식보유에 의한 배당소득을 줄 수 있다. 주식회사의 형식은 (1) 직원들을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 (2) 사회에 주식을 공개해서 모집하는 경우, (3) 신규주식을 발행하여 증자한다. 국가보유주식, 기업보유주식, 개인주식으로 나누인다.

개혁의 성과는 바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생산성의 증가”이다. 기업의 가격결정권이 크게 확장되었다. (1) 국가정가는 국가가 가격을 직접결정하는 것으로 기업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엄수해야 하는 가격이다. (2) 국가지도가는 일종의 변동가로 국가가 기준가와 변동폭을 정하면 기업이 그 범위내에서 시장의 수급을 고려하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3) 시장조절가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1990년 현재 70%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문제점은 국영대기업의 비효율성과 막대한 규모의 적자, 단기적 실적 위주의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간, 직업간 소득과 효율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공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단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구이다. 즉 노동자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공장은 여행허가를 해주며,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거주허가를 처리해 주며, 지역의 주택, 재판소, 경찰에 대해 노동자를 대신하여 개입한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노동단위를 통한 이러한 기본적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국가의 규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하며, 아니면 주택할당을 늦게 받는 등의 불이익을 보게된다. 상당수의 경우에 작업장 지도자와 다른 공장 경영자들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한다.

중국의 도시에서는 작업조직이 정부의 통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주로 중요 서비스와 재화가 작업조직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배분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서비스와 재화를 구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가질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도구적인 개인적인 연계에 의존하여 재화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밝혀 졌다. 교환의 연계망은 사실상

공장의 수준을 넘어서서 확대된다(Ruan, 1993).

중국의 개혁방향은 시장경제를 최대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동계약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임금제도도 개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의 종신고용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계약제에 의한 취업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임금제도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에게 조직개편 권한과 직원의 채용과 해고를 포함한 인사권을 부여한다.

이상에서 중국의 개혁이 비교적 급속하지만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당의 간섭이 경영자들에게 지속되고 있어 경영자의 자율권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경영자들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높이 주고, 직업안정은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반면에 과거의 사회주의 이념과 직업 안정성의 상실, 공동체의 파괴, 불평등의 심화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일단 시장경제에 의한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고, 가격통제가 시장의존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자본의 문제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증거가 없으며, 임금도 사회주의적인 노동보수제가 실시되기는 하지만 경영자에 의한 평가보다는 당에 의한 정치적인 평가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격은 계약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아직 시장의존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소유의 형태는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려는 초보적인 시도인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노동력의 동원을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지속하고 있고, 물자의 흐름은 계약제 등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나 아직도 자력갱생, 당의 대중동원 등의 방식으로 융통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발전은 노동력의 증대, 사회주의 이념의 고수, 당의 지속적인 권력 유지 등의 요인에 의하여 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뢰정, 1988, 북한경제입문, 서울, 청년사
- 고승효, 1978/1988,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 (서울: 청사)
- 고승효, 1989/1993, 현대북한경제 입문 (서울: 대동)
- 고현욱, 1987,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 국토통일원 편, 1974, “북한의 생산관리에 관한 분석”
- 김경준, 1990, “매일 계획을 2배로: 동흥산 피복 공장에서” 로동신문, 1월 22일: 3면
- 김광동, 1991, “북한의 공장내 노동단체의 활동과 노동동원”, 북한 연구, 2권 4호 (겨울호): 128-157
- 김기두, 1993, “신발생산에서 커다란 혁신: 신의주 신발공장에서”, 로동신문, 2월 11일: 1면
- 김기찬, 1990, “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노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중심과업”, 근로자, 6호(통권 578호): 57-62
- 김덕윤, 1990, “로동생산능률의 제고는 확대재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근로자, 7호(통권 579호): 69-73
- 김동원, 1989, “북한의 경제개발정책의 성격과 경제개혁 전망” 아세아연구, 32:1 (1월): 109-46중 북한의 경제개혁과제
- 김명치, 1992, “예비는 찾으면 찾을수록: 평양 금속건재 공장사업에서”, 로동신문, 3월 12일: 3면
- 김명치, 1993,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불러 일으켜: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1월 14일: 3면
- 김성태, 1965, “현물평가제의 본질과 우월성”, 근로자, 11월(제 21호)
- 김일성, 1949, “새한경과 새 조건은 새로운 사업태도를 요구한다 - 산업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I(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90-95
- 김재률, 1991, “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을 높이는 것은 현실발전의 절실한 요구”, 근로자, 6호 (590호): 68-73
- 김진주, 1993, “그 사랑 비단필로 펼쳐가리: 박천견직공장에서”, 로동신문, 2월 3일: 3면

김창석, 1991,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과 일군들의 경제조직 사업”, 근로자, 3호(통권 587호): 60-64

김철식, 1990,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의 구현문제”, 근로자, 11호(583호): 53-58

김하광, 1990, “사회주의적 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정치”, 근로자, 8호(통권580호): 73-78

김하광, 1991,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조직사업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근로자, 8호(통권 592호): 65-69

라정빈, 1991,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인 사업체계”, 근로자, 2호(586호): 62-67

량봉학, 1990, “내부예비동원과 일군들의 창발성”, 근로자, 12호 (584호): 65-69

로동신문, 1991, “결정된 문제는 끝까지 집행되게: 6월 4일 차량 종합공장 당위원회 사업에서”, 1월 14일: 2면

로동신문, 1991. 1. 7일, “사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리하자”

로동신문, 19937. 1. 21, “사설: 일군들은 청산리 방법을 구현하여 대중을 위훈창조어로 불러 일으키자”

로동신문, 1993L, “제힘으로 풀어나갈 때: 덕천 탄광기계 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1월 22일: 3면

로동신문, 1993D, “행정일군들이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제2금속공장 건설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6월 27일: 3면

로동신문, 1993R,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고원철도 영예일 군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 소조원들”, 3월 30일: 4면

리경재, 1991, “독립채산제를 따로 실시하는 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방도” 근로자, 8호(통권 592호): 59-64

리광, 1991, “집단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김종태 전기기관차 종합공장 단조직장 당원들과 로동자들”, 로동신문, 1월 16일: 4면

리명찬, 1992, “참모부서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대안 증기계 연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3월 5일: 3면

리명찬, 19937, “수도의 살림집 건설장에 많은 판유리틀: 남포유리 련합회사에서”, 로동신문, 4월 22일: 3면

리명찬, 1993년,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 길에서, 룡강전동기공장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3월 4일: 3면

리영호, 1993, “생산의 주인된 립장에서: 10월 30일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 소조에서”, 로동신문, 6월 23일: 2면

리원경, 1992,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 것은 대안체계의 중요요구,” 로동신문, 3. 4일

리장륙, 1990, “당적 방법으로 힘있게 떠밀어 준다: 평양 고무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1월 17일: 2면

리재운, 1991, “혁명적 로동생활기풍을 세우는 것은 로동행정사업에서 나서는 기본 과업”, 근로자, 7호(통권 591호): 59-63

리정호, 1990, “경쟁 도표”, 로동신문, 1월 23일: 4면

리종관, 1990, “생산자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3월 25일 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1월 29일: 3면

리지영과 김현, 1992,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잘하여: 신의주 선박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3월 16일: 3면

명홍숙, 1993년, “그 마음 제품마다에: 평양신발공장을 찾아서”, 로동신문, 6월 1일: 3면

명홍숙, 1993년, “어느 고리에 힘을 넣었는가?: 평양피복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월 5일: 3면

박동철, 1992, “북한의 경공업현황과 전망: 섬유, 신발, 식료품공업”, 계간 북방지역경제, 5권 1호 (3월): 61-74

박상태, 1991, “북한인구의 구조와 변화 - 남북한의 비교” 동아연구, 22집: 21-54

박영근, 1990, “계약제도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원칙에 맞는 우월한 자재 공급 방법”, 근로자, 9호(통권 581호): 53-58

박영근, 1991, “연합기업소 체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과 대규모 공업 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월한 기업관리 체계”, 근로자, 4호(통권 588호): 72-76

박지홍, 1991,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여주어: 제2금속공장건설 연합기업소 제관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월 30일: 2면

박형준과 김태영, 1992, “북한의 과학기술: 기술혁신의 현황과 한계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86호: 85-133

배미옥, 1990, “연합기업소에서의 2중 독립채산제”, 근로자, 10호 (통권 582호): 80-85

백옥인, 1990, “북한의 일상생활” 강정구 편집,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71-95에서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와 인민생활」 북한 편집부, 1972, “북한 주민의 가계부,” 북한, 1권 12호: 272-276

사카이 다카이, 1990, “북한의 정치개혁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와 사상, 5월호

산사연 북한사회연구반, 1993, “북한사회연구동향” 경제와 사회, 17호 (봄): 100-44

서남원, 1971, “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 독재경제의 이론과 실제” (고려대 출판부)

서울 사회과학 연구소, 1991, 사회주의 이론, 역사, 현실 (서울: 민맥): 271-75에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새로운 모색”

서재영, 1991, “정치적 방법은 우리당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 근로자, 11호(595호): 62-67

손영희, 1990, “대담하게 말하고 밀어줄때: 평양종합방직 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월 16일: 2면

손영희, 1991, “주체사상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평양알루미늄 제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1월 9일: 2면

손종만, 1993, “한 손에 마치, 다른 손에 총을: 남포 유리제품 수출공장에서”, 로동신문, 3월 17일: 3면

신철웅, 1993, “창조적 지혜와 성실한 노력을 바쳐: 모란 피복생산 협동조합에 파견된 3대 혁명소조원 김홍철동무”, 로동신문, 3월 1일: 4면

신혁필, 1993, “혁신의 발구름소리 높이 울리며: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로동계급과 3대혁명 소조원들”, 로동신문, 6월 3일: 3면

안문수, 1993, “남먼저 어깨를 들이 밀고: 청수화학공장 카바이트직장 2호전기로 당세포 비서 류인섭동무”, 로동신문, 4월 1일: 2면

오혜옥, 1990, “뜻도 숨결도 당과 함께: 평양 종합방직 공장 직포종합직장 4직포직장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로동신문, 1월 30일: 4면

유명양, 1993,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개성신발공장에서”, 로동신문, 2월 4일: 3면

유시영, 1991,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리”, 근로자, 10호(통권 594호): 65-69

이만우, 1992, “북한의 경제,” 사회평론사, 한국사회 이해를 길잡이: 분야별 연구현황과 참고문헌 (월간 사회평론 1992년 신년호 별책부록): 280-89

이문형, 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 기업개혁,” 계간 북방지역경제, 5권 4호 (12월): 35-51

이태욱, 1992, “북한의 공업관리체계” 북한연구 (봄): 34-52

日朝貿易會, 1992. 11., “平壤周邊の主要工場, 施設の概要”,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對日經濟政策及び經濟, 主要産業部門 現狀と展望를 번역한 것, 이석기, 1993, “자료: 평양주변의 주요공장 시설의 개요”, 계간 북방지역경제, 6권 1호: 84-96

정대화, 1989,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의 「우선정책」과 「속도」문제” 오늘의 북한 (월간중앙, 신년호 별책부록): 145-49

정상훈, 1986, “북한의 경제발전과 그 가능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의 대외정책

장익모와 리성근, 1963, “대안의 체계와 새 인간의 형성”, 근로자, 1호

조성대, 1963, “새 체계 하에서 1년간의 사업을 통하여 얻은 몇가지 경험”, 근로자, 1호

주용설, 1991, “기업관리의 합리화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학적 관리” 근로자, 9호 (593호): 68-73

채형식, 1991,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하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제”, 근로자, 1호(585호): 59-63

최일호, 1990, “힘도 지혜도 군중에게 있다: 황해 제철 연합기업소 강철직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1월 21일: 3면

최진성, 1974, “연합기업소의 창설을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 근로자, 12월호: 89-90, 서진영 편, 1990,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II,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연구총서 32: 302에서 재인용

최창진, 1993, “머리를 쓰고 혁명적으로 내밀어: 희천 철제일용품 공장 일군들”, 로동신문, 6월 22일: 3면

한병인, 1992,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8월 28일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3월 27일: 2면

한순송, 19917, “일편단심 당을 따르는 전사의 신념: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압연직장 로동계급에 대한 이야기”, 로동신문, 1월 21일: 4면

한순송, 19912, “조국을 받드는 진실한 마음: 10월 5일 자동화 종합공장 기계화직장 로동계급과 자동화 설계실 설계원들에 대한 이야기”, 로동신문, 1월 18일: 4면

한창호, 1992,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 높이: 재령군에 파견된 3대 혁명소조에서”, 로동신문, 3월 14일: 3면

허윤, 1991, “대중적 설비관리운동의 위대한 생활력” 근로자, 12호(통권 596호): 60-64

허훈일, 19937, “채취설비 생산을 전투적으로 내밀어: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로동신문, 3월 11일: 3면

허훈일, 19932, “10명당원들의 그 투쟁정신을 곳곳이 이어: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당원들과 로동자들”, 로동신문, 3월 24일: 3면

現代朝鮮問題講座 編輯委員會 편, 1980/1988, 북한의 경제 (광주: 광주): 154-65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실려 있다.

황태연, 1989, “소련, 동구권의 체제개혁과 사회주의 이념의 전면적 자기구현 과정” 사상문예운동, 가을호

Brune, Ellen, and Jacques Hersh, 1974/1988, 사회주의 북한: 북한 경제발전 연구 (서울: 지평)중에서 150-66쪽인 “사회주의 공업 건설”

Burawoy, Michael, 1985, “Workers in Workers’ States”,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Verso): 156-208

Chae, Hi-jun, 1982,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System: With Special Reference to Industrial Management” Vantage Point, 5:6 (June): 1-11

Chou, Yi, 1993, “Quality Management in State-Owned and Township Enterprises in Mainland China”, Issues & Studies, 29, 6 (June): 17-60

Daniel Sungil Juhn, 1972, “The North Korean Managerial System at the Factory Level”, Journal of Korean Affairs, Apr.: 19

Foster-Carter, 1977, "North Korea: Development and Self-Reliance, a Critical Review"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9:1 (Jan.-Mar.): 45-55

Halliday, Fred, 1988, "Self-Reliance in the 1980s" Monthly Review, 39:9 (Feb.): 47-55

Kim, Ha-hyon, 1980, "Science and Technology in North Korea: A Self-imposed Dilemma" Vantage Point, 3:5 (May): 1-12

Kim, Ilpyong, 1975, Communist Politics in North Korea (New York: Praeger Publishers)중에서 65-92쪽, 4장 "Policy Disputes over the Strategy of Development"와 5장 "Strategie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McCormack, Gavan, 1993,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21-47

O'Brien, Kevin, 1992, "Bargaining Success of Chinese Factories", The China Quarterly, 132 (Dec.): 1086-1100

Ruan, Danching, 1993, "Interpersonal Networks and Workplace Controls in Urban China",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29 (Jan.): 89-106

Stark, David, 1985, "The Micropolitics of the Firm and the Macropolitics of Reform: New Forms of Workplace Bargaining in Hungarian Enterprises", Peter Evans, Dietrich Reuschmeyer, and Evelyne Huber Stephens, eds., States versus Markets in the World-System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247-274

Walder, Andrew G., 1991, "Workers, Managers and the State: The Reform Era and the Political Crisis of 1989", The China Quarterly, 127 (September): 467-92

Wilczynski, W., 1970/1986, 사회주의 경제학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의 58-61인 "생산의 조직"

Wilson, Jeanne L., 1990, "Labor Policy in China: Reforms and Retrogression", Problems of Communism, XXXIX (Sep. - Oct.): 44-65

北韓 國語辭典 例文의 社會統制的
效果에 대한 研究

研究責任者 : 李 晟 衍(朝鮮大學校)

< 차례 >

< 요약 문 >

I. 머리말	154
II. 예문의 실례	160
III. 머리말	175
1. 예문의 특징	175
가. 어휘의미적 특징	175
나. 형태적 특징	179
다. 통사적 특징	180
라. 문체적 특징	183
2. 사회 통제적 효과	185
가. 갈등기능주의 증대	185
나. 전체주의 강화	186
다. 집단주의 강화	186
라. 주체사상 강화	187
마. 개인 이상화	187
바. 권력의 수탈 수용	188
맺음말	189

북한 국어사전 예문의 사회통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이 성 연 (조선대학교)

< 요약 문 >

국어사전의 예문은 올림말이 쓰인 보기글로서 실제로 어휘를 부려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어휘가 지니는 뜻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북한은 사회통제적 효과의 장치로서 그들의 언어정책이 반영된 국어사전을 편찬했으며, 예문의 선정·수록도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의 국어사전 편찬은 특이한 용례의 수록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언어 문제의 유형과도 관계 된다. 북한의 경우는 언어 문제의 유형이 정책 접근법에 속하므로 국가어의 표준화를 위한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국어사전 편찬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사전이 어제와 오늘의 민족어를 두루 거두어 간직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편찬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접근법의 언어문제 유형에 따른 언어정책의 반영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정치적 목적과 사상적 기준에 따라 예문이 좌우·제한된 결과를 가져왔다. 즉, 단어들의 부려 쓰임의 표현인 문장을 규범화함으로써 사회통제적 효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다.

북한에서 1960년대부터 대략 10년 단위로 국어사전을 간행했는데, 그 예문

들을 검토해 보면, 예문의 문장들이 바뀌면서도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동일한 문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통제적 효과의 장치로서 예문을 선정·수록했기 때문이다. 북한 국어사전 예문의 사회통제적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문 수록이 당국의 정책과 사상적 기준에 따라 제한되고 좌우되었다. 따라서 정치 현실에서의 쓸 말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서 말의 찾아보거나 부러쓰기에 제한을 가져왔다.

둘째, 예문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과 이의 사회통제적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휘의미적 특징과 사회통제적 효과

- ①적개심 유발의 어휘 → 갈등기능주의 증대
- ②체제 이데올로기 강화의 어휘 → 전체주의 강화 및 권력의 전달·수용
- ③김일성 미화의 수식 어휘 → 개인 우상화 및 권력의 전달·수용
- ④김일성 가족의 이름 → 개인 우상화

2. 형태적 특징과 사회통제적 효과

- ①복합어의 빈번한 사용 → 집단주의 강화
- ②보편적 조어법을 벗어난 어휘 → 전체주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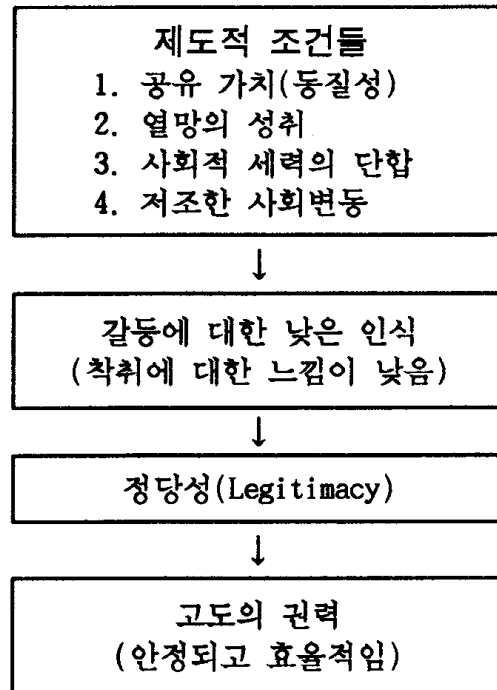
3. 통사적 특징과 사회통제적 효과

- ①종결법(청유문, 명령문) → 집단주의 및 전체주의 강화
- ②종결법(감탄문) → 개인 우상화 및 주체사상 강화
- ③독특한 높임법 → 개인 우상화

4. 문체적 특징과 사회통제적 효과

- ①당정책해설론문체 → 집단주의 강화
- ②맹세문체, 호소문체 → 갈등기능주의 증대 및 전체주의 강화
- ③직유법, 은유법, 반복법 → 갈등기능주의 증대
- ④감탄법, 과장법 → 개인우상화 및 전체주의 강화

셋째, Duke가 제시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권력안정 및 효과적 활용 모형은 다음과 같은데,



위의 제도적 조건들에 부합되는 예문의 어휘들은

- 1) 공유가치: 사회주의, 공산주의
- 2) 열망의 성취: 조선혁명, 조국통일, 민족해방, 건설사업
- 3) 사회적 세력의 단합: 혁명과업, 노동자 단계, 협동, 단합, 현명한 령도
- 4) 저조한 사회변동: 주체사상, 혁명전통, 고상한 품성, 프롤레타리아 등으로 집약된다.

결국, 고도의 권력을 강화·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에 관한 단어들을 예문에 선정·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에게 언어적 관성 (linguistic inertia)을 견지시키며, 이를 통해 형성된 개념적 포위망 (conceptual encirclement)이 인민들의 사상체계와 정신 세계를 복한 당국이 의도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변화시켜 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어사전 예문의 사회통제적 효과의 측정도 가능한 것이다.

넷째, 권력행사자는 먼저 권력의 기반을 형성하고, 구성원들을 조직의 상황에 조화시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 권력이 권력수용자에게로의 전달·수용되는 과정은 복종(compliance), 동일시(identific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 진다.

북한에서 인민에 대한 김일성 절대권력의 전달·수용은 Fred Luthans의 '권력 전달·수용의 3과정'에 의한 적용·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문의 어휘 선정도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다음은 Fred Luthans의 권력 전달·수용의 3과정과 이에 기여하는 예문의 어휘의미적 특성을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과 정	권력의 원천	권력수용의 원인	권력형성 상황	예문의 어휘의미적 특성
복 종	보상적 권력	보상을 얻고 처벌을 회피하려는 욕구	리더가 보상과 처벌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함.	이상적 사회 건설·예찬 (풍년, 행복, 우리 세상)
동일시	준거적 권력	리더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	리더와 수용자와의 친분이 형성되어야 함.	지도자에게 친근감 있는 어휘 (동무, 동지, 아버지, 은인)
내면화	전문적 권력 합법적 권력	가치관이 동일	리더를 절대 신뢰하여야 함.	지도자 미화의 수식어 (위대한수령, 원수)

I. 머리말

어휘 사전은 단어의 용례(用例)인 예문이 풍부할수록 그 가치를 더하게 된다. 예문은 올림말이 쓰인 보기글로서 실제로 어휘를 부려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어휘가 지니는 뜻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어사전을 편찬할 때 예문 수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이성연, 1993a).

북한의 국어사전 편찬도 예외가 아니다. 특이한 용례의 수록 방법을 택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이는 언어 문제의 유형과도 관계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언어 문제의 유형이 정책 접근법에 속하므로 국가어의 표준화를 위한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국어사전 편찬이었다(이성연, 1991).

국어사전이 어제와 오늘의 민족어를 두루 거두어 간직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편찬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접근법의 언어문제 유형에 따른 언어정책의 반영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정치적 목적과 사상적 기준에 따라 예문이 좌우·제한된 결과를 가져왔다(조재수, 1986). 즉, 단어들의 부려 쓰임의 표현인 문장을 규범화함으로써 사회통제적 효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다.

북한에서 1960년대부터 대략 10년 단위로 국어사전을 간행했는데, 『조선말사전』(1962)¹⁾, 『조선문화어사전』(1973)²⁾, 『현대조선말사전』(1981)³⁾, 『조선말대사전』(1992)⁴⁾의 예문들을 검토해 보면, 예문의 문장들이 바뀌면서도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⁵⁾, 동일한 문장⁶⁾을 채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올림말의 총수는 187,137개이며, 용례로는 예구와 예문 두 가지가 있다.

2) 수록 어휘는 67,000여개이며, 김일성 어록이 예문에 이전 사전보다 많이 길게 수록되었다.

3) 수록 어휘는 13만여개이며, 정치 사상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4) 수록 어휘는 33만여개이며, 용례에 관한 풍부한 예문을 수록했다.

5) 주격 조사 '-가'의 경우를 보면 체제옹호적인 비슷한 내용의 예문들이다.

① 인민의 편에는 언제나 유격대가 있었다.(조선말사전)

② 1,212고지의 전투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영웅 아저씨를 찾아갔다.(조선문화어사전)

북한 국어사전 예문의 이러한 내용상의 성격 때문에, 본고에서는 4사전 전체의 예문을 함께 검토하지 않고 최근에 발행된 『조선말대사전』의 예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고찰하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여한 사회통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 후 '통일 국어사전'을 편찬할 때 예문 선정의 방향과 바람직한 민족어 지키기와 가꾸기의 방향에 대해 실마리 제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예문의 실례

예문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올림말 선정의 선행이 필요하므로 조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그 대상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일상성], [+친족호칭], [+동작성], [+시간성], [+고상함] 등인 단어를 택하되, 우리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 빈도수가 많은 생활 용어 중심으로 했다. 북한 사회 체제와 관련하여 예문 의미의 예측이 가능한 단어와 사용 빈도수가 지나치게 낮은 단어는 가능한 한 제외했다. 예문 옆의 < > 안의 숫자는 북한에서의 사용 빈도수를 가리키는데, 최대 빈도수는 '하다'의 46,612 회로 나타났다.⁷⁾ 조사는 빈도수가 표시되지 않았다.

선정된 단어는 쓰임에 따라 여러 개의 예문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예문만 제시된 것도 많았다. 단어의 다양한 쓰임보다는 확실적인 규범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이성연, 1993b).

예문 선택의 원칙은, 단어의 뜻풀이가 다름에 따라 여러 개의 예문을 제시한 경우는 2개만 소개했으며⁸⁾ 옆의 () 안은 전체 예문의 숫자를 표시한

③ 영철이는 어린애가 아니라 어엿한 소년단원이래요. (현대조선말대사전)

④ 천리마 나래치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조선말대사전)

6) 명사 '곳곳'은 나머지 3 사전에서도 거의 같은 문장을 예문으로 채택하고 있다.

① 선거장 곳곳마다 선거를 경축하여 흥겨운 노래와 춤들이 버러졌다. (조선말사전)

② 적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며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조선문화어사전)

③ 적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며 지르는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현대조선말사전)

④ 적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며 지르는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조선말대사전)

7) 빈도수는 『조선말대사전』에서 제시한 숫자다.

북한 국어사전 예문의 이러한 내용상의 성격 때문에, 본고에서는 4사전 전체의 예문을 함께 검토하지 않고 최근에 발행된 『조선말대사전』의 예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고찰하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여한 사회통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 후 ‘통일 국어사전’을 편찬할 때 예문 선정의 방향과 바람직한 민족어 지키기와 가꾸기의 방향에 대해 실마리 제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예문의 실례

예문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올림말 선정의 선행이 필요하므로 조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그 대상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일상성], [+친족호칭], [+동작성], [+시간성], [+고상함] 등인 단어를 택하되, 우리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 빈도수가 많은 생활 용어 중심으로 했다. 북한 사회 체제와 관련하여 예문 의미의 예측이 가능한 단어와 사용 빈도수가 지나치게 낮은 단어는 가능한 한 제외했다. 예문 옆의 < > 안의 숫자는 북한에서의 사용 빈도수를 가리키는데, 최대 빈도수는 ‘하다’의 46,612 회로 나타났다.⁷⁾ 조사는 빈도수가 표시되지 않았다.

선정된 단어는 쓰임에 따라 여러 개의 예문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예문만 제시된 것도 많았다. 단어의 다양한 쓰임보다는 확실적인 규범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이성연, 1993b).

예문 선택의 원칙은, 단어의 뜻풀이가 다름에 따라 여러 개의 예문을 제시한 경우는 2개만 소개했으며⁸⁾ 옆의 () 안은 전체 예문의 숫자를 표시한

③ 영철이는 어린애가 아니라 어엿한 소년단원이라오. (현대조선말대사전)

④ 천리마 나래치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조선말대사전)

6) 명사 ‘곳곳’은 나머지 3 사전에서도 거의 같은 문장을 예문으로 채택하고 있다.

① 선거장 곳곳마다 선거를 경축하여 흥겨운 노래와 춤들이 버려졌다. (조선말사전)

② 적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며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조선문화어사전)

③ 적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며 지르는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현대조선말사전)

④ 적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며 지르는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조선말대사전)

7) 빈도수는 『조선말대사전』에서 제시한 숫자다.

다. 9)

1. 조사¹⁰⁾의 예문

- (1) 가: ①천리마 나래치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②우리는 모두 노력 혁신자가 되자. (4)
- (2) 께서: ①이 노래는 아버님께서 일찌기 지어주신 노래입니다. (장편 『만경대』) ②할아버님께서 온 편지 (2)
- (3) 는: ①나라는 언제면 찾게 되는지.
②너는 로동자, 나는 농민. (5)
- (4) 를: ①조선의 미래를 안아 키우신
위대한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머님이 바라시던 크나큰 념원
사회주의 이 강산에 꽃 뿔습니다. (가사, 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
②예술영화 『월미도』를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자. (10)
- (5) 만: ①동무만 갑시다.
②끝내 해내자는 군중의 기세가 여간만 아니다. (4)
- (6) 에: ①불계 핀 화분의 꽃에 물을 준다.
②기발을 만들 천에 물을 들인다. (20)
- (7) 은: ①말은 보태고 떡은 떼다. (1)
- (8) 을: ①책을 읽다. ¹¹⁾ (4)
- (9) 의: ①인민들의 단결을 더 한층 강화하자.
②우리는 조국통일의 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17)

8) 예문 선택의 개관성 유지와 복잡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두번째까지의 예문을 주로 택했다. 단어의 의미는 문맥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뜻이 첫번째와 두번째일 것이다. 예구는 택하지 않았다.

9) 선정된 예문들은 이성현(1993b)에서 주로 택했다.

10) 일반 격조사를 선택했다.

11) 나머지 예문들도 “물을 길다. 집을 짓다. 산을 넘다.”처럼 비정치적인 내용의 단문이다.

(10) 이¹²⁾: ①사람이 오다. (4)

2. 명사의 예문

2.1 유정명사¹³⁾

(1) 개: ①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깨다.

②그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해방후 공장에 잠입한 원수들의 개였다. (3), <150>

(2) 사람: ①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입니다. (김일성,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②조선은 조선사람의것이다. (6), <3,823>

(3) 아버지: ①아버지와 아들

②아버지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즐기면서 무력무력 자라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복받은 세대들인가! (3), <541>

(4) 어머니: ①어린이들의 첫째가는 교양자는 어머니이다.

②후방일군들은 부대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말하자면 부대의 어머니가 되어야한다. (4)

(5) 형: ①동생이 형을 닮다. (1), <53>

2.2 무정명사

(1) 곳곳: ①적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며 지르는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1), <18>

(2) 꽃¹⁴⁾: ①꽃이 피다.

②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다. (6), <499>

12) “책이 있다. 물이 깊다. 책상이 있다.”의 예문처럼 비정치적인 내용인 단문만 제시되어 있다.

13) 서술의 편의를 위한 명사의 분류임.

14) “농장원들은 공산주의리상이 실현될 래일의 우리 농장을 그려보며 은밤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의 예문처럼 단어가 상징적 의미로 쓰일 때는 거의 체제옹호나 강화와 관련된 내용의 예문을 실고 있다.

- (3) 길: ①길을 내다.
 ②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8), <1, 383>
- (4) 땅: ①우리 땅에 기여든 침략자를 모조리 몰아내다.
 ②고향땅에 뿌리를 내린 새 세대들이 공산주의이상촌을 꾸려간다. (4), <747>
- (5) 바위: ①박동무는 바위야, 함부로 건드리지 말게. (1), <83>
- (6) 태양: 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반들고 따르며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 (1), <97>¹⁵⁾

2.3 추상명사

- (1) 감사: ①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이다.
 ②당중앙위원회의 감사를 전달하다. (2)¹⁶⁾
- (2) 격분: ①동무의 잘못에 격분할것이 아니라 집단이 진지하게 달라붙어 고쳐 주어야한다. (1), <27>
- (3) 기쁨: ①기쁨에 못이기다.
 ②김일성장군 그이께서 우리 3천만 민중의 선두에 서시여 혁명을 령도하시며 겨레의 운명을 량어깨에 떠메시고 곳곳이 나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죽음을 앞둔 이 마당에서나마 똑똑히 깨달았다는 것은 평생을 독립을 위해 바친 그에게 있어서 다시없는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4), <156>
- (4) 뜻: ①뜻을 이루다.
 ②나라의 울타리가 되려는 뜻을 품고 10여년동안 깡그리 정력을 기울여 닦아온 무술을 정작 써야할 이때에 못쓰고 방안에 처박혀있어야 한단말인가. (5), <399>
- (5) 마음: ①나는 김일성전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일이 주마등처럼 머리로 스쳐지나자 감격적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15) 고유어인 '해'의 빈도수는 344회다. 예시한 6개의 예문들은 평범한 내용이었다. 성구풀이 '해와 달이 다하도록'의 예문에서는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가사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실고 있다.)

16) 단어의 빈도수가 표시되지 않았음.

②창공에 나는 새 어디로 가나

이 마음도 설레네

사령부 창가에 밝은 불빛

꿈에도 꿈에도 보이네

아 꿈에도 꿈에도 보이네 (가사, 『장군님을 우러러』), (4), <1,227>

(6) 살인귀: ①20세기의 야만이며 두 발 가진 승냥이이며 피에 주린 살인귀
미제 침략자놈들에게 천백배로 원수를 갚으리라. (1), <3>

(7) 생각: ①생각에 골똥하다.

②우리의 꿈은 앞날에 대한 희망찬 생각으로 가없이 넓은 창공을 훨훨 날고
있습니다. (10), <199>

(8) 슬픔: ①적들에게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의 슬픔은 원수를 기어코 갚고야
말 복수의 다짐으로 변하였다. (1), <20>

(9) 진실: ①숨은 영웅들은 진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다. (1),
<586>

2.4 질량명사

(1) 구름: ①구름을 몰아오다.

②비온 뒤의 푸른 하늘에는 햇숨같은 구름이 떠가고 태양은 높이 떠서 만
물을 웃음으로 어루만지고있었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2), <128>

(2) 노을: ①아침에 노을이 비낀것을 보니 비가 올것 같다.

②바야흐로 노을이 한창이었다.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서 하늘과 땅에 붉은
빛을 찬란하게 뿌려던지고있었다. (2), <92>

(3) 바람: ①한줄기의 바람이 옷자락을 휘여잡았다.

②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 때에만 우리
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다.
(12), <602>

(4) 번개: ①그의 눈에서는 분노로 하여 푸른 번개가 번쩍 일었다.

②흰색 경기복차림을 한 그들의 날랜 움직임은 실로 번개라고 부를만한것

이였다. (3), <28>

(5) 물: ①밭에 물을 뿌리다.

②물이 나쁘다. (4), <791>

(6) 하늘: ①이런 희한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내가 김일성장군님의 혁명군을 만나다니, 이걸 하늘이 돕는 일인가부다. (장편소설, 『청년전위』), (1), <271>

3. 대명사의 예문

(1) 그대: ①그대의 고향이 어디랬더라? 아 참 회령이랬지.

②평양!

내 그대를 사랑하노라!

그대는 혁명의 수도

영웅의 도시라고

그대는 영원한 청춘의 도시라고. (2), <68>

(2) 나: ①나밖에 모르는 리기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자. (1), <2,550>

(3) 너: ①너에게 주다. 17) (1)

(4) 당신: ①여보! 당신은 몇시에 돌아오시겠소.

②군단장동지, 절 용서하십시오. 전 지금이야 비로소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 당신의 생명선이라고 한 그 말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6), <318>

(5) 우리: ①우리가 너희보다 이겼다.

②해방후 우리 세상이 되어서야 비로써 백성보는 농민들의 것으로 되었다. (장편소설『생명수』), (2), <7,766>

(6) 자기: ①자기는 그 일에 꼭 성공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②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한 항일선렬들처럼 자기들도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울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4),

17) 성구 '너나할것 없이'의 예문은 "모네기를 예정기일안으로 끝내기 위하여 온 농부들이 너나 할것없이 모두 떨쳐나섰다."

4. 수사의 예문

- (1) 둘: ①아마 체육 경기를 최동무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직장에 둘도 없을 것이다.
 ②세철이는 어느모로 보나 당당한 이 젊은 사람이 자기 형의 둘도 없는 동무였다는 그리고 형도 살았으면 이 젊은 런대장과 같이 돌아왔으리라는 그 한가지생각때문에 가슴속에 크나큰 자부심이 생겨남을 느꼈다. (3), <192>
- (2) 제일: ①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다.
 ②세상에서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다. (3), <296>
- (2) 첫째: ①학습경연에서 첫째를 하다.
 ②공산주의자들에게 첫째로 중요한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1), <2>
- (3) 하나: ①낮선 사람 하나가 와서 길을 물어본다.
 ②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다 교양하여 묶어 세워야 한다. (8), <799>
- (4) 한들: ①3대혁명소조원들이 보여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공장에서만도 한들이 아니다.
 (1), <4>

5. 동사의 예문

5.1 유형의 동작

- (1) 가다: ①평양으로 가다.
 ②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23), <4,769>
- (2) 겨누다: ①원썩의 습통을 겨누다.
 ②날카로운 시선이 적을 겨누다. (2), <49>

(3) 노래하다: ①자랑찬 성과를 노래하다.

②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은 세계를 휩쓰는 흑심한 이상기후조건에서도 끄떡없이 풍년작황을 소리 높이 노래하고 있다. (2), <27>

(4) 달리다: ①학교를 향하여 달리다.

②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로 달렸습니다. (6), <430>

(5) 오다: ①사리원에서 평양으로 오다.

②외국에 갔을 때는 외국에 온 조선사람을 만나고싶었고 조국에 돌아오니 헤어졌던 동무들을 다 만나보고 싶다. (19), <2,083>

(6) 오다: ①어깨를 들먹거리며 영영 오다.

②멸망의 운명에 우는 제국주의의 앞잡이들. (9), <392>

(7) 웃다: ①입만 방긱 웃다.

②동지의 결함에 대하여 뒤에서 웃을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어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5), <521>

(8) 이다: ①영웅조선의 기상과 슬기를 자랑하듯 사시사철 머리에 흰눈을 이고 장엄하게 솟아 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②새벽에 나갔다가 별을 이고 돌아오다. (5), <218>

5.2 무형의 동작

(1) 그리다: ①만경대! 얼마나 마음속에 그리시던 고향인가,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몇번이고 맹세다지며 떠나시던 이 길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정든 산천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신다.

②형이 돼서 아우를 그리고 아우가 되어 형을 그리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막아서 무엇하랴? (2), <130>

(2) 뜻하다: ①그는 철천지 원수 미제와 싸울것을 뜻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②량만으로는 잘하였다는것을 뜻할수 없다. (3), <23>

(3) 미워하다: ①인민들은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며 착취계급을 없애기 위한 계급투쟁에 떨쳐나섰다. (1), <23>

(4) 사랑하다: ①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너를 사랑할수 없다.

②돈은 비단으로 살수 있어도 사랑은 살수 없다. (11), <518>

(5) 싫어하다: ①그는 겉치레란 영 하기 싫어하는 성미이다. (1), <4>

5.3 자연의 작용

(1) 떨어지다: ①비방울이 떨어지다.

②겨울의 짧은 해가 떨어진지도 오래여서 사위는 어둑어둑하였다. (15), <394>

(2) 뜨다: ①비행기가 뜨다.

②은근한 빛으로 모든것을 신비롭게 채색해버린 밝은 달이 발 저편 숲의 울바자우에 등실 떠 있다. (6), <163>

(3) 새다: ①비가 새다

②처음에는 혹시 자기들이 계획하고있는 일이 혹시 새지 않았는가 하고 은근히 놀랐으나 그것은 안심해도 좋을상싶었다. (3), <35>

(4) 피다: ①봄을 맞은 4월의 모란봉, 방금 물오른 나무가지들에는 파란 잎새들이 피어나 산을 푸른 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②슌이 이글이글 피다. (9), <253>

(5) 흐르다: ①강물이 바다로 흐르다.

②봄날의 화창한 빛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거리에 흘러넘치고있었다. (12), <337>

5.4 생물의 생태적 변화

(1) 늙다: ①세월이 좋으니 늙어도 늙는것 같지 않고 마음은 자꾸 더 젊어지는것 같다.

②정치적 식견이 높고 풍부한 생활체험과 예술적 자질을 가진 배우는 늙는법이 없다. (6), <509>

(2) 닳다: ①갑룡이는 민식이를 닳아 티없이 맑은 경옥이의 눈을 마주 보기 어려웠다.

②동물원 구경을 갔다온 아이들은 집의 고양이가 범을 닳았다고 이야기하

였다. (4), <36>

(3) 시들다: ①나뭇잎이 시들다.

②일제의 발굽밑에서 병들고 시들어가던 민족의 가슴속에 재생의 기운이 태동하였다. (3), <25>

(4) 자라다: ①나무가 자라다.

②오늘 우리 시대의 어린이들은 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라며 마음대로 배우고 있다. (4), <213>

(5) 죽다: ①시계가 죽다.

②그 어떤 일이 있어도 생산이 죽어서는 안된다. (12), <712>

6. 형용사의 예문

6.1 감각적 표현

(1) 굳다: ①오늘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어있다.

②굳은 결의를 다지다. (6), <295>

(2) 높다: ①천정이 높다.

②쓰러지는 놈들을 눈아래로 바라보며 싸우는 우리 전투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았다. (5), <971>

(3) 달다: ①물맛이 달다.

②경애하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의도를 관찰하는 길에서 라면 그 어떤 시련도 괴로움도 달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는 김정숙녀사의 숭고한 충성심앞에서 그 지휘관은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4), <42>

(4) 뜨겁다: ①뜨겁게 달아오른 다리미.

②로동계급의 마음을 뜨겁게 느낄수 있는 현장. (5), <309>

(5) 밝다: ①귀가 밝다.

②전사들과 같이 한집안식구처럼 지내면서 그들의 생활을 밝게 해주기를 바라오. (장편, 『돌파구』), (9), <222>

(6) 쓰다: ①곰의열처럼 입이 쓰다.

②쓴 경험을 맛보다. (2), <12>

(7) 차다: ①하늘은 차고 동지달 열나흘날이 휘영청 밝은데 덕삼이네 사랑방에서는 이야기책 읽는 소리가 랑랑하게 들려온다. (장편소설, 『감오농민전쟁』)

②눈보라 몰아쳐서 세상이 찬가

인정이 사나와서 세상이 차네.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3), <104>

(8) 하얗다: ①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②장군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알게 도니 마을 사람들은 아이, 어른 할것 없이 전부떨쳐나서 산기슭을 하얗게 덮었다. (장편, 『1932년』), (3), <159>

6.2 정의적 표현

(1) 기쁘다: ①우리의 세대들은 가장 즐겁고 기쁠 때마다 언제나 아버지원수님의 품속에 안겨 사는 행복의 노래를 부른다. (1), <213>

(2) 분하다: ①그는 철이 들자부터 조심성있게 건사해오던 자신의 명예를 어지럽힌것 같아 분한 감이 들었다.

②한발 늦어서 영화를 못봤구나! 분한데. (2), <40>

(3) 슬프다: ①지난날엔 슬프고 고통스럽던 이야기들만이 가득찼던 우리 고장도 오늘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었다. (1), <20>

6.3 평가적 표현

(1) 가련하다: ①해방전 같으면 학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부모들의 그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했을 나에게 넓고 넓은 배움의 길이 열렸다.

②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사람이 온줄도 모르는 송병무의 몰골을 눈앞에 보니 불끈 뱀급이가 동하기도 하고 가련한 생각도 들었다. (2), <22>

(2) 고상하다: ①혁명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성품이다.

②숨은 영웅들이 보여준 고상한 풍모를 적극 따라배우자. (2), <80>

(3) 귀중하다: 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

명전통은 우리 인민의 대를 이어가면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더 없이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다.

②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2), <157>

(4) 당당하다: ①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당당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이다.

②항일유격대원들의 당당한 위풍과 도도한 태도에 위압된 병사들은 어안이 병병하여 감히 부적을 못하였다. (2), <40>

(5) 둔하다: ①신음하는 부상자의 처절한 목소리, 눈치없이 재물만을 헤아리고있는 황고문의 둔한 얼굴, 엄치환이가 부상자에게 한 처절한 웨침소리 그 모든것은 이런 경우에 응당한 것이고 또 자연스럽기까지 한것이다. (장편소설, 『1932년』)

②성초는 몸은 둔하고 나이도 있어 처음은 연공에 적합지 않은것 같았으나 위험한 자리는 덮어놓고 자기가 오르겠다고 나섰다. (7), <21>

(5) 멋지다: ①노래는 이어 인민주권가의 흥겹고 힘찬 선률로 바뀌면서 무대 양쪽에서 아동단원들이 나와 멋지게 춤을 추고 돌아갔다.(1), <12>

(7) 모질다 : ①보천보의 밤하늘에 높이 올린 총소리는 강도 일제의 모진 학정과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한없는 힘이 솟구치게 하고 재생의 희망이 부풀어오르게 하였다.

②마음을 모질게 되사려먹구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해, 원수를 갚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단말이오. (8), <65>

(8) 씩씩하다: ①씩씩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 혁명의 후비대들이다. (1), <93>

(9) 옳다: ①수학 문제를 옳게 풀다.

②옳지, 김동무가 이번에 휴가로 고향에 간다니까 그편에 부탁하면 되겠군. (2), <559>

(10) 착하다: ①몇달전에 특수용접공이 된 종하는 사람이 착하고 줄나서 말하기에 앞서 얼굴부터 붉혔다. (1), <31>

6.4 비교적 표현

- (1) 같다: ①두학생의 점수가 신통히도 꼭 같다.
 ②우편적경향이나 좌편적경향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으며 다 혁명과 건설에 해독을 끼친다. (10), <6,324>
- (2) 낫다: ①닭모이는 그냥 주는것보다 잘게 뿜아서 주는것이 훨씬 낫다.
 ②공부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낫다. (2), <13>
- (3) 다르다: ①크기는 같으나 무게가 다르다.
 ②역시 제대군인이 다르군, 무슨 일이든지 척척 해제끼는걸 보니. (5), <1,254>
- (4) 못하다: ①웃방은 크기가 아랫방만 못하다. (4), <4>
 ②곁에 서있던 갱책임기사가 보다 못해 화가 나서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 (5) 작다: ①키가 작다.
 ②처음에는 조합의 범위에서 작게 시작한 공사였으나 몇해가 지나는 사이에 온 나라를 들썩하게 하는 방대한 공사로 발전하였다. (13), <539>
- (5) 크다: ①운동장이 크다.
 ②사람들의 가슴에는 침략자에 대한 증오심이 크게 자랐다. (16), <1,923>

6.5 존재적 표현

- (1) 계시다: ①병석에 계시다. (1), <273>
- (2) 없다: ①집안에 아무도 없는줄 알았는데 인기척소리가 난다.
 ②사회주의 품속에서 무려무려 자라나는 저 학원아이들을 보고 누가 부모 없는 고아라 하랴. (11), <5,645>
- (3) 있다: ①책상우에 책이 있다.
 ②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16), <26,562>

7. 부사의 예문

7.1 시간 표현

- (1) 다음: ①보고가 끝난 다음에 곧 토론이 시작되었다.
 ②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다시 계속하자요. (2), <1,243>
- (2) 늘: ①우리는 혁명하는 시대에 사는것만큼 혁명사업을 위하여 늘 사고하고 행동하여야한다.
 ②그는 자기 직장의 기계설비들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늘 생각해오고있다. (2), <298>
- (3) 벌써: ①벌써 새벽 3시가 넘다.
 ②그들은 올해계획을 벌써 끝낸지가 오래다. (4), <242>
- (4) 비로소: 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보람찬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쓰라린 실패와 곡절만을 거듭하던 우리 혁명은 비로소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걷게 되었다. (1), <99>
- (5) 처음: ①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었다.
 ②처음 알게 되다. (2), <655>

7.2 장소 표현

- (1) 가까이: ①리명수물이 아주 가까이 흐르는 모양이었다.
 ②움직일수 있는 한에서는 기여서라도 한걸음이라도 더 사령부 가까이에 가서 죽기를 바라는 그들이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6), <148>
- (2) 그리: ①그리 가면 소년단 야영소가 있어요. (1), <32>
- (3) 멀리: ①눈발이 짙어가는 허공에도 멀리, 가까이 측수 높은 전등불이 매 달려 있다. ②농촌경리의 수리화에서 우리는 멀리 앞서나가고있다. (3), <169>

7.3 상태 표현

- (1) 가만히: ①미제살인귀놈들의 만행을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②나직한 목소리로 가만히 물어보자. (5), <72>
- (2) 갑자기: ①물이 갑자기 불어나다.

- ②들끓던 작업장이 갑자기 물을 뿌리듯 조용해졌다. (3), <232>
- (3) 빨리: ①신속히 치고 그보다 더 빨리 빠져나오라고 한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 ②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자. (2), <571>
- (4) 잘: ①일을 잘 처리하다.
- ②우리 나라는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이 없이 누구나 다 잘 사는 으뜸가는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15), <2, 353>
- (5) 천천히¹⁸⁾: ①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다.
- ②개울에서 피어오른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감돌면서 천천히 진보라빛 하늘로 흩어져갔다. (3), <124>

7.4 정도 표현

- (1) 가장: ①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1), <484>
- (2) 매우¹⁹⁾: ①매우 드물다. ②매우 기뻐하다. (3), <353>
- (3) 아주: ①공화국북반부에서 실시한 민주개혁들은 인민경제의 장래 부흥발전을 위한 아주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주었다.
- ②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타는 산허리에 흰구름이 너울너울 감돌아 흐르는 모습이 아주 불만하다. (5), <280>
- (4) 전혀: ①기름기라곤 전혀 없는 눈밑 살가죽이 아래로 축 처져내렸다. (1), <149>
- (5) 훨씬: ①년간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다. (1), <192>

7.5 화식 표현

- (1) 결코²⁰⁾: ①사람을 개조하는 일이 결코 쉽게 될수는 없다.
- ②스승이나 은인에 대한 감사는 결코 돈이나 귀물로써는 대신할수 없는 것이다. (3), <116>

18) 3번째 예문은 “이따가 천천히 토론합시다.”로 사회체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19) ‘매우’는, “매우 아름답다.”까지 3예문 모두 비정치적인 평범한 내용이다.

20) 예문 셋중 나머지는, “나의 심장이 고동치는 한 나는 혁명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것이다.”로 체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다.

- (2) 과연: ①금강산이 좋다는 말만 들었는데 실지 와보니 과연 천하명승이구나. (1), <88>
- (3) 마땅히: ①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서, 당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뿐입니다.
②사람이 사회적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품모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2), <25>
- (4) 마치: ①명태잡이가 한창인 바다의 밤경치는 고기배들의 불빛으로 하여 마치 불야성을 이룬 하나의 큰 도시 같았다. (1), <232>
- (5) 반드시: ①우리는 반드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것이다. (1), <155>
- (6) 진실로: ①진실로 인간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다.
②숨은 영웅들은 진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2), <586>

III. 예문의 특징과 사회통제적 효과

1. 예문의 특징

어휘는 음운이나 문법적 특성과는 달리 사회적 환경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되는 예문에 쓰인 단어들의 의미적 특징도 북한의 사회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이성연 1993a). 그리고 예문이 지니는 의미도 마찬가지다.

가. 어휘의미적 특징

(1)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

적, 미제, 살인귀, 침략자, 만행, 지주놈, 원수, 자본가 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2) 과연: ①금강산이 좋다는 말만 들었는데 실지 와보니 과연 천하명승이구나. (1), <88>
- (3) 마땅히: ①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서, 당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뿐입니다.
②사람이 사회적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품모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2), <25>
- (4) 마치: ①명태잡이가 한창인 바다의 밤경치는 고기배들의 불빛으로 하여 마치 불야성을 이룬 하나의 큰 도시 같았다. (1), <232>
- (5) 반드시: ①우리는 반드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것이다. (1), <155>
- (6) 진실로: ①진실로 인간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다.
②숨은 영웅들은 진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2), <586>

III. 예문의 특징과 사회통제적 효과

1. 예문의 특징

어휘는 음운이나 문법적 특성과는 달리 사회적 환경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되는 예문에 쓰인 단어들의 의미적 특징도 북한의 사회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이성연 1993a). 그리고 예문이 지니는 의미도 마찬가지다.

가. 어휘의미적 특징

(1)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

적, 미제, 살인귀, 침략자, 만행, 지주놈, 원수, 자본가 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날카로운 시선이 적을, 적들이 무더기로, 적들에게 아들을 빼앗긴,
- ② 살인귀 미제 침략자, 원쑤 미제와 싸울것을, 철천지 원쑤 미제,
- ③ 원쑤를 기어코 갓고야말, 원쑤의 숨통을, 원쑤를 갓겠다느 각오,
- ④ 인민들은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며, 피에 주린 살인귀,
- ⑤ 침략자에 대한 증오심, 미제 침략자,

(2) 체제 이데올로기 강화에 관련된 단어가 많이 쓰인다.

혁명, 인민, 투쟁, 보복, 해방, 충성, 영웅, 통일, 로동자 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혁명의 꽃, 기술혁명, 혁명을 령도하시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 혁명의 수도, 혁명절개, 혁명전통, 혁명적 재부, 김일성장군님의 혁명군,
- ② 인민들의 단결, 인민 군대에 입대, 인민 주권가의 흥겹고,
- ③ 영웅아저씨, 위대한 영웅, 숨은 영웅들, 수령에 대한 충성,
- ④ 조국통일의 위업,
- ⑤ 너는 로동자, 로동계급의 마음,
- ⑥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3) 최고 지도자를 미화하는 수식어가 많이 쓰인다.²¹⁾

김일성을 미화하는 수식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 진실로 위대한 수령님,
- ② 아버지 원수님, 어버이수령, 김일성장군,
- ③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
- ④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최고사령관동지,

21) 『조선말해절법』의 “김일성 이름 앞에는 ‘수령’, 뒤에는 ‘동지’가 와야되고, 수령 앞에는 ‘위대한’, ‘경애하는’, ‘영명하신’의 수식어가 좋다”(려중동, 1989)는 규정의 반영으로 생각된다.

(4) 김일성 친족들의 이름이 존경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김형직, 김형권, 김정숙, 김성주, 김정일 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 김정숙에 대한 미화의 수식어가 많이 나타난다.

- ① 김정숙녀사의 숭고한 충성심,
- ② 어머니가 바라시던 크나큰 녀원,

(5) 이상적인 사회 예찬의 단어들이다.

풍년, 행복, 사회주의농촌, 사회주의 락원, 세금없는 나라, 평양 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풍년작황, 자애로운 품속에서 행복한 삶, 근심 걱정없이 행복하게,
- ② 공산주의이상촌,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 사회주의 품속,
- ③ 당당한 사회주의독립국가,
- ④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
- ⑤ 평양 혁명의 수도, 영웅의 도시,

(6) 예문 의미의 예측성이 높다.

정치사상적, 교양적²²⁾인 내용의 예문들이 많다. [+공격성]의 동사는 미제 비난, [+열정]의 명사는 미제 추방, [+고상함]의 형용사는 김일성 예찬의 뜻을 대부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문 의미의 예측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 ① 예문이 하나만 제시된 경우, 다음 예문들처럼 평범한 내용의 것들도 있다.
가. 말은 보태고 떡은 뺀다.

22) 교양(북한): 사람들을 사회생활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모든 과정.

교양(남한): 가르쳐 기쁨, 지식, 정서, 도덕 등을 뛰어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성품.

나. 동생이 형을 닮다.

다. 명태잡이가 한창인 바다의 밤경치는 고기배들의 불빛으로하여 마치
불야성을 이룬 하나의 큰 도시 같았다.

②그러나, 다음의 예문들처럼 체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의 것을 수록한
경우가 훨씬 많다.

가. 인민들은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며 착취계급을 없애기 위한 계급
투쟁에 떨쳐나섰다.

나. 씩씩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
갈 혁명의 후비대들이다.

다. 우리는 반드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것이다.

③예문이 들일 때, 둘다 일상적인 내용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 아침에 노을이 비낀것을 보니 비가 올것 같다.

바야흐로 노을이 한창이었다.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서 하늘과 땅
에 붉은 빛을 찬란하게 뿌려던지고있었다.

④예문이 들일 때, 거의 하나는 체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
다.

가. 진실로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한다.

숨은 영웅들은 진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
을 다 바쳐 싸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⑤예문이 여럿인 경우는 거의 체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 많다. 다음 9
개의 예문 중에서 셋(나, 다, 바)은 체제 이데올로기적 내용이 분명하고,
셋(라, 사, 차)은 의도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가. 배로 가는 길이 물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웠다.

나.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
고히 견지하였다.

-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조선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 라. 자기가 없는동안 늙은 어머니를 지성으로 받들어 며느리의 길을 지켜온 안해가 더없이 고마웠다.
- 마. 그 문제를 풀 길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 바. 우리 교원들이 당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는 길은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우리의 후대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더 잘 교육교양하는것이다.
- 사. 몹시 목이 말랐으나 모든것이 얼어붙은 산중에서는 물 한모금도 마실 길이 없었다.
- 아. 묘향산에 왔던 길에 경치 좋은 상원암에도 올라가봅시다.
- 자. 이번 길에 무슨 새소식이라도 들은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오.
- 차. 그 길로 일어나 미천골이라는데서 덕적산속으로 들어갔다.

(7) 특수어휘가 생활용어화한 경우가 있다.

일상적인 생활용어를 특수어휘인 군사용어로 표현함으로써, 특수어휘가 생활용어화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는 사회 구조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신현숙, 1989). 다음의 예를 들 수 있겠다.

- ① 좋은 노래를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 ② 원료 기지를 꾸릴 결심으로 도라지, 두릅을
- ③ 모내기 전투를 첫시작부터

나. 형태적 특징

(1) 복합어의 빈번한 사용

‘어휘정리 사업’과 ‘문화어 다듬기’의 결과 어휘 확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조어법상 파생어나 복합어를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 복합어가 예문에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혁명’을 말뿌리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보면, 31개나 올림말로 사전에 실려 있다.²³⁾ ‘혁명독재, 혁명작품, 혁명예술, 혁명소설, 혁명문학, 혁명선렬’ 등의 용어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여겨진다.

‘+적’의 1차 파생 후에 2차로 복합어를 이루는 단어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적경각성’, ‘-적근중관심’, ‘-적동지애’, -적세계관, -대사변, -락관주의, ‘-적당생활기풍’ 등이 일부인 것이다.

(2) 보편적인 조어법을 벗어난 단어의 사용

의미 있는 언어 단위의 기능이나 뜻을 전환시켜서 새 말을 만들어 내는 은유, 환유 등은 낱말 만들기의 보편성 있는 현상은 아니다. 뒤섞임(blending)이나 단축(clipping)도 마찬가지다. 특히 두문자법(acronymy)에 의해 이루어진 낱말들은 보편적인 조어법을 많이 벗어난 것이며, 특수 계층의 은어나 통용어로 쓰인다.

‘사로청’(사회주의 로동청년), ‘사로청원’(사회주의 로동청년 동맹의 맹원), ‘농근맹’(농업근로자 동맹) 등의 말은 김일성의 연설문이나 저작집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정의 올림말과 예문에도 실린 것으로 생각한다.

다. 통사적 특징

(1) 문장의 종결법

우리 말은 서술어의 종결어미에 의하여 문장이 종결된다. 문장의 종결 방식에 의한 문장의 종류는 문법가에 따라 다르지만 평서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의 다섯으로 분류할 때(고영근 1990), 평서문,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의 순으로 나타난다.

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다.

나. 이런 좋은 세상이 올종 어이 알았으랴!

23) 『국어대사전』(이회승)에는 18개가 실려 있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 다. 우리 모두 노력 혁신자가 되자.
 라. 인민들의 단결을 더 한층 강화하자.

청유문과 명령문은 주로 혁명사회 건설과 미제국주의 격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들이다. 감탄문은 사회주의와 김일성 찬양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2) 독특한 높임법

높임법의 통사 구성에서, 통합 구조상 각 구성 요소간의 일치 관계가 파괴되면 불쾌감이 생성되므로(노대규 1988), 언중들은 이를 피한다. 그래서 일정한 높임법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발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나눌 때, 청자나 발화 내용 중 제삼자(observer)에 대하여 심리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격식 [+formal]과 비격식 [-formal], 존대 [+respect]와 하대 [-respect], 그리고 겸손 [+polite]과 불손 [-polite] 등이 있는 것이다. 이들을 화식소(manner deixis)라고 하는데 상황소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이같은 화식소들은 실제의 발화에서 (1)합니다, (2)하오, (3)하네, (4)한다, (5)해 등과 같은 다섯 개의 화계(speech level)를 유도한다.

예문 중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높임법은 다음과 같다.

- ①군복을 입은 아들을 대견해 하는 어머니
- ②어머니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대견히 여겼다.
- ③어머니는 애들이 원수님의 초상화 앞에 때이른 진달래를 한아름 갖다가 정성들여 꽂아놓는 것을 보고 대견히 여겼다.
- ④인민반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떨쳐나서 유원지로 가다.
- ⑤어머님(김정숙)이 바라시던 크나큰 염원,
- ⑥김형권선생은 투사이시였으며,
- ⑦선생님에게 들어보았다.
- ⑧아버지에게 칭찬을 들었다.

⑨사령관동지께서 일기를 쓰시고,

⑩김일성동지께서 쌓아 올리신,

위의 예문 ①, ②, ③은 주체가 [+respect]이므로 통합 구조상 ‘하시느’, ‘여기셨다’와 일치할텐데 ‘하는’ ‘여겼다’와 일치한다.

④도 주체가 마찬가지로 ‘가시다’와 일치할텐데 ‘가다’와 결합하므로 화식소가 [-respect]로 되었다. 따라서 화제는 ‘한다’체를 선택했다. 시인소(person deixis)인 방청자(observer)가 김일성이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문맥 환경으로 보면 김일성 초상화의 등장만으로 [-respect]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⑤는 ①-③과 같은 ‘어머니’지만 김정숙을 가리키므로 어휘 높임법인 ‘어머님’을 선택하고, 화제도 ‘합니다’체를 택했다. ⑥은 존칭 접미사 ‘-님’과 결합 없이도 화제는 ‘합니다’를 택했다.

⑦과 ⑧은 존대 주격과 결합하지 않았고, ⑨와 ⑩은 존대 주격과 결합하고, 화제도 ‘합니다’를 택했다. 주체의 정치사회적인 신분에 의한 독특한 높임법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조선말례절법』에서, 김일성에게는 존칭토 ‘시’를 쓰고, ‘님’을 붙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외에도 몇 가지 소개하면 다과 같다.

①수령과 다른 사람이 함께 이야기에 오를 때, 그 사람에 대한 존경표현을 제한 하거나 표현을 낮춤으로써 최대한 존경을 나타낸다. 24)

②최대의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주무시다, 계시다, 말씀하시다’, ‘교시하시다, 현지도하시다, 친솔하시다, 령도하시다, 심려하시다’, ‘모시다, 뵈옵다, 드리다’와 같은 말을 골라쓴다.

③수령에 대한 표현은 문장의 제일 앞에 내세운다.

④‘리다, 리까’와 같은 어미는 김일성 축하문, 헌시, 송가 등에 사용한다.

⑤수령에게는 ‘습니다/버니다’ 계열의 토를 쓴다.

24) 보기글: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김일성장군님께서선 항일무장투쟁시기 중에 번쩍 서에 번쩍하셨다던데요.

(3) 문장의 구조

구조상의 유형에 따른 문의 종류는,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대별되고 후자는 다시 안은 문과 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예문에 사용된 문장은 이어진 문장이 두드러지게 많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내용이 김일성 찬양이거나 혁명건설을 강조하는 경우는 거의 이어진 문장을 취하고 있다.

라. 문체적 특징²⁵⁾

(1) 문체론 갈래²⁶⁾

문체의 갈래를 다음과 같이 나누는데,

- 1) 회정치문체: ①당정책해설론문의 문체 ②회상실기문체 ③보고문체 ④맹세문체 ⑤옹변문체 ⑥호소문체
- 2) 식사문체: ①법률문체 ②외교문체 ③군사문체 ④일반사무문체
- 3) 과학기술문체: ①과학론문체 ②교과서문체 ③생산기술문체 ④학술토론문체
- 4) 신문문체: ①보도문체 ②사설론문체 ③정론문체 ④교양기사문체
- 5) 문학문체: ①소설문체 ②시문체 ③영화문학문체 ④희곡문체 ⑤수필문체
- 6) 생활문체: ①편지문체 ②감상문체 ③일기문체

위의 문체 중에서 사회정치문체 그 중에서도 당정책해설론문체, 맹세문체, 호소문체의 예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엔 과학기술문체와 문학문체의 순서로 나타난다.

25) 북한에서는 문체론을 '문체론의 갈래'와 '문체론의 수법'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우리의 수사법에 해당한다.

26) 문체는 크게 '문화어문체'와 '개인의 문체'로 나누며, 후자는 문체의 변종으로 취급한다(박용순 1978).

(2) 문체론적 수법²⁷⁾

예문에 많이 사용된 수법으로는 직유법, 은유법, 과장법, 감탄법, 의인법, 반복법 등이다(편의상 남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썼음). 수사법이 사용된 예문은 주로 미국을 공격하거나, 북한군의 활동, 김일성 예찬의 내용이 많다.

1) 직유법

- ①승냥이 같은 미국놈, 독사 같은 일제놈, 악마 같은 부르쵸아
- ②원수의 주검이 낙엽 구울듯이 한다. 농민들의 피를 거마리처럼 빨아 먹었다.

2) 은유법

- ①미제 승냥이, 일제 야수
- ②투쟁의 불길, 충성의 별무리, 사람의 물결

3) 과장법

- ①하루에 천리를 내달으며 적을 무찌른다. 억천만겁 죽더라도 적을 무찌르자.
- ②아 억만년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 새것으로 누리를 덮어버리며

4) 감탄법

- ①우리는 머나먼 길 걸어왔어라.
- ②이런 좋은 세상이 올 줄 어이 알았으랴!
- ③달려가고만 싶은 만경대!

5) 의인법

- ①푸른 빛으로 몸단장하고 꽃들도 다투어 피는 혁명의 수도

27) 어휘문체론적 수법(직접비유, 숨은비유, 이웃비유, 사람비유, 야유, 과장법)과 문장문체론적수법(되풀이, 고리잡이, 점층, 대구, 대비법)으로 나뉜다.

6) 반복법

- ①곤두박히는 놈, 떨어지는 놈, 구는 놈, 아우성 소리, 말올음 소리
- ②인민들의 가슴 속에, 애국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푸르려
- ③이런 전환, 이런 개변, 이런 좋은 세상

2. 사회통제적 효과

가. 갈등기능주의의 강화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단어가 예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사회의 성격을 그대로 노정시켜주는 예라고 하겠다.

- ①가만히: 미제 살인귀놈들의 만행을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 ②부득불: 노동자들의 강경한 항의에 부딪친 자본가는 강제해고한 노동자들을 부득불 그자리에서 다시 일을 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 ③겨누다: 원썩을 향하여 겨누는 그의 총구에서 보복의 총탄이 쏟아졌다.

사회학의 일반이론의 하나이지만, Turner와 Duke의 갈등기능주의 모델을 북한사회의 성격 규명에 적용시키는 견해가 예문의 어휘의미적 특성과도 유관성을 지님을 볼 수 있다. 갈등기능주의 이론에서 핵심은 다른 집단과의 갈등은 그 갈등집단 자체의 통합과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은죽, 1988). 무엇보다도 외집단과의 갈등이 클수록 그 기능이 강화된다. 따라서 외집단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회체제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외집단과의 갈등이 클수록 얻어지는 중요한 효과는 다음과 같으며, 결국 이러한 기능주의의 효과를 위한 내용 위주의 예문이 선정·수록되었다고 하겠다.

- 1) 내집단의 독립적인 정체(正體, identity)와 집단 경계(境界)의 강화
- 2) 내적 결속 및 자기집단에 대한 동일시 강화
- 3) 내집단의 단합과 관련된 전통적 규범의 재확인 강화
- 4) 내집단 구조의 권력집중 증대

그리고, 적개심 유발 예문의 수사법으로는 직유법과 은유법을 대부분 택하고 있음도 갈등기능주의의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 전체주의의 강화

북한 정치사회체제의 특성을 규정할 때 흔히 전체주의(totalitarianism)를 든다. 이의 요체는 일정한 관제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앞세워 통치하는 강력한 독재자, 그리고 그가 이끄는 단일 대중 정당(공산당)으로 규정된다. 즉 당의 지배 아래 관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도전을 금하고 인민을 지속적으로 동원하는 체제인 것이다(이은죽, 1988).

따라서 대안적 이념체계가 불가능한 사회체제로 굳어지기 때문에, 경찰국가식 사회통제와 노력동원의 정당성, 중앙계획 등 전체주의 모형의 징후군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것들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미화되며, 이러한 단어 들(해방, 충성, 건설, 영웅, 지도자 등)이 예문에 나타난 것이다.

다. 집단주의의 강화

소속 집합체에 대한 소속감과 동일시, 그로부터 나오는 충성심과 헌신 물입의 정서까지 함축하는 집단주의(collectivism)는 3가지 차원에서의 공통되는 성향을 지니는데, 국가와 당, 소속 집단공동체와 직업조직체, 가족과 친족인 것이다. 집단주의는 신헌법 68조²⁸⁾에 규정되어 있는데 북한의 집단주의는 가족과 친족의 차원은 제외된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이 예문의 선정·수록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8)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조국과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형태적 특징인 복합어의 많은 사용은 집단주의 강화의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생각되며, 문체 중 사회정치문체가 많은 것도 동일한 의도로 여겨진다.

라. 주체사상의 강화

북한 군중로선의 이념은 주체사상이다. 인민을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이념적 원천으로서 인민을 교화하고 이끌어가고자하는 가치이며 동시에 인민을 결속시키는 사상의 구심적 역할을 해 가는 가치인 것이다(이은죽, 1988). 그래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의 핵심사상도 주체사상으로 귀결된다. 마찬가지로 언어관도 '언어주체관' 즉 '김일성 주체언어관'으로 귀착된다.²⁹⁾

주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상개조'가 필요하며, 사상개조의 바른 길은 '혁명관'을 세우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혁명적 학습'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도구가 바로 '언어'라는 인식 때문에 국어사전의 예문은 '혁명적 학습'에 적합한 내용을 택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예문이 강한 작위성을 지닌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마. 개인 우상화

대중매체에 지도자 1인의 이름이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 얼마나 많이 작위적으로 실리느냐의 정도에 따라 개인 우상화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당연히 지도자 미화의 수식어도 수반된다. 심지어 『조선말례절법』의 제 3장 '김일성을 섬기는 언어례절'에서까지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³⁰⁾,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일성 이름 앞에는 '수령', 뒤에는 '동지' 그 다음에는 '께서'나 '께'가 와야 한다.
- ② '님'은 김일성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③ '성함, 안광, 안색, 신상, 저택' 같은 단어들도 정중하게 골라써야 한

29) 핵심 내용은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다.

30) 제 2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언어례절」의 첫머리에서,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어버이수령님께 자기들의 사업성과와 결의, 행복과 기쁨에 대하여 말씀드리거나 삼가 글을 올릴 때 우리 인민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안고 최대의 존칭표현과 가장 정중한 말법으로 언어례절을 표시하고 있다."로 밝히고 있다.

다.

- ④ '몹소, 친히, 손수'와 같은 단어들은 '직접'과 대응되는 것으로서 정중히 표현 할 때 쓰인다.
- ⑤보다 정중함을 위하여 에두르는 표현을 쓴다.

바. 권력의 전달·수용

권력행사자는 먼저 권력의 기반을 형성하고, 구성원들을 조직의 상황에 조화시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 권력이 권력수용자에게로의 전달·수용되는 과정은 복종(compliance), 동일시(identific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 진다(김종재, 1993).

북한에서 인민에 대한 김일성 절대권력의 전달·수용은 Fred Luthans의 '권력 전달·수용의 3과정'에 의한 적용·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문의 어휘 선정도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다음은 Fred Luthans의 권력 전달·수용의 3과정과 이에 기여하는 예문의 어휘의미적 특성을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과 정	권력의 원천	권력수용의 원인	권력형성 상황	예문의 어휘의미적 특성
복 종	보상적 권력	보상을 얻고 처벌을 회피하려는 욕구	리더가 보상과 처벌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함.	이상적 사회 건설·예찬 (풍년, 행복, 우리 세상)
동일시	준거적 권력	리더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	리더와 수용자와의 친분이 형성되어야 함.	지도자에게 친근감 있는 어휘 (동무, 동지, 아버지, 은인)
내면화	전문적 권력 합법적 권력	가치관이 동일	리더를 절대 신뢰하여야 함.	지도자 미화의 수식어 (위대한수령, 원수)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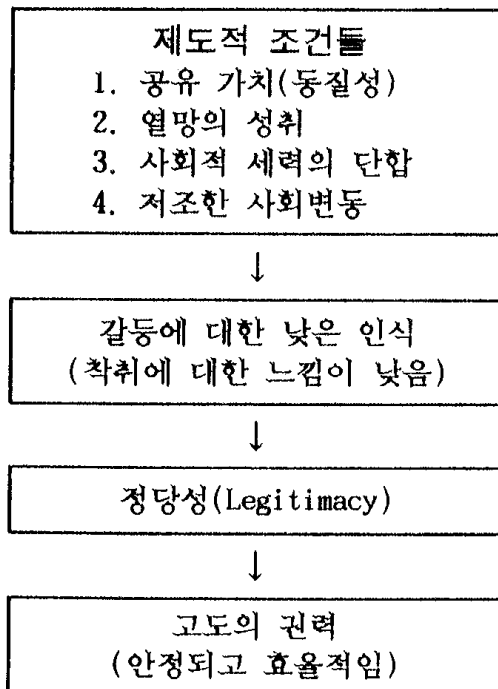
국어사전의 예문은 올림말이 쓰인 보기글로서 실제로 어휘를 부러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어휘가 지니는 뜻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북한은 사회통제적 효과의 장치로서 그들의 언어정책이 반영된 국어사전을 편찬했으며, 예문의 선정·수록도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겠다.

1. 예문 수록이 당국의 정책과 사상적 기준에 따라 제한되고 좌우되었다. 따라서 정치 현실에서의 쓸 말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서 말의 찾아보거나 부러쓰기에 제한을 가져왔다.
2. 예문의 내용도 체제 이데올로기 찬양 혹은 강화, 김일성 예찬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의미의 예측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에서 '유형의 동작, 무형의 동작'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의 작용'을 '흐르다, 피다, 새다' 등, 그리고 형용사도 '감각적 표현, 정의적 표현, 평가적 표현, 비교적 표현' 모두가 예문의 내용이 마찬가지로였다.
3. 사회적 환경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은 음운이나 문법적 특성이 아니라 어휘인 것이다. 예문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 즉, 어휘의미적·형태적·동사적·문체적 특징들에 북한의 사회 체제와 환경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예문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높임법이 김일성 존경을 통한 체제유지로 이어지는 것은 국어사전 예문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4. 예문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과 이의 사회통제적 효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예문의 특징	내용 분류	사회통제적 효과
어휘의미적 특징	적개심 유발의 어휘	갈등기능주의
	체제이데올로기 강화의 어휘	전체주의 강화, 권력의 전달·수용
	김일성 미화의 수식 어휘	개인 이상화, 권력의 전달·수용
	김일성 가족의 이름	개인 이상화
형태적 특징	복합어의 빈번한 사용	집단주의 강화
	보편적 조어법을 벗어난 어휘	전체주의 강화
통사적 특징	종결법: 청유문, 명령문	집단주의, 전체주의 강화
	종결법: 감탄문	개인 이상화, 주체사상 강화
	독특한 높임법	개인 이상화
문체적 특징	당정책해설론문체	집단주의 강화
	맹세문체, 호소문체	갈등기능주의, 전체주의 강화
	직유법, 은유법, 반복법	갈등기능주의
	감탄법, 과장법	개인이상화, 전체주의 강화

5. Duke가 제시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권력안정 및 효과적 활용 모형은 다음과 같은데,



고도의 권력을 강화·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에 관한 단어들을 예문에 선정·수록 했음을 다음 어휘들의 예에서 볼 수 있다.

- 1) 공유가치: 사회주의, 공산주의
- 2) 열망의 성취: 민족해방, 혁명과업, 조선혁명, 조국통일, 건설사업
- 3) 사회적 세력의 단합: 노동자 단결, 혁명, 단합, 현명한 령도
- 4) 저조한 사회변동: 주체사상, 혁명전통, 고상한 품성, 프롤레타리아

따라서, 인민들에게 언어적 관성(linguistic inertia)을 견지시키며, 이를 통해 형성된 개념적 포위망(conceptual encirclement)이 인민들의 사상체계와 정신세계를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변화시켜 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어사전 예문의 사회 통제적 효과의 측정도 가능한 것이다.

6. 통일 후, 통일 국어사전을 편찬할 때는 예문 선정의 방향은, “첫째, 체제 이데올로기 주입이나 강화 등의 정치목적성을 배제하고 어휘가 지니는 본래의 뜻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다. 둘째, 과거와 현재의 민족어를 두루 거두어 간직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라는 예문 수록의 근본 정신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정구. 1989.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 고영근. 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민수. 1985. 북한의 국어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종재. 1993. 현대사회와 인간관계, 박영사.
- 김채운. 1977. “북한의 사회계층”, 북한사회론, 북한연구소.
- 남기심·고영근. 1990.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고도의 권력을 강화·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에 관한 단어들을 예문에 선정·수록 했음을 다음 어휘들의 예에서 볼 수 있다.

- 1) 공유가치: 사회주의, 공산주의
- 2) 열망의 성취: 민족해방, 혁명과업, 조선혁명, 조국통일, 건설사업
- 3) 사회적 세력의 단합: 노동자 단결, 혁명, 단합, 현명한 령도
- 4) 저조한 사회변동: 주체사상, 혁명전통, 고상한 품성, 프롤레타리아

따라서, 인민들에게 언어적 관성(linguistic inertia)을 견지시키며, 이를 통해 형성된 개념적 포위망(conceptual encirclement)이 인민들의 사상체계와 정신세계를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변화시켜 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어사전 예문의 사회 통제적 효과의 측정도 가능한 것이다.

6. 통일 후, 통일 국어사전을 편찬할 때는 예문 선정의 방향은, “첫째, 체제 이데올로기 주입이나 강화 등의 정치목적성을 배제하고 어휘가 지니는 본래의 뜻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다. 둘째, 과거와 현재의 민족어를 두루 거두어 간직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라는 예문 수록의 근본 정신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정구. 1989.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 고영근. 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민수. 1985. 북한의 국어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종재. 1993. 현대사회와 인간관계, 박영사.
- 김채운. 1977. “북한의 사회계층”, 북한사회론, 북한연구소.
- 남기심·고영근. 1990.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기심·김하수. 1985. “북한의 문화어”, 북한의 국어연구, 을유문화사.
- 남성우·정재영. 1990. 북한의 언어생활, 고려원.
- 노대규. 1988. 국어 의미론 연구, 국학자료원.
- 려중동. 1989. “북한의 언어예절”,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 서정수. 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 송기중. 1990. “통일한국의 언어정책”,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 신일철. 1981. “공산권 이데올로기 연구”, 공산권연구현황, 법문사.
- 심재기. 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_____. 1988. “문화어와 말다듬기”, 국어생활 15.
- 이든주. 1991.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평설”, 한글 제 213호.
- 이병근. 1991. “북한의 국어사전과 사전학”, 종교와 문학, 한국종교문화회.
- 이성연. 1991. “북한언어정책의 특징”, 성곡논총 22집.
- _____. 1992. “북한어 조어법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30집.
- _____. 1993a. “북한 국어사전 예문의 변화와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31집.
- _____. 1993b. “조선말 대사전의 예문에 대한 연구”, 제 34회 한국언어문학연구발표 논문(유인물).
- 이은죽. 1988. 북한사회연구, 서울대출판부.
- 이익섭. 1957. “국어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 전수태·최호철. 1989. 남·북한 언어비교, 녹진.
- 전인영. 1989. 북한의 정치, 을유문화사.
- 정재영. 1991. “북한의 경어법”, 새국어생활 1-3호, 국립국어연구원.
- 전재호. 1988. “북한의 언어조작에서 본 남·북언어의 이질화”, 북한 5.
- 정도복. 1990. 남북한 국어정책의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일. 1991. “북한의 문체론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권, 녹진.
- 조재수. 1986. 북한의 말과 글. 한글학회
- _____. 1991. “북한의 사전편찬에 대한 고찰”, 한글 제 213호.

- 차래은. 1991. “북한의 사전편찬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권, 녹진.
- 하치근. 1991. “남북한 언어의 비교 연구”, 동아어문논집 1호, 동아대학교.
- _____. 1991. “남북한의 단어형성법 비교 연구”, 국어의 이해와 인식 (김석득교수 회갑기념), 한국문화사.
- 최 명. 1989.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 최현배. 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우리말대사전』. 1992. 한글학회, 어문각.
- 『새우리말큰사전』. 1981, 삼성출판사(신기철·신용철).
- 『국어대사전』. 1980, 민중서관(이희승).

『북한 자료』

- 김동수. 1983. 조선말례절법, 사회과학원출판사.
- 김영환. 1983. 조선어문장론, 종합대학출판사.
- 김현숙. 1989. 불멸의 주체사상, 사회과학출판사.
- 로종률. 1980. 문화어 형태론,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리익선. 1974. 단어만들기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 민금자. 1963. 말과 글의 문화성, 과학원출판사, (1989, 영인본, 태동).
- 박용순. 1978. 조선어 문체론 연구,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 박상훈 外. 1986.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사회과학출판사.
- 정순기 外. 1984. 사전편찬리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 『조선말사전』. 1962. 과학원출판사 .
- 『조선문화어사전』. 1973. 사회과학출판사 .
-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198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
- 『조선말대사전』. 1992. 사회과학출판사.
- 『우리말어휘 및 표현』. 1978. 공업출판사.

南北韓 言語 變動에 관한 研究

— 南北韓 言語의 同質性과 異質性 實態 分析을 中心으로 —

研究責任者：張 炅 模(國防精神教育院)

목 차

< 요약 문 >

I.	머리말.....	199
II.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	200
	1. 남북한의 언어관	
	가. 남한의 언어관	
	나. 북한의 언어관	
	다. 남북한 언어관 대비	
	2. 남북한의 언어정책	
	가. 한글전용과 관련한 남한의 언어정책	
	나. 한글전용과 관련한 북한의 언어정책	
	다. 한글전용과 관련한 남북한의 언어정책 대비	
III.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	202
	1. 남한의 언어 변동 실태	
	2. 북한의 언어 변동 실태	
	3. 남북한의 언어 실태 비교	
	가. 70년대 남북한 언어실태 비교	
	나. 90년대 남북한 언어실태 비교	
	4. 남북한의 언어 변동 실태 대비	
IV.	맺음말.....	203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장 경 모 (국방정신교육원, 문학박사)

<요 약 문>

I. 머리말

남북한은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단절과 상이한 체제 및 가치관 속에서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는 '단일민족' 내지는 '조선은 하나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통일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이 대립과 적대의식을 해소해 나가면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도출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을 통한 통일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독일의 통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분단국의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만으로 결코 통일은 이루어 질 수 없다. 분단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일에서부터 기초 작업을 다져 나가 민족공동체의식을 형성해 나갈 때 통일은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작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대립과 적대의식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을 여전히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요인들을 도출해 내어 보완, 발전시켜 가는 일이다. 민족을 공고하게 결합시키는 민족의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중 공통의식이 종합되어 형성된다. 민족의 공통적인 생각의 표현은 언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언어를 공통으로 하는 사람들끼리는 매우 미세한 부분에까지 특수한 공동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며, 한 나라의 민족어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반영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이 단절과 대립, 적대의식 속에서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일체감에서 나오는 공동 언대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남북한의 언어도 분단 이후 상이한 이념과 체제, 문화 등으로 상이하게 변화되어 왔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앞 당기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언어가 어떻게 변동되어져 왔는가를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언어 실태 파악 뿐만 아니라 남북한 언어 통일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언어 실태를 비교 함에 있어서 90년대의 언어만을 비교하는 것은 언어 변동의 실태를 분석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하에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을 상호 비교하고 70년대와 90년대의 남북한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들을 동시에 분석하여 이들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연구의 대상은 남북한의 많은 언어중 '가' 부분에 해당하는 용어들로 한정하였다.

II.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

남북한의 언어는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의 상이에 따라 달라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언어관을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라고 할 때, 언어관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 질 수 있지만, 언어의 기능적 측면 특히 언어와 인간의 사고의 관계에서의 언어관은 언어 도구관과 언어사상일체관, 언어사상형성관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북한의 관계가 이념적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언어의 변동을 살펴 보기 위한 언어관은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

하다.

남북한의 언어관에서의 공통점의 하나는 언어를 의사전달의 매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언어도구관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를 민족 형성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언어의 변화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언어와 사상을 하나로 보는 언어사상관의 관점에서 있으나, 북한에서는 언어를 목적적 작용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 즉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언어사상형성관의 관점에서 있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민족어의 발전을 사회주의 건설과 연관시킴과 동시에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의 언어정책에 있어서는 현재의 남북한 어휘와 관련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한의 표준말과 북한의 문화어, 남한의 국어순화와 북한의 말다듬기정책에서의 유사성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남북한 언어에 있어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점이 어휘 문제이기 때문이다.

표준말과 문화어의 관계에서 남북한의 언어정책을 대비시켜 보면, 북한의 문화어도 표준어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남북한 언어가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문화어가 단순하게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 경우는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남북한 언어의 유사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위해서 문화어를 창출해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국어순화와 말다듬기의 관계에서 남북한의 언어정책을 대비시켜 보면, 고유한 우리 말로 어휘를 정리해 나간다는 대원칙에는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단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고유어, 이미 생활화된 한자어, 고유한 우리 말로 대치할 수 없는 세계 공통적인 외래어 등에서는 어휘가 일

치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민간학술단체 주도하에 국어 순화운동이 전개되어져 왔으며, 다원주의사회라는 특성으로 국어순화운동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노동당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획일주의적 사회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휘 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언어의 생성, 소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남북한의 언어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Ⅲ. 남북한 언어 변동 실태 분석

남북한의 언어를 시간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별로 70년대와 90년대의 언어를 비교해 보면, 남북한 공히 어휘 구성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공히 고유어의 대부분은 거의 소멸됨이 없이 90년대에도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가리적, 가재다’ 등과 같은 고어 내지는 속어와 ‘가막살 나무’와 같은 고유명사에 속하는 언어들로서 현대에 활용도가 희박한 언어들 몇 가지만이 소멸되어 갔을 뿐이다. 이는 고유어는 민족의 오랜 생활을 통하여 생성, 활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념, 체제 등과 무관하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언어를 비교해 보면, 남북한 언어에서 일치하는 언어는 70년대보다 90년대에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간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의 상이로 인하여 언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표준어와 문화어의 사용에 따른 차이보다 국어순화와 말다듬기 전개에 있어서 한자어, 외래어 등을 고유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말로 어휘를 정리해 나간 원칙이 유사하다는 점과 분단 이전에 사용해 왔던 언어중 고유어는 거의 소멸됨이 없이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언어는 파생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언어에서 기본어는 일치하고 있으나, 파생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언어들에 있어서도 이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언어는 70년대에는 남북한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90년대에는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한이 비록 분단과 단절 상황에 놓여 있으나, 같은 문화의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불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념과 체제와 무관한 내용 즉 남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외에 오랜 기간 동안의 단절로 인하여 생성된 언어들중에 ‘가끔과 가담 가담’, ‘가락과 가다리’ 등과 같이 異音同意語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언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는 의사소통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일체감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되어야 할 언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들은 남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 변동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國語造語能力과 國語驅使能力을 함양시킨다는 측면에서 연구, 보완, 발전시켜 가야 한다. 그러나 문화어의 창출과 관련하여 공산주의 사회 건설, 공산 혁명,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만들어 진 언어들 즉 ‘가정혁명화, 가격투쟁, 가두세포, 가두선동대’ 등과 같이 이념지향적인 언어들은 남북한 간의 대립과 적대의식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질감을 심화시키게 되므로 배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들은 90년대의 북한의 언어에 다수 나타나고 있다.

IV. 맺음말

남북한은 분단 이후 이념과 체제의 상이 뿐만 아니라 대립과 적대의식으

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 발전해 왔기 때문에 사회, 문화의 제반 분야에서 이질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문화의 일 영역으로서 언어에 있어서도 이질화 현상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언어관과 언어정책의 상이로 인하여 언어의 이질화 현상은 심화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언어의 기능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언어와 민족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언어에는 일치하거나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 언어는 표준어와 문화어의 활용 바꾸어 말하면 북한에서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나타난 언어의 변동은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① 고유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 ② 한자어, 외래어 등을 우리 말로 바꾸어 간다, ③ 국민들 속에 널리 쓰이는 생활어부터 점진적으로 고쳐 나간다고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생성, 소멸과정을 거쳐 변화되어져 온 언어에서는 일치 내지는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북한의 언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동질성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단절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음동의어나 동음이의어, 생활상의 변화에 따른 파생어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혼란을 야기 시킬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 통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언어의 변동 실태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남북한이 공히 활용할 수 있는 통일 사전을 간행해 나가는 작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張 炅 模*

- I. 머리말
- II. 연구의 방법과 분석의 틀
- III.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
- IV.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
- V. 맺음말

I. 머리말

민족공동체의식 형성을 진제로 통일을 추구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남북한이 거의 반세기에 가까

* 國防精神教育院 教授, 文學博士

은 단절과 상이한 체제 및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 '단일민족' 내지는 '조선은 하나이다'라는 前提하에서 통일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남북한이 대립과 적대의식을 해소해 나가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할 경우 이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

탈냉전으로의 국제정세 변화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독일의 통일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²⁾ 그러나 현실은 독일의 통일 이후 잠시의 해빙기를 거친 다음에는 남북한간에 대해 제의의 거부라고 하는 지난 40여년간의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며, 동시에 그동안 심화되어져 온 對立과 敵對意識을 解消시켜 가는 희망적인 조짐도 단 한번의 경평축구대회와 남북한 탁구단일팀으로 끝나버렸다.

독일의 통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분단국의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念願만으로 결코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분단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일에서 부터 기초 작업을 다져 나가 민족공동체의식을 형성해 나갈 때 통일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 작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대립과 적대의식이 심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을 여전히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요인들을 導出해 내어 補完, 發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여러 측면에서 도출해 낼 수 있으나 사람들을 민족이

2)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냉전체제의 붕괴가 예상되고 있었던 1988년에는 33.1%가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독일이 통일된 이후인 1990년 11월에는 61.2%가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1991, 1. 1. 8면.

라는 공동체로 결합케 하는 가장 공고한 특수 유대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의 하나가 언어의 공동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실태의 분석을 통해서도 도출해 볼 수 있다.

민족을 공고하게 결합시키는 민족의식은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중 공통의식이 종합되어 형성된다. 민족의 공통적인 생각의 표현은 언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인간은 언어적인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고 鑄造하게 된다. 따라서 언어를 공통으로 하는 사람들끼리는 매우 미세한 부분에까지 특수한 共同 連帶意識을 가질 수 있게 되며, 한 나라의 민족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반영되게 된다.²⁾

이렇게 볼 때, 남북한이 단절과 대립, 적대의식 속에서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一體感에서 나오는 공동 연대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남북한은 대화를 하거나 남북한의 문헌을 접함에 있어서 외국어와 같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 더구나 남북한 상호간의 문헌을 접함에 있어서 어휘 등에서 다소의 차이는 나지만 해방 당시의 문헌보다 더욱 용이하게 접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의 언어변화에 있어서 同質的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는 결코 그 자체가 고정적인 형태가 아니며, 스스로 생동적으로 변화한다. 언어는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사회 구조의 역학적 작용을 받으면서

2) 언어에는 민족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으며, 민족어의 말살은 그 민족과 국가의 말살과 쇠잔을 의미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책으로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있다. 이 책에서 작가는 다음과 같은 말 한마디로 프랑스어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 노예가 되어 끌려 가더라도, 제 민족의 말을 잘 보존한다면, 이것은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新生, 成長 또는 死滅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의 持續은 남북한 언어의 異質化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이질화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을 이민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같이 언어는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남북한 언어 변동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밝혀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통하여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남북한 언어의 변동은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言語觀과 言語政策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을 대비해 보고, 사전에 수록된 용어들의 분석을 통하여 언어변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研究의 方法과 分析의 틀

남북한이 추구하는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는 통합이 아니라 통일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립적이고 경쟁적인 두 개의 체제를 하나로 묶는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며,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新生, 成長 또는 死滅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의 持續은 남북한 언어의 異質化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이질화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을 이민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같이 언어는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남북한 언어 변동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밝혀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통하여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남북한 언어의 변동은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言語觀과 言語政策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을 대비해 보고, 사전에 수록된 용어들의 분석을 통하여 언어변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研究의 方法과 分析의 틀

남북한이 추구하는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는 통합이 아니라 통일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립적이고 경쟁적인 두 개의 체제를 하나로 묶는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며,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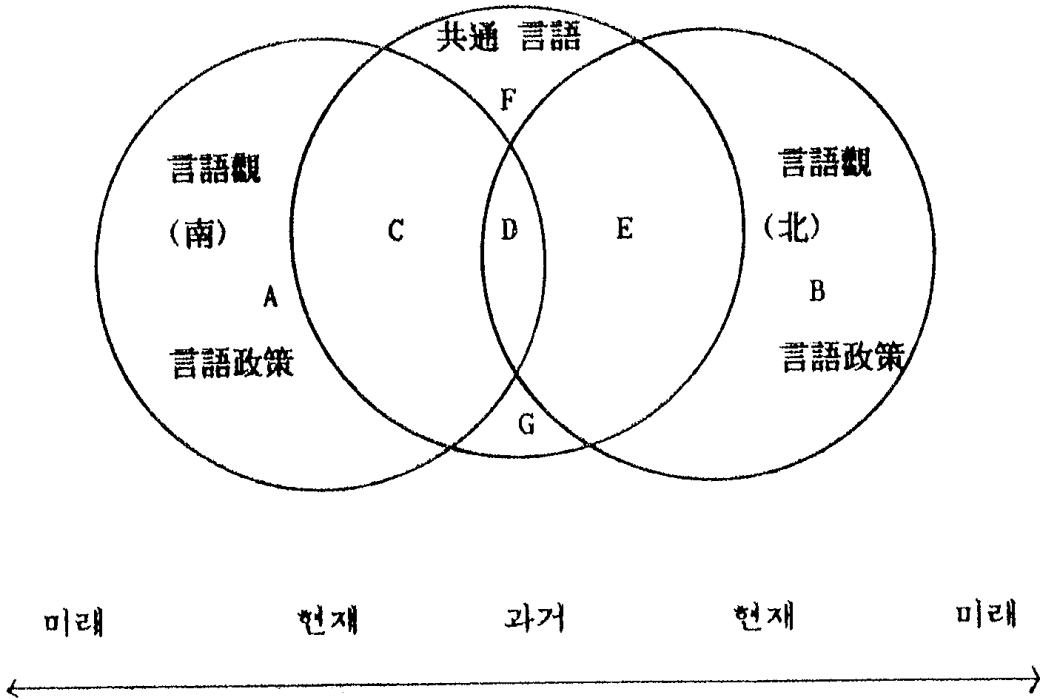
특히 언어는 남북한간의 대립과 적대의식을 해소시켜 가는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언어변동 실태를 동질성과 이질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해 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된다.

언어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게 된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남북한은 분단 이후 이념과 체제의 상이로 인하여 언어가 상이하게 변화되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더구나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단절은 언어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오랜 생활 속에서 生成, 傳承되어져 온 언어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이 많이 남아있음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

남북한의 언어 실태 분석에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 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의 용어와 학술 용어 등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어 지고 있는 용어를 수록하고 있는 사전의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언어의 변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 분석은 분단 이후 남북한 공히 변화되어져 왔음을 전제로 70년대와 90년대 사전을 분석하여 남한과 북한이 각각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과 남북한은 70년대와 90년대에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기 보다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사전에 수록된 용어중 처음에 시작하는 '가'부분에 해당하는 언어들만을 대상으로 연구에 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 모형에 의해서 실태 분석에 임하였다.

〈그림-1〉 南北韓 言語의 變化 過程



- * 'A', 'B' 부분 : 남북한 간의 이질적 언어로 언어관, 언어정책, 기타 사회제도 등으로 인해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부분
- * 'C', 'E' 부분 : 남북한 간의 언어관과 언어정책, 사회제도 등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언어
- * 'D' 부분 : 언어관, 언어정책, 사회제도 등의 상이에 관계없이 남북한 간에 일치하는 언어
- * 'F', 'G' 부분 : 공통언어이지만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언어 즉 방언과 같은 지방어와 소멸된 언어

이 모형은 분단 이전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해 왔으나, 분단 이후 상이한 언어관과 언어정책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의 언어를 동질성과 이질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림-1>의 모형에서 동질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D'부분으로 남북한 간의 상이한 언어관과 언어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쉽게 변하지 않는 민족어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언어로 一致하는 언어이다. 다른 하나는 'C와 E'부분으로 남북한 간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의 상이로 인하여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언어에 바탕을 두고 변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類似性を 지니고 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공통언어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사회 체제의 상이로 인하여 인식상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질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는 'A와 B'부분에 해당하는 언어가 있다. 이들 언어는 남북한 간의 상이한 언어관과 언어정책으로 인하여 완전한 차이를 보이는 언어에 속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남북한의 단절이 지속될 경우 상이한 언어관과 언어정책에 의해서 남북한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갖게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물질문명과 달리 하루아침에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은 변화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 욕구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한의 단절은 상이한 방향으로 언어의 변화를 초래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을 약화시킬 소지는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족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하여 남북한 통일언어를 만들고 활용해야 한다고 할 경우, <그림-1>의 모형에 의하여 분석된 언어는 다음과 같이 활용되어질 수있을 것이다.

- (1) 남북한간의 단절과 상이한 언어관 및 언어정책에도 불구하고 70년대, 90년대에 변함없이 남북한에서 활용되어 지고 있는 언어는 쉽게 변하지 않는 민족어로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 (2)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변화된 언어이지만 90년대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간에 일치되고 있는 언어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 (3) 남북한 간에 일치된 언어는 아니지만 공통언어를 바탕으로 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언어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정도, 남북한 간의 사회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國語의 驅使能力과 造語能力을 함양시킨다는 점에서 보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 (4) 남북한 간에 완전히 다른 언어는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에 의한 결과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화의 유입에 따른 결과인가를 분석,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수용, 보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Ⅰ. 南北韓의 言語觀과 言語政策

1. 남북한의 언어관

언어관은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 문제의 개척, 해결 뿐만이 아니라 언어 연구의 성격을 규정 짓는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의 본질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그리스의 自然說과 慣習說, 중세의 普遍論과 個別論, 근대에 이르러 독일의 Herder로 대표되는 理性觀과 영국의 Darwin으로 대표되는 反應觀 등으로 大別해 볼 수 있으며, Herder의 이성관은 N. Chomsky의 보편주의 또는 생성문법론으로 발전하였으며, Darwin의 반응관은 L. Bloomfield의 구조주의언어학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언어를 기능적 측면에서 보는 언어관은 언어와 인간의 사고를 어떠한 관계에서 보느냐에 따라 큰

- (2)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변화된 언어이지만 90년대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간에 일치되고 있는 언어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 (3) 남북한 간에 일치된 언어는 아니지만 공통언어를 바탕으로 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언어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정도, 남북한 간의 사회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國語의 驅使能力과 造語能力을 함양시킨다는 점에서 보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 (4) 남북한 간에 완전히 다른 언어는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에 의한 결과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화의 유입에 따른 결과인가를 분석,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수용, 보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Ⅰ. 南北韓의 言語觀과 言語政策

1. 남북한의 언어관

언어관은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 문제의 개척, 해결 뿐만이 아니라 언어 연구의 성격을 규정 짓는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의 본질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그리스의 自然說과 慣習說, 중세의 普遍論과 個別論, 근대에 이르러 독일의 Herder로 대표되는 理性觀과 영국의 Darwin으로 대표되는 反應觀 등으로 大別해 볼 수 있으며, Herder의 이성관은 N. Chomsky의 보편주의 또는 생성문법론으로 발전하였으며, Darwin의 반응관은 L. Bloomfield의 구조주의언어학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언어를 기능적 측면에서 보는 언어관은 언어와 인간의 사고를 어떠한 관계에서 보느냐에 따라 큰

語道具觀과 言語思想一體觀, 그리고 言語思想形成觀 등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남북한간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인한 언어의 변동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思考와 언어의 기능 관계에서의 언어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언어도구관은 언어와 인간의 사고와의 관계에서 언어가 思考의 도구라고 하는 관점과 언어의 기능을 의사전달의 매체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思考와 언어를 분리시켜 어느 것이 선행하느냐 하는 측면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일원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언어를 思考의 하위 개념에 두고 언어의 기능을 의사전달의 매체로서 평가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를 인간의 사고의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의 표현에 따라서 人爲的으로 改造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을 견지하게 된다.

둘째, 언어사상일체관은 언어와 인간의 思考와의 관계에서 언어가 곧 思考라는 관점으로 언어와 사고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관점으로 일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언어가 의미를 낳는 동시에 의미가 思考의 모습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은 언어가 곧 인간의 思考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언어를 人爲的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하나의 활동으로 보게 되며, 어떠한 의도적인 통제도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게 된다.

셋째, 언어사상형성관은 언어도구관과는 달리 언어와 사고를 분리시켜서 보지않고 하나로 보는 일원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사고가 언어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이 관점은 언어를 사상의 상위 개념에 두고 새로운 사상이나 舊 사상의 말살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갖게 된다.

가. 남한의 언어관

남한의 언어관은 먼저 언어 정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남한의 국어 사전에서는 대부분이 언어에 대해서 '인류가 사상 감정을 표현 또는 교환으로 하는 수단으로 음성을 쓰는 것.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언어를 기능적 측면에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언어관 가운데 언어도구관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교부 발행 <국민학교 교사용지도서 국어>에서는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언어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이다. 개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까닭은 말하는 사람 개인의 잠재적 내지 현실적 관습에서만 언어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언어 활동은 곧 개인의 두뇌 안에서 통제되기 때문에 언어 활동은 곧 개인의 두뇌 안에서 시발되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 내지 집단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³⁾

여기에서도 언어를 의사전달의 매체로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와 달리 언어의 생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언어는 개인의 잠재적 내지 현실적 관습에서 표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언어를 인간의 思考의 하위개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의 언어관은 언어도구관의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인식에서는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남한은 해방 이후 서구의 문물 특히 미국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3) 문교부,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982, 4쪽.

받았던 관계로 남한의 언어관은 서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성과 이성에 바탕을 두고 자연주의적인 입장에서 언어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즉 언어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 계급이나 특정 계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변화는 자연적 흐름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언어학자 E. Sapir의 말처럼 언어는 인간 사회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 발전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국가 주도하에 언어정책이 시행되기 보다는 학계, 사회단체 주도의 언어 연구와 국어순화 운동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남한의 언어관은 언어를 자연발생적인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하는 언어사상일체관의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남한의 언어관은 언어도구관의 언어사상일체관의 관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언어와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살펴 보면, 언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언어는 민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민족의식 형성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는 민족이 공유하며, 일상 생활의 살아 있는 언어로 작용하는 민족어가 될 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⁴⁾

나. 북한의 언어관

북한의 언어관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이념의 토대가 되는 유물론적 사고

4) 신용하 편, 「민족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18-21쪽.

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언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언어는 그 기원이 의식과 마찬가지로 오래이다. 언어는 곧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또 오직 그럼으로써만이 나 자신을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의식이다. 그리고 언어는 오직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려는 요구, 그러한 간절한 필요로부터서만이 존재한다.⁵⁾

마르크스는 언어의 발생을 의식의 발생과 대등한 입장에서 보면서, 언어는 오직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려는 요구와 필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마르크스는 언어와 의식을 분리시켜 생각하면서도 언어를 인간의 思考의 하위 개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언어관은 앞에서 언급한 언어관에 비추어 볼 때 언어도구관의 관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 언어관을 체계화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스탈린은 언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언어는 사회가 존재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작용하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다. 언어는 사회의 발생과 함께 발생 발전한다. 또한 언어는 사회의 사멸과 함께 사멸한다. 사회를 떠나서는 언어가 없다. 언어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상을 교환하며 호상간의 이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도구이다.⁶⁾

5) 「독일이데올로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23쪽.

스탈린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진단하면서 언어를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간주하였으며, 인간 교제의 수단이며 도구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 언어관은 기본적으로 언어도구관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어의 변화와 관련하여 스탈린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언어는 상부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언어는 ……수세기에 걸친 사회의 력사 및 토대의 력사의 전 행정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어떤 한 계급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계급들에 의하여, 수백 세대의 노력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것은 어떤 한 계급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회의 모든 계급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언어의 복무적 역할은 한 계급에만 복무하고 기타 계급에는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사회의 모든 계급들에게 동일하게 복무하는데 있다.⁶⁾

스탈린은 언어가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창조되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창조에 있어서는 스탈린도 서구 사회의 언어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변화는 인간의 사회성에 바탕을 두고 변화하며, 특정 계급의 요구나 특정 계급을 위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사회 전 계급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지고 변화되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언어관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언어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

6) 「스탈린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418-419쪽.

7) 위의책, 402쪽.

에 언어도구관의 관점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언어의 정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년 도	언 어 의 개 념
1962년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상을 표현하며, 호상 이해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말. ⁸⁾
1968년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상을 나타내며 서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민족어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복무한다. ⁹⁾
1973년	사상을 나타내며 사람들이 교제하는데 쓰이는 수단.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복무한다. ¹⁰⁾

언어의 정의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북한에서는 언어를 인간 교제의 수단이며 사상을 표현하는 매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와 스탈린이 언급한 언어에 대한 인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언어를 단순한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68년 이후부터는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혁명적 단결력을 강화하고 같은 사상으로 무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언어관이 언어도구관의 관점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에서의 언어에 대한 인식은 80년도 부터 일기 시작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미봉책으로 주체사상 확립의 강조와 함께 교육을 비롯한

8) 사회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조선말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2).

9)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8).

10)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사회의 전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강조하면서 또 한차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즉 1981년도에 발간된 사전에서는 언어에 대하여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복무한다'¹¹⁾라고 정의하고 있다.

언어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복무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에게 절대 충성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을 양성하는데 있으며¹²⁾, 이는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언어학자인 김동수도 어떤 사상이 발생하든지 또 그것이 어느때 생겨나든지 사상은 언어에 기초해서만 발생하며 언어없는 사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관은 언어가 사상의 상위 개념에 존재하는 언어사상형성관의 관점에도 서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언어의 변화와 관련하여 보면, 북한에서는 스탈린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는 인위적으로 창조되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기존의 혁명 목표 달성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스탈린이 언어의 무계급성과 사회성, 역사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언어관에서는 서구와 남한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언어사상일체관의 관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1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12) 북한에서 우리 말을 교육하는 이유는 수령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체득하며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우리 당의 언어정책」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9쪽.

13) 김동수, 「조선말례절법」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14쪽.

지난날 언어 발전에 관한 이론은 주로 구라파언어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되어 온 데 불과하였으며 식민지나라들의 언어발전에 관한 문제는 고찰되지 않은채 남아 있었다. 결국 언어는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발전한다는 이론이 공인된 사실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언어발전의 내적인 발전은 사람의 힘으로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리하여 새로운 어휘가 생겨나고 이미 낡아서 쓸모없게 된 어휘가 어휘구성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었다. 따라서 사람은 언어의 발전법칙에 대하여 그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왔다. ……언어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작용에 의하여 발전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어휘정리의 실천적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어디까지나 언어는 사람들의 목적적 작용에 의하여 발전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언어를 변화시켜갈 수 있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언어는 노동당 주관하에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창조, 변화되어 왔다.

이외에 언어와 민족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의 공동이라고 한 스탈린의 언급을 그대로 답습하여 북한에서는 언어를 민족문제와 결부시켜 왔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교시를 통하여 북한의 언어관의 기본 원칙으로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문제를 민족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령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¹⁵⁾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북한에서는 민족어의 발전문제를 노동당의 방침으

14) 박상훈, 리근영, 고신숙,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46-47쪽.

15)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쪽.

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리고 92년에 새로이 발간된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언어의 개념에서 다소의 변화를 보여 '언어는 민족문제와 관련되고 국가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며,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¹⁶로 서술하고 있다. 즉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간주하던 인식에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무기와 민족적 형식을 특징 짓는 표징으로 인식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강조하는 민족어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있으며, 이를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시키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⁷

다. 남북한 언어관 비교

남북한의 언어관을 개괄해 보면, 남북한의 언어관의 차이는 크게 다원주

16)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92)

17) 북한에서는 민족어의 발전문제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력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 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어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미 항일투쟁 시기에 민족어를 주체적으로 발전 시킬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었으며, ...해방후 첫시기부터 언어생활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언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면서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 요구에 맞게 민족어발전문제를 더욱 빛나게 해결해 주고 계신다.’

: 차영애, 「민족어를 발전시킨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5쪽.

의사고와 단순사고의 차이 내지는 이성관에 바탕을 둔 서구의 사고와 혁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적 사고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유사성과 차이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유사성의 하나는 남북한 공히 언어도구관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언어를 인간관계에서 의사전달의 매체로서,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민족과 언어의 관계에서 언어는 민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민족의식 형성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공히 남북한간의 언어 이질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언어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이질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언어 격차'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¹⁸⁾

그리고 언어와 민족의 관계에서 남북한 공히 언어가 민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한 언어관의 차이성은 언어변화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언어와 사상을 하나로 보는 언어사상일체관의 관점에서 있으나, 북한에서는 언어는 사람들의 목적적 작용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언어도구관의 관점에서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언어사상형성관의 관점에서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민간단체 주도하에 언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노동당 주관하에

18) 지난 93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북경에서 통일을 주제로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석한 비공개 학술회의에서 남북한 공히 남북한의 언어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질화가 아니라 격차로 표현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됨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중앙일보, 93. 8. 31. 5면.

언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족어의 발전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과 연관시키며,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민족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2. 남북한의 언어정책

언어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언어를 떠난 민족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은 우리 말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해방후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과제는 우리말을 도로 찾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문맹퇴치, 한글전용의 문제, 맞춤법 문제 등이 남북한 공히 주요한 언어정책으로 요구 되어졌다.

이중 문맹퇴치는 해방 초기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남북한 공히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맞춤법 문제는 북한에서 1987년 5월 15일 「조선말규범집」을 완성하고, 남한에서 1988년 1월 「한글맞춤법」을 공포함으로써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체계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물론 남북한의 맞춤법 문제는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각각 독자적으로 체계화시켜 갔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한의 맞춤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 주관으로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도 많이 있으며, 다소의 차이가 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글의 자모 사용을 제외하고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심각한 이질감 느끼지 않는다.¹⁹⁾

19) 개정된 남북한의 맞춤법을 비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남성우, 정재영 공저, 「북한의 언어생활」 (서울: 고려원, 1990),
41-76쪽.

남한의 자모(24자):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북한의 자모(40자):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나 ㄴ ㅓ ㅕ

* ()안의 자모는 받침의 경우에만 해당

북한의 한글 자모가 40자로 변화되었다고 하여 남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모가 추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전이나 온갖 색인의 자모배열에서 엄청난 차이를 자아내고 있어 다소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처럼 문맹퇴치와 맞춤법 문제는 남북한 공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글전용과 관련한 문제는 남북한 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언어에 민족정신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전용과 관련한 문제가 남북한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될 때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라고 하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된다.

한글전용과 관련하여 남북한에서 전개한 정책은 한자폐지와 표준어와 문화어의 사용, 국어순화와 말다듬기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어휘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언어변동에 관해서 연구하는데 있으므로 한글전용과 관련한 남북한 언어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한글전용과 관련한 남한의 언어정책

한글전용과 관련하여 남한에서 논의된 최초의 언어정책은 한자 사용에 관한 문제였다. 미군정 학무당국에서는 1945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에 걸쳐 교육심의회 제9분과에서는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초·중등학교의 교과

서는 전부 한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를 도립(괄호)안에 적어 넣을 수 있다고 결정하여²⁰⁾ 1945년 12월 8일 학무당국에 건의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자폐지 문제는 각계 각층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되었으며, 이후 언어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왔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글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하나의 문제가 여러 지역어로 인한 언어의 혼란을 통일하기 위한 국가의 공용어 사용이다. 이러한 국가의 공용어로서 활용된 것이 표준어이다. 표준어는 일제하에서 1912년 4월 총독부가 행한 제1회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규정 제1항에 '현재의 경성어를 표준으로 하여 가급적 종래 관습의 용법을 취하여 발음대로의 서법을 취한다'라고 제시한 이후 1936년 10월 28일 조선어학회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가 쓰는 서울말을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울말이 표준말로 되어 왔다.²¹⁾

그리고 표준어는 해방 이후 1948년 10월 1일 국회에서 「한글전용법」이 통과되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법률 제6호로 공포됨으로써 국가의 공용어로서 활용되어지게 되었다. 단지 최초에 표준말을 중류사회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여 계급적 위화감의 조성과 함께 많은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1988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준말은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외에 한글전용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연구, 검토되어져야 할 문제로 국어순화가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말은 한자어, 몽고어, 여진어, 일본어, 서구어 등 약 30여개의 외래어에 의한 어휘가 뒤섞여 있으며, 우리가

20) 문교부, 「문교 40년사」, 1988, 91쪽.

21) 李相斐, 「國語 教育의 改善方案」,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語의 醇化와 教育」, 1979, 111-112쪽.

사용하는 언어중 24.4%만이 고유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 이처럼 혼재된 가운데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개된 활동이 국어순화운동이다. 이는 1910년대에 주시경에 의해서 한자어 축출운동으로 시작된 이후 조선어학회의 활동으로 전개되어져 왔다.

해방 후에는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국어를 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1947년 1월 '국어정화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48년 6월에는 문교부에서 「우리말 도로찾기」란 책자를 보급하고, 1976년 4월 문교부에서 '국어순화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각급 교육 기관에 시달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국어 회복을 통한 민족 주체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 주관하에 이루어진 초기의 국어순화활동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일본 잔재 용어를 제거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전개된 제한적인 활동에 불과하였다.

- ① 조선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일본어를 버리고 조선어를 쓴다.
- ② 조선어가 없기 때문에 일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조선의 古語에서라도 찾아내어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쓴다.
- ③ 古語에서도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어 이외의 언어에서 유사한 것을 취해 新語를 만들어 그 의미를 정해 쓴다.
- ④ 한자로부터 된 일본식 한자어를 버리고 조선 古來의 한자어를 쓴다.²³⁾

사실상 남한에서의 국어순화운동은 자연스러운 언어의 변화를 추구하기

22)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우리 말의 어휘는 대략 25만 8천여 자이며, 이중 고유어는 24.4%, 한자어 69.3%, 외래어 6.28%로 구성되어 있다. : 南廣祐, 「國語混用論」, 金敏洙 外 共編, 「國語와 民族文化」, (서울: 集文堂, 1990), 324쪽.

23) 「문교 40년사」, 앞의책, 94쪽.

때문에 정부 주도보다는 일부 국어학자와 한글학회 등의 국어연구단체, 일부 일선 교직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들이 국어순화운동을 전개한 원칙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隱語, 卑語, 俗語, 辱說, 外來語 및 外國語가 국어순화의 대상이 된다.
- ② 국어순화는 한자어를 비롯한 외래어의 무조건적인 배제 축출이 아니다.
- ③ 필연적 동기에 의한 借用語로 국어에 代置語가 없는 것은 대치어가 마련될 때까지 국어로 포용한다.
- ④ 국어순화는 生活語로부터 꾸준히 전개한다.
- ⑤ 固有語를 발굴 활용해 나간다.
- ⑥ 어려운 한자어는 풀어 쓰거나, 고유어로 대체하고 외래어는 번역 차용한다.
- ⑦ 매스컴과 지식인이 솔선수범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한다.
- ⑧ 統辭面에서 構文上의 非文的 요소는 순화한다. : 존대법, 호칭, 시제 등.
- ⑨ 음운면에서 잘못된 발음은 순화의 대상으로 한다.²⁴⁾

나. 한글전용과 관련한 북한의 언어정책

한글전용과 관련한 북한에서의 한자폐지 정책은 '봉건사상적 잔재의 척결

24) 朴甲洙, "國語醇化의 理論과 方法", 「國語의 醇化와 教育」, 앞의책, 57-65쪽.; 朴甲洙, 「國語의 表現과 醇化論」(서울: 志學社, 1984). ; 허용, 「우리말과 글에 쏟아진 사랑」(서울: 문성출판사, 1980), 54-63쪽.; 李應百, "國語醇化의 實踐方案", 「國語와 民族文化」, 앞의책, 118-123쪽.

과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루어졌으며, 1946년 말부터 시작되어 1949년 9월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²⁵⁾ 이에 따라 공용문서를 포함하여 신문, 잡지, 학술서적 등 모든 문헌에서 한글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한자를 불과 3-4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폐지하므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20년 후인 1968년부터 한자교육이 부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김일성은 한문교육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문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한문을 많이 쓰고 있는 조건에서 그들이 출판하는 신문이나 책을 보자고 하여도 한문을 알아야 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도 한문을 알아야 합니다.²⁶⁾

이처럼 북한에서는 한자교육을 부활하였지만 이는 한자문화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한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해방 초기 북한의 한글전용정책에서는 한자폐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서울말을 표준말로 하여 사용해 왔다. 이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미제의 침략에 의한 것이었을 따름이었고 남북한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자를 쓰고 있는 같은 민족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언어정책에 대한 기본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 김일성의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언급 중 다음과 같은 내용

25) 김인호, "우리 당이 실시한 한자폐지는 그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나타내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론문집」(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254-255쪽.

26) 김일성, "교육 부문 일군 책임자회의에서 한 언설 (1980. 4. 9)", 「김일성저작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117쪽.

에 잘 나타나고 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 조선 인민은 피줄과 언어를 같이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지금 남조선 사람들이나 북조선 사람들이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며 같은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²⁷⁾

그러나 60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 체제의 구축과 함께 남북 대결이 심화되면서 표준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북한의 언어정책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김일성의 교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서울말=표준말’로 인식하는데 따른 정통성 시비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표준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²⁸⁾

북한에서는 사실상 남북한 간의 정통성 시비에서 표준어 사용을 배제하게 되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남한의 언어가 미제의 악독한 민족어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민족적 고유성과 순수성을 잃고 잡탕말로 되어 가고 있어, 언어의 민족적 특성은 점차 사라져 우리 민족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있기에 남조선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말을 구원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27)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1964. 1. 3)”, 「문화어학습」 2호, 1968. 1-7쪽.

28) 김일성, “민족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발전시켜 나간데 대하여(1966. 5.14)” 「문화어학습」 3호, 1968. 1-9쪽.

우리는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 발전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피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 내기 위한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²⁹⁾

그리고 김일성은 문화어의 설정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사상감정과 혁명적 지향에 맞게 언어를 발전시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적극 이바지 할 수 있고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터를 잘 닦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우리 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³⁰⁾

북한에서는 표준말 사용을 배제하고 평양말을 중심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남한에서 서울말이 곧 표준말이지만 서울말이라고 하지 않고 표준말이라고 사용하고 있듯이 북한에서도 평양말이라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말에 대비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문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어라는 용어 자체가 표준어 라는 말과 대비시켜 볼 때 만족한 용어는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29) 「우리 당의 언어정책」, 앞의책, 15-18쪽.

30) 앞의책.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 말을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말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 쓰는 것이 낫습니다.³¹⁾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표준어를 의식하여 문화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수반되어 지는 문화어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조국이 통일되기 전에 언어를 개혁하여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글자를 쓰게 되면 민족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글자를 개혁하는 사업은 연구를 깊이하고 준비를 충분히 성숙시켰다가 통일이 된 다음에 하여야 한다'³²⁾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언어는 북한에서 문화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언어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문화어 제정과 함께 語學革命으로 지칭되면서 전개되어져 온 언어정책이 말다듬기운동이다. 북한에서는 말다듬기 운동으로 새기를 두고 짓밟혀 오던 고유한 우리말이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어휘정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학혁명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새기를 두고 짓밟혀 오던 고유한 우리말이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조선말체계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³³⁾

북한에서의 말다듬기는 한글의 사용을 통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함양시킨다는 의도³⁴⁾도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의도는 공산주의 사상 고취³⁵⁾, 봉건사

31) 같은책.

32) 박상훈 외, 앞의책, 44-45쪽.

33)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 말과 글이 걸어 온 영광의 10년", 「문화어학습」 4호, 1980.

대주의사상과 낡은 사상적 잔재 척결³⁴⁾,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척결³⁵⁾, 남북한 비교에 의한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 고취³⁶⁾ 등에 있다.

- 34) 북한에서는 한글 전용을 추진하면서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는 사람은 민족적 긍지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식하고 민족적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김일성저작집」, 20권, 347쪽.
- 35) 이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교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공부도 하지 못한 농촌 청년들 앞에서 하루종일 <부르조아사회를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 해방모니를 쟁취한다>느니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이야기를 들은 청년들은 무슨 내용인지 리해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청년을 보고 <우리가 온종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전사업을 한다고 야단인가?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같이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웅변>으로 멋부터 부리며 언설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말공부로 되고 말 것이다
: 「우리 당의 언어정책」, 앞의책, 5쪽. 재인용.
- 36)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언어생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낡은 관점과 사대주의적인 언어 사용 기풍은 관습의 힘으로 굳어져 매우 집요한 만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과 사상교양도 그만큼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박상훈 외, 앞의책, 19쪽.
- 37) 이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교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날 일제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다음에는 일본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가운데는 고쳐야 할 일본식말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앞의책.
- 38) 이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 교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영어나 일본말을 섞어 쓰고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자말은 중국사람들도 쓰지 않는 것까지 망탕쓰고 있습니다. 사실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서 한자말과 일본말, 영어를 빼버리면 우리 말은 <을>, <를>과 같은 토만 남는 형편입니다. 언어는 민족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데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이 이렇게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다보니 우리 말 같지 않으며 우리 말의 민족적 특성이 점차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 위의책, 337쪽.

이러한 의도에서 전개된 말다듬기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 ① 쓸데없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고친다.
- ② 한자말과 외래어를 일정한 범위에서 국한시켜 놓고 그 사용을 제한하여 굳어진 것만을 쓰도록 한다.
- ③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는 좋은 말을 적극 발굴하며, 선후차를 가려 늘 쓰는 말부터 점진적으로 고쳐 나간다.
- ④ 같은 뜻의 단어로써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고유어를 쓴다.
- ⑤ 고유어의 어근에 따라 새 말을 만들어 나간다.
- ⑥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지상토론을 전개한다.
- ⑦ 다듬은 말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통제하며 교육 부문과 출판 보도 부문에서 먼저 수용하여 확산한다.³⁹⁾

다. 한글전용과 관련한 남북한 언어정책 대비

한글전용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언어정책을 개괄해 보면, 남한에서는 자연스러운 언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노동당 주관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일성 교시에 따라 인위적으로 언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책 수행과정에서 그 유사성과 차이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유사성으로 한자폐지와 관련한 정책을 들 수가 있다. 남북한 공히 해방 초기에는 한자폐지를 내세웠으나, 남한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

39) 박상훈 외, 앞의책, 11-28쪽.

으며 북한에서는 1949년까지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남북한은 한자폐지와 관련하여 차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태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북한에서도 1968년부터 한자를 부활시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어휘정리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간에는 어휘정리의 주관이 누구인가에 따라 성과면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고유어와 생활어를 중심으로 어휘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일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의 국어순화와 북한의 말다듬기 원칙의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고친다.
- ② 한자말과 외래어 중 이미 우리 말로 생활화된 것은 국어로 수용한다.
- ③ 어휘정리를 해 나감에 있어 국민들 속에서 널리 쓰이는 좋은 말을 적극 발굴하여 선후차를 가려 생활어부터 점진적으로 고쳐 나간다.
- ④ 한자어 내지 외래어는 가능한 한 유사한 고유어로 바꾸어 차용하도록 한다.
- ⑤ 같은 뜻의 단어로써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고유어를 쓴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어휘정리 원칙의 제시 여부로 인하여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남북한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은어, 비어, 속어, 방언 등도 어휘정리의 대상으로 하여 고쳐나간다.
- ② 고유어의 어근에 따라 새 말을 만들어 나간다.
- ③ 統辭面에서 構文上의 非文的 요소는 순화한다.

반면에 남북한의 언어정책에서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 표준어와 문화어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일상어는 방언과 표준어로 나뉘어져 있다. 방언은 자연적으로 취락을 형성한 지방민들이 장구한 전통 속에서 전수되어져 온 그들 특유의 사회적,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 언어이다. 따라서 방언은 自然語이며 固有語라고 할 수 있으며, 동향인끼리는 곧잘 방언으로 이야기 하게 된다. 그리고 표준어는 공용어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되는 人爲的言語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표준어도 서울 지방의 방언으로서 자연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언어에 속한다.⁴⁰ 따라서 표준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표기 언어는 표준어의 규범에 따르지만 발음상의 일치는 불가능한 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표준어와 문화어의 차이는 단순하게 방언적 차이에 局限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교시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문화어의 사용이 사회주의건설과 혁명을 위해서라고 할 경우에는 언어 이질화 현상의 문제는 심각해 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문화어 사용을 위해서 고유어 중심으로 다듬어 나간 언어에서 오는 언어의 차이보다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들에 언어의 차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어지게 된다.

40) 李相斐, 앞의 논문.

IV. 南北韓 言語變動 實態 分析

1. 남한의 언어변동 실태

언어변동과 관련된 남한의 언어관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며, 언어정책도 정부 주도보다는 학계와 사회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대와 90년대의 사전을 비교해 보면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가'부분에 해당하는 어휘를 살펴보면, 1974년에 발간된 양주동 감수의 「국어대사전」⁴¹⁾에는 대략 1350여개의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1991년에 발간된 교학사의 「새국어사전」⁴²⁾에는 대략 1780여개의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다.

결국 남한에서는 20년 사이에 400여개에 가까운 어휘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동에는 70년대의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었으나, 90년대의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어휘 즉 생활에서 크게 활용되지 않거나 소멸된 어휘들이 8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70년대의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90년대의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는 어휘 즉 새롭게 나타난 신조어들은 380여개에 달하고 있다.

70년대와 90년대의 사전에 수록된 어휘중 80% 이상은 변화되지 않은 언어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고유어의 대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

41) 양주동 감수, 「최신국어대사전」, (서울: 진영출판사, 1974).

42) 교학사 편, 「새국어사전」, 1991.

구 분	고 유 어
명 사	가게, 가게채, 가귀, 가난, 가늠쇠, 가다리, 가닥, 가댁질, 가동질, 가두리, 가라치, 가락, 가락지, 가락짓벌, 가락토리, 가랑잎, 가래, 가래나무, 가래떡, 가래상어, 가래엿, 가래질, 가래침, 가래룻, 가랫날, 가래바닥, 가래밥, 가랫장부, 가랫줄,
	가랑통, 가로, 가뢰, 가루, 가름, 가름장, 가리, 가리개, 가리구이, 가리나무, 가리마, 가리맛, 가리맛저냐, 가리비, 가리사니, 가리새, 가리새김, 가리온, 가리질, 가마, 가마니, 가마리, 가마통, 가마채, 가막사리, 가막살나무, 가망, 가물, 가보 등
동 사	가꾸다, 가누다, 가늠보다, 가다, 가다듬다, 가다루다, 가다리말다, 가둥거리다, 가드락거리다, 가든거리다, 가들거리다, 가라앉다, 가랑거리다, 가랑이지다, 가래다, 가무러지다, 가려워하다, 가려잡다, 가력되다, 가로놓이다, 가로막다, 가루다, 가르다, 가르치다, 기리끼다, 가리다, 가리어지다, 가만두다 등
형용사	가깝다, 가날프다, 가늠스럽다, 가늘다, 가득하다, 가든하다, 가들막하다, 가랑가랑하다, 가렵다, 가린스럽다, 가마득하다, 가마무트름하다, 가만하다, 가맴다, 가뭇없다, 가벌다, 가분하다, 가붓하다, 가슴츠레하다, 가시세다, 가즈럽다 등
부 사	가까스로, 가꾸로, 가곰, 가다가, 가다가닥, 가뜩이, 가랑가랑, 가리산지리산, 가만가만, 가뭇가뭇, 가분가분, 가슬가슬, 가으내, 가지가지 등

둘째, 오랫동안 사용해 온 한자어는 대부분이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생 활 화 된 한 자 어
명 사	家家戶戶, 假家, 家間事, 加減, 歌客, 佳客, 價格, 可決, 佳境, 家計, 家系, 歌曲, 加工, 可恐, 架空, 可觀, 架橋, 假橋, 家口, 家具, 家國, 歌劇, 假根, 家禽, 家內, 可能, 加擔, 可當, 架臺, 假貨, 街道, 可動, 街頭, 假登記, 苛斂, 可望, 假寐, 加盟, 假面, 假名, 歌舞, 家門, 加味, 家闕, 可變資本, 家寶, 假縫, 可否, 家貧, 家事, 歌詞, 歌辭, 袈裟, 家産, 加算, 假想, 假像, 假象, 加設, 架設, 假說, 苛性, 假聲, 家勢, 加勢, 加速, 歌手 등
동 사	可決하다, 假契約하다, 加工하다, 架空하다, 可動하다, 加等하다, 加療하다, 假埋葬하다, 假縫하다, 加俸하다, 跏趺坐하다, 加算하다, 假想하다, 加設하다, 架設하다, 加勢하다 등

구분	생활화 된 한자어
형용사	加怪하다, 可矜스럽다, 可能하다, 可當찮다, 假量없다, 佳麗하다, 可憐하다, 可笑롭다 등
부사	可否間, 可及的, 可矜스레, 假令, 假使, 假量스레 등

변동된 언어로서 70년대의 언어중 90년대의 사전에 수록되지 않고 있는 언어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부분이 한자어중 명사에 속하는 어휘들로서 다음과 같은 언어의 사례들이 있다.

가가(可嘉), 가감소것법(加減消去法), 가감역관(加減役官), 가경전(加耕田), 가덕대부(嘉德大夫), 가례색(嘉禮色), 가률(加律), 가밀렬(加密列), 가산난(嘉山亂), 가상지상(加上之上), 가성조달(茄性曹達), 가승(家蠶), 가요(哥窯), 가언적명령(假言的命令), 가엽포(茄葉包), 가차하(加差下), 가호력(加護力), 가학(街廓), 가휘(家諱) 등

둘째, 한자어를 순화시킨 용어로서 70년대에는 활용되었으나 90년대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어휘이다. 이러한 어휘는 남한의 언어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한자어	순화시킨 용어	비고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지시관형사 지시부사	가리킴 그림씨, 가리킴 어떻게 가리킴 대이름씨 가리킴 매김씨, 가리킴 어떤씨 가리킴 어찌시	90년대 미활용

셋째, 고유어가 생활어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어간 경우이다. 이러한 언어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가리적, 가마살나무, 가시집, 가시할미, 가시할아비, 가살부리다, 가삼겨살, 가자미지지미, 가자산적, 가자적, 가장줄, 가재다, 가죽부대, 가지누름적, 가지전 등

넷째, 고유어가 새롭게 변화되었거나 외래어가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어간 경우이다. 이러한 언어로 고유어에 속하는 ‘가랑무우’가 ‘가랑무’로 변화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외래어로서 ‘가스방크(Gosbank)’, ‘가스플란(Gosplan)’ 등과 같은 러시아어와 ‘가스플(Gospel)’과 같은 종교적 언어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명사는 소멸되거나 일부 지역과 일부인들에게 사용이 국한되어 사전에 수록되지 않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앞의 언어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사와 부사, 형용사 등은 거의 변화가 없이 활용되고 있다. 동사의 경우 활용되지 않고 있는 어휘로는 ‘가져다가’의 옛말인 ‘가재다’가 있다.

70년대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어휘로서 90년대의 사전에 수록되어 변화된 언어의 형태적 성격을 보여주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의 변화에 따라 한자어를 기본어로 이용하여 새롭게 파생된 언어들로서 대부분의 언어가 이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언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본어	70년대의 파생어	90년대의 파생어
가감 (加減)	가감례, 가감소것법, 가감승제,	가감례, 가감법, 가감승제, 가감저항기 가감축전기, 가감형
가격 (價格)	가격카르텔, 가격포기 우편물, 가격협정카르 텔	가격경기, 가격정책, 가격지수, 가격차 익, 가격카르텔, 가격표, 가격포기우편 물, 가격협정카르텔,

기본어	70년대의 파생어	90년대의 파생어
가계 (家計)	가계부, 가계경제, 가계부기,	가계경제, 가계도, 가계미가, 가계보험 가계수표, 가계부, 가계부기, 가계비
가두 (街頭)	가두문학, 가두진출	가두녹음, 가두문학, 가두선전, 가두시위, 가두연설, 가두진출, 가두판매
가정 (家庭)	가정경제, 가정공업 가정교사, 가정교육 가정교훈, 가정극, 가 정난, 가정면, 가정부 인, 가정소설, 가정쟁 의, 가정지학, 가정학	가정경제, 가정공업, 가정과, 가정교사 가정교육, 가정교훈, 가정극, 가정란, 가정면, 가정방문, 가정법원, 가정부, 가정부인, 가정살림, 가정생활, 가정소 설, 가정쟁의, 가정전화, 가정지학, 가 정통신, 가정학
가족 (家族)	가족경제, 가족석, 가 족수당, 가족쟁의, 가 족제도	가족계획, 가족경제, 가족국가, 가족법 가족석, 가족수당, 가족제도, 가족탕 가족회의
가중 (加重)		가중감경, 가중산술평균, 가중처벌, 가 중치, 가중평균, 가중형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90년대의 파생어는 70년대의 파생어들 그대로 활
용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파생어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격’의 경우 70년대의 파생어가 90년대에도
활용되고 있으나, ‘가격경기’, ‘가격정책’, ‘가격지수’, ‘가격차익’, ‘가격
표’ 등 5개의 어휘가 생성되었으며, ‘가계’의 경우 90년대에는 ‘가계보험’,
‘가계수표’, ‘가계비’ 등의 어휘가 파생되었다. 그리고 ‘가중’의 경우 70년
대에는 관련된 파생어가 없었으나 90년대에는 가중감경, 가중산술평균, 가
중처벌, 가중치, 가중평균, 가중형 등과 같은 전문용어가 파생되기도 하였
다.

둘째, 고유어를 기본어로 하여 새롭게 파생된 언어들도 다수 있다. 이러
한 언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본어	70년대의 파생어	90년대의 파생어
가락	가락고동, 가락국수, 가락옷, 가락잡이, 가락토리	가락고동, 가락국수, 가락꼬치, 가락엿가락옷, 가락잡이, 가락토리
가로	가로글씨, 가로길이, 가로놓이다, 가로만죽, 가로달이, 가로세로, 가로쓰기, 가로장, 가로지, 가로지르다, 가로차다, 가로채다, 가로채이다, 가로퍼지다	가로글씨, 가로금, 가로길이, 가로깨지다, 가로나비, 가로놓다, 가로놓이다, 가로누이다, 가로눕다, 가로다지, 가로달이, 가로대, 가로만죽, 가로막, 가로막히다, 가로무늬, 가로무늬근, 가로문자, 가로서다, 가로세로, 가로쓰기, 가로장, 가로줄, 가로지, 가로지르다, 가로질리다, 가로짜기, 가로차다, 가로채다, 가로채이다, 가로축, 가로타다, 가로퍼지다, 가로획
가루	가루분, 가루불이, 가루약, 가루자반, 가루좁, 가루집	가루눈, 가루담배, 가루모이, 가루밭이, 가루분, 가루불이, 가루비누, 가루사탕, 가루약, 가루우유, 가루자반, 가루좁, 가루좁, 가루체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70년대 고유어에서 파생된 언어의 대부분은 소멸되지 않고 90년대의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유어는 민족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으며, 90년대에는 생활이 다양화됨에 따라 더욱 많은 언어가 파생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형용사, 부사, 동사 등의 파생어에 의해서 변화를 보이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본어	70년대의 파생어	90년대의 파생어
가는 (가늘 다)	가는장때, 가느다랗다 가느스름하다	가는눈, 가는대, 가는대나물, 가는모래, 가는베, 가는장대, 가는체, 가는톱니, 가는허리, 가느다랗다, 가늘디가늘다, 가느스름하다

기본어	70년대의 파생어	90년대의 파생어
가다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다, 가다오다
가만	가만가만, 가만두다 가만있다, 가만있자 가만하다	가만가만, 가만두다, 가만사뿐, 가만 있자, 가만하다,

넷째, 외래어의 수용과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파생된 언어가 있다. 이러한 언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본어	70년대의 파생어	90년대의 파생어
가솔린		가솔린걸, 가솔린기관, 가솔린동차 가솔린스탠드, 가솔린엔진, 가솔린탱크
가스	가스계량기, 가스관 가스기관, 가스난로 가스등, 가스마스크, 가스맨홀, 가스미터 가스발동기, 가스스토 브, 가스엔진, 가스연 료, 가스유, 가스전지 가스중독, 가스지지미 가스탄, 가스탱크, 가 스파이프, 가스한탄계	가스계량기, 가스관, 가스기관, 가스난 로, 가스등, 가스라이트지, 가스램프 가스레인지, 가스로, 가스마스크, 가스 맨홀, 가스미터, 가스발동기, 가스발생 기, 가스버너, 가스봄베, 가스분석, 가 스상성운, 가스세정병, 가스스토브, 가 스실, 가스액, 가스엔진, 가스연료, 가 스온도계, 가스유, 가스전구, 가스전지 가스정, 가스중독, 가스지지미, 가스카 본, 가스코크스, 가스탄, 가스탱크, 가 스터빈, 가스파이프, 가스폭탄, 가스풍 로, 가스한탄계, 가스회저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외래어를 기본어로 하여 파생된 언어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 양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국제사회화 되어 감에 따라 외래어가 생활어로서 활용되어 나타나는 변화이다. 이러한 언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70년대와 90년대 공통 외래어	90년대 활용 외래어
가드(guard), 가드너(gardener) 가든(garden), 가든골프(garden golf), 가라즈(garage), 가르손 (garconne), 가르송(garcon) 가보트(gavotte), 가빠(capa) 가스(gas), 가이드스(guidance) 가이드(guide), 가이아(Gaia) 가톨릭(Catholic), 가운(gown) 가제(gaze), 가트(GATT), 가스 미터(gas meter), 가스마스크 (gas mask), 가스맨틀(gas mantle), 가스탱크(gas tank) 가스터빈(gas turbine), 가스파 이프(gas pipe), 가이드북 (guide book), 가솔린(gasolin)	가드레일(guardrail), 가드펜스(guard fence), 가든트랙트(garden tractor) 가든파티(garden party), 가솔린 걸(gasolin girl) 가솔린스탠드(gasolin stand), 가솔린 탱크(gasolin tank), 가스램프(gas lamp), 가스레인지(gas range), 가스버 너(gas burner), 가스스토브(gas stove) 가스카본(gas carbon), 가스코크스(gas cokes), 가스트로스코프(gastroscope) 가스트로카메라(gastrocamera), 가우스 (gauss), 가이드로프(guide rope), 가 이드포스트(guide post), 가이드미사일 guide missile), 가이사(Caesar)

2. 북한의 언어변동 실태

북한의 언어관은 인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언어정책은 노동당 주도하에 문화어운동, 말다듬기운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70년대와 90년대의 사전을 비교해 보면 큰 변화가 있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를 살펴보면, 1973년에 발간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조선문화어사전」에는 대략 730여개의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1992년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는 대략 2830여개의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다.

북한의 사전에서는 70년대의 사전과 90년대의 사전이 어휘 수록에 있어서 2000여개에 가까운 어휘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70년대

의 사전이 북한에서 문화어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문화어 중심의 사전이었으며, 90년대의 사전은 북한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전이라는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사전의 비교는 북한의 언어변동 실태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자어 즉 생활화된 한자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북한의 90년대 사전에서는 70년대의 사전에 수록된 어휘들을 거의 대부분 수록하고 있으며, 단지 다음과 같은 10여개 남짓한 어휘만이 제외되어 있을 뿐이다.

구 분	어 휘
명 사	가는피리, 가름소리표, 가슴막, 가슴막업, 가슴샘 가시미론, 가재미구이, 가까운값, 가립판
형 용 사	가당치않다, 가없다
부 사	가리가리, 가없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휘들을 보면, 대부분이 북한에서 활용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소멸되어간 언어들로 간주할 수 있다. 단 형용사인 ‘가당치않다’는 준말인 ‘가당찮다’로 활용되고 있다.

70년대의 문화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어는 다음과 같다.

가격, 가결, 가공, 가구, 가극, 가금, 가계, 가관, 가능, 가내수공업, 가담, 가동, 가림잡세, 가맹, 가변성, 가면, 가무, 가부장적, 가상, 가설, 가정, 가족 등 107개 어휘

이중에서 ‘가림잡세’의 경우는 남한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언어이다. 즉 가림잡세를 설명하면서 ‘오늘 남조선 괴뢰도당은 해마다 늘어가는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수십종에 이르는 가

렴잡세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남북한 언어실태 비교

가. 70년대의 남북한 언어실태 비교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간주하며 언어의 인위적인 변화를 추구한 북한의 언어와 언어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표준어와 문화어의 사용, 국어순화와 말다듬기운동에 의해서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사전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어휘는 300여개에 달한다. 이는 1350여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 남한의 사전에서는 20%에 불과하며, 730여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 북한의 사전에서는 40%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 언어에는 상이한 이념과 문화, 반세기에 가까운 단절에도 불구하고 일치되고 있는 언어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분단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고유어의 대부분은 일치하고 있다. 특히 고유어로서 기본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어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언어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고 유 어
명 사	가게, 가난, 가늠, 가늠쇠, 가다리, 가닥가닥, 가동질, 가닥 가라지, 가락, 가락지, 가랑잎, 가래, 가래나무, 가래떡, 가름 가루, 가리마, 가리맛, 가리비, 가리새 외 120여개 어휘
동 사	가꾸다, 가누다, 가다, 가늠보다, 가다듬다, 가두다, 가라앉다 가래다, 가리다, 가리우다, 가리키다 외 30여개 어휘

구 분	고 유 어
형용사	가깝다, 가날프다, 가느다랗다, 가늘다, 가득하다, 가랑없다, 가뚝하다, 가튼하다, 가튼하다, 가랑가랑하다 외 30여개 어휘
부 사	가까스로, 가까이, 가다오나, 가뚝, 가다가, 가닥가닥, 가뚝이, 가뚝이나, 가득가득, 가랑가랑, 가리가리 외 10여개 어휘

북한에서도 1966년 김일성이 문화어에 대하여 언급하기 이전에는 표준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남북한 간에는 고유어에서 일치하는 언어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고유어를 기본어로 하면서 생활어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파생된 언어중에서도 남북한 간에 일치하는 언어가 있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같다.

- 가늌 → 가늌쇠
- 가락 → 가락토리, 가락웃
- 가로 → 가로글씨, 가로달이, 가로세로, 가로장, 가로줄, 가로쓰기
- 가루 → 가루분, 가루좁, 가루약
- 가름 → 가름장
- 가리 → 가리질
- 가래 → 가래군, 가래바닥, 가래밥, 가래장부, 가래줄, 가래질
- 가슴 → 가슴지느러미, 가슴뿔, 가슴얇이
- 가시 → 가시나무, 가시덤불, 가시맹이, 가시밭, 가시철, 가시연, 가시연꽃, 가시연밥
- 가죽 → 가죽나무, 가죽신
- 가지 → 가지회, 가지찜
- 가재 → 가재걸음
- 가을 → 가을같이, 가을건이, 가을날, 가을달, 가을바람, 가을밤, 가을벌, 가을보리, 가을봄, 가을비, 가을철, 가을일,
- 가위 → 가위다리, 가위밥, 가위질, 가위춤, 가위뿔.
- 가늘다 → 가느다랗다, 가느스름하다.
- 가닥 → 가닥가닥.
- 가득 → 가득가득, 가득하다.
- 가리다 → 가리개, 가리우다.
- 가만 → 가만가만, 가만두다, 가만하다, 가만있다.
- 가맣다 → 가무땡땡하다, 가무스름하다, 가무잡잡하다, 가무죽죽하다, 가무칙칙하다.

둘째, 각종 방언과 관련하여 남북한에서 각각 선정된 표준어와 문화어중 일치되는 언어가 있다. 남북한의 방언사전과 국어사전을 중심으로 이들 언어를 분석해 보면, 이들 언어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1) 방언에 대응하여 표준어와 문화어로 동시에 선정된 언어

표준어및 문화어	남한에서 파악된 지양할 방언 ⁴³⁾	북한에서 파악된 지양할 언어 ⁴⁴⁾
가끔 (부)	가끔, 가끔, 각끔, 간혹, 어찌다가 이따가든, 이따끔, 이따그든, 이따끔 식, 이따가다가, 종종, 호깐, 혹가다 혹가다가, 혹시, 혹간, 혹씨, 까끔	까끔
가득하다 (형)	가득차다, 갖득차다, 갖득챌다, 까득 하다, 까득허다, 깎차다, 짚득하다 짚득하다, 팍차다, 담뽕차다, 하나차 다, 항개차다, 항거서기다, 항거차다	가딱하다, 개득하다, 자득하다, 쫄득하다.
가래 (명)	삼, 가래삼, 가래지움, 불가래, 불까 래, 사까래, 사까래, 사까리, 삭가래 삭까래, 삭까리, 살보, 살피, 살짝, 삼포, 삼, 삼가래, 삼까래, 삼까리 삿까래, 새까래, 새까래, 서까래, 석 가래, 색가래, 소금포, 수전포, 수검 포, 수곰포, 수군포, 수곰포, 수곰포 수슴포, 죽가래, 까래, 삭가래	갈레죽, 강차이, 강차위
가르치다 (동)	가르친다, 가르킨다, 갈차준다, 갈챌 는다, 갈챌다, 갈체, 갈춘다, 갈친다 갈챌다, 갈킨다, 겹준다, 겹찬다, 겹 친다, 겹판다, 거얼차준다, 겹차준다 겹준다, 겹친다, 굴차준다, 커얼차준 다.	가라치다, 가르키다, 가 리치다, 가리키다, 갈추 다, 갈치다, 보에준다, 가 르케준다, 갈쳐준다, 갈 캐준다, 겹쳐준다, 겹쳐 준다, 갈치야준다, 알카 준다, 알키와준다, 알캐 준다, 알과준다, 알래준다

43) 崔鶴根, 「韓國方言辭典」, (서울: 明文堂, 1987)

44) 김병제, 「방언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표준어는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언들의 사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언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되어 일제하에서부터 활용되어져 왔다. 그리고 북한의 문화어는 남북한간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표준어 사용을 배제하면서 평양 중심의 언어로서 북한에서 새롭게 선정한 언어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보면 이들 언어는 달라야 하지만 문화어도 어디까지나 표준어를 바탕으로 하면서 변화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치되고 있는 어휘들이 표에서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도표에서 제시된 언어 이외에 남북한 사전에 수록된 언어중 방언을 전제로 표준어와 문화어에서 일치되고 있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

가깝다, 가깝다, 가루, 가리다(여럿 중에서 골라내다), 가리마, 가마(가마솥), 가마니, 가법다, 가쁘다, 가슴, 가시(식물의 바늘처럼 뾰족하게 돌아난부분), 가위(종이 등을 베는 기구), 가지(나무의 줄기에서 갈려 나간 줄기), 가지(가지과에 딸린 일년생의 풀), 가죽, 가지런하다 등.

2) 남한에서는 방언을 전제로 한 표준어가 선정되었으며, 북한에서는 방언이 없는 고유어로 인식되고 있는 언어

이러한 언어와 관련된 방언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표준어	방언	비고
가날쁘다	가날푸다, 가날프다, 가날쁘다, 가날퍼다, 가날푸다, 가날푸다, 개날쁘다, 가날쁘다, 때때하다, 악하다	북한에서는 방언없고 고유어로 인식
가늘다	가날다, 가니다라다, 가니다란타, 가니다란하다, 가니러서, 가니렁께, 가니수름하다, 가늘다, 가느다라하다, 가느다라하다, 가느다란하다, 가느다라타, 가느다름하다, 가느달하다, 가느랑다, 가느라타, 가느러서, 가느스러워, 가느스럼하다, 가느스름하다, 가느다람하다, 가늘따, 가느스름하다, 간소름하다, 간소름하다, 악카바서, 악깝다, 악케서, 자자하다	

문화어	방언	비고
가탕무우	가다리무우, 가달무끼, 가달배무우, 가달배이무꾸 가달뱅이무끼, 가달뱅이무우, 가탕무이	인식'
가탕잎	가당잎, 가득잎, 가래기, 갈잎, 서가탕잎	
가시집	가스집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가득이나’, ‘가라앉다’, ‘가탕무우’, ‘가탕잎’, ‘가시집’ 등은 남북한의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중 일치된 어휘에 속하지만 방언을 전제로 한 표준어와 문화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격에서 다소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는 표에서 제시된 이외에 ‘가라지’, ‘가래(가래나무의 열매)’, ‘가래뿔’, ‘가령’, ‘가로’, ‘가로세로’, ‘가운데손가락’, ‘가장’, ‘가장귀’, ‘가팔막’ 등이 있다.

4) 기타 어휘

방언을 전제로 한 표준어와 문화어로서 남북한 사전에 공히 수록되어 있으나, 선정된 언어와 방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북한 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언어가 있다. 즉 ‘가래침’의 경우 남한에서는 충북의 청주, 괴산 지방, 전남의 해남 지방, 강원도의 도계 지방에서 사용하는 방언으로 분류하고 표준어로서 ‘가래’를 제시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북한에서는 ‘가래침’을 문화어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와 관계되는 방언으로서 평북의 태천, 엄주, 문전, 용천, 신의주, 삭주 지방의 ‘가라춤’, 전남의 영암, 해남, 강진, 장흥

46) 崔鶴根, 앞의 사전, 311쪽.

지방의 '가래춤', 제주의 '계춤'과 '계침' 등을 제시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가자미'의 경우 남한에서는 이를 표준어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계되는 방언으로서 '가재미', '가제미', '가지미', '까깨미', '까자미', '까재미', '까재비', '까제미', '까제비', '까지매기', '까지매이', '까지미', '납새미', '도다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가재미'를 문화어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계되는 방언으로서 '가자미', '가제미', '간재미', '까재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남한에서는 '가재미'를 방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가자미'를 방언으로 분류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치할 만한 고유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해 온 한자어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다.

구 분	생 활 화 된 한 자 어
명 사	가격(價格), 가결(可決), 가계(家系), 가공(加工), 가관(可觀) 가구(家具), 가극(歌劇), 가금(家禽), 가능(可能), 가담(加擔) 가동(稼動), 가두(街頭), 가량(假量) 외 53개 어휘
동 사	加算하다, 假設하다, 假飾하다, 加熱하다, 加算하다, 加入하다 假裝하다, 加一層하다, 假像하다, 架設하다 외 4개 어휘
형용사	可能하다, 可當하다, 假量없다, 可笑롭다 외 2개 어휘
부 사	假令, 加一層 등

표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은 한자어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동안의 활용으로 이미 생활화되어 있거나 대치할 만한 고유한 우리 말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국어순화운동이나 북

한의 말다듬기운동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 일치하고 있는 언어들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한자어를 기본어로 하면서 파생된 언어중에 남북한간에 일치하는 언어도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가공(加工) → 가공품
 가농 → 가농성
 가동(可動) → 가동성
 가변 → 가변자본, 가변축전기
 가상 → 가상적
 가속 → 가속기, 가속도, 가속운동
 가정 → 가정교사, 가정교육, 가정부인
 가족 → 가족적
 가요 → 가요곡
 가치 → 가치척도, 가치형태, 가치법칙

넷째, 남한의 국어순화와 북한의 말다듬기 원칙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고유한 우리 말로 고쳐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어휘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난청(難聽) → 가는귀먹다
 세관(細管) → 가는관
 세마포(細麻布) → 가는베
 횡서(橫書) → 가로글씨
 말약(末藥) → 가루약
 가교(假橋, 架橋) → 임시다리, 다리놓기
 가근(假根) → 가짜뿌리

위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 말로 고쳐 나가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한자어의 의미를 이용하여 알기 쉬운 우리 말로 고쳐 사용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언어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생활어로서 활용되고 있는 외래어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문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구문화를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생활어로서 활용하고 있는 외래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냉전체제적 구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라고 하는 필연성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에는 생활어로서 활용하는 외래어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외래어는 대치할 만한 고유어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어로서 정착되어 지게 된다.

남북한 간에 일치하는 외래어로는 ‘가솔린(gasolin)’, ‘가스(gas)’가 있으며, 이를 기본어로 하면서 파생된 언어중 일치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가스 → 가스등, 가스탄, 가스계량기, 가스난로, 가스중독

이처럼 남북한 간에는 단절과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치하고 있는 언어들이 다수 있음으로 인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반면에 남북한 간에는 언어의 이질화를 느낄 만큼 차이를 보이는 언어들도 다수 있다. 이러한 언어들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본어는 같으나, 이를 토대로 파생된 언어가 상이한 경우이다. 이러한 언어는 남북한간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생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방 이후 수용된 상이한 문화와 단절로 인하여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어휘는 다음과 같다.

기 본 어	남한에서의 파생어	북한에서의 파생어
가격	가격카르텔, 가격표기우편물 가격협정카르텔	가격의 일원화, 가격계획화 가격정책
가공(加工)	가공무역방식, 가공배상, 가 공업, 가공수입, 가공지	가공공업, 가공모선, 가공실, 가공여유, 가공원료
가공(架空)	가공색도, 가공선, 가공적, 가공철도, 가공케이블	
가계	가계채	가계방
가내(家內)	가내공업, 가내군안	가내수공업, 가내작업반
가금(家禽)		가금업
가결(可決)	가결의	
가구(家具)	가구장이, 가구점	
가극	가극단	
가급(加給)	가급유, 가급인축, 가급임급	가급급
가계(家系)		가계표
가난	가난들다	가난살이
가늘다 (가는)	가는장대	가는기계, 가는눈, 가는다시마, 가는모래, 가는못 외 11개 어휘
가늌		가늌교예, 가늌추, 가늌힘
가다리		가다리굴
가동(稼動)	가동력	가동틀, 가동설비, 가동일
가동(可動)	가동관절, 가동교, 가동연	
가두(街頭)	가두문학, 가두진출	가두시위
가탁	가탁고동, 가탁잡이	가탁집, 가탁틀
가로	가로판죽, 가로지	가로관, 가로다지, 가로서다, 가 로자름면, 가로축 외 9개 어휘

기 본 어	남한에서의 파생어	북한에서의 파생어
가루	가루자반, 가루집	가루눈, 가루담배, 가루먹이, 가루먹이, 가루모이 외 14개 어휘
가르치다	가르친 사위	가르치심, 가르침
가름		가름대, 가름막, 가름목, 가름선 가름소리표, 가름재
가맹	가맹단체	가맹국, 가맹자
가면	가면극, 가면희	
가무		가무극, 가무단
가변		가변성, 가변저항, 가변저항기
가설(假設)	가설극장	가설무대
가스(gas)	가스한탄제, 가스관, 가스기관, 가스탱크, 가스맨플, 가스마스크, 가스분석, 가스스토브, 가스엔진, 가스연료, 가스유, 가스전지, 가스파이프	가스대사, 가스내, 가스발생로 가스방전관, 가스불, 가스절단기 가스타빈, 가스용접
가슴	가슴걸이, 가슴집은도요, 가슴등, 가슴속, 가슴패기	가슴노리, 가슴들레, 가슴막, 가슴막업, 가슴받이 외 7개 어휘
가시	가시면류관, 가시물뱀, 가시썰, 가시세다, 가시철사	가시고기, 가시눈, 가시덤불길 가시덤불밭 외 6개 어휘
가정	가정공업, 가정교훈, 가정극 가정난, 가정면, 가정소설 가정쟁의, 가정지학	가정살림, 가정주부, 가정혁명화 가정악, 가정용구, 가정용품 가정일
가족	가족가방, 가족부대	가족거부기, 가족구두, 가족장갑 가족채, 가족끈, 가족띠, 가족옷
가족	가족경제, 가족석, 가족수당 가족쟁의, 가족제도	가족법, 가족사진, 가족식당 가족주의
가지 (채소류)	가지누름적, 가지전	가지김치, 가지말랭이, 가지빚 가지장아찌, 가지판지, 가지색

기 본 어	남한에서의 파생어	북한에서의 파생어
가지(줄기)		가지다듬기, 가지묻기, 가지번호 가지숙음, 가지수, 가지자름, 가 지접, 가지뽑, 가지꽃기, 가지뽕
가치	가치감정, 가치관계, 가치비 판, 가치자체 외 5개 어휘	
가을	가을장마	가을감자, 가을고추잡자리, 가을 고치, 가을남새, 가을누에, 가을 무우, 가을밀, 가을빛, 가을배추 가을작물, 가을파, 가을차림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남북한 언어가 기본어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파생어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파생어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가공(架空), 가는, 가늠, 가동(稼動), 가감, 가로, 가루, 가름, 가번, 가슴, 가시, 가정, 가족, 가쪽, 가치, 가을’ 등을 기본어로 하는 파생어에서는 남북한 간에 일치하는 어휘들도 있으나, 나머지는 서로 상이한 용어들이다. 그리고 이들 파생어는 ‘가는, 가루, 가정, 가족’ 등의 파생어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생활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파생어들은 북한에서 더욱 많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볼 때 파생어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고유어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휘이다. 이러한 어휘에는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가늠교에’, ‘가늠힘’, ‘가는눈’, ‘가는모래’, ‘가탁집’, ‘가다리굴’ 등과 같은 어휘가 있다. ② 생활어로서 널리 사용되어져 온 한자어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휘이다. 이러한 어휘에는 ‘가동물’, ‘가동설비’, ‘가맹국’, ‘가무국’ 등과 같은 어휘들이 있다. 이와 같은 어휘에 의한 파생어가 남북한 간의 상이한 문화에 의해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생활화된 한자어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③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이다. 이러한 어휘에는 ‘가는기계’, ‘가

로관', '가정살림' 등과 같은 어휘가 있다. ④ 외래어와 한자어 또는 외래어와 고유어, 외래어와 외래어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가 있다. 이러한 어휘에는 '가스내', '가스기관', '가스마스크' 등과 같은 어휘가 있다.

둘째, 어휘가 상이하며, 언어의 개념도 차이가 나지만 성격상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언어이다. 바꾸어말하면 異音同義語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남		한	
어휘	의 미	어휘	의 미
가급 임금	근무시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야간 작업, 휴일 근무를 한데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붙여 지불하여야 하는 임금	가급 급	특수한 노동조건에서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일군들에게 제정된 기준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기본로임밖에 더 주는 로임
가설 극장	임시로 꾸민 극장	가설	공연을 하기 위하여 임시로 간단히 꾸며놓은 무대

셋째, 북한에서 공산주의 혁명이나 김일성우상화와 관련하여 생성된 언어가 있다. 이러한 언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어 휘	의 미
가격의 일원화	사회주의국가가 모든 상품들에 대한 가격제정사업을 유일적으로 틀어쥐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서 가격을 통일적으로 정하는 일
가내 작업반	부양가족들이 공장에서 원료, 자재들을 집에 가져다가 가공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작업반. 가내작업반의 조직은 국가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유효로력을 동원하여 인민소비생산을 빨리 높이며 부양가족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어휘	의미
가르치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 혁명과 건설에서 지침으로 되는 말씀>을 정중히 높이어 이르는 말
가정 혁명화	가정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가족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배도록 하며 온 가족을 다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것.
가족주의	몇몇사람들끼리 당적원칙을 떠나서 옳지 못한 관계를 맺고 서로 짜고 들면서 조직의 이익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비조직적이며 비원칙적인 사상경향이나 행동. 가족주의는 친척, 친우관계, 동향관계, 사제관계와 같은 것에 기초해서 생기는 부르주아적 및 소부르주아적 사상의 표현이다.

넷째, 남북한의 사전에 수록된 언어중 일방에 의해서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1) 남한의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는 언어

북한의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남한의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는 언어들은 앞에서 언급된 파생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한자어에 속하는 어휘들이다. 이러한 언어들은 다음과 같다.

가가(假家), 가가대소(呵呵大笑), 가가례(家家禮), 가가아수(加加阿樹), 가가호호(家家戶戶), 가각(苛刻), 가간사(家間事), 가잡지인(假堪之人), 가객(佳客), 가객(歌客), 가건물(假建物), 가결(加結), 가경(佳境), 가경전(加耕田), 가고(家故), 가고(可考), 가고건(可考件), 가고문적(可考文蹟), 가고문헌(可考文獻), 가고처(可考處) 외 620여 개 어휘

북한의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언어중 한자어가 아닌 고유한 우리 말은 다음과 같다.

가꾸로, 가꾸로박이다, 가귀, 가귀노름, 가귀대기, 가납사니, 가년스럽다, 가다귀, 가다루다, 가덱질, 가동거리다, 가두리, 가드락거리다, 가뜩에, 가든거리다, 가들막거리다, 가라치, 가락고동, 가랑이, 가려잡다, 가로되, 가되, 가루다, 가리, 가리사니, 가리산지리산, 가리새김, 가리어지다, 가린스럽다, 가린주머니, 가마리, 가마무트름하다, 가막쇠, 가말다, 가맛바가지, 가맛바람, 가매지다, 가무그름하다, 가무뎡뎡하다, 가무뜨리다, 가무속속하다, 가새모춤, 가새주리, 가선, 가설랑은 외 210여개 어휘

(2) 북한의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는 어휘

남한의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어휘는 파생어들이 대부분이며, 방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화어로서 생소한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같다.

가내작업반, 가단주철, 가두배추, 가둑나무, 가둑나무버섯, 가둑누에, 가드라들다, 가락지삭뼈, 가락지빵, 가럴쳐절하다, 가림잡세, 가로뜨개천, 가르랑가르랑, 가름재, 가리어울, 가사리, 가서지다, 가슬가슬하다, 가새바, 가쫌하다 외 420여개 어휘

다. 90년대의 남북한 언어 실태 비교

90년대의 남북한 사전을 비교해 보면 남북한 사전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어휘는 980여개에 달한다. 결국 1780여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 남한의 사전에서는 55%에 가까운 어휘가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속하며, 2830여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 북한의 사전에서는 35%에 가까운 어휘가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율은 남북한의 사전을 비교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전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상이한 언어관과 언어정책, 그리고 반세기에 가까운 단절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언어에서 일치하고 있는 언어의 성격은 어느 사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교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남북한간에 일치하고 있는 언어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분단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고유어의 대부분은 일치하고 있다. 특히 고유어로서 기본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어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다. 이러한 언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고유어
명사	가게, 가귀, 가남사니, 가들, 가다귀, 가동질, 가닥, 가대기, 가덕질, 가두리, 가락, 가락지, 가랑이, 가래, 가로, 가뢰, 가루, 가르침, 가름, 가리마, 가리맛, 가리비 외 210여개 어휘
동사	가까이하다, 가꾸다, 가꾸러드리다, 가누다, 가다, 가다듬다, 가다투다, 가동거리다, 가두다, 가동거리다 외 60여개 어휘

구 분	고 유 어
형 용 사	가깝다, 가나사니같다, 가년스럽다, 가느다랗다, 가늘다, 가눗하다, 가득하다, 가들막하다, 가랑스럽다 외 50여개 어휘
부 사	가까스로, 가까이, 가꾸로, 가끔, 가나오나, 가다가, 가다가다가다오다, 가닥가닥, 가득, 가득가득 외 30여개 어휘

남북한의 국어순화와 말다듬기는 고유한 우리 말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우리 말을 기본어로 하면서 생활상의 필요성에 따라 파생된 언어에서도 남북한 간에는 일치된 언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가계 → 가게채, 가갯방, 가게집
- 가늘다 → 가는눈, 가는대나물, 가는모래, 가는베, 가는장대, 가는체, 가느다랗다, 가느스름하다
- 가늠 → 가늠쇠
- 가로 → 가로췌지다, 가로놓다, 가로눅다, 가로다지, 가로달이, 가로대, 가로판죽, 가로세로, 가로쓰기, 가로장, 가로줄, 가로지, 가로획
- 가깝다 → 가까이, 가까이하다
- 가끔 → 가끔가끔, 가끔가다
- 가닥 → 가닥가닥
- 가득 → 가득가득, 가득하다
- 가쪽 → 가쪽가쪽, 가쪽이, 가쪽이나, 가쪽하다
- 가락 → 가락가락이, 가락국수, 가락꼬치, 가락엿, 가락옷, 가락토리
- 가래(둥글고 길게 늘인 토막) → 가래떡, 가래엿
- 가래(농기구) → 가래질, 가랫바닥, 가랫밥, 가랫장부, 가랫줄
- 가루 → 가루눈, 가루담배, 가루모이, 가루밭이, 가루분, 가루불이, 가루비누, 가루사탕, 가루약, 가루우유, 가루자반, 가루좁, 가루좁, 가루집, 가루체
- 가름 → 가름대, 가름장
- 가리 → 가리구이, 가리조림, 가리찜
- 가만 → 가만가만, 가만두다, 가만사뿐, 가만있다, 가만하다
- 가맣다 → 가매지다, 가무대대하다, 가무땡땡하다, 가무스름하다, 가무잡잡하다, 가무족족하다, 가무칙칙하다, 가무퇴퇴하다, 가뭇하다
- 가살 → 가살쟁이, 가살지다, 가살피우다

가시 → 가시고기, 가시나무, 가시덤불, 가시랭이, 가시목, 가시밭, 가시성, 가시철, 가시철사
 가운데 → 가운데치마, 가운데소리, 가운데손가락, 가운데줄
 가위 → 가위다리, 가위다리양자, 가위다리차, 가위다리차다, 가위질, 가위춤
 가을 → 가을갈이, 가을걷이, 가을날, 가을누에, 가을달, 가을바람, 가을밥, 가을벌, 가을보리, 가을봄, 가을비, 가을빛, 가을잎, 가을장마, 가을철
 가재 → 가재걸음
 가죽 → 가죽가방, 가죽구두, 가죽숫돌, 가죽신, 가죽옷, 가죽채
 가지(줄기) → 가지가지, 가지각색, 가지치기, 가지톱
 가지(채소류) → 가지고비고사리, 가지찜, 가지회

둘째, 각종 방언과 관련하여 남북한에서 각각 선정된 표준어와 문화어중 일치되는 언어가 있다. 남북한의 방언사전을 중심으로 이들 언어를 분석해보면, 이들 언어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성격을 세분화시켜 볼 수 있다.

1) 방언에 대응하여 표준어와 문화어로 동시에 선정된 언어

표준어및 문화어	남한에서 파악된 지양할 방언	북한에서 파악된 지양할 언어
가루 (명)	가르, 가리, 갈기, 갈구, 갈그, 갈루, 갈리, 그루, 그르, 그를, 몽가리, 까루, 까리	가로, 가를, 가리, 갈구, 갈그, 갈기, 갈루, 갈리, 까루
가렵다 (형)	가랍다, 가라바서, 가러버서, 가러워, 가러워서, 가러우니, 가렷다, 가루바서, 가루워서, 가롭다, 가리우니, 가립다, 가지랍다, 간지랍다, 간지라와서, 간지랍바서, 간지러버서, 간지러병께, 간지러워서, 간지럽다, 간지럽따, 간지럽버서, 간지러워서, 간지롭롭다, 갈구우니, 겹굽다, 갈구워, 갈귀서, 개랍다, 개립다, 개러버, 개러버서, 개러워, 개러우니, 개립다, 개롭다, 개롭다, 갠지럽다, 거언지랍다, 건지러버서, 건지러병께, 건지러우니	가랍다, 가립다, 그니립다, 개랍다, 개립다, 개롭다, 개립다, 개롭다, 개립다, 개롭다, 배랍다, 배립다, 배랍다, 배롭다

표준어 및 문화어	남한에서 파악된 지양할 방언	북한에서 파악된 지양할 언어
	건지러워, 건지러워서, 건지럽다, 건 지럽따, 건지러버서, 건지러워서, 게 럽다, 게롭다, 게려워, 게로부니, 게 토우니, 게토워, 게투와서, 게롭다, 게롭따, 게롭따, 게롭바서, 게투바서 게르바서, 게르와서, 겐지럽다, 겐지 러워서, 겐지롭다, 그럽다, 근거럽다 근지럽다, 근지러바서, 근지러버서, 근지러워서, 근지럽다, 근지엷다, 켌 지럽다, 께거러버서, 께거러병께, 곤 지럽다, 끈지러버서, 끈지러부니, 끈 지럽따, 무렵다, 무러버서, 무러워서 무렵다, 무렵버서, 무러뵈서, 솔바서 제거럽따	
가져온다 (동)	가꼬온다, 가꼰다, 가꾸온다, 가꾸와 가아꼬온다, 가아오이라, 가아온다 가온나, 가이온다, 가져온다, 가제온 다, 가존다, 가주온다, 가지고온다 가지온다, 갓고오이라, 갓고온다, 갓 곤다, 개온다, 아저온다	가주온다, 가지온다, 가제온다, 가꾸온다, 개온다, 아저온다
가장 (부)	거중, 굉장히, 구중, 기중, 데기, 디 기, 마니, 시기, 아주, 억씨기, 제일 제일로, 젤, 젤로, 젤로마니, 채고, 첼토, 최고, 최고로	가당, 가당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90년대에도 남북한 간에는 방언들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어와 문화어를 각각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에는 이들 언어에서 일치하는 어휘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제시된 예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가깝다, 가끔, 가득하다, 가래, 가리마, 가마, 가지, 가슴, 가죽, 가위, 가루, 가마니, 가시, 가법다, 가리다, 가르치다, 가랑비, 가지런하다, 가쁘다, 가을

2) 남한에서는 방언을 전제로 한 표준어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방언이 없는 고유어로 인식되고 있는 언어

이러한 언어와 관련된 방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표준어	방언	비고
가리맛	가리맛, 개발, 맛, 반지락, 뽕지레기, 뽕지레기	북한에서는 방언없는 고유어로 인식
가	가까, 가사, 가사이, 가상, 가상구, 가상다리, 가상자리, 가새, 가새에, 가새, 가생다리, 가시, 가시, 가아새, 가에, 가외, 가이, 가장자리, 가혜, 갓, 갓테, 갓티, 개, 개에, 갯가, 곶가, 곶가, 곶티, 끄세, 끈티이, 꽃터리, 낭간, 내포랑가, 냇가, 도랑가, 모서리, 모소리, 섭	
가을한다	가설한다, 가실거두, 가실에, 가실한다, 가을것다, 가을거시, 거더디린다, 거둔다, 마대이한다, 바심한다, 추수한다, 타작한다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가리맛', '가', '가을한다' 등은 남북한의 사전에 공히 수록되고 있는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전제로 한 표준어와 문화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어휘의 방언은 남한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어휘는 이들 외에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

가선, 가시덤불, 가시랭이, 가오리, 가재, 가늌, 가웃, 가만히, 가난하다, 가날프다, 가늘다, 가없다, 가루다, 가르다, 가리키다, 가시다, 가운데, 가리, 가마(정수리의 머리털이 소용돌이같이 생긴 곳), 가물음, 가위(추석)

3) 북한에서는 방언을 전제로 한 문화어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방언이 없는 고유어로 인식하고 있는 언어

이러한 언어와 관련된 방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문 화 어	방 언	비 고
가까스로	가까수로	남한에서는 방언없는 고유어로 인식
가시아버지	가샤버지, 가스애비, 가시아바이, 가시애비, 가새비	
가시어머니	가소마니, 가스에미, 가시어마이, 가시어머이, 가시어명이, 가시오마니, 가시에미, 가새미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 등은 남한에서는 장인, 장모에 대한 卑語로 규정하고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丈人, 丈母라고 하는 한자어에 대한 고유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방언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문화어로서 '가시아버지'와 '가시어머니'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어휘로는 다음과 같은 언어가 있다.

가래침, 가래뿔, 가운데손가락, 가텡, 가로, 가로세로, 가래(가래나무의 열매), 가라지, 가장, 가장귀, 가팔막

4) 기타 어휘

남북한 공히 방언을 전제로 표준어와 문화어를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에는 방언에 대한 인식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언어가 있

다. 70년대의 남북한 언어비교에서 제시되었듯이 ‘가래침’과 ‘가래’, ‘가자미’와 ‘가재미’ 등 뿐만 아니라 ‘가물음’과 ‘가뭇’, ‘가랑이’와 ‘가랭이’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가물다’와 관계되는 말로서 ‘가물음’과 ‘가뭇’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가물음’을 표준어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뭇’을 방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으로서 ‘가뭇’, ‘가뭇’, ‘가뭇다’, ‘가뭇림’, ‘가뭇것따’, ‘가뭇살’, ‘가뭇름’, ‘가뭇지’, ‘가뭇’, ‘가뭇’, ‘가뭇’, ‘가뭇’, ‘가뭇’ 등이 있다.

그리고 ‘가랑이’와 ‘가랭이’의 경우는 ‘가재미’와 ‘가자미’의 경우와 같이 남한에서는 ‘가랑이’를 표준어로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가랭이’를 문화어로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가랑이’에 대한 방언으로서 ‘가라이’, ‘가랑구’, ‘가랑테이’, ‘가래’, ‘가래이’, ‘가랭테이’, ‘가리’, ‘가재이’, ‘가지라이’, ‘가지내이’, ‘가지랑’, ‘가지래이’, ‘개계이’, ‘다라지’, ‘까래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가랭이’에 대한 방언으로서 ‘가다리’, ‘가달’, ‘가랑구’, ‘가랑뎡이’, ‘가랑지’, ‘가랑이’, ‘가래이’, ‘갈래’, ‘갈래이’, ‘갈랭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치할 만한 고유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해 온 한자어이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생활화 된 한자어
명사	가가호호(家家戶戶), 가감(加減), 가건물(假建物), 가격(價格) 가결(司決), 가계(家系, 家計), 가곡(歌曲) 외 510여개 어휘

다.

한편 살림집의 연구에는 考古學 측면에서 접근한 논문들이 있는데 이는 주로 선사시대 집자리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이 연구는 시대별 건축사연구 항목에서 언급 하였듯이 考古學者들의 발굴조사와 연구에서 성과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民俗學분야와 같이 발굴조사 목적은 일제의 식민사관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고 유구한 민족적 자존을 세우려는 의도가 가장 큰 목적중 하나였던 것이다. 다음 글에서 그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시기 우리나라 考古學을 독점하였던 일제 어용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원시시대유적을 몇곳 되는데로 파헤치고 유물을 끄집어낸 일은 있으나 원시집자리를 제대로 발굴하여 그 재임새를 밝혀놓은것은 없다. 그들이 구석기시대 유적은 물론이고 신석기시대집자리를 찾아낸것은 하나도 없으며 ‘석기시대’ 유적이라 하면서 파헤친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한두개 있으나 그에 대한 발굴보고조차도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 나라 유적을 파괴한채 내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원시시대의 집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발굴 및 연구 사업이야말로 해방후에 비로서 시작된 분야의 하나이다.」³⁴⁾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과정중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선사시대 살림집 연구’였던 것이다. 해방직후부터 발굴사업이 과학원 산하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주관으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결과물은 1950년대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연구내용을 생략하고 집자리와 관련된 연구논문, 논술, 저서, 보고서 등 목록만 소개하기로 하겠다.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라진 초도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집)」 과학원출판사 1956.12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공산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2집)」 과학원출판사 1957.12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강계시 공귀리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6집)」 과학원출판사 1959.11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회령 오동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7집)」 과학원출판사 1960.5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지탑리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8집)」 과학원출판사 1961.11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금탄리 원시유적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0집)」 과학원출판사 1964.6

34) 김용남·김용간·황기덕, 우리 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1쪽 사회과학출판사 1975.

다. 70년대의 남북한 언어비교에서 제시되었듯이 ‘가래침’과 ‘가래’, ‘가자미’와 ‘가재미’ 등 뿐만 아니라 ‘가물음’과 ‘가뭇’, ‘가탕이’와 ‘가탱이’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가물다’와 관계되는 말로서 ‘가물음’과 ‘가뭇’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가물음’을 표준어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뭇’을 방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으로서 ‘가뭇’, ‘가뭇’, ‘가뭇다’, ‘가뭇뭇’, ‘가뭇것따’, ‘가뭇살’, ‘가뭇뭇’, ‘가뭇지’, ‘가뭇’, ‘가뭇’, ‘가뭇’, ‘가뭇’, ‘가뭇’ 등이 있다.

그리고 ‘가탕이’와 ‘가탱이’의 경우는 ‘가재미’와 ‘가자미’의 경우와 같이 남한에서는 ‘가탕이’를 표준어로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가탱이’를 문화어로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가탕이’에 대한 방언으로서 ‘가탕이’, ‘가탕구’, ‘가탕테이’, ‘가래’, ‘가래이’, ‘가탱테이’, ‘가리’, ‘가재이’, ‘가지라이’, ‘가지내이’, ‘가지랑’, ‘가지래이’, ‘개개이’, ‘다라지’, ‘까래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가탱이’에 대한 방언으로서 ‘가다리’, ‘가달’, ‘가탕구’, ‘가탕탱이’, ‘가탕지’, ‘가탕이’, ‘가래이’, ‘갈래’, ‘갈래이’, ‘갈탱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치할 만한 고유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해 온 한자어이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생활화된 한자어
명사	가가호호(家家戶戶), 가감(加減), 가건물(假建物), 가격(價格) 가결(可決), 가계(家系, 家計), 가곡(歌曲) 외 510여개 어휘

남한에서는 방언이 없는 고유어로 인식하고 있는 언어

이러한 언어와 관련된 방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문 화 어	방 언	비 고
가까스로	가까수로	남한에서는 방언없는 고유어로 인식
가시아버지	가샤버지, 가스애비, 가시아바이, 가시애비, 가새비	
가시어머니	가소마니, 가스에미, 가시어마이, 가시어머이, 가시어명이, 가시오마니, 가시에미, 가새미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 등은 남한에서는 장인, 장모에 대한 卑語로 규정하고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丈人, 丈母라고 하는 한자어에 대한 고유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방언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문화어로서 ‘가시아버지’와 ‘가시어머니’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어휘로는 다음과 같은 언어가 있다.

가래침, 가래뿔, 가운데손가락, 가렁, 가로, 가토세로, 가래(가래나무의 열매), 가라지, 가장, 가장귀, 가팔막

4) 기타 어휘

남북한 공히 방언을 전제로 표준어와 문화어를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에는 방언에 대한 인식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언어가 있

다. 70년대의 남북한 언어비교에서 제시되었듯이 ‘가래침’과 ‘가래’, ‘가자미’와 ‘가재미’ 등 뿐만 아니라 ‘가물음’과 ‘가뭇’, ‘가탕이’와 ‘가랭이’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가물다’와 관계되는 말로서 ‘가물음’과 ‘가뭇’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가물음’을 표준어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뭇’을 방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으로서 ‘가뭇’, ‘가뭇’, ‘가뭇다’, ‘가뭇뭇’, ‘가뭇것따’, ‘가뭇살’, ‘가뭇뭇’, ‘가뭇지’, ‘가뭇’, ‘가뭇’, ‘가뭇’, ‘가뭇’, ‘가뭇’ 등이 있다.

그리고 ‘가탕이’와 ‘가랭이’의 경우는 ‘가재미’와 ‘가자미’의 경우와 같이 남한에서는 ‘가탕이’를 표준어로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가랭이’를 문화어로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가탕이’에 대한 방언으로서 ‘가탕이’, ‘가탕구’, ‘가탕테이’, ‘가래’, ‘가래이’, ‘가랭테이’, ‘가리’, ‘가재이’, ‘가지라이’, ‘가지내이’, ‘가지랑’, ‘가지래이’, ‘개개이’, ‘다라지’, ‘까래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가랭이’에 대한 방언으로서 ‘가다리’, ‘가달’, ‘가랑구’, ‘가랑덩이’, ‘가랑지’, ‘가탕이’, ‘가래이’, ‘갈래’, ‘갈래이’, ‘갈랭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치할 만한 고유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해 온 한자어이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생 활 화 된 한 자 어
명 사	가가호호(家家戶戶), 가감(加減), 가건물(假建物), 가격(價格) 가결(可決), 가계(家系, 家計), 가곡(歌曲) 외 510여개 어휘

구분	생활화된 한자어
동사	加工하다, 架空하다, 假拂하다, 稼動하다, 加捧하다 외 20여개 어휘
형용사	可能하다, 可當하다, 假量없다, 可笑롭다, 假借없다 외 10여개 어휘
부사	가령(假令), 가부간(可否間), 가급적(可及的) 등

남북한은 국어순화와 말다듬기로 한자어를 비롯한 외래어를 우리 말로 바꾸어 사용해 나가고 있으나, 오랫동안 한자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많은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어는 점차 사용이 감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한자어와 관련된 어휘에서는 ‘지난날에 사용했던 말’, ‘한문투의 말’, ‘낡은 사회에서 사용했던 말’, ‘봉건사회에서 사용했던 말’, ‘전날에 사용했던 말’, ‘낡은 양식에서 사용했던 말’, ‘봉건적 관념에서 사용했던 말’, ‘착취사회에서 사용했던 말’ 등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자제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남북한 사전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언어중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한자어는 다음과 같다.

가가대소(呵呵大笑), 가가례(家家禮), 가각(苛刻), 가간사(家間事), 가감(可堪), 가감지인(可堪之人), 가거(家居), 가거(街渠), 가결(加結), 가계비(家計費), 가고(家故), 가관(加冠), 가교(駕轎), 가구(街衢), 가국(家國), 가군(家君), 가권(家券), 가극(暇棘), 가극(暇隙) 외 102개 어휘

그리고 남한에서도 한자어들을 가능한 한 우리 말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

가가호호(家家戶戶) → 집집마다
 가계(家契) → 집문서
 가각(街角) → 길모퉁이
 가고(可考) → 생각할만함
 가급적(可及的) → 될 수 있는대로⁴⁷⁾

표에서 제시된 한자어를 기본어로 하면서 파생된 언어중 남북한 간에 일치하고 있는 언어도 있다. 다음과 같은 언어가 이에 속한다.

가감 → 가감법, 가감부득, 가감승제, 가감저항기
 가격 → 가격정책, 가격지수, 가격표(價格表, 價格票)
 가계(家系) → 가계도(家系圖)
 가계(家計) → 가계부, 가계비
 가공(加工) → 가공무역, 가공비, 가공업
 가공(架空) → 가공삭도, 가공선
 가구(家具) → 가구장이, 가구제, 가구점
 가급(加給) → 가급유
 가내 → 가내공업
 가능 → 가능성
 가독(家督) → 가독상속
 가동(稼動) → 가동물
 가동(可動) → 가동관절, 가동교, 가동성, 가동언
 가두(街頭) → 가두선전, 가두시위, 가두연설
 가렴(苛斂) → 가렴주구
 가매(假埋) → 가매장
 가맹 → 가맹국, 가맹자
 가면 → 가면극, 가면무, 가면적
 가변 → 가변성, 가변자본, 가변저항기, 가변축전기
 가산(加算) → 가산제
 가상(假想) → 가상적

47) 이러한 언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문교부, 「국어순화자료」, 1983.;
이은정 편, 「국어순화자료집」 (서울: 국어문화사, 1991).

- 가설(架設) → 가설로, 가설비
 가성(苛性) → 가성소다, 가성알카리, 가성카리
 가성(假性) → 가성크루프
 가성(假聲) → 가성대, 가성문
 가소(可塑) → 가소물, 가소성
 가속 → 가속기, 가속도, 가속운동, 가속입자, 가속장치
 가역(可逆) → 가역반응, 가역변화
 가연(可燃) → 가연물, 가연성
 가열 → 가열기
 가옥 → 가옥세
 가요 → 가요곡
 가입 → 가입전선, 가입전화
 가장(假裝) → 가장무도회, 가장행렬, 가장행위
 가장(家藏) → 가장집물
 가재(家財) → 가재기물, 가재도구
 가정(家庭) → 가정교사, 가정교육, 가정방문, 가정부인, 가정살림, 가정
 생활, 가정지학
 가정(家政) → 가정부
 가족 → 가족적, 가족회의
 가택 → 가택수색

넷째, 고유한 우리 말이 없는 외래어를 생활어로서 남북한 공히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남북한 간의 외래어는 남한에서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러시아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어로서 영어가 이념과 체제의 상이를 뛰어넘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가보트(gavotte), 가빠(capa), 가솔린(gasolin), 가스(gas), 가운(gown), 가우스(gauss)

그리고 이러한 외래어를 기본어로 하면서 파생된 언어중 남북한 간에 일치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가스 → 가스관, 가스기관, 가스난로, 가스램프, 가스로, 가스마스크,
가스버너, 가스분석, 가스연료, 가스유, 가스전구, 가스전지,
가스중독, 가스탄, 가스탱크, 가스터빈, 가스한탄계

주체의 언어이론을 전개하는 북한에서는 외래어의 사용을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외래어가 특히 영어가 사용되고 있음은 다소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외래어 사용을 국제 교류에서 세계 공통적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번역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도 해결하여 준다는 논리로 이를 정당화시켜 나가고 있다.⁴⁸⁾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간에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에서도 일치된 언어가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 남한의 국어순화와 북한의 말다듬기원칙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 말로 고쳐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는 이미 생활화된 한자어의 뜻을 이용하여 우리 말로 재구성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假橋’의 경우 한자어 ‘假’가 지니고 있는 ‘거짓, 임시’라는 의미와 ‘橋’가 지니고 있는 ‘다리’라는 의미를 이용하여 ‘임시다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유한 우리 말로 고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남북한 간에 일치하고 있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난청(難聽) → 가는귀먹다
세관(細管) → 가는관
세마포(細麻布) → 가는포

48) 박상훈 외, 앞의책, 68-69쪽.

횡서(橫書) → 가로글씨
 분말(粉末) → 가루
 지고병 → 가지마름병
 추경(秋耕) → 가을갈이
 추수(秋收) → 가을걷이
 추잠(秋蠶) → 가을누에
 흉위(胸圍) → 가슴둘레
 가가(家家) → 집집
 가공삭도(架工索道) → 공중삭도
 가공선(架空線) → 공중선

이와 같이 남북한 간에는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어간 90년대에도 남북한 간에는 일치된 언어가 많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북한 간에 차이를 보이는 언어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간에 기본어가 일치하고 있으나, 생활어로 활용하는 파생어가 남북한 간의 이념과 체제,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경우이다. 이와 같은 파생어는 다음과 같다.

기 본 어	남한에서의 파생어	북한에서의 파생어
가감	가감레, 가감형	가감산, 가감변, 가감소거변
가격	가격경기, 가격차익, 가격카르텔, 가격표기우편, 가격협정카르텔	가격격차, 가격격차금, 가격공간, 가격체계, 가격투쟁, 가격균형, 가격기준, 가격계획화 외 5개 어휘
가공(架空)	가공배상, 가공의치, 가공철도, 가공케이블	가공라선로, 가공선로, 가공지선
가공(加工)	가공배상, 가공사(絲), 가공수입, 가공유지, 가공지(紙)	가공경화, 가공공, 가공공정공학, 가공공업, 가공종이 외 21개 어휘
가계(家系)		가계도, 가계포

기 본 어	남한에서의 파생어	북한에서의 파생어
가극		가극극장,가극대본,가극무용,가극문학,가극물 외 6개 어휘
가금(家禽)		가금공학,가금기계,가금단독,가금류,가금복장 외 10개 어휘
가귀	가귀노름,가귀대기	
가내(家內)	가내노동,가내군안 가내사(事)	가내수공업,가내작업반,가내덕 가내로력,가내반,가내부업,가 내편의봉사원
가급(加給)	가급임금,가급인축	가급금,가급물
가늠	가늠구멍,가늠보다,가늠자 가늠잡다,가늠좌	가늠교예,가늠바늘,가늠질,가늠 추,가늠힘
가담(街談)	가담항설	
가동(稼動)	가동력	가동일,가동일수,가동일지,가동 설비,가동음
가동(可動)		가동도,가동대위법
가늘다 (가는)	가는대,가는뿔니,가는허리	가는기계,가는가래,가는다시마 가는먼지,가는비 외 47개 어휘
가두(街頭)	가두녹음,가두문학,가두진 출,가두판매	가두녀성,가두서명운동,가두선동 대,가두세포,가두집회
가락		가락고동,가락기름,가락바퀴,가 락번속,가락집,가락플,가락회전 수
가래		가래노,가래삽,가래자루,가래장 가래장치,가래질군,가래질밥 가래코,가래터
가로	가로금,가로길이,가로나비 가로누이다,가로막,가로무 늬근,가로문자,가로원,가 로짜기,가로축,가로퍼지다	가로거리,가로거리법,가로거치다 가로걸다,가로걸음,가로골,가로 갱도,가로관,가로누비천,가로동 요,가로막돌말 외 51개 어휘

기 본 어	남한에서의 파생어	북한에서의 파생어
가루		가루간장, 가루갈이, 가루갈이반죽 가루거름, 가루기름 외 47개 어휘
가름		가름길, 가름능력, 가름막, 가름막 식, 가름막신경 외 15개 어휘
가류		가류고무, 가류촉진제 외 4개 어휘
가설(假設)	가설공사, 가설극장, 가설적 연습	가설교, 가설건물, 가설도로, 가설 물, 가설비, 가설사, 가설무대
가변	가변비용	가변주파합성기, 가변지연성, 가변 터론리, 가변영양성장성
가면	가면무도, 가면희	가면검무, 가면무도회, 가면무용
가성(苛性)	가성석회, 가성알코올	가성비, 가성화
가속	가속도병, 가속동, 가속입자 가속펌프, 가속페달	가속기치료법, 가속답판, 가속도달 리기, 가속도적, 가속도재개, 가속 비행, 가속촉진기
가산(家産)	가산국가, 가산제도	
가스(gas)	가스계량기, 가스등, 가스라 이트지, 가스레인지, 가스맨 틀, 가스미터, 가스발동기 가스발생기, 가스봄베, 가스 상성운 외 13개 어휘	가스건조재, 가스검지지, 가스검층 법, 가스경보계, 가스공포, 가스구 멍, 가스기름, 가스계량기, 가스계 전기, 가스괴저, 가스괴저균, 가스 납땜, 가스내 외 66개 어휘
가물		가물건딜성, 가물더위 외 6개 어휘
가솔린	가솔린걸, 가솔린기관, 가솔 린동차, 가솔린스탠드, 가솔 린엔진, 가솔린탱크	가솔린차
가슴	가슴통, 가슴지느러미	가슴가득, 가슴가슴, 가슴굽, 가슴 너비, 가슴도리 외 45개 어휘
가시	가시면류관, 가시딸기, 가시 섞, 가시방석, 가시뿔토기	가시갈래뿔날이끼, 가시갈래잎이 끼, 가시길, 가시눈 외 92개 어휘

기 본 어	남한에서의 파생어	북한에서의 파생어
가압	가압기, 가압여과기, 가압주	가압가스막히기, 가압거트개, 가압구멍, 가압배출식 외 5개 어휘
가언(假言)	가언적, 가언명제, 가언적명법 외 2개 어휘	
가열		가열감탕, 가열곡선 외 14개 어휘
가옥	가옥대장	가옥제도
가운데	가운데발가락, 가운데집	가운데가슴, 가운데기호 외 17개 어휘
가장(假裝)	가장무도, 가장문학, 가장분면, 가장순양함, 가장자본	가장물, 가장의상
가정(家庭)	가정경제, 가정공업, 가정교훈, 가정극, 가정면, 가정법원, 가정소설, 가정쟁의, 가정의례준칙 외 6개 어휘	가정교양, 가정로보트, 가정법, 가정옷, 가정용, 가정부담, 가정불화, 가정비품, 가정사, 가정용구, 가정독화기, 가정성분 외 14개 어휘
가정(家政)	가정과, 가장학	
가족		가족공예, 가족광택 외 38개 어휘
가족	가족경제, 가족계획, 가족국가, 가족법, 가족석, 가족수당, 가족제도, 가족탕	가족각, 가족사진, 가족력, 가족공동체, 가족료양권, 가족사, 가족수당금, 가족생활, 가족주의, 가족휴양, 가족휴양각, 가족씨물, 가족오락회
가지(채소류)		가지다리류, 가지다듬기 외 48개 어휘
가창		가창대, 가창시위, 가창행진
가짜		가짜갈비뼈, 가짜마디 외 30개 어휘
가치	가치감정, 가치관계, 가치론, 가치문제 외 8개 어휘	가치물, 가치사회, 가치성, 가치화

기 본 어	남한에서의 파생어	북한에서의 파생어
가을		가을감자, 가을거적발, 가을걸이철 외 54개 어휘
가중(加重)	가중감경, 가중산술평균, 가 중치, 가중평균, 가중형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90년대의 언어에서는 70년대 보다 파생어가 더욱 많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가솔린, 가스, 가족, 가정’ 등의 파생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는 남북한의 생활상이 70년대와 달리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남북한의 생활상이 변화됨에 따라 언어의 생성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할 때 단절과 상이한 문화의 수용에 의한 이질적 문화의 형성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생성시켜야 하면,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언어 격차는 심각해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된 남북한의 언어에서 일치된 언어가 나타나는 것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는 문화의 보편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념과 체제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는 문화의 동질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생어들을 만들어낸 기본어 중에서 ‘가감, 가격, 가공(加工, 架空), 가계(家系), 가급(加給), 가늠, 가동(可動, 稼動), 가는, 가두, 가루, 가래, 가로, 가급, 가번, 가면, 가성(苛性), 가시, 가열, 가옥, 가장(假裝), 가정(家庭), 가극, 가족, 가지, 가을’ 등을 기본어로 하는 파생어에서는 일치되는 용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나머지 파생어들은 서로 상이한 언어들이다.

표에서 볼 때, 파생어는 70년대와 마찬가지로 크게 4가지의 형태로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남한보다 북한에서 파생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스'를 기본어로 하여 만들어진 파생어는 고유명사를 포함하여 남한과 상이한 파생어가 79개에 이르고 있으며, '가로'를 기본어로 하는 파생어는 62개, '가는', '가루' 등을 기본어로 하는 파생어는 52개, '가족'에서는 40여개의 파생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異音同意語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남		북	
한	의 미	한	의 미
어 휘	의 미	어 휘	의 미
가닥	한군데 달린 낱의 줄	가다리	하나의 사물에서 여러가닥으로 갈라져 나온 갈래
가끔	때때로	가담가담	이따끔, 때때로
가정부인	가정에서 살림하는 부인	가두녀성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 있는 여성

이처럼 남북한 간에는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휘상에서는 차이가 나는 이음동의어적인 언어가 다수 있다. '가'부분에서도 표에서 제시된 이외에 '가급임급과 가급금', '가설극장과 가설무대' 등이 있다.

셋째, 북한에서 공산주의 혁명이나 김일성우상화와 관련하여 생성된 언어가 있다. 이러한 언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어휘	의미
가격 계획화	국가가 가격을 계획적으로 정하거나 고쳐 정하며 그것이 정확히 적용되도록 조직 지도하는 사업
가극혁명	지난 시기 가극의 낡은 틀을 마스고 불멸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가극을 창조한 가극예술의 근본적인 변혁
가내편의 봉사원	가정부인이나 늙은이들이 자기 집에서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회주의적 근로자
가두 선동대	가두생활을 하는 가정부인들이나 가두의 인민반원들로 조직된 선동대
가창대	정치선전과 선동을 목적으로 노래부르며 거리를 행진하는 대오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는 완전히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는 표에서 제시된 이외에 ‘가내작업반, 가두세포, 가정혁명화, 가족주의, 가창시위, 가창행진’ 등이 있다.

넷째, 남북한 사전에 수록된 언어중 일방에 의해서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언어가 있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1) 남한의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는 언어

북한의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남한의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는 언어들은 파생어와 외래어에 의한 일부의 언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자어에 속한다. 북한의 사전에 수록된 어휘 수가 남한의 사전에 수록된 어휘 수보다 많음을 감안할 때 결국 이러한 한자어들은 북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멸되어 가는 언어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가가(可呵), 가가(呵呵), 가가아수(加加阿樹), 가각(苛刻), 가각고(架閣庫), 가감형(加減刑), 가거(假居), 가경(可驚), 가경(佳境) 외 680여 개 어휘

이들 중 고유어에 해당하는 어휘로는 ‘가귀노름, 가귀대귀, 가디륙, 가라지, 가론, 가르새, 가리맛저냐’ 등 고어나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어휘에 불과하다.

2) 북한의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는 언어

남한의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북한의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는 언어들은 대부분이 파생어에 속하며,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화어에 속하는 어휘들도 있다. 그리고 한자어로서 북한의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언어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말로 규정하며 사용을 지양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들은 다음과 같다.

가가방, 가가이, 가각(街角), 가간(家間), 가감산, 가감소거법, 가강하다, 가까운섞불임, 가넉돌, 가넉툼, 가눗하다, 가두배추, 가락지빵, 가렴저절하다, 가글가글, 가농포, 가네포, 가리온, 가무병창, 가무이야기, 가로친빈하다, 가새망차기 등 1800여개 어휘

이중에서 외래어를 문화어로 다듬어 사용하기 때문에 생소한 언어로는 ‘도니스’를 ‘가락지빵’, ‘뮤지컬’을 ‘가무이야기’ 등으로 한 언어가 있으며, 말다듬기원칙에 따라서 다듬은 말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여겨지는 어휘로는 ‘근친교잡’을 ‘가까운섞불임’으로, ‘가넉툼’을 ‘가짜해돌이’라고 한 어휘가 있다. 그리고 ‘가두배추’는 남한에서 사용하는 ‘포기배추’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가무병창’은 ‘가무’와 ‘병창’을 한 단어로 합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어휘에 속한다.

4. 남북한의 언어변동 실태 대비

남북한의 언어를 시간적인 측면에서 70년대와 90년대의 언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어휘구성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 공히 고유어의 대부분은 거의 소멸됨이 없이 90년대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언어는 <그림-1>의 모형에서 'D'부분에 속하는 언어이다. 그리고 고유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생활상의 변화에 따라 파생된 언어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언어는 기본어가 같기 때문에 <그림-1>의 모형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이 'C', 'D', 'E'부분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고유어에 바탕을 두고 파생된 언어는 일치되거나('D'부분에 해당), 의미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C와 E'부분에 해당) .

반면에 고유어에서 소멸된 언어도 있다. 즉 <그림-1>의 모형에서 'F'와 'G'부분에 속하는 언어로서 남한의 경우 '가리적, 가시집, 가재다' 등과 같이 고어, 방언, 속어 등에 속하는 어휘들과 '가막살나무' 등과 같이 고유명사에 속하는 어휘로서 활용되지 않는 말들이며, 국어순화운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학술단체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가리킴 그림씨, 가리킴어찌씨' 등과 같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언어들이 이에 속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 소멸되어 간 고유어는 '가는피리, 가름소리표' 등과 같이 고유어를 기본어로 하면서 파생된 어휘중 생활상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언어들이 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언어를 비교해 보면, 남북한의 언어에서 일치하는 언어는 70년대보다 90년대에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이 분단 이전에 사용해 왔던 언어중 고유어는 거

의 변화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고유어를 기본어로 하면서 파생된 언어에서 일치되는 어휘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문화가 분단 이후 자본주의문화와 사회주의문화로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지만, 이러한 문화도 어디까지나 같은 문화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형태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지 모르지만 본질은 완전하게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70년대에 남북한 사회에서 고유어를 기본어로 하면서 생활상의 변화에 부응하여 독자적으로 파생시켜 나간 언어이지만 이념과 체제와 무관한 언어들은 일치된 언어가 나타나고 있으며(<그림-1>의 모형에서 'D'부분에 해당), 90년대에도 70년대에는 파생어에서 차이를 보였던 언어였지만 이념과 체제에 무관한 언어들은 남북한 공히 상대방의 언어를 수용하면서 활용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1>의 모형에서 'D'부분에 해당). 예를 들어 '가게'의 경우 70년대에는 파생된 언어로 남한에서는 '가게채'가 있었으며, 북한에서는 '가게방'이 있어 언어의 격차를 보였으나, 90년대에는 남북한 공히 '가게채, 가게방'이란 어휘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름'의 경우 70년대에는 파생된 언어로 남한에서는 없었으나 북한에서는 '가름대'가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남한에서 '가름대'란 용어를 수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가공색도'란 용어는 70년대에 남한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파생된 용어였지만 90년대에는 북한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의 언어는 이념과 체제지향적인 성격과 무관한 언어는 상호 수용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말다듬기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파생어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심한 언어 격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파생어는 고유어와 고유어의 결합,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 특히 생활화된 한자어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어휘들도 다수 있다. (<그림-1>의 모형에서 'C와 E'부분에 해당). 단지 이러한 파생어들은 남북한의 생활상을 반영하면서 만들어 진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일방에서 만들어 진 언어를 타방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들은 상대방의 생활상을 이해한다는 측면과 國語造語能力 및 國語驅使能力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검토되어 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생어는 아니지만 異音同意語的인 언어도 연구, 검토의 대상이 되어 진다.

파생어들 중에서 문제시되는 어휘는 '가정혁명화, 가격투쟁, 가두세포, 가극혁명, 가두선동대, 가창대' 등과 같이 이념과 체제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어휘들이다. (<그림-1>의 모형에서 'A와 B'부분에 해당). 이러한 언어는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에 대한 선입견 및 정치적 성격을 띄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질감을 유발시키게 된다.

남북한의 언어는 상호 수용, 보완, 발전시킬 요소들이 많이 있는 동시에 수용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있다. 그것은 활용되어 지고 있는 언어가 이념과 체제지향적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를 비교 연구함에 있어서 남북한의 언어를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떠나 남북한 간의 언어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국어조어능력과 국어구사능력을 함양시켜 나간다는 사실과 고유한 우리 말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남북한 언어는 분단 이후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에 의해서 변화되어

해할 수 있는 어휘들도 다수 있다.(<그림-1>의 모형에서 'C와 E'부분에 해당). 단지 이러한 파생어들은 남북한의 생활상을 반영하면서 만들어 진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일방에서 만들어 진 언어를 타방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들은 상대방의 생활상을 이해한다는 측면과 國語造語能力 및 國語驅使能力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검토되어 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생어는 아니지만 異音同意語的인 언어도 연구, 검토의 대상이 되어 진다.

파생어들 중에서 문제시되는 어휘는 '가정혁명화, 가격투쟁, 가두세포, 가극혁명, 가두선동대, 가창대' 등과 같이 이념과 체제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어휘들이다.(<그림-1>의 모형에서 'A와 B'부분에 해당). 이러한 언어는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에 대한 선입견 및 정치적 성격을 띄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질감을 유발시키게 된다.

남북한의 언어는 상호 수용, 보완, 발전시킬 요소들이 많이 있는 동시에 수용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있다. 그것은 활용되어 지고 있는 언어가 이념과 체제지향적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를 비교 연구함에 있어서 남북한의 언어를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떠나 남북한 간의 언어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국어조어능력과 국어구사능력을 함양시켜 나간다는 사실과 고유한 우리 말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남북한 언어는 분단 이후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다.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립과 적대의식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 발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단절은 남북한 간에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어 간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상 남북한은 사회, 문화의 제반 분야에서 이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화 현상은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도 이념적 배경을 깔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남북한의 언어변동 실태를 <그림-1>과 같은 모형에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남북한은 분단 이전 같은 언어를 사용해 왔으나 분단 이후 상이한 언어관과 언어정책에 의해서 달라져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되며 급기야는 남북한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게 된다.

문화라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특수한 문화가 창출되어 지게 되며, 문화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화는 단시일내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지며, 문화는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도 적용되어 지는 보편적 문화도 있게 된다. 문화의 한 형태로서 언어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에는 언어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지는 성격이 내포되어 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분단과 단절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언어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남북한의 언어관은 언어를 의사전달의 매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언어 도구관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으며, 언어가 민족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변화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는 언어사상일체관의 관점에서 있으나, 북한에서는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언어사상형성관의 관점에서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언어를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인식으로 언어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언어정책에 있어서 남북한 공히 고유한 우리 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국어순화와 말다듬기운동의 원칙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념적 대결 의식에 바탕을 둔 문화어의 창출과 단절에 의한 어휘정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언어에는 다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남북한의 언어 변동은 ① 고유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 ② 한자어, 외래어 등을 우리 말로 바꾸어 간다 ③ 국민들 속에 널리 쓰이는 생활어부터 점진적으로 고쳐 나간다 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면서 만들어진 언어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심한 이질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언어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자어, 외래어 등을 우리 말로 바꾸어 감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단절로 인하여 다소 이질적으로 인식되어 지는 언어들에 국어조어능력과 국어구사능력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연구, 검토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단지 이념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들에 민족어로서, 또는 생활어로서 정착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분단 상황에 국한되어 사용되어질 수 밖에 없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한 간의 언어는 이념적 대립과 단절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언어 내지는 유사성을 지닌 언어가 많음을 알 수 있었지만 단절이 지속될 경우에는 변화된 언어들에 남북한의 생활어로서 정착되어

의사소통에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도 없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언어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언어 뿐만 아니라 방언과 표준어의 문제를 포괄하는 남북한 통일 사전을 간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교학사 편, 「새국어사전」, 1991.
- 김동수, 「조선말례절법」,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김병제, 「방언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 김인호, “우리 당이 실시한 한자폐지는 그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나타내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론문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김일성, “교육 부문 일군 책임자회의에서 한 언설”,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민족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게 발전시켜 나간데 대하여”, 「문화어학습」 3호, 1968.
- _____,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문화어학습」 2호, 1968.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남광우, “국어혼용론”, 김민수 외 공편, 「국어와 민족문화」, 서울, 집문당, 1990.
- 남성우, 정재영 공저, 「북한의 언어생활」, 서울, 고려원, 1990.
- 동아일보, 1991. 1. 1. 8면
- 문교부, 「국민학교 교사용지도서 국어」, 1982.
- _____, 「국어순화자료」, 1983.
- _____, 「문교 40년사」, 1988.
- 박갑수, “국어순화의 이론과 방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어의 순화와 교육」, 1979.
- _____, 「국어의 표현과 순화론」, 서울, 지학사, 1984.
- 박상훈, 리근영, 고신숙,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사회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조선말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2.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우리 당의 언어정책」,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 _____,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_____,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8.
- _____,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92.

- 신용하 편, 「민족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 양주동 감수, 「최신국어대사전」, 서울, 진영출판사, 1974.
- 이상비, “국어교육의 개선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어의 순화와 교육」, 1979.
- 이은정 편, 「국어순화자료집」, 서울, 국어문화사, 1991.
- 이응백, “국어순화의 실천방안”, 김민수 외 공편, 「국어와 민족문화」, 서울, 집문당, 1990.
- 중앙일보, 1993. 8. 31. 5면.
- 차영애, 「민족어를 발전시킨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최학근, 「한국방언사전」, 서울, 명문당, 1987.
- 허용, 「우리 말과 글에 쏟아진 사랑」, 서울, 문성출판사, 1980.
-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 말과 글이 걸어온 영광의 10년”, 「문화어학습」 4호, 1980.
- 「독일이데올로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 「스탈린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北韓에서의 우리나라 建築歷史
研究成果와 評價

研究責任者：李王基(牧園大學校)

目 次

<要約文>

I. 序 論	296
1. 研究目的	296
2. 研究方法 및 範圍	296
II. 考古·歷史分野로서 建築史 研究	297
1. 解放空間의 文化遺蹟 發掘事業	297
2. 文化遺蹟의 歷史認識	303
III. 北韓에서 刊行된 建築史關聯 論文, 雜誌, 報告書	305
1. 력사제문제	305
2. 문화유물	305
3. 문화유산	306
4. 고고민속	306
5. 고고민속논문집	306
6. 조선고고연구	307
7. 력사과학	307
8. 건축과 건설	308
9. 조선미술	308
10. 기 타	308
IV. 北韓에서의 建築史 時代區分 問題	309
1. 時代에 대한 用語 概念	309
2. 時代區分의 틀과 그 特徵	310
3. 時代區分에 대한 建築史的 脈絡	310
V. 各 時代에 대한 建築史 研究	314
1. 原始時代建築	314
2. 古代建築	316
3. 中世建築	318
가. 三國時期建築	318
나. 渤海 및 後期新羅建築	323

다. 高麗建築	327
라. 朝鮮王朝建築	329
VI. 分野別 建築史 研究	333
1. 살림집	333
2. 都城 및 都市	340
3. 佛寺建築	346
VII. 研究成果 및 評價	353
VIII. 結 論	356
<參考文獻>	359

〈 要 約 文 〉

李 王 基(牧園大學校)

1. 研究目的 및 範圍

본 논문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의 우리 建築史研究 胎動, 時代別 研究현황, 그리고 몇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고찰한 것이다.

다루어진 연구주제의 시간적 제한은 원시시대건축 부터 조선왕조까지로 한다.

사실 역사학이란 현재라고하는 창을 통하여 과거를 되돌아 보며 미래의 우리길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항상 우리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재라는 창은 반쪽이 가려진 것이요 이를 통해 보는 시야도 반쪽 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반쪽창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반드시 남한만의 연구성과가 모든 건축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현재까지 건축사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장래 예견되는 남.북간의 학술교류에 대비하고 그 교류가 많아질 때 상호간의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통일후의 학문적 연구성과가 혼란없이 지속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인용된 자료는 정기간행물과 부정기 간행물, 그밖에 발굴보고서 및 저작물 등이다. 정기 간행물로서는 『문화유산』, 『고고민속』, 『역사과학』, 『조선고고연구』, 『건축과건설』, 『조선미술』, 등이고 비정기 간행물로서는 『고고민속논문

집』, 『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그리고 기타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저서 등이 인용 되었다.

2. 研究内容

북한에서의 건축사연구 역시 우리와 같이 일반사의 한 분류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건축사 시대구분이 어떠한 관점으로 다루어지는가는 북한 역사학계의 관점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주체사관’의 맥락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시원을 두고 있다. 1950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논쟁되기 시작한 시대구분 문제는 ‘교조주의 형식을 퇴치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기치로 정리해 나가게 된다. 이리하여 일제때부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주장해온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하여 시대구분을 시도한 아시아적생산양식론을 극복하고,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과정을 재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결과는 1962년에 이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이것은 북한역사학계의 공통된 합의점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 하겠다.

공식적인 입장이란 우리역사의 시대구분을 원시공동체사회 → 노예소유자사회 → 봉건사회로의 발전과정으로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인류역사를 소유관계에 근본을 둔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사적유물론에 귀착시키면서 인류가 오늘날까지 거처온 생산양식의 기본적인 다섯가지 형태 즉,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흐름으로의 이행과정에 있다고 믿고있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사회주의적 시대구분이라는 기본적인 틀안에 모든 부분사의 시대구분이 종속되고 건축사 또한 이와같은 틀로 구분되어 원시 및 고대건축, 중세건축, 근대건축, 현대건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북한에서 생각하는 건축사학의 줄기이다.

각 시대에 대한 내용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원시시대건축은 지금으로부터 약 60만년전에서 40만년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며 1966년 평양시 상원군 흑우리에서 발견된 ‘검은모루동굴유적’을 가장 이른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시대의 하한은 기원전 1천년 전반기까지로 하며 이 기간을 전부 하나의 원시공동체사회로 묶어서 구분한다. 여기에는 구석기시대를 비롯하여 신석기, 청동기시대를 포함하고 있다.

고대건축은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고조선이 한반도의 서북지방으로부터 요동지방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시기로부터 시작된다. 이보다 좀 늦은

시기에 부여, 진국이 출현 하게 되는데 이들을 한데 묶어 고대건축으로 하고있다. 이 고대건축의 사회경제체제는 노예제사회로 규정하며 삼국이 출현할 때까지, 즉 기원전 2세기말까지로 하고있다. 북한에서 고조선의 실체를 밝혀내는 문제는 식민사학자들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존에 대한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을 두고 있다. 60년대 초에 고조선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의 해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출토유물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국가의 형태를 밝혀내기에 이른다. 이때에 이미 은동을 사용했던 흔적을 여러곳에서 찾아내어 은동의 시원이 이때부터였음을 밝힌다.

중세건축은 크게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왕조말 즉 19세기 중엽까지로 정하고 있다. 봉건사회 전시대를 하나의 중세건축으로 삼고 세부적으로 각 왕조를 하나의 단원으로 구분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를 첫째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시기로 나누고 두번째는 발해와 후기신라로, 세번째는 고려왕조로, 네번째는 조선왕조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삼국시대는 중세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또한 노예제사회로부터 봉건제사회로 넘어가는 첫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세라는 커다란 시간속에 삼국은 하나의 시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삼국시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삼국시기 건축연구에 있어서 이들이 특히 많은 부분을 고구려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분단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구려는 특히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강대국이었고 건축 등 분야에서의 기술과 양식이 삼국중에서 가장 앞섰으며 백제와 신라건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목조건축의 구조시스템과 장식수법도 이때에 체계화되어 백제, 신라 나아가 일본의 건축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비록 3국 통합은 못했지만 중세초기 건축문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다.

발해 및 후기신라건축은 7세기 중엽부터 10세기초이다. 발해는 고구려 멸망후 그 유민들이 세운 국가이기에 이 시기는 신라와 양국이 공존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신라”라는 용어는 근본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시각이다. 북한에서의 발해 연구는 고구려의 맥락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일찍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발해건축에 대한 연구성과는 괄목할만한 정도가 되었다. 이것은 남한학계에서도 인정해야할 것이다.

고려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하는 것이 북한역사학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고려시기에 비로서 우리나라 건축양식과 기술이 하나의 국가단위로 통일되었고 이 조영기법의 확산으로 우리건축의 독특한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조선왕조를 “리씨왕조”라고 한다. 따라서 이시기의 건축은 “리조건축”이다. 조선왕조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조선의개국과 더불어 권력자들의 명에대한

‘以小事大’ 사상과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한정시킨 국가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 건축예술은 고려건축의 성과들을 계승하면서도 전에 없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15세기 이후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통치사상으로 삼은 것이 건축외에 다른 예술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서술하였다. 이 당시 건축의 특징은 전보다 웅장해지고 경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궁전은 통치배의 권위를 높이고 인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고려때 보다 더욱 웅장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3. 研究成果 및 評價

전반적으로 이들의 “봉건사회의 지배자를 비판하면서도 이들이 건설한 건축물에서는 민족의 건축미학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논리로 건축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건축물이 비록 “통치배”에 의해 주관되었지만 이것을 만든 장인의 주체는 “인민대중”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기 때문에 宮闕, 寺院, 班家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비록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 건축물에 나타난 민족의 주체적 건축미학은 당시 “인민대중”들의 建築思想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할 것은 이들의 건축역사관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학을 바탕으로 하는 一般史에 모든 분류사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적 경직성이 건축 분야에도 나타난 결과라는 점이다.

한편 북한에서 선사시대 유적과 고구려 유적을 발굴하고 나아가 발해의 실체를 밝혀낸 연구결과는 하나의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로 일제때 왜곡된 역사를 우리민족의 시각으로 다시 보려고 한 각종 연구논문들도 그들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사시대에 대한 활발한 발굴결과는 큰 성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성과 중에는 첫째, 지나칠 정도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서술되어 국수주의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둘째, 모든 학문의 성과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개인의 치적으로 돌려 학문의 순수성이 개인숭배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라 하겠다.

4. 結 論

295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간의 학문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학계에서도 이를 대비하여 이들의 학문적 수준과 성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상적인 '북한이해' 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북한건축사학'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I. 序 論

1. 研究目的

1989년 12월 평양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조선건축사 (1), (2)』가 출판 되었다. 저자는 건설건축대학 부교수인 리화선 박사이다.

이책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적지않은 학자들이 건축사를 연구한 이래 최초로 출간된 한국건축사에 관한 단행본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제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해방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건축사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1945년 해방이후 분단의 남.북은 각각 독자적인 건축 역사를 연구해 온 것이 이제 반세기를 삼년앞에 두고 있다. 오랫동안 서로가 접촉을 금지해 왔지만 망각보다는 오히려 궁금증만 가중시켜 왔다. 이것은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도 건축역사분야에서는 분단지역에 대한 정보가 더욱 필요했으며, 이에 비하면 많은 건축사가들은 이 지역에 대한 건축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욕구를 억제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역사란 현재라고하는 창을 통하여 과거를 되돌아 보며 미래의 우리길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항상 우리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재라는 창은 반쪽이 가려진 것이요 이를 통해 보는 시야도 반쪽 밖에 안되는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할 일이 있다면 반쪽창을 통해서라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자에 중국과의 정식국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북한과도 머지않은 장래에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때를 대비해 남북은 서로를 알아야 할 것이다. 서로를 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은 학문교류이다.

본 논문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의 우리 建築史研究 胎動, 時代別 研究현황, 그리고 몇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성과는 어느정도 인가를 고찰하려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장래 예견되는 남.북간의 학술 교류에 대비하고, 나아가 교류가 많아질 때 상호간의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통일후의 학문적 연구성과가 혼란없이 지속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두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

2. 研究方法 및 範圍

본 연구는 건축에 관한 논문이면서 건축물이 대상이 아니라 건축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좀더 엄격히 말하자면 북한건축사학사

가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을 위해 인용된 자료는 해방이후 최근에 이르기 까지 북한에서 간행된 각종 건축관련 논문이 중심이다. 인용된 자료로서는 정기간행물과 부정기 간행물, 그밖에 발굴보고서 및 저작물 등이다. 정기 간행물로는 『문화유산』, 『고고민속』, 『역사과학』, 『조선고고연구』, 『건축과건설』, 『조선미술』, 등이고 비정기 간행물로서는 『고고민속논문집』, 『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그리고 기타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저서 등이 인용 되었다.

이와같은 간행물들은 거의 모두가 기관지나 동맹위원회지로 발간되고 있으며, 개인의 저서라 하더라도 기관이나 동일계통의 다른 학자로 부터 심사를 거쳐 발행 되고 있는것이 북한 간행물의 특징이다.

다루어진 연구주제의 시간적 범위로서 상한선은 원시시대건축으로 부터 하한은 조선왕조까지로 한다. 그리고 이들이 구분한 각시대에 대한 건축사관, 각 시대의 연구현황과 논문성격 등을 증점적으로 서술한다.

몇가지 다루어진 주제의 범위로는 살림집, 도시 및 도성, 불사건축으로 제한하고 이 주제에 대하여 북한의 연구실태와 연구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건축사적 관점 등을 증점적으로 다루었다.

II. 考古·歷史 分野로서 建築史 研究

1. 解放空間의 文化遺蹟 發掘事業

해방공간이 가져다준 현실은 극심한 이데올로기와 함께 경제구축과 건설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건축에서의 역사학은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사연구의 태동은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의 한 분야로서 시작되었다.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의 북쪽에서는 1946년 4월에 '보물 고적 명승 천년기념물 보존령'을 발표 하면서 이 사업을 조직 집행할 '고적 보존위원회'를 각 도에 설치 하게 된다. 연구의 기반이나 연구 인력도 없는 가운데 유물유적의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1947년에는 이것의 확대기관인 '북조선 고적 보존 위원회'를 중앙에 설치 하고 사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또한 이시기 평양, 신의주, 청진, 함흥, 묘향산에 각각 박물관을 설치하면서 이와 동시에 최초의 발굴작업이 이루어 지는데 1947년의 함경북도 용기 송평동의 조개무지 시굴(청진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1948년에는 평양시 평천리 건물지발굴, 평양 낙랑리 주변 한식고분 발굴(김일성대학), 평안남도 강남 관개공사장 유적정리(중앙역사박물관), 평안북도 피현

가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을 위해 인용된 자료는 해방이후 최근에 이르기 까지 북한에서 간행된 각종 건축관련 논문이 중심이다. 인용된 자료로서는 정기간행물과 부정기 간행물, 그밖에 발굴보고서 및 저작물 등이다. 정기 간행물로는 『문화유산』, 『고고민속』, 『역사과학』, 『조선고고연구』, 『건축과건설』, 『조선미술』, 등이고 비정기 간행물로서는 『고고민속논문집』, 『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그리고 기타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저서 등이 인용 되었다.

이와같은 간행물들은 거의 모두가 기관지나 동맹위원회지로 발간되고 있으며, 개인의 저서라 하더라도 기관이나 동일계통의 다른 학자로 부터 심사를 거쳐 발행 되고 있는것이 북한 간행물의 특징이다.

다루어진 연구주제의 시간적 범위로서 상한선은 원시시대건축으로 부터 하한은 조선왕조까지로 한다. 그리고 이들이 구분한 각시대에 대한 건축사관, 각 시대의 연구현황과 논문성격 등을 증점적으로 서술한다.

몇가지 다루어진 주제의 범위로는 살림집, 도시 및 도성, 불사건축으로 제한하고 이 주제에 대하여 북한의 연구실태와 연구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건축사적 관점 등을 증점적으로 다루었다.

II. 考古·歷史 分野로서 建築史 研究

1. 解放空間의 文化遺蹟 發掘事業

해방공간이 가져다준 현실은 극심한 이데올로기와 함께 경제구축과 건설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건축에서의 역사학은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사연구의 태동은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의 한 분야로서 시작되었다.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의 북쪽에서는 1946년 4월에 '보물 고적 명승 천년기념물 보존령'을 발표 하면서 이 사업을 조직 집행할 '고적 보존위원회'를 각 도에 설치 하게 된다. 연구의 기반이나 연구 인력도 없는 가운데 유물유적의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1947년에는 이것의 확대기관인 '북조선 고적 보존 위원회'를 중앙에 설치 하고 사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또한 이시기 평양, 신의주, 청진, 함흥, 묘향산에 각각 박물관을 설치하면서 이와 동시에 최초의 발굴작업이 이루어 지는데 1947년의 함경북도 용기 송평동의 조개무지 시굴(청진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1948년에는 평양시 평천리 건물지발굴, 평양 낙랑리 주변 한식고분 발굴(김일성대학), 평안남도 강남 관개공사장 유적정리(중앙역사박물관), 평안북도 피현

일대 고분발굴과 함께 전국적인 유적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와 더불어 1948년 공화국을 창설 하면서 내각결정 110호인 '물질문화 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내각 직속기관으로 '물질문화 유물 조사 보존위원회'를 두면서 이에대한 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제 1 조 력사상의 기념물 및 학술연구상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유적, 건조물, 회화, 공예품, 전적 등 유물은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략칭한다)에서 이를 보존관리한다.

전항의 유물 중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은 이를 고적, 또는 보물로써 지정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 2 조 전조에 해당하는 출토품 및 기타 새 발견품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전항의 유물을 발견한 자는 2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 또는 소관 지방인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물발견의 보고를 받은 지방인민위원회는 그 유물을 보관하여 2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자에 대하여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제 3 조 제 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유물은 임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국외전람회 등에 일시 출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제 4 조 제 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유물은 이를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함을 금한다.

제 5 조 고적 보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제 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유물의 발굴 또는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행위를 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제 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유물로서 개인이 소유할 경우에 이를 때, 전당 또는 양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제 1 조 제 1 항의 유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적당한 보관방법을 지시하여 그 보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8 조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

- 제 1 조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약칭한다)는 조선의 물질 문화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및 그의 과학적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인식을 보급시키며 역사, 민속학, 미술사 등 각종 박물관 사업을 관리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위원회는 내각에 직속하여 사업상 내각 및 수상에게 복종한다.
- 제 3 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4명으로서 구성한다.
- 제 4 조 위원회 위원장은 내각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각 수상이 이를 임명한다.
- 제 5 조 위원회는 각 도에 위원장 1명, 위원 8명의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도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고 약칭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한 지역에 5인 내지 7인의 유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도위원회와 유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그의 성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 제 6 조 위원회는 매년도 예산심의 및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며 위원회에 관한 주요 사업을 토의 결정한다.
- 위원회는 매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총결보고를 청취한다.
- 제 7 조 정기위원회는 매년 2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8 조 위원회 내에 별표(생략)와 같은 기구 및 직원을 둔다.
- 제 9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일체사업을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10 조 서기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11 조 각 부장은 각각 담당부 사업에 관한 책임을 지고 다음의 각부사업을 집행한다.

1. 원시사 및 고고학부

- (1) 패총, 동굴, 거석 문화유물, 각 시대의 분묘, 주거지 및 석기, 토기, 각토포 등 발굴조사연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2) 조사보고서 작성 및 연구문건 출판에 관한 사항

2. 미술사 및 건축사부(생략)

3. 민속학부(생략)

4. 박물관 지도부

- (1) 각종 박물관 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 각종 박물관의 진열자료의 심사 및 할당분배에 관한 사항
- (3) 각종 박물관의 신축 증축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총무부(생략)

해방직후 이와같은 문화재 보존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과동시에 이루어진 일련의 발굴사업은 고고역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역사 분야에서도 연구자가 절실히 필요했으나 당시의 여러 여건상 연구인력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초기의 발굴조사 자료와 성과는 1947년부터 발간된 잡지 『역사제문제』(1947-1950) 『문화유물』(1948년 발간) 등을 통하여 발표되기 시작 하였다. 당시 발표되었던 대표적인 몇가지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원시사회사연구에 관한 각서 (한홍수, 역사제문제 2집, 1948)
- 최근 안악에서 발견된 고구려고분의 벽화의 년대에 대하여 (리여성, 역사제문제 9집, 1949)
- 안악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들 (도유호, 문화유물 1호, 1949)
-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에 관한 제문제 (한홍수, 문화유물 1호, 1949)
- 평양성지잡고 (황 옥, 문화유물 1호, 1949)
- 봉선사지고 (도유호, 문화유물 2호, 1950)
- 조선민속학의 수립을 위하여 (한홍수, 문화유물 2호, 1950)

아직 건축역사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자가 배출 되지는 않았지만 건축유지라든가, 고분, 城址 등의 발굴에서 건축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발굴 보고서에 부분적으로 발표 되기도 하였다.

1952년 전쟁의 와중에 과학원을 창설하는데 과학원 내에 ‘물질문화사 연구소’ (이 연구소는 1957년부터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로 개칭하게 된다.)를 설치하면서 역사과학의 한 분야로서 고고민속을 연구하게 된다.

민속학은 역사과학의 일부분 이라는 기치아래 “인민들의 문화와 풍속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특수성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천명하며 그 특수성의 발생을 조건지은 민속적 전통과 민족적 전통을 구명한다”¹⁾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후 전후 복구사업이 이루어 지는 가운데 1954년 ‘내각 지시 92호’를 발효 하는데 그 내용은 ‘건설사업에서 발견되는 유적 유물을 보존 관리하며 그것을 과학적으로 정리’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 제정과 발굴조사는 일제의 식민주의를 가능한 빨리 청산하면서 민족자존을 세우려는 조치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1958년 하반기에는 ‘문화유물 보존 사업소’를 설치하여 문화재 보존 및 복구 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리하여 1959년에는 전쟁기간중에 파손된 각종 문화재 복구 및 수리공사를 실시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평양의 전금문, 청류

1) 김일출, 조선민속학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 1958-4호』 19쪽

정의 복구수리와 대동문, 보통문, 부벽루의 단청개수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이 사업소에서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와 학술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복원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2)

해방 직후부터 북한에서는 매우 활발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이루어 지는데 1950년대말 까지 실시한 발굴조사는 약 65건 정도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1947년-1959년 북한의 발굴년표

년도	발굴유적명	소재지	시대	발표지명
1947	송평동 조개무지	함북 웅기	원시시대	
1948	평천리 건물지 " 평양 한식고분	평양시 평천리 평양시 낙랑리	삼국시대	
1949	라진초도 원시유적 " 안악 제1,2호무덤 " 안악 제3호무덤	함북 라진군 초도 황남 안악군 대추리 " " 류설리	청동기 고구려 "	유적발굴보고 제1집 유적발굴보고 제4집 유적발굴보고 제3집
1950	공산 원시유적	평남 은천군 문하리	신석기	유적발굴보고 제2집
1952 1953- 1957	료동성 무덤 원산시 증평리 원시유적	평남 순천군 통봉리 강원도 원산 시증평리	고구려 청동기	고고학자료집 제1집 문화유산 1958-6호
1954- 1955	회령오동 원시유적	함북 회령군 오동	청동기	유적발굴보고 제7집
1954	황주군 순천리유적 " 운성리 토광무덤 " 은산 남옥리무덤 " 대청리 1호무덤 " 평양역전 두칸무덤	황북 황주군 순천리 황남 은룡군 운성리 평남 은산군 남옥리 황북 은파군 대청리 평양시외성구역역전동	청동기-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고구려 " "	고고학자료집 제2집 고고학자료집 제1집 고고학자료집 제2집 고고학자료집 제1집 고고학자료집 제1집
1955	금탄리 원시유적 " 공귀리 원시유적 " 원암리 원시유적 " 자강도내 원시 및 고대유적 " 전천읍명도전유적 " 천주리 토광무덤 " 대안리 제1호무덤 " 선봉리 1호무덤	평양시승호구역금탄리 자강동 강계시 공귀리 평양시 강남군 원암리 자강도 중강군, 시종군 강계시 자강도 전천군 전천읍 황북 황주군 천주리 평남 룡강군 대안리 황북 황주군 선봉리	신석기말-청동기 청동기 " " 고조선 " 고구려 "	유적발굴보고제10집 유적발굴보고제10집 문화유산 1958-1호 문화유산 1958-5호 문화유산 1957-1호 고고학자료집 제2집 고고학자료집 제2집 고고학자료집 제2집
1956	청진 농포리	함북 청진시 농포리	신석기	문화유산 1957-4호

2) 문화유물 보존 사업소, 평양시내 고건물 복구 수리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문화유산 1960-1호』 92쪽

	원시유적 “ 상매리 돌상자무덤 “ 갈현리 토광무덤 “ 화성리 쌍곡무덤 “ 가장리 벽화무덤 “ 공민왕 현릉	황북 사리원시 상매리 황북 은파군 갈현리 평남 대동군 화성리 평남 증산군 가장리 개성시 개풍군	청동기 고조선 고구려 “ 고 려	고고학자료집 제2집 고고학자료집 제2집 고고학자료집 제1집 문화유산 1959-2호 고고학자료집 제3집
1957	지탑리 원시유적 “ 두만강유역과 동해 “ 안 일대 원시유적 “ 태성리 무덤때	황북 봉산군 지탑리 함북 영안군, 청진시 회령군, 유선군, 종성군 평남 강서군 태성리	신석기, 청동기 청동기 청동기, 고조선, 고구려 고구려	유적발굴보고 제8집 문화유산 1957-6호 유적발굴보고 제5집 문화유산 1961-5호
	“ 박천군 덕성리 “ 벽돌무덤 “ 태성리 유적	평북 박천군 덕성리 평남 강서군 태성리	청동기, 고조선, 고구려 고구려	문화유산 1958-2, 3호 문화유산 1958-6호 문화유산 1958-4호
	“ 태천군 통산리 산성 “ 안변군 통성리 “ 신라무덤	평북 태천군 통산리 강원도 안변군 통성리	고구려 신 라	문화유산 1958-6호 문화유산 1958-4호
1958	시종군 심귀리 “ 원시유적 “ 어지돈 지구 “ 원시유적 “ 석천산 동북 고인돌 “ 신흥동 팽이그릇 “ 집자리 “ 송산 돌돌림무덤 “ 신창군 하세동리 “ 고조선유적 “ 함경남도 내 “ 세형동검 유적 “ 평안북도 내 유적	자강도 시종군 심귀리 황북 봉산군, 은파군 황주군 평남 룡강군 석천산 황북 봉산군 봉산읍 황북 봉산군 송산리 함남 신창군 하세동리 함남 흥남, 흥원, 영흥 평북 룡천군 쌍학리, 염주군 주의리 평남 강서군 약수리 평남 강서군 태성리 평양시 대성구역 강원도 통천군 구읍리	청동기 청동기-고조선 청동기 “ 고조선 “ “ 고구려 “ “ 신 라	문화유산 1961-2호 문화유산 1959-1, 2호 고고학자료집 제3집 고고민속 1964-3호 고고학자료집 제3집 고고민속 1963-1호 문화유산 1961-1호 문화유산 1958-4호 고고학자료집 제3집 고고학자료집 제3집 유적발굴보고 제9집 문화유산 1962-4호
1958- 1961 1958	대성산 일대 “ 고구려 유적 1958 통천군 구읍리 “ 신라무덤	강원도 통천군 구읍리	신 라	문화유산 1962-4호
1959	미송리 동굴유적 “ 석교리 원시유적 “ 북사리 원시유적 “ 미림 철바위 “ 원시유적	평북 의주군 미송리 황남 룡연군 석교리 황남 안악군 북사리 평양시 사동구역 미림리	신석기, 고조선 청동기 “ “	고고학자료집 제3집 고고학자료집 제3집 고고학자료집 제3집 문화유산 1960-3호
1959- 1961	무산 범의구석 “ 원시유적	함북 무산군 무산읍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시대	문화유산 1960-1호
1959	황해남도 북부지방 “ 원시유적	황남 온천군, 송화군 은률군	신석기, 청동기	문화유산 1961-6호

"	심촌리 긴동고인돌	황북 황주군 심촌리	청동기	고고학자료집 제3집
"	평북도내 원시유적	평북 벽동군, 룡천군	"	문화유산 1962-1호
"	연산군 공포리 무덤때	황북 연산군 공포리	청동기, 고구려	문화유산 1962-1호
"	부덕리 토광무덤	황남 재령군 부덕리	고조선	고고학자료집 제3집
"	만경대 토광무덤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리	"	고고학자료집 제3집
"	복사리 토광무덤과 독무덤	황남 안악군 복사리	"	고고학자료집 제3집
1959-	자성군 일대	자강도자성군 조아리,	고구려	고고학자료집 제3집
1960	고구려 무덤	서해리, 법동리, 송암리	"	고고학자료집 제3집
1959	복사리 벽화무덤	황남 안악군 복사리	"	고고학자료집 제3집
"	무진리 "	평양시 중화군 무진리	"	고고학자료집 제3집
"	불일사지	개성시 판문군 선적리	고 려	고고학자료집 제3집
"	황해남도 고려자기 가마터	황남 명천군 봉암리, 웅진군 은동리	"	고고학자료집 제3집

자료 : <문화유산 1960-4호>, <고고민속 1965-1호>

2. 文化遺蹟의 歷史認識

이 당시 발굴의 특징을 보면 원시시대, 고조선, 고구려 시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발굴을 통하여 원시시대의 문화와 발전과정을 체계화 하였다. 예를들면 일본인 학자들이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던 원시시대를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갈라놓았고 각시대에 따른 문화적 차이와 같은 시대라도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신석기 시대의 서북지방과 동북지방에는 차이가 있으며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기도 일대의 신석기 시대 문화를 "궁산문화"로 표현하고 있다.

발굴자료에 의해 종래의 고분형식외에 토광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것은 고조선 문화와 관련이 있음을 발표 하였다.

1949년에 발굴한 고구려 시대의 안악1,2,3호분은 고고학계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안악 3호분에서는 "永和十三年"이라는 목서명이 발견 되었는데 이 목서명은 고구려 고분연구에서 축조년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문화와 나아가 한국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해 준 중요한 발굴이었다.

북한에서의 이러한 발굴목적에는 가능한 빨리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선사시대 부터 한반도 지역에 대륙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밝힘과 동시 우리민족의 기원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청동기시대 말엽에는 이미 국가가 탄생되었음을 주장 함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하루빨리 체계화 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

초기의 이와같은 고고학적 발굴사업에 비하면 역사시대 이후의 건축적인 발굴조사는 거의 미비한 상태였다. 1948년 평양시에 있었던 평천리 건물지 발굴과 1958-1961년에 있었던 대성산 일대 고구려 유적, 그리고 1959년의 개성 불일사지 발굴조사가 고작 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당시 북한에서의 건축역사 분야는 고고학, 민속학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58년부터 시작된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관계자들과 담화를 나누었는데 이 담화내용은 후일 북한에서의 역사 유적에 대한 인식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담화에서

「...앞으로 대성산 유원지를 인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꾸리며 근로자들을 혁명전통과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역사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서도 인민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빛나는 문화전통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선조들의 애국주의 정신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³⁾

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적발굴 결과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그 가치와 효용성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상부계급과 하부계급의 모순을 들어내고 이것을 극복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의한 역사유적의 훼손을 반일감정으로 연결하여 민족사관을 세우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취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또한

「역사유적을 복구하는 사업은 반드시 복구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들을 충분히 조사 연구한 기초우에서 하여야 합니다. 유적이 없던 곳에다 무엇을 새로 만들어 놓아도 안되며 본래 있던 유적을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복구하여서도 안됩니다. 유적을 발굴하고 복구하는 데서도 역시 우리는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⁴⁾

라고 한 것은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주의 역사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다. 말하자면 사적유물론을 역사연구의 방법론으로 수용하고 역사발전 법칙이 우리의 역사발전과정에 관철되었다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체계적 발전과정을 규명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의 식민사관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에 이를 극복하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바로 이러한 사적유물론의 체계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

3) 문학예술사전 260쪽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 문학예술사전 261쪽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할을 하는 것이었다.

현재 북한의 문화재 관리행정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분야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복원, 개수 등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분야는 유적, 유물의 조사 발굴 연구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업무는 중앙에서는 정무원 직속인 '문화유물 보존지도국'이, 지방에서는 '문화유적관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의 경우 사회과학원 산하기구인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가, 지방에서는 각도의 '역사박물관'이 전담하고 있다.⁵⁾

Ⅲ. 北韓에서 刊行된 建築史 關聯 論文, 雜誌, 報告書

북한에서 건축사에 관한 독립된 논문집이나 잡지는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지만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분야에서는 이미 해방 직후부터 발간 되어 왔다.

북한에서의 출판물은 언제나 당 선전과 인민대중들을 선동하는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으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무기"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출판사업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 논문들은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분야 논문집에 편승하여 부분적으로 논문, 조사보고, 토론, 자료 등이 발표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역사계문제』

1947년에 창간된 이 잡지는 고고역사 부분에서 가장 먼저 발간된 잡지이다. 1950년 까지 16집이 발간 되었는데 해방직후 분출되는 마르크스역사 이론 들이 이 잡지를 통해 주로 발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잡지 중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논문이 실려 있기도 하다.

2. 『문화유물』

이 잡지는 '조선물질문화조사보존위원회'에서 발간한 것으로서 1948년에 창간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제1집은 1949년에 발간되었다. 1950년에 제2집이 발간된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북한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116쪽 1984 서울

할을 하는 것이었다.

현재 북한의 문화재 관리행정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분야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복원, 개수 등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분야는 유적, 유물의 조사 발굴 연구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업무는 중앙에서는 정무원 직속인 '문화유물 보존지도국'이, 지방에서는 '문화유적관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의 경우 사회과학원 산하기구인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가, 지방에서는 각도의 '역사박물관'이 전담하고 있다.⁵⁾

Ⅲ. 北韓에서 刊行된 建築史 關聯 論文, 雜誌, 報告書

북한에서 건축사에 관한 독립된 논문집이나 잡지는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지만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분야에서는 이미 해방 직후부터 발간 되어 왔다.

북한에서의 출판물은 언제나 당 선전과 인민대중들을 선동하는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으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무기"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출판사업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 논문들은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분야 논문집에 편승하여 부분적으로 논문, 조사보고, 토론, 자료 등이 발표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역사계문제』

1947년에 창간된 이 잡지는 고고역사 부분에서 가장 먼저 발간된 잡지이다. 1950년 까지 16집이 발간 되었는데 해방직후 분출되는 마르크스역사 이론 들이 이 잡지를 통해 주로 발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잡지 중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논문이 실려 있기도 하다.

2. 『문화유물』

이 잡지는 '조선물질문화조사보존위원회'에서 발간한 것으로서 1948년에 창간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제1집은 1949년에 발간되었다. 1950년에 제2집이 발간된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북한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116쪽 1984 서울

이후 전쟁으로 말마암아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잡지의 내용은 실렸던 논문제목이 일부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고있다. 역사의 이론적 고찰을 주로 다루었던 「역사제문제」와 비교해 볼때 이 잡지는 고고민속이나 유적유물에 대한 분야로 더욱 접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일 「문화유산」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이어졌다.

3. 『문화유산』

1957년 과학원산하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기관지로 창간된 이 잡지는 매년 6회씩 발행 하면서 1962년까지 총 26호가 발간 되었다. 전쟁전에 2회 발행으로 그친 「문화유물」의 후속이라 하겠다. 이 잡지는 고고학 및 민속학, 미술사와 관련된 논문, 발굴보고, 학계소식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잡지에 건축에 관한 논문들이 간혹 실려있어 관심을 끈다. 대표적인 건축논문 으로서는 창간호의 「민족적 형식의 현대 건축에의 창조적 도입을 위하여」(박황식.1957-1호)를 비롯하여 「종성향교의 건축 양식(박황식.1957-4호)」, 「북청지방 건축에서의 문살형식(전장석.1957-6호)」, 「수원성의 축성형식(김재효.1958-5호)」, 「남칠 농업 협동 조합의 주택에 대한 민속학적 고찰(리종목.1959-1호)」,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유형과 그 형태-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리종목.1960-5호)」, 「우리 나라 농촌 주택 발전에 관한 민속학적 고찰(리종목.1960-6호)」, 「박천군 심원사 보광전 건축에 대한 고찰(최희림.1961-6호)」 등이 있다.

4. 『고고민속』

1962년 「문화유산」이 폐간된 이후 그 후속으로 1963년부터 발행 되기 시작 하였는데 잡지의 제목을 바꾸면서 1년에 4회씩 계간으로 발간 하였다. 그외는 문화유산과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발간 하였다. 이 잡지는 1967년까지 '고고학 및 민족학 연구소'의 기관지로 총 20권이 발간 되었으며 그후 「조선고고연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 잡지 역시 건축사에 관한 비중있는 논문이 많이 실려있다.

5. 『고고민속논문집』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논문집으로서 1969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1년에 1권씩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1974년 이후로는 햇수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으며 1980년 이후로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1990년 현재까지 12호

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잡지라기 보다는 학술논문집의 성격을 띄고있다. 이 논문집 역시 건축사에 관한 중요한 논문들이 실려있어 주목을 끈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잡지에 비해 분량이 많고 상세하게 논술된 점이 다르다. 건축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 몇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발해건축의 역사적 위치(장상렬, 제3호 1971)」, 「몇개의 발해건축에 대한 외곽 복원(고고학연구소, 제3호부록 1971)」, 「고구려건축의 역사적 지위(한인호, 제9호 1984)」, 「중세 우리나라 주택풍습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김내창, 제11호 1988)」, 「고려왕궁-만월대 건축에 쓴 측도기준(장상렬, 제11호 1988)」, 「조선 돌탑의 변천에 관한 연구(정통해, 제11호 1988)」 등이 실려 있으며 최근 12호를 통해서는 「평양일대의 벽돌칸무덤에 관한 연구(한인덕, 12호 1990)」, 「삼국시기의 절간유적에 관한 연구(한인호, 12호 1990)」등이 발표 되었다.

6. 『조선고고연구』

이 잡지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기관지로서 『고고민속』이 1967년 정간되면서 그 뒤를 이은 잡지로서 현재 1986년1호 이후부터 알려져 있다. 그런데 1986년 1호가 통권 58호인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발행 되었던 『문화유산』, 『고고민속』을 계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것 같다. 『고고민속』의 발행이 단절된 이후 1968년부터 1985년사이에 발행된 이와 유사한 잡지는 전혀 알려지지않고 있다.

이 잡지 역시 1년에 4회로 발간하는데 현재도 계속 발간되고 있다. 북한에서 발간되는 고고학 분야로는 가장 권위있는 잡지로서 비중있는 논문들이 많이 실리고 있다. 잡지의 편성내용은 논문, 발굴및 조사보고, 자료소개, 학계소식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건축역사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많이 다루어 지고 있다.

7. 『역사과학』

「과학원 역사연구소」의 기관지로서 『문화유산』과 같은 시기인 1955년에 창간되었으며 역사 및 고고학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초기에는 월간으로 발간했으나 1956년부터 1967년까지는 격월간으로 발행 하였다. 그후 1968년 발간이 중단되어 1976년까지 발행되지 못하다가 1977년부터 계간으로 복간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루어지는 내용은 논문을 비롯하여 자료소개, 유적 유물소개, 평론, 강좌, 토론, 학계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사에 관한 내용도 간혹 다루고 있으나, 특히 일반역사 및 고고학의 측면에서 건축과 관련된 논문자료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일반사가들 뿐만 아니라 건축사가들 에게도 중요한 관심을 끌

게하는 잡지이다.

8. 『건축과건설』

‘국가건설위원회’ 및 ‘조선건축가동맹’ 공동기관지로서 월간지이다.

1954년에 창간된듯 하며 주로 건설시공 및 공법, 건축설계 및 계획,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농촌마을 주거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쟁후 황폐된 국가건설에서 중요한 건설지침을 지도해 가는 역할을 담당 하였다. 잡지내에 간혹 건축사에 관한 글들이 실리고 있는데 논문과 같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건축기행이라든가 유적소개 정도의 내용이다. 예를들면 「(연재)민족건축의 유산을 찾아서 (윤충현, 1964-4호)」, 「고려시기의 몇가지 공예탑(리화선, 1964-10호)」, 「보통문 건축에 대하여(김경수, 1965-6호)」 등과 같은 글들이다. 이 잡지는 특히 해방이후 북한의 현대건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축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정보제공과 함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여기서는 또한 외국의 건축정보도 가끔 소개하고 있는데 주로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건축에 관한 것 들이다.

9. 『조선미술』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조선미술가동맹’은 1946년에 창립된 ‘북조선미술동맹’이 그 모태이다. 이 단체는 북조선문학예술인총동맹의 산하 단체로 존속하다가 1961년 3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새로 결성되면서 그 산하단체로 편입되었다.

미술가동맹의 중앙위원회는 조선화분과위원회, 유화분과위원회, 조각분과위원회, 공예분과위원회, 무대미술분과위원회, 산업미술분과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등의 부분별로 분과를 두고 있으며 각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다.

미술가동맹의 현재 정맹원은 약 2,000명이 되며 후보맹원 중에서 동맹집행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정맹원이 된다.⁶⁾

『조선미술』의 창간년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비교적 오랫동안 발행 되어온 잡지이다. 회화, 조각, 산업 및 공업미술, 건축미술 등 미술의 모든분야를 망라해서 다루는 미술 종합잡지의 성격을 띠고있다. 건축사 분야의 내용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미술사 측면에서 건축과 관련된 논문들이 실리기도 한다.

10. 기 타

6) 윤재근 외, 북한의 문화정보 II, 고려원 1991 서울

이밖에 부정기적인 간행물로서 『유적발굴보고』와 『고고학자료집』이 있는데 유적 발굴보고집은 단독 발굴 보고서로서 1956년 12월에 제1집 「라진 초도 원시유적 발굴보고」가 간행된 이후 1985년까지 14집이 발간 되었다. 고고학자료집은 발굴년도가 서로 다른 여러곳의 발굴자료를 한데 묶어 간행하는 종합적인 발굴보고서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1963년까지 3집을 발간한 이후의 자료는 입수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당의 로선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해설 선전”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발행되는 모든 잡지는 국가 기관이나 동맹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발간되고 있다. 때문에 내용의 일정 분량은 국가 이념이나 당 선전에 할애하고 있는점이 특징이다.

또한 모든 출판사는 정무원 산하 선전선동부의 출판총국에 의해 모든 과정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출판체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하겠다.

IV. 北韓에서의 建築史 時代區分 問題

1. 時代에 대한 用語概念

북한에서의 시대라는 용어의 개념은 인간의 생산양식의 기본적인 개념에 바탕을 둔 사회를 말할때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민들의 생산활동과 체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 되었는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섯가지 형태로 시대가 변화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즉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소유자사회, 봉건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는 시기를 근대로의 기점으로,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현대라고 하는데 이와같은 생산활동의 특징적인 변천에 따라 “시대”라는 용어를 부쳐 사용하고 있다. 시대라고 할 때 생산체제가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시대라는 말 보다는 시대의 체제를 특징짓는 “사회”라는 용어를 즐겨 쓰는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시대”는 인간의 생산양식과 체제에 바탕을 두게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생산양식과 체제가 구분되는 시간을 묶어서 “시대”라는 용어를 붙이고 그 안에서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기점들을 묶어서 “시기”라는 용어를 적용한다. 이때 시기라고 하는 시간적 단위는 대개 하나의 왕조가 탄생되어 멸망 할 때 까지의 존재기간을 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몇개의 왕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당시의 사회구조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시기”로 부르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삼국이 정립했던 기간을 “삼국시기”로 부르다든가 신라가 통일을 한 후 사회체제나 생산양식이 변화

이밖에 부정기적인 간행물로서 『유적발굴보고』와 『고고학자료집』이 있는데 유적 발굴보고집은 단독 발굴 보고서로서 1956년 12월에 제1집 「라진 초도 원시유적 발굴보고」가 간행된 이후 1985년까지 14집이 발간 되었다. 고고학자료집은 발굴년도가 서로 다른 여러곳의 발굴자료를 한데 묶어 간행하는 종합적인 발굴보고서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1963년까지 3집을 발간한 이후의 자료는 입수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당의 로선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해설 선전”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발행되는 모든 잡지는 국가 기관이나 동맹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발간되고 있다. 때문에 내용의 일정 분량은 국가 이념이나 당 선전에 할애하고 있는점이 특징이다.

또한 모든 출판사는 정무원 산하 선전선동부의 출판총국에 의해 모든 과정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출판체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하겠다.

IV. 北韓에서의 建築史 時代區分 問題

1. 時代에 대한 用語概念

북한에서의 시대라는 용어의 개념은 인간의 생산양식의 기본적인 개념에 바탕을 둔 사회를 말할때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민들의 생산활동과 체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 되었는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섯가지 형태로 시대가 변화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즉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소유자사회, 봉건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는 시기를 근대로의 기점으로,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현대라고 하는데 이와같은 생산활동의 특징적인 변천에 따라 “시대”라는 용어를 부쳐 사용하고 있다. 시대라고 할 때 생산체제가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시대라는 말 보다는 시대의 체제를 특징짓는 “사회”라는 용어를 즐겨 쓰는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시대”는 인간의 생산양식과 체제에 바탕을 두게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생산양식과 체제가 구분되는 시간을 묶어서 “시대”라는 용어를 붙이고 그 안에서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기점들을 묶어서 “시기”라는 용어를 적용한다. 이때 시기라고 하는 시간적 단위는 대개 하나의 왕조가 탄생되어 멸망 할 때 까지의 존재기간을 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몇개의 왕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당시의 사회구조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시기”로 부르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삼국이 정립했던 기간을 “삼국시기”로 부르다든가 신라가 통일을 한 후 사회체제나 생산양식이 변화

지 않았으므로 이를 “후기신라시기”라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또한 발해가 개국한 이후 신라와 공존했던 기간을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라 부르는 것도 하나의 실례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 “시대는 곧 이와같은 생산양식이 동일한 많은 시기들을 하나로 묶어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시대는 인간사회의 발전양상이 하나의 특징을 갖고있는 커다란 시간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개념으로 이들은 원시공동체사회시대, 노예제사회시대, 봉건제사회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2. 時代區分의 틀과 그 特徵

시대구분은 역사적 발전단계를 구분하여 그 발전단계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설명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건축사의 시대구분은 건축의 발전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건축사적 논술은 시대구분론에 입각하여 서술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구분이 학자에 따라 다른 것은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논리이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시대적으로 세분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편리함은 있으나 시대간의 역사적 인과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건축사”라고 하는 분류사(또는 부분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시대구분은 필요해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인과관계보다는 건축양식 고찰의 명료성을 좀더 분명히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모든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건축사에 있어서도 시대구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과제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건축사연구 역시 우리와 같이 일반사의 한 분류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건축사 시대구분이 어떠한 관점으로 다루어지는가는 먼저 북한 역사학계의 관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역사관을 소위 ‘주체사관’이라 한다면 이 주체사관의 맥락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시원을 두고 있다. 1950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논쟁되기 시작한 시대구분 문제는 ‘교조주의 형식을 퇴치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주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기치로 정리해 나가게 된다. 이리하여 일제때부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주장해온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하여 시대구분을 시도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극복하고,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과정을 재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1962년에 “조선통사” 개정판을 간행하면서 이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이것은 북한 역사학계의 공통된 합의점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 하겠다.

공식적인 입장이란 우리역사의 시대구분을 원시공동체사회 → 노예소유자사회 → 봉건사회로의 발전과정으로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인류 역사를 소유관계에 근본을 둔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사적유물론에 귀착시키면서 인류가 오늘날까지 거처온 생산 양식의 기본적인 다섯가지 형태 즉,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흐름으로 이행과정에 있다고 믿고있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사회주의적 시대구분이라는 기본적인 틀안에 모든 부분사의 시대구분이 결정되고 건축사 또한 이와같은 틀로 시대구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時代區分에 대한 建築史的 脈絡

북한에서의 건축사 시대구분은 원시 및 고대건축, 중세건축, 근대건축, 현대건축으로 나누어진다.

원시시대건축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만년전에서 40만년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며 1966년 평양시 상원군 흑우리에서 발견된 '검은모루동굴유적'을 가장 이른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시대의 하한은 기원전 1천년 전반기까지로 하며 이 기간을 전부 하나의 원시공동체사회로 묶어서 구분한다. 여기에는 구석기시대를 비롯하여 신석기, 청동기시대를 포함하고 있다.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고조선이 한반도의 서북지방으로부터 요동지방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국가를 건설하게 된다. 이보다 좀 늦은 시기에 부여, 진국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을 한데 묶어 고대건축으로 시기를 정하였다. 이 고대건축의 사회경제체제는 노예제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고대건축은 삼국이 출현할 때까지, 즉 기원전 2세기말까지로 하고 있다.

중세건축은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왕조말 즉 19세기 중엽까지로 크게 정하고 있다. 봉건사회 전시대를 하나의 중세건축으로 삼고 세부적으로 각 왕조를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 구분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를 세분해 볼 때 첫째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시기로 나누고 두번째는 발해와 후기신라로, 세번째는 고려왕조를, 네번째는 조선왕조로 구분하고 있다.

근대건축은 19세기중엽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조선왕조말기가 되면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체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이미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조선사회는 농업, 수공업, 상업, 공업 등 모든 경제분야에서 서서히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생.발전하게 된다. 그 동안 사회를 지탱해 왔던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는 시기였다. 이에따라 새로운 사회에 요구되는 건축은 계획과 건설, 양식이 중세건축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진보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의 시점을 19세기 중엽으로 정하였으며 건축사 시대구분도 이

를 따르고 있다.

현대건축의 시점은 1926년부터로 설정하고 있다. 이 시점은 북한의 일반사학계에서 설정한 '현대'라는 시점에 그 시기를 맞춘 것인데 1962년 과학원창립 10주년 토론회에서 1866년을 근대의 기점으로, 그리고 1926년을 현대의 기점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어떻게 보면 1920년대 중반이라고하는 시점은 건축사 시대구분으로 볼때 그다지 중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1926년의 상황은 6.10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조선총독부 청사가 완공된 정도였다.

분류사의 시대구분이 일반사의 시대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남한학계의 학문적 특성과는 달리 모든 학문분야는 반드시 시대구분이 일치해야 한다는 북한 학계의 한 특징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1926년이 북한에서 시대구분의 중요한 시점이 되는것은 1926년⁷⁾은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타·동)'을 조직하고 항일투쟁에 나선 시기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건축의 역사맥락에서 볼때 기술사적으로나 양식사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역사적 사건도 없을 뿐더러 일반사적으로도 건축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설정한 현대건축의 시점은 건축사 시대구분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현대는 다시 세분되어 여러 시기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서술된 시대맥락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7) 좀더 정확히는 1926년 10월 17일

〈표 2〉 북한에서의 건축사 시대구분

명 칭		대 상 시 기	비 고
원 시 건 축		구석기-60만년전~40만년전부터 기원전 5천년 신석기-기원전 5천년부터 기원전 2천년 청동기-기원전 2천년부터 기원전 1천년 전반 철 기-기원전 1천년 전반기부터	평양시 상원군 옥우리 「검은 모루동굴유적」이 가장 이른 구석기유적
고 대 건 축		고조선(기원전 천년기 전반기) 부 여(기원전 천년기 후반기) 진 국(기원전 천년기 후반기)	요하류역 이동지역 및 이서 지방이 고조선영역. 은들의 시작
중세건축	삼국건축	고구려, 백제, 신라(기원전 3세기~기원후 7세기중엽)	봉건사회 첫단계, 고구려건축 가장큰 영향을 끼침
	발해, 후기 신라 건축	발해 및 통합 신라시대(7세기중엽~10세기 초)	건축형태와 기법의 다양화
	고려건축	고려왕조시대(10세기 초~14세기 말)	최초의 통일국가, 통일된 조 영기법의 확산
	리조건축	조선왕조시대(14세기 말~19세기 중엽)	봉건사회의 마지막 단계, 건 축세부장식의 다양화
근대건축	리조말근대 건축	봉건제도의 붕괴~일제의 조선강점(1910)	1866년(병인양요)을 근대의 기점
	1910-1920 년대전반기 의 근대건 축	일제의 조선강점(1910)~식민시대 중간(1925)	민족운동의 성격변화, 사회 경제체계의 변화
현대건축	1920년대 후반기~19 45년 건축	김일성의 항일투쟁 시작(1926.10)~해방(1945.8)	타도제국주의동맹운동, 식민 지청산
	해방후 민 주건설시기 건축	해방직후~6.25전쟁 직전(1945.8 ~ 1950.6)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근 로인민 대중의 사상미학적 요구에 부합할 것을 요구
	위대한 조 국해방전쟁 시기 건축	6.25전쟁 기간(1950. 6 ~ 1953. 7)	전시에 건설된 모든 건축은 전시환경에 적응하도록 요구
	전후복구건 설 및 사회 주의기초건 설 시기 건 축	전후 경제 복구시기로부터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시기(1953 ~ 1960)	건축이 민족적 형식과 사회 주의적 내용을 담을 것을 요 구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 시기 건축	제1차 7개년계획 수행시기(1961 ~ 1970)	건축의 과학화, 건설부재의 대형화, 경량화 요구
	사회주의 완전 승리 를 위한 투 쟁시기 건 축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사회주의 경 제도대를 강화하려는 시기(1970~1980년대 전반기)	건축을 하나의 예술로 생각 하고 창조적형식 요구

V. 各 時代에 대한 建築史 研究

1. 原始時代建築

일반역사학계의 식민사관에 대한 극복문제는 이미 해방 이전부터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유물유적발굴 사업 활동은 당연히 제약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민족주의 학자들이 아쉬워 했던 것은 고고역사적 유물로 한반도에 구석기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일제 어용학자들의 식민사관에 공식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일제의 점령지 내에서 연구인력도 미천한 가운데 이와같은 과제는 요원하기만 하였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의 원시시대 건축연구는 결국 고고학자들의 연구성과에 주로 의존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발굴조사의 목적중 중요한 일부분은 일제의 식민사관을 빨리 불식시키고 유구한 민족적 자존을 세우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구석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에 들어와 이미 여러곳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1963년 4월⁸⁾ 옹기군 굴포리 서포항동의 신석기시대 문화층 밑에서 여러개의 구석기유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굴포리 유적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느 곳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신석기시대 유적만이 발굴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시대 유적인 것이다. 발견된 석기는 유럽의 그것과 모양이 다르고 연해주의 출토품과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학자들은 이 독특한 유물로 인하여 이것을 “굴포문화”라고 명명하였다. 이와같은 굴포문화는 구석기 전기말과 후기의 것으로 그 상한은 중국의 정촌문화와 대등하며 하한은 중국의 산둥성, 씨비리 및 소련 연해주의 구석기시대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⁹⁾

그 다음 해에는 굴포리 서북방 50km에 있는 부포리에서 또한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었다. 1966년에는 평양의 검은모루유적,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유적, 함경북도 선봉군 굴포리유적, 평양시 승호구역 화천동유적,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유적 등이 발견되었다. 이밖에 여러 곳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는 사람의 뼈도 많이 발견되었다.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에서는 이른시기 고인의 머리뼈 「력포사람」화석이 나왔으며, 덕천 승리산 유적에서는 사람의 이빨이,

8) 이미 그전부터 발굴작업이 진행되어 오던 곳이었는데 1962년 가을 밑바닥에서 구석기시대의 대리석밀개 하나가 발견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9) 도유호·김용남,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와 이른 신석기시대의 년대론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4-4호』 58쪽

만달리 유적에서는 머리뼈가 출토되어 「만달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와같은 유적들은 구석기시대의 전기, 중기, 후기를 포함하는 것이며 고인과 신인의 뼈가 발견됨으로서 구석기시대 문화와 사람의 발전과정을 출토자료로 체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의 선조에 대한 시원문제를 언급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만달사람」을 신인단계의 인류화석으로서 우리 선조의 시원적 특징과 연결시키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또한 굴포리 서포항유적을 들 수 있다. 서포항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의 문화층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서 신석기 문화층에서 21개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이 신석기 주거지는 동시대의 것이 아니라 여러시대의 것이 서로 겹쳐진 것을 근거로 하여 대개 5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층위관계로 주변의 여러 유적들에 대한 상대년대가 밝혀졌다고 한다.

한반도의 서해안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대량 발굴되면서 이를 “공산문화”라 부르게 되었다. 이는 평안남도 온천군 공산유적지에서 신석기 주거지와 유물이 발견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공산문화의 분포범위는 청천강 유역에서부터 한강 유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다. 특히 이들은 한강유역의 암사동유적까지 공산문화 유적 범위에 넣어두고 있다.

이밖에 북한의 유적으로는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 평양시 룡성구역 장촌유적, 평안북도 정주군 대산리 당산유적, 황해남도 해주시 룡당포유적 등이 있다. 이 공산유적을 상대년대로서 제4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의 암사동유적은 그 중에서 1, 2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 후기문화를 창조한 사람을 「송리산사람」과 「만달사람」이라고 하며 이 사람들이 신석기시대에 들어와 완전한 우리의 선조가 되었다고 한다.¹¹⁾ 그 중에서도 「만달사람」이라 부르는 신인단계의 인류화석을 우리민족의 시원문제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고 있다.¹²⁾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물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를 대략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초까지로 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구석기시대에 비해 비교적 많이 발굴되었는데 유적을 보면 유문토기를 비롯하여 많은 유물에서 이들의 독특한 문화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황화유역이나 씨비리일대의 신석기문화와는 본질적으

10) 김용간·손량구, 「조선고고학전서(원시편 석기시대)」 105쪽 과학, 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11) 서국태, 「조선의 신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7쪽 1986.

12) 장우진, 「조선사람의 시원문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3호』 7쪽

로 구별되는 특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대륙 동쪽의 넓은 지역에는 문화적으로 공통성을 지닌 거례의 주민집단이 살았으며 이들이 바로 우리민족의 시원을 이룬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¹³⁾

2. 古代建築

북한에서의 고대는 古朝鮮, 扶余, 辰國이 그 중심이 된다.

고조선의 국가형성과 영역을 해명하는 문제는 구석기시대의 존재여부를 밝히는 문제만큼 중요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다. 이 문제의 해명은 식민사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존에 대한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고조선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때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60년대 초에 고조선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의 해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논문발표와 더불어 학술토론회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출토유물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국가의 형태를 밝혀내기에 이른다.

특히 1964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3년간 발굴, 조사 및 연구사업을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서북지방에서부터 요하유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적들은 고조선주민들이 남긴 유적들이며, 비파형 단검을 비롯한 특징적인 유물들은 같은시기 주변국들의 유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고유의 청동기 문화였으며 이는 곧 고조선이었다고 주장하였다.¹⁴⁾

고조선은 700여년이상 존속했던 국가이며¹⁵⁾ 그 중 기원전 3-2세기의 정세를 보면 기원전 230년경 준이 국가를 세우고 왕위에 올라 통치를 하다가 기원전 194년경 멸망하고 만왕조가 들어섰다. 그후 약 90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였다는 것이다.¹⁶⁾ 이들은 요동지방에 그 중심을 두고 서로는 대릉하로부터 남쪽의 예성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의 집자리로 대표적인 것은 청천강반의 세족리유적과 요동반도 끝의 윤가촌유적이다.

세족리유적은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에 이르는 여러 시기에 걸쳐는 집자리가 서로 중첩되어 있다. 최상층은 철기시대층으로서 기원전 3-2세기에 속하며 그아래 놓인 청동기시대층이 고조선시대에 해당된다. 이 청동기시대층은 세시기로 구분된다.¹⁷⁾

13) 서국태, 앞책 7쪽

14) 황기덕·박진욱·정찬영, 「기원전5세기-기원3세기 서북조선의 문화」 『고고민속 문물집 3호』 1쪽 사회과학출판사 1971

15)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120쪽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16)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고조선문제 연구논문집」 41쪽 사회과학출판사 1977.

17)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120쪽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이 세족리유적의 상층에서 5개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는데 그중 2개의 주거지에서 온돌시설이 발굴되었다. 이 주거지는 동서 5m, 남북 5.8m인데 "1"자 형의 외줄고래 온돌이 길이 약 3~4m정도 있었다. 이 온돌시설은 납작하고 긴 돌을 놓고 그 위에 얇은 판돌을 덮어 만들었는데 맨 앞부분에는 고래보다 깊은 아궁이를 두었다. 이러한 시설은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의 화덕이 발전된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온돌의 시원이 되었다고 한다.¹⁸⁾

고조선 유물은 이미 일제때에도 발굴되었으나 다만 발표가 되지 않았다. 북한에서의 유물 발굴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63년도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고조선유물은 주로 청동기가 위주였고 이들은 함경도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지역을 보면 함경북도에서는 종성군 동관리(1953년 출토)가 있고, 함경남도에서는 신창군 하세동리(1958년 출토), 토성리(해방전), 홍원군 운초리(1958), 퇴조군 송해리(1960), 함주군 대성리(해방전과 1952년), 홍남시 호상동(1953, 1958), 영흥군 소라리 토성내(1956), 개성시(개풍군, 판문군 19787 - 1987) 등이다.

한때 평양을 그 세력의 중심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들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유물이 황해남도 구월산, 황해남도 황주부근, 충남 천안군 광덕면 대평리, 경북 경주부근, 경북 영천군 화산면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준왕 등 고위급 통치집단이 쫓겨 내려가 마지막 집결지였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¹⁹⁾

이보다 늦게 부여와 진국이 출현하였다. 이 두 나라는 고조선의 동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들 나라들은 강력한 노예제사회였으며 따라서 이들 노예의 소유자들은 노동력을 이용해 통치자들을 위한 궁전과 저택, 거대하고 호화로운 분묘를 만들었다고 한다. 진국의 각종 출토 유물로 보아 그 북쪽에 위치한 선진적인 고조선의 영향을 받아 문화가 발전되었다고 한다.²⁰⁾

북한에서의 고대사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원과 관련시켜 매우 정열적으로 진행 하였다. 특히 고조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노력은 고고학측면에서 특히 활발히 진행 되었다.

고대건축과 관련된 대표적인 몇가지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전주농, 고조선 문화에 관하여 -토광무덤 년대의 고찰을 중심으로-문화유산 1960-2호」

18) 리화선, 「조선건축사 1」 25쪽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19) 전주농,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유물에 관하여」『고고민속 63-1호』 17쪽

20) 김재용, 「진국에서의 좁은덧단검문화의 형성과 고조선문화와의 관계」『조선고고연구 1991-3호』 11쪽-13쪽

- 정찬연, 고조선의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가지 문제 『문화유산 1960-3호』
- 도유호, 고조선에 관한 약간의 고찰 『문화유산 1960-4호』
- 도유호, 고조선문화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1-5호』
- 전주농, 고조선의 공예미술 『문화유산 1962-3호』
- 전주농, 고조선의 공예 『문화유산 1962-4호』
- 도유호, 진번과 옥저성의 위치-고조선 영역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1962-4호』
- 도유호, 왕검성의 위치(토론) 『문화유산 1962-5호』
- 전주농,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유물에 관하여 『고고민속 1963-1호』
- 백현행, 석암리에서 나온 고조선유물 『고고민속 1965-4호』
- 안영준, 함경남도에서 새로 알려진 좁은숫단검 관계 유적과 유물 『고고민속 1966-4호』
- 김용간·황기덕,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1967-2호』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논문집 1호』 사회과학출판사 1969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조선문화의 특성과 그 발전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6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조선의 사회성격과 그 형성시기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6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조선의 령역과 그 시기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6
- 박영초, 조선인민견제사(원시-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
- 박영초, 고조선에서 수공업의 발전 『역사과학 1989-2호』
- 왕성수, 개성부근에서 나온 고조선관계 유물 『조선고고연구 1988-1호』
- 김재용, 진국에서의 좁은숫단검문화의 형성과 고조선문화와의 관계 『조선고고연구 1991-3호』
- 김재용, 진국에서의 중기좁은숫단검문화의 발전과 고조선 좁은숫단검문화와의 관계 『조선고고연구 1991-4호』

3. 中世建築

가. 三國時期建築

북한에서의 삼국시대는 중세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또한 노예제사회로부터 봉건

제사회로 넘어가는 첫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세라는 커다란 시간속에 삼국은 하나의 시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삼국시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시기의 시간적 한계는 고구려가 개국한 때부터 삼국이 정립하고 있던 7세기 중엽으로 한다. 삼국은 이후 2천년동안 지속되는 봉건사회시대 건축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봉건시대의 건축양식과 기술을 이때 체계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건축연구에 있어서 이들이 특히 많은 부분을 고구려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분단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신라의 3국통합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다.

고구려는 특히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강대국이었고 건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기술과 양식이 삼국중에서 가장 앞섰으며 백제와 신라, 가야의 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목조건축의 구조시스템과 장식수법도 이때에 체계화되어 백제, 신라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건축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비록 3국을 통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중세초기 건축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했었다고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다.

해방후 삼국시대에 관한 발굴조사는 1948년 평양시 낙랑리의 한식고분이 그 시작이었으며 그후 1949년 안악 제1,2호무덤, 안악 제3호무덤, 1952년 룡동성 무덤, 1954년 황주군 순천리유적, 운성리 토광무덤, 은산 남옥리무덤 등 주로 고분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1957년에는 정백운이 「조선 고대 무덤에 관한 연구(1),(2)」를 발표하게 된다.

이와같이 해방직후 50년대말까지 북한에서 삼국시기사 연구는 분묘에 주로 치중되어 있었고 그것도 고구려분묘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 조금씩 건축으로 접근되는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삼국시기 건축에 관한 논문류 및 단행본이 꾸준히 발표되는데 1968년까지는 그런대로 심없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1968년부터 1972년까지는 삼국시대 건축에 관한 어떠한 글도 찾아볼 수가 없다.²¹⁾ 그후 1973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평양 대성산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서 다시 삼국시대 건축에 대한 글들이 나오게 된다. 최근까지 약 70여편이 되는데 매년 발표되는 것을 보면 적을 때는 1-2편이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한해에 7-8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삼국중 역시 대부분이 고구려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21) 이때 역사, 고고, 민속학분야의 기관지가 몇년간 발행되지 못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구논문이 발표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기관지 발간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분단된 상황이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은 남측의 고구려 건축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연구현황과도 같은 현상이라 하겠다.

북한의 고구려 건축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에 관한 연구이고 두번째는 안학궁전지의 발굴과 그 연구, 그리고 세번째는 정릉사지 발굴과 연구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평양성 연구는 채희국과 최희림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연구성과들을 발표하는데 1978년에 『고구려평양성』이라는 단행본이 발간되면서 연구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1970년대부터 평양 대성산성 일대의 고구려유적을 조사하면서 안학궁전지가 발굴되었다. 이 안학궁은 고구려 후기 궁전건축의 기술과 양식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연구논문 또한 하나의 업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릉사지 발굴조사는 우리나라 삼국시기의 불사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이 정릉사에 대한 연구성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과 일본의 伽藍연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 이후 삼국의 건축에 관한 글중 분묘를 제외하고 년대별 발표 논문류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

- 전주농, 최근에 발굴한 고구려 벽화 자료(자료) 『조선미술 1962-10호』
- 전주농, 최근에 발굴한 고구려 벽화 자료(자료) 『조선미술 1962-11호』
- 전주농, 최근에 발견한 고구려 벽화 자료(자료) 『조선미술 1962-12호』
- 전주농, 최근에 발견한 고구려 벽화 자료(자료) 『조선미술 1963-1호』
- 박문원, 일본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미술가들(3)-건축 조각가편- 『조선미술 1963-4호』
- 김영진, 삼국시기의 기와 벽돌무늬 『고고민속 1964-4호』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대성산 일대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유적 발굴보고 제9집)』 과학원출판사 1964
- 박황식, 미천왕릉(안악 제3호)의 건축구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1호』
-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과정에 대하여(토론) 『고고민속 1965-3호』
- 정찬영, 초기 고구려문화의 몇가지 측면 『고고민속 1965-4호』
- , 남녘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4) -백제의 서울. 부여의 유적들- 『조선미술 1965-7호』
- , 남녘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5) -신라의 서울. 경주- 『조선미술 1965-10호』

- 김기웅, 배천산성 답사보고 『고고민속 1966-1호』
- 정찬영,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2호』
- 정찬영, 우리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고고민속 1966-4호』
- 박문원, 삼국시기 미술사 년표(참고용 자료) 『역사과학 1966-4호』
- 박문원, 삼국시기 미술사 년표(참고용 자료) 『역사과학 1966-5호』
- 리경직, 삼국시기 탑파양식과 그 특징(평론) 『조선미술 1966-11호』
-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호』
- 최희림,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성벽축조 형식과 시설물의 배치상태 『고고민속 1967-2호』
- 박문원, 미륵사 전설에 대하여(삼국 미술연구 4) 『조선미술 1967-1호』

<1970년대>

-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 민속학강좌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73
-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5
- 김일성종합대학,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6
-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12
-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리화선, 새로 복구한 대성산성의 남문 『역사과학 1979-2호』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 (증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79.9

<1980년대>

- 리화선, 안학궁의 터자리 복원을 위한 몇가지 문제 『역사과학 1980-1호』
- 채희국, 고구려 수도의 변천과 봉황성 환도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0-2호』
- 한인호, 정릉사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1-2호』
- 최희림, 황주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2-2호』
- 안영찬, 새로 발굴한 고구려의 다리 『역사과학 1982-3호』
- 문화보존연구소, 『우리 나라 역사 유적』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7
- 한인호, 고구려건축의 역사적 지위 『고고민속논문집 제9호』 1984
- 김기웅, 고구려산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제9호』 1984
- 한인호, 삼국시기 탑의 변천과 그에 반영된 건축술 『역사과학 1985-1호』
- 장종국, 고구려에서의 도로 발전 『역사과학 1985-2호』
- 최창빈, 신원에서 고구려시기의 큰 도시유적 발견(학계소식) 『역사과학 1985-4』

- 호』
- 허철준, 정릉사 평면복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고찰 『역사과학 1986-4호』
 - 한인호, 정릉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3호』
 - 리화선,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 구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4호』
 - 한인호, 우리 나라 중세 도시 리방제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2호』
 - 남일룡,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4호』
 - 조인규·김순영·리철·리임출·박현중, 『조선미술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1
 - 한인호, 고구려 탑터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역사과학 1988-2호』
 - 박창수, 427년 평양천도 이전시기 고구려 성들의 분포 『역사과학 1988-4호』
 - 박창수, 고구려 산성의 위치선정의 우월성 『조선고고연구 1988-2호』
 - 김영숙, 고구려 무덤벽화에 그려진 기둥과 두공장식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4호』
 - 박영초, 조선인민경제사(원시-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4
 - 리화선, 고구려 평양성 외성안의 리방의 형태와 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9-1호』
 - 손영종, 고구려의 남도, 북도와 환도성의 위치에 대하여(1) 『역사과학 1989-3호』
 - 손영종, 고구려의 남도, 북도와 환도성의 위치에 대하여(2) 『역사과학 1989-4호』
 - 리화선, 벽화두공을 통해 본 고구려 건축물의 두공 『조선고고연구 1989-3호』
 - 리경식, 고구려 무덤 벽화 구도에서 공간의 리용 『조선고고연구 1989-4호』
 - 리화선, 『조선건축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12

<1990년대>

- 궁성희, 고구려 무덤들에 보이는 부뚜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1호』
- 안병찬, 장수산일대의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호』
- 리경식, 고구려 무덤벽화에 적용된 립체표현수법 『조선고고연구 1990-2호』
- 한인호, 백제의 성곽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4호』
- 장상렬, 고층나무탑을 기본으로 1탑3금당식 사원 건축형식의 력사적 기원 『역사과학 1990-2호』
- 최창빈, 4세기말-5세기초 고구려의 국남7성과 국동6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0-3호』
- 한인호, 삼국시기의 절간유적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제12호』 1990
- 손수호, 흘골산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1호』

- 한인호, 사비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2호』
- 최승택, 장수산성의 축조년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3호』
- 한인호·리 호, 안학궁터부근의 고구려리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호』
- 최승택, 장수산성 1호건물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호』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3권 고구려편1 성, 건축물』 외국문종합출판사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5권 고구려편3 벽화무덤』 외국문종합출판사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6권 고구려편4 벽화무덤』 외국문종합출판사1991. 1.
- 김경찬, 황해남도지방의 해안방어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2-2호』
- 한인호·리 호, 평양성 외성안의 고구려도시리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993-1호』
- 한인덕, 성산리토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3-1호』

나. 渤海 및 後期新羅 建築

발해는 고구려를 직접 계승하여 698년부터 926년까지 230여년간 존재했던 나라이다.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 그 유민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신라와 양국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으로 “통일신라”라는 용어는 근본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시각이다.

남한 역사학계에서 발해에 대한 연구는 북한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 북한에서의 발해 연구는 고구려의 역사적 맥락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일찍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것은 박시형이 『역사연구 1962년1호』에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로부터 시작되었다. 고구려 민족의 정통성 추구하고 민족적 자존을 확립하는 정치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발해에 대한 연구성과는 괄목할 만한 정도가 되었다. 다만 현재의 지리적 상황으로 인하여 당시의 강역과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연구성과에 비해 떨어져 있는 듯하다.

1933-34년 일본의 東亞考古學會에서 발해의 上京龍泉府(발해왕조기간 동안 가장 오래 존속했던 도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²²⁾ 여기서 일인들이 밝힌 발해는 ‘靺鞨의 지배자였던 大祚榮이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병합하여 세운 나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보고서는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の發掘調査)이라는 이름으로 東亞考古學會 주관으로 1939년(昭和14)에 발간 되었다.

북한에서의 발해연구는 이와같이 발해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한 식민주의 학자들, 그리고 발해문화에 대한 역사적 지위를 쉽게 인정치 않으려는 주변국 학자들에 대한 전면적 반박인 동시에 고구려 멸망후 우리민족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며, 나아가 우수한 민족의 전통문화를 더욱 넓고 깊은 곳까지 심오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 결과 발해는 지금의 한반도 중부 북한과 중국 동북지방의 일부 및 소련 연해주일대를 포괄하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영역은 5경 15부 62주의 정연한 행정체계를 세우고 각종 산업이 당시로서는 괄목할 정도로 발달하였고 신라를 비롯하여 唐, 日本 등과도 활발한 교류를 갖는 ‘해동성국’으로 이름을 날렸다.

불행하게도 당시 발해인들이 남긴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들이 남긴 각종 유적과 유물은 발달된 문화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도성의 완벽성을 보여주는 상경룡천부를 비롯하여 오동성터, 서고성터, 팔련성터, 청해토성터, 소밀성터 등과 같은 행정단위 소재 유적이 있었고 군사요새지로서 성자산성, 성장습자산성, 거산성, 소련지역의 크라스노야로브스크산성 등이 발해의 우수한 문화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제 남한 학계에서도 인정하게 되었다.

최근의 글에 의하면 발해 5경중 하나인 남경남해부의 위치가 청해토성이 있는 함경남도 신창군 토성이었음을 밝히고²³⁾ 여기서 출토된 각종 유물과 함께 관청지, 온돌시설, 분묘 등은 발해의 유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 유물중에는 고구려의 년호가 새겨진 것도 출토 되었는데 이것은 고구려 때 만든것이 발해때까지 그대로 전승된 것이라고 한다.

1971년에 발표된 발해건축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은 발해의 건축양식과 기술을 밝혀주는 중요한 글 들이다. 특히 장상렬의 “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발해의 주거형태, 건축구조기술, 계획기법, 건축술에 나타난 특성 등을 잘 나타내 주고있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발해건축과 관련된 장상렬의 논문은 이밖에도 수편이 있어 이 분야의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발해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1962이면 이제 30여년이 지났다. 연구시간에 비하면 성과물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니다. 발해의 영역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광대한 지역임을 모르는바 아니나 국외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쉽지 않은 북한의 국내사정이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남한 건축사학계에서는 발해건축에 대한 접근이 전무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건축사가들의 공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23) 김종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해유적발굴에서 이룩된 성과」, 『조선고고연구 1992-1호』

발해건축과 관련되어 그 동안 발표된 논문류와 저서로는 다음과 같다.

- 박시형,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역사과학 1962-1호』
- 최운학, 발해 <정혜공주묘비>(자료) 『역사과학 1965-3호』
- 주영헌, 발해 중경 현덕부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1호』
- 주영헌, 발해의 공예 『고고민속 1967-1호』
- 장상렬, 료동성탑(자료와 연구) 『고고민속 1967-1호』
- 주영헌,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자 『고고민속 1967-2호』
- 장상렬, 발해상경돌등의 재임새(자료와 연구) 『고고민속 1967-3호』
- 이정기, 청해토성 및 교성리토성 답사보고(답사보고) 『고고민속 1967-4호』
- 장상렬, <건축유산연구> 상경돌등 『건축과 건설 1967-5호』
- 장상렬, 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 『고고민속논문집 3호』 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고고학연구소, 몇개의 발해건축에 대한 외곽복원 『고고민속논문집 3호부록』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주영헌,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12
- 손영종, 발해의 서변에 대하여(1) 『역사과학 1980-1호』
- 손영종, 발해의 서변에 대하여(2) 『역사과학 1980-2호』
- 리준걸, 함경남북도일대의 발해유적유물에 대한 조사보고(발굴 및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86-1호』
- 장상렬, 발해의 도시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3호』
- 조인규·김순영·리철·리임출·박현중, 『조선미술사 1』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7.1
- 채희국, 발해의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2호』
- 한인호, 발해의 영광탑 『조선고고연구 1988-3호』
- 김종혁·김지철, 신포리 오매리 금산발해건축지 발굴중간보고 『조선고고연구 1989-2호』
- 리화선, 『조선건축사 1』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9.12
- 김종혁·김지철, 신포리 오매리 절골1호발해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0-2호』
- 채태형, 발해동경릉원부-훈춘팔련성설에 대한 재검토 『역사과학 1990-3호』
- 김종혁, 청해토성과 그 주변의 발해유적 『조선고고연구 1990-4호』
- 장국중, 발해의 6부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0-4호』
- 김혁철, 실학자 류득공의 발해력사관 『역사과학 1991-1호』
- 장종국, 발해본토의 주민구성 『역사과학 1991-2호』
- 채태형, 발해 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1-3호』

- 리대희, 발해의 역참로 『역사과학 1991-3호』
- 김혁철, 실학자 홍석주의 발해력사관 『역사과학 1991-4호』
- 김종혁, 김지철, 금산 2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1-3호』
- 한인덕, 김책시 동흥리 24개 돌유적 『조선고고연구 1991-4호』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8권 발해편』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김종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해유적발굴에서 이룩된 성과 『조선고고연구 1992-1호』
- 류병홍, 발해유적에서 드러난 기와막새무늬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1992-4호』

한편 중국측에서도 발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1960년에 單慶麟의 「渤海舊京城址調査」(文物參考資料 1960-6期), 郭文魁의 「和龍渤海古墓出土的 靑銅金飾」(文物 1973-8期)을 비롯하여 약 20여편이 국내에 알려져 있으며 이중 역사학 분야에서 연변대학의 方學鳳교수가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후기신라”는 남한에서 말하는 통일신라이다.

북한에서 “통일신라”에 대해 역사적 관점이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정치외교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발해의 개국은 통일시대를 불과 몇년 지속시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발해의 개국과 더불어 양분되는 국가시기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관이 통일신라보다는 “후기신라”라는 용어를 쓰게된 근본적인 이유라 하겠다. 조금 다르게 “통합신라”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실은 1960년대 이전에는 “통일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한적이 있다.

후기신라건축에 관한 북한의 연구는 지리적 조건이 갖는 제한성 때문에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남측 역사학계의 통일신라와 북한의 발해연구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남측에서의 발해연구가 북측의 신라연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의 후기신라 건축에 관한 연구는 통사나 문화사와 같은 종합 역사서술에 부분적으로 삽입되면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내용을 다룬 비중에서도 발해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 시기의 건축에 대해 그들은 “건축유형별로 구성수법이 더욱 다양해졌으며 건축계획과 형성에서 더욱 체계성이 부여되고 규범화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축재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건축공간을 형성하며 구조기술

도 한층 발전시켰다. 회화와 조각을 건축과 조화있게 결합시키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고 전반적인 구성과 세부적인 것들이 조형적으로 완성되면서 한층 세련된 건축을 만들었다.”²⁴⁾라고 이시기의 건축을 평가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표된 후기신라 건축에 관한 논문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리여성, 석굴암 조각과 사실주의 『문화유산 1958-4호』
- 역사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 연구실, 통일 신라 시대의 금석문(자료) 『역사과학 1958-2호』
- 박문원, 사천왕 부각 벽들과 신라 조각가 량지(조선 미술사의 기초 축성을 위하여 14) 『조선미술 1962-9호』
- 조준오, 우리 나라의 찬란한 문화유산 -신라의 석굴암 예술- 『조선미술 1964-4호』
- 박진욱, 신라 무덤의 편년에 대하여(토론) 『고고민속 1964-4호』
- , 남녘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5) -신라의 서울 경주- 『조선미술1965-10호』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문화사(원시-중세편)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 문화보존연구소, 우리나라 역사유적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 조인규·김순영·리 철·리임출·박현종, 조선미술사(1)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7
- 리화선, 조선건축사(1)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9
- 김정수, 조선조각사(1) -고대. 중세편- 조선미술출판사 1990

다. 高麗建築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는 고려라는 것이 북한 역사학계의 통일된 인식이다.

고려는 처음부터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임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고려에 대한 역사의식은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을 잇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그것은 곧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고려를 은연중 역사적 맥락이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불과 1천년 이내이고 현재 남아있는 목조건축도 있어 연구가 비교적 진행된 실정이다. 북한에서 고려시대 목조건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중 남아있는 것으로는 成佛寺 應眞殿, 博川 深源寺 普光殿, 燕灘 心源寺 普光殿, 平壤 崇仁殿이고, 6.25전쟁중 파괴된 것을 나중에 복원한 것으로는 묘향

24) 리화선, 『조선건축사 1』 167-8쪽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산 보현사 만세루, 성불사 극락전이 있다. 남아있는 건축물들은 1958년 하반기에 설치한 '문화유물 보존 사업소'에서 순차적으로 실측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단편적인 논문류만 발표되었다.

북한에서 해방후 최근 1991년까지 이루어진 고려건축과 관련된 연구는 대략 논문류가 40여편이고, 고려건축이 하나의 장으로 다루어진 종합적인 저술류로는 약 15편 정도가 된다.

논문류로 볼 때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분야는 성곽으로 11편이고, 그 다음이 도성 및 왕궁으로 7편이다. 이밖에 목조건축 6편, 농묘 6편, 탑파 5편, 주택 및 집 자리 2편의 순이다. 당시의 寺址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1편밖에 보이지 않아 寺址 연구가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외 건축과 약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5-6편이 소개되고 있다.

저술류에 속하는 것으로는 역사유적을 소개하는 것이 있고 건축사, 미술사, 조각사 등과 같이 부분사 중에 서술되는 것도 있다. 특히 고려왕궁 만월대를 대상으로 당시 용척에 관한 장상렬의 일련의 논문 3편이 있다. 그 중에서도 고고민속 11호에 발표한 "고려왕궁-만월대 건축에 쓴 측도기준"은 발굴조사에 나타난 수치로 당시건축에 사용된 각종 자(尺)의 길이를 밝혔고 나아가 고려의 다른 건축, 조영물과도 비교하여 자들의 편년을 밝혀낸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논문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쓰여진 자는 고구려 자와도 부분적으로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급도 있다. 결국 고구려의 역사적 전통이 고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른 시대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이중 목조건축과 도성 및 왕궁, 탑파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최희림, 박천군 심원사 보광전 건축에 대한 고찰 『문화유산 1961-6호』
- 박황식, 성불사의 건축미(미술상식) 『조선미술 1965-1호』
- 로응주, 심원사의 건축미술 『조선미술 1966-10호』
- 천창원, 정방산성과 성불사(미술상식) 『조선미술 1966-12호』
- 변룡문, 묘향산의 보현사(유적소개) 『역사과학 1979-3호』
- 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 『역사과학 1980-2호』
- 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2) 『역사과학 1980-3호』
- 개성발굴조, 개성 만월대의 못과 지하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발굴 및 조사 보고) 1986-3호』
- 장상렬, 만월대 장화전 건축군의 배치와 거기에 쓴 자에 대하여(자료와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6-4호』
- 문화보존연구소, 연탄 심원사(역사유적소개) 『역사과학 1987-2호』

- 정룡해, 고려돌탑의 유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4호』
- 장상렬, 고려왕궁-만월대 건축에 쓴 축도기준 『고고민속론문집 1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정룡해, 고려 돌탑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1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정찬영, 만월대유적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1989-1호』
- 정룡해, 고려돌탑의 년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9-1호』
- 장상렬, 만월대 회경전 건축군에 쓴 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9-3호』

고려의 건축적 특징은 그동안 여러 국가단위로 수행해 오던 건축조영이 하나의 국가단위 사업으로 재편되면서 지역적 특징보다는 통일된 조영기법과 양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봉건왕조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방대한 국가적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한 왕실을 중심으로 한 왕족들의 개인적인 건축조영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건축기술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고려 왕궁이었던 만월대는 궁성과 황성을 합하여 125만², 궁성만 39만²가 되는 면적에 궁전을 만들었다. 만월대는 좌우가 트인 경사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실제보다 더욱 높고 웅장하게 보이게 된다. 이러한 궁성 배치방법은 고구려의 배치법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이며 여기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발해의 그것과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역사적 정통성의 근거는 바로 이러한데서 근원을 찾으려고 한다.

라. 朝鮮王朝建築

북한에서는 조선왕조를 “리씨왕조”라고 한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이미 오래전에 비판이 있었던 적이 있다. 북한에서 이 명칭을 공식화한 것이 흑지금의 “조선”(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혼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되지만 어쨌든 명칭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본 항에서는 “조선왕조”로 통일해 부르기로 한다.

조선왕조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개국과 더불어 새로운 권력자들의 明에대한 ‘以小事大’ 사상과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한정된 국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유학이 국가의 지배사상이 되면서 더욱 사대주의로 빠져들게 되었으며, 특히 성리학의 이론과 행동규범들은 인민들로 하여금 봉건왕조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후세에 큰 해독을 끼쳤다고 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조선왕조의 정권, 통치체제는 ‘소수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형태의 봉건적 착취를 보장하며 저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계

급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강제로 만든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정권²⁵⁾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왕조가 수립되면서 그 전반기는 봉건적 통치체제가 재편되는데 관료질서나 기구는 대개 고려의 것을 그대로 이름만 바꾸어 답습하였고, 통치권력이 정치적 기반을 다져가면서 생산력이 발전되고 이를 바탕으로 봉건문화가 개화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조선왕조 초기건축을 보는 시각은 조선통사에 그 일단이 피력되어 있다.

이 시기 건축예술은 고려건축의 성과들을 계승하면서도 그전에 없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5세기 이후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통치사상으로 삼은 것은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5세기 이후 나타나는 건축의 특징은 전보다 웅장해지고 경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궁전은 왕조의 권위를 높이고 인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고려때 보다 더욱 웅장하게 하였다.

왕조초기의 실권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권위를 세우고 봉건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양성 건설을 추진하였는데 한양성에서 건축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것은 숭례문등 웅장한 루각건축이다.

이 시기 성문건축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평양 보통문(1473), 개성 남대문(1394), 의주 남문(1520), 평양 대동문(1636) 등으로서 규모가 크고 건축구성에서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보통문은 그 양식이 고려시기의 포식(주심포)과 같으며 수법이 매우 세련되고 형태가 우아하고 단정하다. 이 보통문은 고려말의 장식수법을 계승하고 있으나 건축구성이나 세부양식요소에서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수법은 평양의 대동문에 전승되었다.

왕조의 후반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그동안의 각종 건축조영을 경험으로 생산력이 증대해지면서 봉건문화가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²⁶⁾ 이와같은 시기에 실학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건축에서도 보수적이고 허례적인 건축술이 퇴조를 보이고 반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건축이 나타나게 된다. 당시 실학사상이 건축에 영향을 주고있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의 실학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 분야에서 주로 접근되고 있는데 이미 1960년대 초에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실학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과 의의는 우리나라 민속학사의 연구기점을 어디서부터 잡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었다. 민속학 연구의 기점을 실학으로 볼 때 연구사의 맥락은 자연히 일제시대를 배제하게 되며 학문의 민족적 전통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 (상)」 304쪽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6) 리화선, 「조선건축사 1」 323쪽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에서의 건축사 연구는 두군데의 연구주관처로 접근되고 있다. 하나는 고고학분야에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민속학분야에서의 접근이다. 1952년 과학원을 창설하면서 그 산하에 '물질문화 연구소'가 설치되어 연구사업을 진행하다가 1957년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로 개편이 된다. 개편된 연구소는 내부에 고고학연구실, 민속학연구실, 미술사연구실이라는 3개의 실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건축사 연구는 미술사연구실에서 연구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건축사 연구가 비록 독립된 학문분야가 되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구논문이 발표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조선왕조시대의 건축 연구는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로 개편된 때를 같이하면서 발표되는데 이 당시 연구자로는 전장석, 박황식, 김재효, 리종목 등이 주로 활약 하였고 60년대에 들어와 황철산이 민속학 측면에서 주택에 관한 논문을, 윤충현, 김경수, 천창원, 조준오 등이 조선왕조시대의 건축물에 대한 소개서 정도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1968년부터 70년대말까지 북한에서의 건축사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시기의 다른 연구분야도 이같은 실정이다. 1979년에 들어와 몇개의 논문들이 소개되면서 연구가 활성화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986년부터 김내창과 리재선이 주택에 관한 일련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미 6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한 리화선의 활동도 8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진행된다. 한편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와 문화보존연구소에서도 많은양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57년 연구소가 개편된 이후 조선왕조시대의 건축과 관련된 논문류 및 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장석, 북청 지방의 민속 『문화유산 1957-4호』
- 박황식, 종성 향교의 건축 양식 『문화유산 1957-4호』
- 전장석, 북청 지방 건축에서의 문'살형식 『문화유산 1957-6호』
- 김재효, 수원성의 축성형식 『문화유산 1958-5호』
- 리종목, 남칠 농업 협동 조합의 주택에 대한 민속학적 고찰 『문화유산 1959-1호』
- 리종목,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유형과 그 형태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문화유산 1960-5호』
- 리종목, 우리 나라 농촌 주택 발전에 관한 민속학적 고찰 『문화유산 1960-6호』
- 리종목, 과거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각 방의 리용과 그 설비 『문화유산 1961-1호』
- 황철산, 지봉 리수광이 조선 민속학 분야에 남긴 유산 『문화유산 1961-4호』

- 전주농, 조선 고고학의 창시자 추사 김정희 『문화유산 1961-4호』
- 전장석, 연암 박지원이 남긴 조선 민속학의 고귀한 유산 『문화유산 1961-5호』
- 박승동, 경성 성제와 그 방어 체계 『문화유산 1961-6호』
- 리종목,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1
- 황철산, 성호(星湖) 리 익(李 瀾)이 조선 민속학 분야에 남긴 업적 『문화유산 1962-2호』
- 박황식, 고적과 미술 <보통문> 『조선미술 1962-6호』
- 박황식, 대동문과 련광정 『조선미술 1962-7호』
- , 함흥 본궁의 건축 미술 『조선미술 1962-10호』
- 박황식, 금수산 부벽루 『조선미술 1962-10호』
- 문화성물질문화유물보존사업소, 『우리 나라 주요 유적』 군중문화출판사 1963.12
- 윤충현, 민족건축유산을 찾아서(5) -루정건축- 『건축과 건설 1964-4호(루계83호)』
- 윤충현, 민족건축유산을 찾아서 『건축과 건설 1964-6호』
- 천창원, 부벽루와 을밀대(자료) 『조선미술 1964-4호』
- 조종오, 『우리 나라 단청미술에 관한 연구』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1964.3
- 황철산, 우리 나라 과거 주택의 유형과 그 형성 발전 『고고민속 1965-3호』
- 김경수, 보통문건축에 대하여 『건축과 건설 1965-6호』
- 최석근, 새로 발굴된 <평양도> 『조선미술 1965-2호』
- 조준오, 의주의 남문과 통군정(고적소개) 『조선미술 1965-3호』
- , 남녘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1) -서울성곽- 『조선미술 1965-4호』
- , 남녘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2) 『조선미술 1965-5호』
- , 남녘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3) -수원성곽- 『조선미술 1965-6호』
- , 단청 무늬(강좌) 『고고민속 1966-1호』
- 박황식, 우리 나라 돌로 쌓은 성벽 구조에 대한 약간의 기술 자료-수원성과 함북 경성성을 중심으로-(자료) 『고고민속 1966-2호』
- 문화유물보존연구소,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편람』 군중문화출판사 1966.4
- 문화보존연구소 유적연구실, 강계 인풍루(유적소개) 『역사과학 1979-1호』
- 박득준, 19세기말 우리 나라에서의 근대 교육운동 『역사과학 1979-3호』
- 김기웅, 안주성과 백상루를 쌓은 시기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2-3호』
- 장종국·박영해·고광섭·원종규, 『묘향산의 역사와 문화』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7
- 문화보존연구소, 『우리 나라 역사 유적』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7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금강산의 역사와 문화』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4.9

- 장상렬, 동선관문의 건축년대와 형식(유적소개) 『역사과학 1985-2호』
- 리재선, 우리 나라 서북 산간지대 주택의 변화발전 『조선고고연구 1986-3호』
- 강근조·리혜경, 『평양의 어제와 오늘』 사회과학출판사 1986.9
- 김내창·선희창,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86.6
- 조인규·김순영·리철·리임출·박현중, 『조선미술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1
- 주재걸, 리조시기 가구장식의 종류 『조선고고연구 1989-2호』
- 김내창, 량통집의 유래와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9-3호』
- 리화선, 『조선건축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12
-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벽축조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3호』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8
- 김정수, 『조선조각사 1 (고대중세편)』 조선미술출판사 1990.10
-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곽시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1호』
- 선희창, 『조선의 민속(재판)』 사회과학출판사 1991.7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3권 리조편1 성, 궁성』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4권 리조편2 건물, 구조물』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5권 리조편3 절』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6권 리조편4 절, 유물』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리영민, 경성읍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방봉수체계와 그 시설물 『조선고고연구 1992-1호』

VI. 分野別 建築史 研究

1. 살림집

민가의 순수한 우리말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살림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남한에서 '민가'라 하면 흔히 주택중에서도 반가에 대비되는 일반서민주택을 말하는데 '살림집'이라는 용어는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장상렬, 동선관문의 건축년대와 형식(유적소개) 『역사과학 1985-2호』
- 리재선, 우리 나라 서북 산간지대 주택의 변화발전 『조선고고연구 1986-3호』
- 강근조·리혜경, 『평양의 어제와 오늘』 사회과학출판사 1986.9
- 김내창·선희창,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86.6
- 조인규·김순영·리철·리임출·박현중, 『조선미술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1
- 주재걸, 리조시기 가구장식의 종류 『조선고고연구 1989-2호』
- 김내창, 량통집의 유래와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9-3호』
- 리화선, 『조선건축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12
-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벽축조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3호』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8
- 김정수, 『조선조각사 1 (고대중세편)』 조선미술출판사 1990.10
-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곽시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1호』
- 선희창, 『조선의 민속(재판)』 사회과학출판사 1991.7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3권 리조편1 성, 궁성』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4권 리조편2 건물, 구조물』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5권 리조편3 절』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6권 리조편4 절, 유물』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리영민, 경성읍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방봉수체계와 그 시설물 『조선고고연구 1992-1호』

VI. 分野別 建築史 研究

1. 살림집

민가의 순수한 우리말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살림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남한에서 '민가'라 하면 흔히 주택중에서도 반가에 대비되는 일반서민주택을 말하는데 '살림집'이라는 용어는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살림집이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는 '주택'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으며 건축 분야에서 순수한 우리말다듬기사업을 실시한 60년대 중반부터 '살림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서 현재는 이 두개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소유관계에 근본을 둔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사적유물론에 근거하여 모든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주택도 다른 물질문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경제적, 계급적 제약을 많이 받기는 하나 주택 그 자체만은 계급성을 띄고 있지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연환경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은 인간이 노동을 통한 생산활동 과정에서 창조된 하나의 물질적 富로 보기도 한다.

북한에서의 살림집에 관한 연구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첫째는 우리민족의 기원문제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고대사를 연구하던중 자연히 考古學으로 접근하면서 선사시대 주거지가 밝혀져 시작되었던 것인데 주로 각 시기의 주거지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두번째는 民俗學분야에서 연구가 접근된것을 들 수 있다. 특히 民俗學 측면에서 접근된 연구는 현존하는 살림집에 대한 과학의 한 범주로 인식하고 실태조사를 병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考古學이든 民俗學이든 모두 역사과학의 범주로 인식하고 연구조사, 연구기관, 교육체제 등을 전환시켜 갔던 것이다.

이 두개 연구의 접근이, 하나는 선사시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살림집의 변천과정을 시대순으로 걸쳐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는 현존하는 살림집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변천과 시원문제를 밝혀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방법이든 살림집에 대한 연구는 植民地歷史學, 植民地民俗學의 청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명제가 그배경에 깔려 있었다.

이 문제는 1957년 기존의 '물질문화사연구소'가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로 개편되면서 이 연구소의 중요한 사업에 관하여 언급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때 발표한 글에 이러한 내용이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일제시대에 일본제국주의 통치자들은 저희의 식민지적 착취를 좀더 철저히 하기위하여 조선의 민속을 조사한 바 있다. 그리고 어용학자들 중에도 다소 연구 성과를 남긴자가 있다. 그러나 그 성과들은 모두일정한 경향성을 가진 것으로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여 조선의 민속학을 바로 수립하는데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²⁷⁾

따라서 해방이후 북한에서의 살림집에 관한 연구는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직접관찰'이라는 기본적인 방법론을 채택

27) 도유호,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과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당면과업 『문화유산 1957년 1호』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인민들의 생활양식과 특성, 그리고 생산 및 발전과정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히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있기때문에 주택의 형태에대한 상세한 기록은 자연히 등한시 하게 되고 따라서 관련분야(예를들면 건축학)와의 학제간 연계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겠다. 이들의 연구논문에 나타난 도면이 자료로서 가치가 부족한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본 절에서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현존하는 주거형태에 대하여 연구된 결과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북한에서의 이시기 주택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에 들어와 民俗學분야에서 접근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주택연구는 건축학적 배경이 바탕이 아니였기때문에 상세한 도면작업이 이루어지지않고 개략적인 도면으로 내용설명을 뒷받침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民俗學적 접근방법은 몇가지 분류방법을 적용하면서 주택형태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도 유형분류의 기준을 몇개의 기본요소, 예를들면 지붕구조 및 재료, 벽체구조, 평면구조 등을 적용 분류해 볼 수 있으나 이것으로 전체를 하나의 틀로 구성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평면구성과 용마루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주택의 형태분류를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용마루를 중심으로 그 아래 평면구조가 어떻게 구성 되었는가를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 주택유형을 크게 외통집과 양통집으로 구분 하였다. 말하자면 외통집은 용마루 밑에 각실들이 외출로 배치된 평면형태이고, 양통집은 외통집과는 달리 용마루 밑에 각 실들이 두겹 또는 세겹으로 배치되어있는 평면형태를 말한다.

외통집은 다시 외채집, 쌍채집, 꺾음집, 파리집으로 세분하고, 양통집은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 정주간이 없는 양통집, 세겹집으로 세분하고 있다.²⁸⁾

외통집과 양통집의 세분된 유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채집은 외통집에서도 평면이 “一”자로된 형태인데 부엌, 아랫방, 옷방이 일렬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에서도 주로 빈농계층의 주택이라 하겠다.

쌍채집은 외채집 2동이 전후로 배치되는 형태 즉 남쪽에서 흔히 말하는 “二”자형 주택을 일컫는다. 농가주택에서 경리, 수납공간이 추가로 요구될때 본채의 앞이나 뒤에 추가로 증축되면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추가된 공간은 일부를 방으로

28) 이러한 분류형태는 1960년대 논문인 리종목의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류형과 그 형태」(『문화유산 1960년 5호』)에서 볼 수 있으나 이때는 북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고 우리나라 남북전체를 대상으로 유형분류한 논문이 ‘황철산’에 의해 1965년 『고고민속』에 발표되었다.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로 경리시설로 사용하며 채와 채 사이는 담으로 막아 그 공간을 안뜰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쌍채집 대부분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후에 추가된 것이라 하겠다.

꺾음집은 평면형태가 두가지로 세분된다. 하나는 “ㄱ”자형 평면이고 다른 하나는 “ㄷ”자형 평면이다. 이 두개의 평면은 원형이 외채집과 쌍채집에서 각각 변형된 것으로 보고있다. 그 근거로는 “ㄱ”자형인 경우 평면의 기본적인 구성이 외채집의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만 본체의 한쪽에 실을 하나 덧붙인 상태이고, “ㄷ”자형인 경우는 쌍채집의 양 건물 사이에 편중하여 협채를 세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다. 이러한 꺾음형 주택은 주로 황해도 해주에서 동북으로 뻗은 멸악산맥 이남지역, 개성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평면의 대부분은 대청이 없으나 부유한 농가를 비롯한 일부 주택은 대청을 두고있기도 하다.

꺾음집 중에서도 “ㄷ”자형 살림집은 “ㄱ”자형이 연장된 평면으로 보고있다. 이 경우 가운데 부분을 안뜰로 사용하고 안뜰의 트인부분을 막아 대문을 설치하게 된다. 이 평면 역시 “ㄱ”자형과 같이 대청의 유무에 따라 2가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청이 없는 “ㄷ”자집은 대청이 없는 “ㄱ”자형 꺾음집과 모든면에서 대동소이하고 그 분포구역도 유사하다. 즉 멸악산맥 이남지대가 그 분포구역으로 된다.

그러나 개성지구에 접근하면서 같은 “ㄷ”형으로 된 주택이라 해도 “ㄱ”자형으로 된 꺾음집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청이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도 대청이 있는 “ㄱ”자형 꺾음집의 분포구역과 대체로 동일하다.

만일 이 두가지현상 즉 “ㄷ”형으로 된 주택에서 대청이 있는것과 없는 지대를 구분한다면 그것은 대략 황해남도 연안, 평천 지대와 황해북도 평산, 강원도 이천, 철원 등을 경계선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짜리집은 흔히 “ㅁ”자집이라 부르는 평면형식을 말한다. 북한에서의 명칭은 ‘또아리’형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른 말로는 우물“井”자 집이라고도 한다. 이 평면의 구성은 외통집으로 되어야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집은 원칙적으로 외통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 서민들 보다는 상류계층이 주로 사는 집이기에 이러한 주택을 “봉건 통치배들이나 지주들이 살았던 집이고, 실제로 이런집 구조가 당시의 살림형편으로는 필요하지도 않았다”³⁰⁾고 비판하고 또한 배치구조에 대해서는 “안이 바깥과 완전히

29) 리종목,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유형과 그 형태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문화유산 1960-5호』 8쪽

30) 선희창, 조선의 민속(재판) 94쪽 사회과학출판사 1991. 7

격리되어 있으며 통풍과 햇빛을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있어서 정원과 방이 어두침침하고 답답한 감을 자아내게 한다”³¹⁾고 단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이와같은 따리집을 상류계층이 선호하였던 것은 그들의 부유롭고 안이한 생활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며, ‘인민’들의 접근을 두려워 하여 집안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같은 집구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시각때문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또한 연구내용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반가에 대한 연구는 일반 살림집의 한 범주정도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양통집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용마루 밑에 각 방들이 두겹 또는 세겹으로 배열되어 있는 평면형태를 말하는데 주로 두겹이 많고 세겹집은 강원도 철령이남지방에만 두겹양통집과 혼재되어 있다. 외통집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겹집평면이 된다. 말하자면 기둥을 겹으로 세워 각실의 평면이 두줄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평면형태의 시원을 찾아 올라가면 신석기시대 후기 및 청동기시대 유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집자리의 실례로 함경북도 범의구 석유적 9호와 31호, 오동유적 8호와 5호를 들 수 있다.³²⁾

방을 두줄로 배치한 량통집은 다시 정주간이 있는것과 봉당이 있는것, 그리고 대청이 있는 세개의 유형으로 세분된다.³³⁾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은 량강도와 함경도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이를 북부형이라 한다. 봉당이 있는 양통집은 강원도, 황해북도 동쪽, 그리고 일부는 산간지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이를 중부형이라 한다. 대청이 있는 량통집은 남해안 일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이를 남부형이라 부른다.

양통집 중에서 세겹집은 평면의 가운데에 봉당을 두고있는데 봉당이 있는점으로 보아서는 중부형과 비슷하나 집의 실배열이 세겹으로 되어 오히려 “∩”자형 집과 비슷한 점도 있다. 이 세겹집 평면은 다른것에 비해 규모가 크기때문에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내용의 변천을 볼때 주택연구가 시작되었던 60년대 초에는 북한지역의 실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때문인지 유형분류가 완벽하지 못하였다. 그후 60년대 중반

31) 선희창, 앞책 99쪽

32) 김내창, 량통집의 유래와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9년 3호』 24쪽

33) 1960년에 세겹집을 제외한 양통집 평면형태는 ‘정주간이 있는것’과 ‘없는것’으로만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연구범위가 넓어졌고, 특히 반도의 남해안 지방 주택까지 범주에 넣었기 때문에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에 들어와 남한의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서 남부형 또는 마루가 있는 량통집 등의 유형이 분류항목에 삽입되기 시작하였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전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저서들이 약간 보이기도 하는데 역시 지역분단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북한에서 살림집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으로는 '리종목'을 첫번째로 꼽을 수 있다. 리종목의 연구는 民俗學的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1959년에 '考古學 및 民俗學연구소' 기관지인 『문화유산』을 통해 「남칠 농업 협동 조합의 주택에 대한 민속학적 고찰」을 비롯하여 「조중 친선 농업 협동 조합 마을과 주택」을 발표하게 된다. 그후 60년에 들어와 역시 『문화유산』에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류형과 그 형태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우리 나라 농촌 주택 발전에 관한 민속학적 고찰」, 「과거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각 방의 리용과 그 설비」를 연이어 발표하게 된다. 이 잡지를 통해 발표된 논문을 보충하여 다음해인 1961년에 단행본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과학원출판사)」를 출간하게 된다. 그후 리종목의 논문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사람으로 '황철산'이 있다. 그는 민속학자로 주로 민속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그중 1965년에 『고고민속』을 통해 「우리 나라 과거 주택의 유형과 그 형성 발전」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80년대 전반기까지는 주택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지 않다가 1986년에 들어와 '이재선'에 의하여 다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80년대에 들어와 활동한 연구자들로는 이재선, 김내창, 선희창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발표된 논문과 저서로는 다음과 같다.

- 이재선, 우리 나라 서북 산간지대 주택의 변화발전 『조선고고연구 1986-3호』
- 김내창, 금강산일대의 아름다운 풍속 『조선고고연구 1986-4호』
- 김내창·선희창,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이재선, 우리나라 산간지대 인민들의 식의주 생활풍습의 변화 발전(창성을중심으로) 『고고민속논문집 1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김내창, 량통집의 유래와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9-3호』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선희창, 『조선의 민속(재판)』 사회과학출판사 1991.

북한에서의 이와같은 주택연구가 일제식민지 民俗學的 청산이라는 것으로 출발 하였지만 결국 이들이 목표로 하는 큰 명제는 '인민을 위한 민속학'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이 어떠한 살림집에서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이런 살림집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나?, 또한 살림집에 나타난 좋은점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느냐? 하는것이였다. 이들 논문내용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점이라 하겠

다.

한편 살림집의 연구에는 考古學 측면에서 접근한 논문들이 있는데 이는 주로 선사시대 집자리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이 연구는 시대별 건축사연구 항목에서 언급 하였듯이 考古學者들의 발굴조사와 연구에서 성과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民俗學분야와 같이 발굴조사 목적은 일제의 식민사관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고 유구한 민족적 자존을 세우려는 의도가 가장 큰 목적중 하나였던 것이다. 다음 글에서 그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시기 우리나라 考古學을 독점하였던 일제 어용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원시시대유적을 몇곳 되는대로 파헤치고 유물을 끄집어낸 일은 있으나 원시집자리를 제대로 발굴하여 그 재임새를 밝혀놓은것은 없다. 그들이 구석기시대 유적은 물론이고 신석기시대집자리를 찾아낸것은 하나도 없으며 ‘석기시대’ 유적이라 하면서 파헤친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한두개 있으나 그에 대한 발굴보고조차도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 나라 유적을 파괴한채 내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원시시대의 집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발굴 및 연구 사업이야말로 해방후에 비로서 시작된 분야의 하나이다.」³⁴⁾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과정중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선사시대 살림집 연구’였던 것이다. 해방직후부터 발굴사업이 과학원 산하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주관으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결과물은 1950년대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연구내용을 생략하고 집자리와 관련된 연구논문, 논술, 저서, 보고서 등 목록만 소개하기로 하겠다.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라진 초도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집)」 과학원출판사 1956.12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공산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2집)」 과학원출판사 1957.12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강계시 공귀리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6집)」 과학원출판사 1959.11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회령 오동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7집)」 과학원출판사 1960.5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지탑리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8집)」 과학원출판사 1961.11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금탄리 원시유적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0집)」 과학원출판사 1964.6

34) 김용남·김용간·황기덕, 우리 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1쪽 사회과학출판사 1975.

- 박선훈·리원근, 원시 시대의 큰 부락터를 발견(유적답사) 『고고민속 1964-3호』
- 서국태, 신의주시 상단리의 고려 집자리(발굴보고) 『고고민속 1966-1호』
- 정찬영, 우리 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고고민속 1966-4호』
- 김용남·김용간·황기덕, 「우리나라 원시 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75
- 리기연, 「석탄리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2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0.1
- ,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4
- 황기덕, 「조선의 청동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4.4
- 김용간, 「조선의 구석기 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4
- 서국태, 「조선의 신석기 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6.5
- 변사성·고영남, 마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9-4호』
- 김동일, 마산리유적의 청동기시대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1호』
- 궁성희, 고구려무덤들에 보이는 부뚜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1호』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권 원시편」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2. 都城 및 都市

북한에서 도성에 관한 연구는 고구려의 도성이었던 평양성과 고려의 도성이었던 개성성이 가장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고있다. 분단상황으로 보아 이 두개를 집중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은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발해의 도성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치지리적 환경으로 발굴조사로는 쉽게 접근하지못하고 있으며, 백제도성, 신라도성 또한 같은 실정이라 하겠다.

평양성에 관한 연구는 해방후인 1949년에 황 옥이 『문화유물』에 발표한 「고구려 고도 -평양성잡고-」로부터 시작된다. 황옥은 원래 考古學者였기 때문에 이 방면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의 부족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후 15년간 후속연구가 나오지 않다가 1965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당시 평양성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으로는 채희국을 비롯하여 정찬영, 최희림을 들 수 있다.

채희국은 1957년 『문화유산』에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유적」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그 가운데 '장안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³⁵⁾

35) 채희국,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유적 -고구려 평양 천도 1530주년에 제하여- 『문화유산 1957-5호』

조선왕조시대에도 장안성에 대한 해석이 있기는 했지만 그곳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이론이 있었던 터였다. 채희국은 이 글에서 장안성이 고구려 후기의 도성인 평양성(현재의 평양시지역)과 같은 곳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삼국사기』와 중국사서인 『新唐書』, 그리고 평양성벽에서 발견된 몇개의 “刻字石”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1961년 일본에서 三品彰英에 의해 「高句麗王都考」라는 논문이 발표된다. 36) 이 논문은 중국측 사료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삼국사기에 나타난 평양성으로의 천도를 비판하고, 평양시대에 고구려왕도의 2차천도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전후를 통하여 왕도는 한곳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용이 은연중에 장안성은 고구려성이 아닐 것이라는 분위기의 논술을 펴고 있다.

채희국은 이 논문이 발표된 4년후인 1965년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게되는데37) 이 글에서 “고구려 장안성은 외성, 중성, 내성, 북성이라는 네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기 247년 북성을 축조하였다. 평양성의 본격적인 착공은 552년이며 완공은 569년이다. 도시전체를 포괄하는 대규모 도성건축으로 발전한것은 551~586년 사이이다. 따라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것은 586년이며 이 성이 수도였던 기간은 586년부터 668년까지 83년간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三品彰英의 논문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채희국의 논문이 발표된 다음해 정찬영은 『고고민속 1966-2호』를 통해 채희국의 평양성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인정하면서도 축조년대와 기록에 나오는 황성의 위치 해석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즉 장안성이 552년에 착공하여 569년에 완공한것이 아니라 593년에 완공하였다는 것이다. 586년 천도하고 나서도 7년이나 더길게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공사기간은 42년이 걸렸다고 하면서, 황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채희국이 주장한 지금의 북성이 아니라 평양성 동쪽 고방산의 용당산성(龍塘山城)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8)

평양성에 관한 연구논쟁은 고구려역사와 문화를 밝히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최희림이라는 학자가 끼어들게 된다.

최희림은 일인학자를 포함한 세사람의 논문이 발표된후 1967년 「평양성을 쌓은년대와 규모」라는 논문을 발표한다.39) 이 논문에서 그는 두사람의 연구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년대추정에 대해서는 여러 근거와 함께 지형조건에 따른 축성기술 등을 들어 이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평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네개의 성 외성, 중성, 내성, 북성 모두 고구려때 쌓은 것이며 그중 내성과

36) 三品彰英, 高句麗王都考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批判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第1輯』 1961. 5 日本

37)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년3호』

38) 정찬영,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2호』

39)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년3호』

북성은 566년에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569년에 완성하고 외성과 중성은 569년에 착수하여 579년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586년 장안성으로 移都했다는 기록과는 7년의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 7년동안은 성곽시설이 아니라 궁궐정비, 비원, 관아, 주택 등 도시건설사업을 진행했던 기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최희림은 이어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성벽축조형식과 시설물의 배치상태」⁴⁰⁾를 발표하고 10년후인 1978년 이 논문들을 보완 정리하여 하나의 단행본을 내놓게 된다.⁴¹⁾ 이후 평양성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두사람에 비해 최희림은 이후 계속 城(都城 및 山城)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이 방면의 전문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글로서 평양성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고구려의 도성은 몇번에 걸친 천도끝에 마지막으로 서기586년 대동강과 보통강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도성인 평양성(장안성)이다.

고구려의 도성은 처음에는 들레에 성을 쌓지않은 도시형태 였으나 나중에 주변에 성곽을 쌓은 도성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평양성이다. 입지조건은 동, 남쪽으로는 대동강, 서쪽으로는 보통강이 해자 역할을 하고, 북으로는 금수산이 장벽 역할을 하는 천년의 요새지라 할 수 있다.

성의 들레길이는 약 23km, 성안의 총면적은 1,185만²m이다.⁴²⁾

일반적으로 도성의 구조는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평양성은 외성, 중성, 내성, 북성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네부분은 서로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다.

평양성에서 비교적 도성의 형태를 잘 나타내 주고있는 것이 외성이다. 이 외성은 일반 백성들의 거주지인데 고구려시대의 리방제도 흔적이 남아있다. 이 리방은 대체로 6세기 후반기 경에 건설된 것으로서 중세 우리나라 도시건설에 적용된 첫 리방중 하나였다.⁴³⁾ 이곳에서 강자갈로 포장된 도로가 발견 되었는데 20Cm정도의 강자갈이 포장되어 있었다. 도로의 너비는 12.6-12.8m이다. 도로 양쪽에는 약 60-70Cm 너비의 검은색 감탕흙층이 들어 났는데 그것은 길옆의 도랑자리로 확인되었다.⁴⁴⁾

외성 안에서는 ‘석표’라고 하는 돌로 만든 팻말이 발견 되었는데 그것은 도로를 구획한 교차점의 네귀에 있었다. 이것은 주민구역의 경계표식이었던 것이다.⁴⁵⁾

40) 최희림,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성벽축조형식과 시설물의 배치상태 『고고민속 1967년 3호』

41) 최희림,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42) 역사과학연구소, 고구려문화 40쪽 사회과학출판사 1975

43) 리화선, 고구려 평양성 외성안의 리방의 형태와 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9년 1호』 27쪽

44)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104쪽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45) 이 경계표식을 “법수”라고 하는데 원래 나무로 되어 있었으나 임진왜란때

중성은 외성과 내성 사이의 부분으로, 말하자면 만수대 남쪽에서 남북으로 내려 쌓은 성벽사이 구간을 가리킨다. 중성안의 동쪽에서는 조선조때의 함구문과 주작문을 연결하는 중심가로가 대동강과 평행되게 남북으로 뻗어 있었다. 그리고 함구문과 주작문, 정양문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 외성안에서와 같이 정연한 리방에 준하여 형성되어 있었다.⁴⁶⁾

내성은 평양성내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궁전을 비롯한 왕실의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 배치되었던 곳이다. 이곳의 지형 조건과 규모로 보아 왕궁지로 추측되는 곳은 만수대이며 이곳은 지대가 높아서 전망이 가장 좋은 건물지가 되는것이다.

북성은 내성의 북쪽끝인 을밀대에서 최승대를 돌아서 청류벽 마루를 타고 부벽루를 거쳐 동암문으로 올라 와 내성벽에 연속된 주위 7,908척의 성벽과 북의 현무문 및 남의 전금문으로 구성 되었다.⁴⁷⁾ 이 성은 평양성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며 지형을 잘 이용하여 쌓아 성내에서도 산성의 형식을 가장 잘 갖춘 성이라 하겠다.

도성내 條坊制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周禮』 「考工記」에 기록이 있어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방제를 적용한 도시가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보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불행하게도 일정때 일인학자에 의해 그 일부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關野 貞과 藤島玄治郎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방제가 고구려의 평양에서도 이미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게해 주는 조선왕조시대의 여러 자료가 있는데⁴⁸⁾ 당시의 문헌에서는 이것을 고구려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평양성내에는 정연한 井田형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井田형 도시유적이 명확치는 않지만 고구려의 도시유적임을 처음으로 밝힌것은 1957년 채희국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⁴⁹⁾ 그후 다른 글에서 단편적인 내

훼손된후 돌로 다시 만들어 세웠다고 한다. 그후 “석표”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다.

46) 리화선, 조선건축사(1) P. 5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12

47)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호』 P. 24 사회과학원출판사

48) 주로 조선시대의 기록과 그림이 남아 있다. 기록으로는 14세기 중반에 쓰여진 韓百謙의 『箕田遺制說』이 있고 이 문헌내에 “箕田圖”라는 그림이 있다. 또한 조선말기에 그려진 작자미상의 “平壤圖”에 外城의 里坊이 표현되어 있다. 이 밖에 조선말기에 쓰여진 『箕子志』내의 “井田圖”등이 있다. 그러나 이 그림들은 고구려의 里坊을 그리려 한 것이 아니고 箕子朝鮮을 표현한 것이지만 유적은 고구려의 것이기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49) 채희국의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유적 -고구려 평양천도 1530주년에 제하여-」(『문화유산 1957년5호』)라는 논문이며 이 글에서 필자는 이 유적이 조선조때 韓百謙이 주장한 기자의 井田유지가 아니라 田자형으로 구획된 고구려의 도시유적일 것으로 추측하고 그 근거로 지층에서 발견된 대동강들로 포장된 도로와 출토된 각종 고구려 기와파편 등을 들고있다.

용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이 유적이 언급되어 오다가 1987년 한인호는 이것이 고구려의 도시리방제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발표하였다.⁵⁰⁾ 여기서 ‘방’은 도시를 구성하는 소규모 단위면적을 말하며 ‘방’을 여러개 묶어 ‘리’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도시계획기법을 말한다.

한인호는 이 논문에서 그동안의 유적과 기록을 바탕으로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그 앞뒤 양옆에는 중도로와 소도로를 번갈아 배치하였는데 그것은 동서로 15개의 중도로와 17개의 소도로, 남북으로 13개의 중도로와 12개의 소도로를 내어 정연한 동서장방형의 도로망체계가 형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고구려에서 이와 같은 리방제도를 창안하여 도시건설에 도입한 것은 이미 평양성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며 당시 주변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고구려건축술의 우수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리화선은 1989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고구려 리방제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⁵¹⁾ 이 논문에서 리화선은 한인호와 달리 평양성 외성안의 리방은 장방형이 아니라 정방형으로 되었다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리, 방의 크기와 도로폭 등을 밝힌다. 각종문헌을 종합하여 한개의 리는 4평방 분할법에 의하여 나누어진 16개의 ‘방(전)’으로, 1개의 방은 2평방분할법에 의하여 나누어진 4개의 ‘작은방(구)’으로 이루어지고 리는 모두 64개의 ‘작은방’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문헌에 나와있는 방의 구획수와 1930년대에 남아있던 도시 흔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창광산 서남쪽 중성벽으로부터 거피문까지의 거리가 대략 2,100m로서 1개의 리는 700m가 되며, $700\text{m}/4(175\text{m})$ 로서 1개의 방의 길이가 된다. 작은방의 길이는 $175\text{m}/2$ 로서 87.5m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고구려자(尺)로 환산해본 리방의 규모는 <표 3>과 같다.

<표 3> 고구려 리방의 크기

리방 \ 크기	한변(도로축간)의 길이 (고구려자)	면적 (고구려자)
리	2,000	2,000×2,000
방	500	500×500
작은방	250	250×250

<자료: 조선건축사1>

50) 한인호의 논문 「우리 나라 중세 도시리방제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년 2호』)와 최근 한인호, 리 호가 공동발표한 「평양성외성안의 고구려도시리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993년1호』)가 있다.

51) 리화선, 고구려 평양성 외성안의 리방의 형태와 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9년1호』

외성내의 대로는 리와 리 사이에 모두 나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서방향으로 외성안의 중심부를 관통한 고리문-다경문사이에 있고 이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함구문과 정양문을 연결하는 남북대로는 각각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거피문을 연결하는 남북대로는 있었다. 말하자면 거피문을 통하는 남북대로, 고리문-다경문을 연결하는 동서대로, 그 북쪽으로 각각 함구문과 정양문을 통하는 남북대로는 외성안의 기본도로였다. 1953-4년에 이 도로가 발굴되었는데 실측치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대도로의 폭

도 로 위 치	실 측 치	환산치수 실측치수	(고구려자) 복원치수
고리문-다경문	13.8~14.0	37.4~40.0	40
거피문을 통하는 남북대로	13.8~13.9	39.4~39.7	40
함구문을 통하는 남북대로	13.9~14.0	39.7~40.0	40

<자료 : 『역사과학 1989-1호』>

이와같은 리방제도에 대해 리화선은 지형조건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서, 남북으로 질서정연하게 가로망을 형성하고 계산하기 쉬운 용근수를 확대 단위기준으로 하여 2평방 혹은 4평방 분할법으로 부지총계획을 한것은 고구려의 도시계획법이 상당히 높은수준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리방제도는 강력한 봉건국가 고구려의 통치질서에 부합된 것이고, 나아가 후세 중세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평양성 외성내의 도시리방제도는 이미 그전부터 있었던 제도였다는 것을 한인호는 그의 논문에서 밝힌바 있는데, 고구려 도성을 평양성으로 옮기기전의 도성은 대성산성 아래 안학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당시 도시구획흔적이 안학궁 아래쪽으로 넓게 형성되어있었던 유적이 발견되었다.⁵²⁾ 이 일대는 안학궁의 남쪽이며 동서남북에 각각 방위성들이 배치되어 있고 전면으로 대동강이 감돌아 흐르고 있어 천년의 요새지로 도시가 형성되기에 가장 알맞은 지형조건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고구려때의 것으로 보이는 건축지와 규칙적인 도로구획 흔적도 발견되었다. 큰 도로구획에는 반드시 작은도로가 가로 세로로 나있고 2평방으로 구분되며 “田”자모양 정방형평면으로 되어있었다. 구획의 작은것은 각각 140m

52) 한인호·리 호, 안학궁터 부근의 고구려리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년 4호』

이고 큰것은 동서, 남북이 각각 280m이다.

1980년대에 대동강변에서 고구려시대의 나무다리터가 발견 되었는데 그 위치는 안학궁의 남측정문에서 남향으로 곧바로 뻗으면 닿는곳이다. 한인호는 이 논문에서는 안학궁과 그 앞의 리방흔적, 도로유적 등을 기본으로 이일대의 도시리방을 복원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도시계획에서 리방제가 적용된 또하나의 도시유적이 황해남도 신원군에서 발견되었다. 이 도시유적은 대동강의 지류인 재령강상류의 신원군 아양리와 월당리에 남북 약 4.5Km, 동서 약 4Km범위에 걸쳐있었는데 전지역에 걸쳐 리방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리방들은 동북-서남, 서북-동남 방향의 직각으로 교차되는 들담 또는 흠담들에 의하여 정연하게 구획되어 있어 평양의 외성에 있는 것과 공통점이 있다. 이 신원군의 도시유적은 규모나 구성형식으로보아 평양, 개성, 서울, 경주, 부여 다음가는 중세전반기의 가장 큰 도시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고있다.⁵³⁾

이밖에 동시기(삼국)의 도성에 관한 논문으로 한인호의 「사비성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1991년 2호)가 유일하다.

발해 및 후기신라의 도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편의 논문제목만 소개한다.

- 주영헌, 발해 중경 현덕부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2호』
- 채태형, 발해동경룡원부-훈춘팔련성설에 대한 재검토 『역사과학 1990-3호』
- 채태형, 발해 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1-3호』
- 장상렬, 발해의 도시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3호』
- 장국종, 발해의 6부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0-4호』
- 한인호, 우리 나라 중세 도시리방제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2호』
- 장국종, 발해의 <고려후국>의 존립과 그 수도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2-2호』

고려시대의 도성에 관해서는 전용철이 『역사과학』 1980년 2호와 3호에 발표한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 (2)」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조선건축사(1)」의 고려편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있을 뿐이다. 북한에서 주제별로 다루어진 논문중에 고려의 도성이 오히려 고구려나 발해의 그것에 비해 볼때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느낌을 주고있다.

3. 佛寺建築

53) 최창빈, 신원에서 고구려시기의 큰 도시유적 발견(학계소식) 『역사과학 1985년4호』

북한에서의 불사건축 연구는 고구려의 여러 실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60년대부터 전문용어의 우리말다듬기 작업을 해 오면서 건축사 분야에도 많은 용어가 우리말화 되었다. 불사건축과 관련되어 이들이 고쳐쓴 용어로는 ‘절간’, ‘절터’, ‘나무탑’, ‘돌탑’, ‘탑터’, ‘회랑터’ 등이 있으며 이 용어는 그 전부터 써오던 용어들과 함께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가 고구려에 처음 전해진 때는 서기 372년 소수림왕 2년 6월이다⁵⁴⁾ 이때 秦王 符堅이 사신과 함께 중 順道를 보내왔다. 그후 동왕 4년에 중 아도가 들어왔다. 이는 삼국중 불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한 반도에 최초의 불교도 입이기도 하다. 그후 고국양왕 9년(392년)에는 불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칙서를 내리게 되면서⁵⁵⁾ 고구려에 불교가 널리 확산되었던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불사로는 소수림왕 5년 2월에 肖門寺를 지은것이 최초의 것이다. 뒤이어 伊佛蘭寺를 건설한 것이 두번째 불사이다. 이로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불사건축이 시작되었다. 그후 광개토대왕 2년(393)에는 평양에 9개의 불사를 건설하고⁵⁶⁾ 문자왕 7년(498)에 금강사를 창건함으로써⁵⁷⁾ 대중화된 불교사원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문헌상 알려진 불사로는 초문사, 이불란사, 금강사, 반룡사, 령탑사가, 그리고 평양에 9개의 불사가 있다. <표 5 >

<표 5> 자료에 나타난 고구려 불사

불 사 명	초창년대	위치
肖 門 寺	소수림왕5년 (375)	
伊 佛 蘭 寺	“	
平 壤 의 9 寺	광개토왕2년 (393)	평양
金 剛 寺	문지왕7년 (498)	평양
盤 龍 寺	보장왕9년 이전(650)	
靈 塔 寺	“	평양성 서측 대보산

54)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제6

55)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故國壤王 9년 「…九年春…三月 下教 崇信佛法 求福…」

56)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光개토왕 2년8월

57)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이절의 유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하나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淸岩里의 寺址가 그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淸岩里寺址와는 별개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 절들은 문헌에 이름이 남아 있으나 그 규모나 배치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요동의 옥왕탑을 7층 목탑으로 세웠다는 것과⁵⁸⁾ 령탑사의 탑이 8면 7층 석탑이라는 기록이 있어⁵⁹⁾ 간략한 형태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기록과는 달리 지금까지 고구려의 불사유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평양시 려포구역 무진리의 定陵寺址, 대성구역의 金剛寺址,⁶⁰⁾ 상오리사지, 토성리사지, 영명사지, 증흥사지, 樂寺址, 평천리사지 등이다.

고구려는 우리나라 삼국중에서 가장 먼저 불교가 전래되어 불교사원 역시 삼국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원은 하나도 없으며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터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북한에서 불교와 불사에 대한 인식은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도구로서 지배계급들에게 이용되었으며 또한 불교전파를 위한 수많은 절간건설을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는 곳”이었다. 이들의 시각은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종교에 대해 이러한 인식으로 취급해 왔던 것이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불사건축 건설을 담당할 직접적인 당사자는 바로 ‘인민대중’이었기에 불사건축 그 자체는 민족건축의 독특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생각하는 건축적 시각은 “건축의 창조자는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사건축에도 당시 “인민”들의 우수한 재능과 근면한 노동이 스며들어 있다고 보는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로서의 불교는 타파하되 불사건축은 민족건축으로서 연구대상이되어 왔으며 또한 민족건축으로의 보존 가치를 두고있다고 하겠다.

고구려의 불교사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성과는 그리 만족할 만한정도는 아니다. 이들이 주로 다루는 불사건축은 북한지역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것도 고구려와 현존하는 고려시대 목조건축이 중심이 되고있다. 간혹 백제나 신라의 불사를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에서 최초로 발표된 불교사원에 관한 글은 1950년 도유호가 『문화유물 제2집』에 발표한 「봉선사지고」이다. 현존하지 않은 봉선사에 관한 글로서 그 내용이

58) 『三國遺事』 卷3 塔像에 「…因生信 起木塔七層…」라는 기사가 있다.

59) 『三國遺事』 卷3 塔像에 「…指其地曰 此下有八面七級石塔 掘之果然 因立精舍 曰靈塔寺 以居之…」라는 기사가 보인다.

60) 淸岩里廢寺址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때인 1939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 사지를 금강사로 보는 이유는 위치는 정확치 않지만 『三國史記』와 『高麗史』에 기록이 나타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지가 있는 강여울을 옛부터 “금강탄”, “금강여울”이라 불렀던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발굴조사 당시의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알려지지않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사지는 고구려의 사지는 아니다. 고구려 사지에 관한 것으로는 채희국이 1957년 발표한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유적 -고구려 평양 천도 1530주년에 제하여-」라는 글 중에 ‘금강사지(金剛寺址)’가 언급된 것이 최초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지는 우리들에게 ‘청암리사지’로 알려진 것인데 이 글에서 필자는 이 절터를 ‘금강사’로 인식하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지는 이미 일제때 발굴되어 평면형태가 널리 알려져 있다. 채희국의 글에 나타난 내용의 요지를 보면 이 사원이 “米田美代治가 주장한것 처럼 『史記天官書』의 내용에 부합된 천문사상이 반영된 배치계획이라면 최초에 왕궁으로 건설되었다가 나중에 불사로 바뀌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 그 근거로 중국 한대에 왕궁을 건설할 때 하늘의 성좌배치를 응용한 실례가 있고 이러한 제도가 고구려의 5부제도에 영향을 끼쳤던 것을 첫번째로 들었고, 두번째 근거로는 신라 진흥왕때 월성에 건설하려던 왕궁을 황룡사로 변경했던 사실을 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심의 8각건물은 고구려의 우수한 수학적 지식을 기초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때 이미 이 사지를 ‘금강사’로 확신하고 있음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그후 최길성이 『역사과학 1961년 4호』에 발표한 「1328년 통도사의 농장 경영형태」가 있으나 이 논문은 건축에 관한 논문이 아니라 농업경제사 측면에서 다루어진 논문일 뿐이다.

해방이후 부터 1960년대 말까지 간간히 학계소식이나 유적소개를 통해 불교건축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부벽루와 성불사 개건」(문화유산 1957-3호), 「박천군 심원사 보광전 건축에 대한 고찰」(문화유산 1961-6호), 「성불사의 건축미」(조선미술 1965-1호), 「심원사의 건축미술」(조선미술 1966-10호), 「정방산성과 성불사」(조선미술 1966-12호) 등이 있다. 이러한 글은 불교건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기에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현존하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을 알게하는 것으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이와같은 수준의 글은 197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교건축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진 저술로는 두가지류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考古學이나 미술사와 같은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적으로 유적을 소개하는 가운데 불교사원이나 건축물이 다루어 지는 경우이다. 이와같은 류의 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문화성 물질문화유물 보존사업소, 『우리 나라 주요 유적』 군중문화출판사 1963.12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대성산 일대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유적 발굴보고 제9집)』 과학원출판사 1964
- 문화유물보존연구소,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편람』 군중문화출판사 1966.4

- 주영헌,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5.6
- 김일성종합대학,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6
-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3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 (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
사 1979.9
- 장종국·박영해·고광섭·원종규, 『묘향산의 역사와 문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7
- 문화보존연구소, 『우리 나라 역사 유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7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금강산의 역사와 문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9
- 최춘희, 『평양의 어제와 오늘』 사회과학출판사 1986.9
- 조인규·김순영·리 철·리임출·박현종, 『조선미술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1
- 리화선, 『조선건축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12
- 김석형, 『초기 조일관계 소사』 사회과학출판사 1990.5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8
- 김정수, 『조선조각사 1 (고대중세편)』 조선미술출판사 1990.10
- 손영종,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8
- 량연국, 『조선문화가 초기 일본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 사회과학출판사 1991.5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3권 고구려편1 성, 건축물』 외
국문종합출판사 1991.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0권 고려편1 건축물, 성』 외국
문종합출판사 1991.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5권 리조편3 절』 외국문종합
출판사 1991.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6권 리조편4 절, 유물』 외국문
종합출판사 1991.1
- 선희창, 『조선의 민속(재판)』 사회과학출판사 1991.7

북한에서 고구려불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 들어와서 부터이다. 이
미 1974년 김일성대학이 주관이 되어 동명왕릉을 비롯한 그 주변일대의 무덤과 건
축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사지가 발견되어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한 결과
'정릉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⁶¹⁾ 이 발굴조사 결과는 이 일대의 고구려 유

61) 이 사지가 '정릉사'로 밝혀진 것은 발굴과정에서 "定陵", "陵寺"라는 문자가

적을 한데 묶어 하나의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정릉사지 발굴을 계기로 북한에서 고구려 가람배치에 대한 연구가 시작 되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인호는 1981년 『역사과학 81-2호』에 「정릉사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발굴보고서내용을 바탕으로 정릉사 가람배치의 특징과 평면구성형태에 대해 논술한 것이다.

1986년에는 가람배치에 관한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뒤를 이어 지속적으로 연구논문이 발표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북한에서 가람배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6년이후 부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86년이후 발표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한인호, 정릉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3호』
- 허철준, 정릉사 평면복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고찰 『역사과학 1986-4호』
- 리화선,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 구성에 대하여(자료와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6-4호』
- 한인호, 고구려의 탑터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역사과학 1988-2호』
- 장상렬, 고층나무탑을 기본으로 1탑3금당식 사원 건축형식의 역사적 기원 『역사과학 1990-2호』
- 한인호, 삼국시기의 절간유적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12호』 1990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고구려 가람배치의 특징과 몇개의 대표적인 실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초기의 고구려 사찰은 도시의 평지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전파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대개 이와같은 평지사찰은 배치계획을 할 때 중심축선과 좌우대칭이 되게 함으로서 엄숙하고 권위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갖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평양시 력포구역 동명왕릉 앞에 있는 정릉사(지),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동의 금강사(지), 上五里寺址, 토성리사지 등이다. 이 네개의 불사는 중앙에 팔각형의 불탑을 세우고 주위에 불전을 배치한 기하학적 배치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정릉사는 문헌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동명왕릉⁶²⁾과는 불과 120m밖에 떨어지지 않고 사지의 규모는 동서 223m, 남북132.8m로서 면적은 약 3만m²정도가 되는 큰 사찰이었다. 그중 8각탑이 있는 지역이 중심이 된다.

가람배치는 8각탑이 있는 중심구역을 비롯하여 다섯개의 구역이 각각 회랑으로 둘러싸여 하나의 커다란 가람을 구성하고 있다. 8각탑이 있는 중심구역은 탑의 좌

세겨진 와편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지는 동명왕릉과 밀접하고 있어 이 왕릉의 원찰이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62) 처음에는 명확히 누구의 능인지 알 수 없었으나 발굴조사 결과 동명왕릉으로 밝혀짐.

우에 동당과 서당을 두고 그 북쪽에 회랑을 가로질러 금당이 있으며 그 북측에 또 하나의 회랑을 가로지른 다음 강당을 배치했다. 이 중심구역의 좌우에는 회랑으로 둘러싸인 구역이 2개씩 배치되어 하나의 구역만 보면 남북으로 긴 형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면 결국 동서로 긴 가람배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람배치의 기본은 가운데 탑을 두고 동, 서 북측에 금당을 두는 1탑3금당식 배치로 되어있다. 후술하는 금강사지, 상오리폐사지와 맥락을 같이하는 배치형식이라 하겠다. 다만 이 사지에서 엄격히 보면 탑의 좌우가 비대칭으로 배치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차에 걸친 증개축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⁶³⁾

금강사(지)는 남북축선의 중심에 8각탑을 두고 그 동, 서, 북에 각각 금당을 배치한 1탑3금당식 가람배치로 되어있다. 남측의 문지로 보이는 좌우에 회랑흔적이 있으나 외곽으로 부속건물 없는 것은 정릉사와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탑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게 가람을 형성한 기본적인 배치는 정릉사와 매우 흡사하다.

중심건물은 중앙부에 용기한 생땅인 풍화암반을 일변 약 9.5m 정도의 팔각형으로 깎아내어 그 주위에 석재를 배치하여 기단으로 만든 팔각형의 대규모 건물지였다. 기단 외주에는 동자주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臺石을 배치하고 그 외부에는 割石의 면을 골라 병렬배치하고 이에 접하여 낙수구로 보이는 폭 약 0.7m의 냇돌을 깎 중앙에 기단으로 오르는 계단지가 있다. 또한 남쪽에는 門址, 서쪽은 냇돌을 깎 보도가 서측건물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계단과 보도 흔적은 기단의 동측과 북측에도 흔적이 남아 있었다.⁶⁴⁾ 금강사의 건축계획에 대해 리화선은 그의 논문⁶⁵⁾에서 일본인 학자가 漢尺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즉 중심의 8각탑은 내접반경이 고구려척 35자로, 전체 폭이 70자로 계획되었고, 탑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축, 남북축 방향의 건물사이 간격도 35자의 일정한 배수로 계획되었다고 하면서 고구려 건축기술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서 주장하는 오류의 근거들을 고구려척으로 환산 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

상오리사지는 금강사에서 동남쪽 약 2Km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부분적인 조사만 이루어져 전모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밝혀진 부분으로 배치형상을 볼때 남북으로 중심축선을 두고 그 중심축선상에 3m를 한변으로 하는 8각형의 건물지가 배치되고 동서에 각각 25.5m×12.6m크기의 방형건물지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이 사지도 금강사와 같은 1탑 3금당식 가람배치라는

63) 발굴조사 결과 사지에서 여러시기의 건축유물이 출토 되었다. 그중에는 숫막 새기화가 19종, 암막새기화가 10종정도이다. 이중에는 金剛寺址나 상오리사지의 것보다 이른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초창을 금강사보다 빨리보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이 사지는 동시에 모든 시설이 지어지지 않고 시기를 달리하면서 증개축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64) 小泉顯夫, 平壤清岩里廢寺址의調査(概報) 『昭和13年度古蹟調査報告』 1940. 9

65) 리화선,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 구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4호』

考古學 분야이다. 특히 발굴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발굴결과 원시시대의 문화를 체계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이 결과는 일제의 식민 사학자들이 주장했던 많은 이론을 재구성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본인 학자들이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던 원시시대를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각시대는 또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신석기 시대의 서북지방과 동북지방에는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기도 일대의 신석기 시대 문화를 “공산문화”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고분발굴조사 또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동안의 발굴결과에 따라 종래의 고분형식외에 토광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는 고조선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펴게 되었다.

1949년에 발굴한 고구려의 안악 1, 2, 3호분은 考古學界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안악 3호분에서 “永和十三年”이라는 묵서명이 발견되었다. 이 고분의 발굴은 고구려 고분연구에서 축조년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문화와 나아가 한국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중요한 考古學的 성과라 하겠다.

북한에서의 이러한 연구는 가능한 빨리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선사시대 부터 한반도 지역에 대륙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민족의 기원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청동기시대 말엽에는 이미 국가가 탄생되었음을 주장 함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체계화 하는데 주력하려했던 것으로 그동안의 연구성과가 만들어낸 결과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연구성향은 민족주의에 너무 치우쳐진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민족우월성을 지나치게 앞세운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말하자면 어떠한 결과에 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정을 짜맞춘 것 같은 귀납적 연구성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 선사시대 유적과 고구려 유적을 발굴하고 나아가 발해의 실체를 밝혀낸 연구결과는 하나의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사 연구의 주요 대상은 어떤 한 유형만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건축의 모든 유형이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물을 보는 시각도 다양해야 하며 일정한 시각으로 고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건축사 연구는 “인민대중”의 시각으로만 조명하려는 경향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 궁전을 비롯한 각종 지배계층의 건축물도 그시대의 건축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축사의 실체다.

이와같은 건축물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전반적으로 “봉건사회의 지배자를 비판하면서도 이들이 건설한 건축물에서는 민족의 건축미학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논리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금강사 건축계획에 쓰여진 고구려 척도치수

건축물 및 건축물사이	실측치(m)	환산치		오차율
		자(고구려자)	길이(m)	
탑서쪽기단 - 서전동쪽기단	11.72	35	12.25	-0.04
탑동쪽기단 - 동전서쪽기단		35	12.25	
탑남북중심축 - 서전서쪽기단		35×3=105	36.75	
탑남북중심축 - 동전동쪽기단	37.1	35×3=105	36.75	0.009
문북쪽기단 - 8각탑남쪽기단	12.2	35	12.25	-0.004
금당계단남쪽끝-8각탑남쪽기단	11.1	35	12.25	-0.1
금당의 길이(동서)	32.1	35×2.5=87.5	30.6	0.046
금당의 폭(남북)	18.8	35×1.5=52.5	18.37	0.02
동전의 길이(남북)	24.48	70	24.5	-0.004
동전의 폭(동서)	37.1-(11.72+12.25)=13.33	35	12.25	0.06

〈자료 : 『조선고고연구 1986-4호』〉

이밖에 상기와 같은 配置造營을 보여주는 것으로 토성리사지가 있다.

이와같이 중심에 8각탑을 세우는 佛寺는 고구려시기 가람으로서 고유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고구려의 가람배치에 대해 고구려의 건축기술이 잘 반영된 우수한 실례이며 이러한 기술은 고구려 인민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보여주는 “자랑찬 건축물”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고구려의 우수한 건축기술은 신라와 백제 그리고 일본에 전해졌으며 많은 유적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와 자료발굴이 더욱 더 이루어져 반증자료를 보강해야할 것으로 사료 된다.

VII. 研究成果 및 評價

해방직후 북한에서의 건축사연구는 연구인력뿐만 아니라 여러방면에서 열악한 연구조건에서 시작 되었다. 초기의 연구관계자는 대부분 考古學, 歷史學, 民俗學 분야에서 건축에 접근되었기 때문에 건축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였다.

초기의 이러한 연구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선사시대의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금강사 건축계획에 쓰여진 고구려 척도치수

건축물 및 건축물사이	실측치(m)	환 산 치		오차율
		자(고구려자)	길이(m)	
탑서쪽기단 - 서전동쪽기단	11.72	35	12.25	-0.04
탑동쪽기단 - 동전서쪽기단		35	12.25	
탑남북중심축 - 서전서쪽기단		35×3=105	36.75	
탑남북중심축 - 동전동쪽기단	37.1	35×3=105	36.75	0.009
문북쪽기단 - 8각탑남쪽기단	12.2	35	12.25	-0.004
금당계단남쪽끝-8각탑남쪽기단	11.1	35	12.25	-0.1
금당의 길이(동서)	32.1	35×2.5=87.5	30.6	0.046
금당의 폭(남북)	18.8	35×1.5=52.5	18.37	0.02
동전의 길이(남북)	24.48	70	24.5	-0.004
동전의 폭(동서)	37.1-(11.72+12.25)=13.33	35	12.25	0.06

〈자료 : 『조선고고연구 1986-4호』〉

이밖에 상기와 같은 配置造營을 보여주는 것으로 토성리사지가 있다.

이와같이 중심에 8각탑을 세우는 佛寺는 고구려시기 가람으로서 고유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고구려의 가람배치에 대해 고구려의 건축기술이 잘 반영된 우수한 실례이며 이러한 기술은 고구려 인민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보여주는 “자랑찬 건축물”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고구려의 우수한 건축기술은 신라와 백제 그리고 일본에 전해졌으며 많은 유적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와 자료발굴이 더욱 더 이루어져 반증자료를 보강해야할 것으로 사료 된다.

VII. 研究成果 및 評價

해방직후 북한에서의 건축사연구는 연구인력뿐만 아니라 여러방면에서 열악한 연구조건에서 시작 되었다. 초기의 연구관계자는 대부분 考古學, 歷史學, 民俗學 분야에서 건축에 접근되었기 때문에 건축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였다.

초기의 이러한 연구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선사시대의

로 건축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건축물이 비록 “통치배”에 의해 주관되었지만 이것을 만든 장인의 주체는 “인민대중”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기 때문에 宮闕, 寺院, 班家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비록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 건축물에 나타난 민족의 주체적 건축미학은 당시 “인민대중”들의 建築思想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택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물은 일반 서민주택이다. 서민주택의 상대적인 것으로 班家를 들 수 있는데, 班家 역시 건축사에서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아주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반가는 소위 봉건“통치배”들이나 지주들이 살았던 집이고, 실제로 이런 집구조가 당시의 살림형편으로는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배치구조에 대해서는 “안이 바깥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으며 통풍과 햇빛을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있어서 정원과 방이 어두침침하고 답답한 감을 자아내게 한다”고 단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이와같은 반가를 상류계층이 선호하였던 것은 그들의 부유롭고 안이한 생활을 지키며 “인민”들의 접근을 두려워 하여 집안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같은 집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각은 역사의 주체가 “인민”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사회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편승된 건축사관은 결국 스스로 학문의 범위를 축소하고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건축사연구의 특징을 볼때 남한에서와는 달리 분석이나, 해석, 평가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남한에서와 같이 다원주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학문은 관계적인 성격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건축사관련 논문에 나타나는 이론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검증을 거쳐야 되는것이 또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론들이 서로 비슷하다. 그렇치 않을때 뒤따르는 혹독한 비판은 감수해야하는 부담이 북한 건축학자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 조각, 회화분야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감상주의적 비평”은 비판받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할 것은 이들의 건축사관이 마르크스·레닌주의 歷史學을 바탕으로 하는 一般史에 모든 분류사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적 경직성이 건축분야에도 나타난 결과라는 점이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로 일제때 왜곡된 역사를 우리민족의 시각으로 다시 보려고 한 각종 연구논문들도 그들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성과의 특징 중에는 첫째, 지나칠 정도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서술되어 국수주의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둘째, 모든 학문의 성과는 ‘김일성’

이나 '김정일' 개인의 치적으로 돌려 학문의 순수성이 개인숭배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특징이라 하겠다.

VII. 結 論

해방직후 북한에서의 건축사연구가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시작되지 못한것은 우리 남한과 같은 실정이다. 연구태동은 역시 考古學, 歷史學, 民俗學의 부분으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초기의 건축사연구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역사관련 제 학문연구가 국가체제의 특성에 맞춰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목적은 독특하고 뚜렷했다. 그 목적의 커다란 명제는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된 역사관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본으로하고 여기에 우리민족의 역사발전을 가미하여 주체적인 역사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에 의한 왜곡된 식민사관을 타파하고 민족자존을 바로세우는 문제였다.

비록 건축역사가 독립된 학문분야는 아니었지만 건축사의 모든 서술은 바로 이러한 두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의 큰 줄기는 일반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종속적입장에서 서술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건축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일반사를 이해해야만 되는 전제조건이 따르게 된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간의 학문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학계에서도 이를 대비하여 이들의 학문적 수준과 성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상적인 '북한이해' 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북한건축학'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계도 피상적 통일개념에서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보다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의 선행작업은 바로 '북한건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오랜기간의 동질성 공간이 분단된 시간으로 인하여 이질화된 건축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서 이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접근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건축학계에서도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한 독일대사인 디터 지메스가 독일 통일후 여러가지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나 '김정일' 개인의 치적으로 돌려 학문의 순수성이 개인숭배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특징이라 하겠다.

VII. 結 論

해방직후 북한에서의 건축사연구가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시작되지 못한것은 우리 남한과 같은 실정이다. 연구태동은 역시 考古學, 歷史學, 民俗學의 부분으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초기의 건축사연구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역사관련 제 학문연구가 국가체제의 특성에 맞춰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목적은 독특하고 뚜렷했다. 그 목적의 커다란 명제는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된 역사관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본으로하고 여기에 우리민족의 역사발전을 가미하여 주체적인 역사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에 의한 왜곡된 식민사관을 타파하고 민족자존을 바로세우는 문제였다.

비록 건축역사가 독립된 학문분야는 아니었지만 건축사의 모든 서술은 바로 이러한 두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의 큰 줄기는 일반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종속적입장에서 서술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건축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일반사를 이해해야만 되는 전제조건이 따르게 된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간의 학문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학계에서도 이를 대비하여 이들의 학문적 수준과 성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상적인 '북한이해' 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북한건축학'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계도 피상적 통일개념에서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보다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의 선행작업은 바로 '북한건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오랜기간의 동질성 공간이 분단된 시간으로 인하여 이질화된 건축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서 이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접근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건축학계에서도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한 독일대사인 디터 지메스가 독일 통일후 여러가지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의 문제점에 대해 디터 지메스 대사의 언급내용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사전에 전혀 통일 준비가 없었다는 점, 서독이 동독에 관해 모든 분야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통일문제가 너무나 정치화된 점을 들고 있다. 실상 서독에서 그동안 통일문제에 관해 여러 기관에서 연구되고 있긴 했지만 통일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미처 통일정책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정부나 학자들의 연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혹 정부나 기업인, 학자들이 동독에 관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더라도 이것이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파급되지 못한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를 사전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의 동참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과 독일의 사정은 다르고 가로놓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건축학계도 남·북학술교류를 통하여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이일은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건축학계에 주어진 과제라 생각한다.

이제 곧 각 방면의 학술교류가 이루어진다 해도 사회과학, 인문과학 분야는 예민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연과학이나 첨단공학분야의 학술교류는 오히려 남한측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건축계는 학문의 성격상 정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첨단 공학기술 분야라고도 할 수 없다. 특히 건축사학은 남·북이 상호 보완적이고 교류해야 할 정보도 무궁할 정도로 많다. 만약 비정치적인 건축사학계의 남북 교류가 먼저 이루어져 점차 심화될 때 나아가 건설분야의 상호 교류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북한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당분간 남북의 학술교류 전망이 그리 밝은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시간들은 남한측에서 북한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장래를 대비하는 준비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머지않은 장래에 학문분야의 학술교류가 이루어 진다면 무엇보다도 건축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남·북 건축분야의 학술교류가 이루어져 공통된 문제로 접근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제가 주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건축사 시대구분문제
- 둘째, 건축용어 및 술어문제
- 셋째, 建築史 관련정보 교류문제

넷째, 남북 건축문화제 교환답사

다섯째, 국내외 문화유적 공동발굴조사

여섯째, 건설기술 정보의 상호교류

일곱째, 국토건설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협력문제

이를 위해 지금부터 정부, 업계(특히 건축관련 업계), 학계 모두가 동참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학자들에게 북한 건축계의 실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적극 개방해 주어야 하며, 건축정보의 절대 독점은 오히려 오해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건축관련 업계에서는 통일후의 국토개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학자들로 하여금 효율적 접근방법과 상황을 예측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 역시 생산적인 장기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건축학계에서는 감상적 통일론 보다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북한건축 연구를 통해 미래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韓 國 〉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권영민 외,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4 서울
- 윤재근 외, 북한의 문화정보 II 고려원 1991. 서울

〈 北 韓 〉

- 궁성희, 고구려무덤들에 보이는 부뚜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1호』
- 김교경, 덕천 승리산유적의 년대에 대하여 『고고민속론문집 7호』 사회과학출판사 1979.12
- 김기웅, 고구려산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9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4
- 김내창·선희창,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86.6
- 김내창, 량통집의 유래와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9-3호』
- 김동일, 마산리유적의 청동기시대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1호』
- 김명철, 고려성의 돌성벽축조형식 『조선고고연구 1989-2호』
- 김명철, 고려토성의 축조 형식과 방법 『조선고고연구 1991-1호』
- 김명철, 고려시기 성의 위치와 년대에 대한 고증 『조선고고연구 1992-1호』
- 김사봉, 최근 통일거리 건설장에서 드러난 고조선계통의 유적과 유물(자료) 『력사과학 1991-3호』
- 김석형, 조선 고대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이론상 문제(토론) 『력사과학 1960-3호』
- 김석형, 해방후 조선 력사학의 발전 『력사과학 1962-2호』
- 김신규·김교경·백기하·장우진·서국태, 『평양부근 동굴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4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김영진, 삼국 시기의 기와 벽돌 무늬 『고고민속 1964-4호』
- 김용간, 문화유물 조사 보존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시책 『문화유산 1958-1호』
- 김용간, 강계시 공귀리 원시 유적에 대하여 『문화유산 1958-4호』
- 김용간, 우리 나라 청동기 시대의 년대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고고민속 1964-2호』
- 김용간·황기덕, 기원전 천년기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 1967-2호』
- 김용간·황기덕, 우리 나라의 청동기시대 『고고민속 1967-4호』
- 김용간·서국태, 서포항원시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론문집 4호』 사회과학출판사

1972

- 김용간, 조선의 신석기시대의 문화에 대하여 『역사과학 1976-3호』
- 김용간, 『조선의 구석기 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4
- 김용간·안영준, 함경남도, 량강도 일대에서 새로 알려진 청동기시대 유물에 대한 고찰(자료와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6-1호』
- 김용간·손량구, 『조선고고학전서(원시편 석기시대)』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10
- 김용남·서국태, 평양시 서성 구역 와산동 팽이그릇 유적 조사 보고 『문화유산 1961-6호』
- 김용남,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 『고고민속 1967-3호』
- 김용남·김용간·황기덕, 『우리나라 원시 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75
- 김용남, 새로 알려진 덕흥리 고구려 벽화무덤에 대하여 『역사과학 1979-3호』
- 김용남, 고구려사 연구에서 고고학계가 이룩한 성과 『역사과학 1980-4호』
- 김용남, 궁산문화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8호』
- 김용준, 안악 제3호분(하무덤)의 년대와 그 주인공에 대하여 『문화유산 1957-3호』
- 김일출, 조선 민속학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 1958-4호』
- 김재용, 진국에서의 좁은숫단검문화의 형성과 고조선문화와의 관계 『조선고고연구 1991-3호』
- 김재용, 진국에서의 중기 좁은숫단검문화의 발전과 고조선 좁은숫단검문화와의 관계 『조선고고연구 1991-4호』
- 김재홍,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당의 방침과 그 생활력 『역사과학 1965-3호』
- 김정수, 『조선조각사 1 (고대중세편)』 조선미술출판사 1990.10
- 김종혁, 청해토성과 그 주변의 발해유적 『조선고고연구 1990-4호』
- 김종혁·김지철, 금산 2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1-3호』
- 김종혁, 석불산유적의 유물갖춤새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호』
- 김종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해유적발굴에서 이룩된 성과 『조선고고연구 1992-1호』
- 개성발굴조, 개성 만월대의 못과 지하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발굴 및 조사보고) 1986-3호』
- 고고학연구실, 『미천왕무덤』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6
- 고고학연구소, 몇개의 발해건축에 대한 외곽복원 『고고민속론문집 3호부록』 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공산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2집)』 과학원출판사 1957.12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안악 제3호분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3집)』 과학원출판사 1958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안악 제1호 및 제2호분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4집)』 과학원출판사 1957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회령 오동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7집)』 과학원출판사 1960.5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지탑리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8집)』 과학원출판사 1961.11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대성산 일대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유적발굴보고 제9집)』 과학원출판사 1964
- 남일룡,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4호』
- 도유호, 안악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들 『문화유물 1949년 1집』
- 도유호, 민족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과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당면과업 『문화유산 1957-1호』
- 도유호·황기덕, 지탑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1) 『문화유산 1957-5호』
- 도유호·황기덕, 지탑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2) 『문화유산 1957-6호』
- 도유호, 조선 원시 문화의 년대 추정을 위한 시도 『문화유산 1958-3호』
- 도유호, 고조선에 관한 약간의 고찰 『문화유산 1960-4호』
- 도유호, 1963년 중 고고학에서 거둔 성과(학계소식) 『고고민속 1963-4호』
- 도유호, 조선의 구석기 시대 문화인 굴포 문화에 관하여 『고고민속 1964-2호』
- 도유호·김용남, 굴포 문화에 관한 그 후 소식(학계소식) 『고고민속 1965-1호』
- 도유호·김용남, 우리 나라 구석기 시대와 이른 신석기 시대의 년대론에 대하여 (강좌) 『역사과학 1964-4호』
- 로응주, 심원사의 건축미술 『조선미술 1966-10호』
- 리경직, 삼국시기 탑파양식과 그특징(평론) 『조선미술 1966-11호』
- 리순진, 락랑구역일대의 고구려돌칸흙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4호』
-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벽축조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3호』
-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곽시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1호』
- 리원근·백룡규, 평양시 승호 구역 립석리 원시 유적 발굴 간략 보고(자료) 『문화유산 1962-4호』
- 리재선, 우리 나라 서북 산간지대 주택의 변화발전 『조선고고연구 1986-3호』
- 리재선, 우리나라 산간지대 인민들의 식의주 생활풍습의 변화 발전(창성을중심

- 으로) 『고고민속론문집 1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리종목, 조중 친선 농업 협동 조합 마을과 주택 『문화유산 1959-6호』
 - 리종목,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유형과 그 형태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문화유산 1960-5호』
 - 리종목, 우리 나라 농촌 주택 발전에 관한 민속학적 고찰 『문화유산 1960-6호』
 - 리종목, 과거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각 방의 리용과 그 설비 『문화유산 1961-1호』
 - 리종목,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1
 - 리준걸, 함경남북도일대의 발해유적유물에 대한 조사보고(발굴 및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86-1호』
 - 리화선, 고려시기 몇가지 공예탑 『건축과 건설 1964-10호』
 - 리화선, 새로 복구한 대성산성의 남문 『역사과학 1979-2호』
 - 리화선, 안학궁의 터자리복원을 위한 몇가지 문제 『역사과학 1980-1호』
 - 리화선,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 구성에 대하여(자료와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6-4호』
 - 리화선, 고구려 평양성 외성 안의 리방의 형태와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9-1호』
 - 리화선, 『조선건축사 1.2』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9.12
 - 문화유물 보존사업소, 평양 시내 고건물 복구수리 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학계소식) 『문화유산 1960-1호』
 - 문화성 물질문화유물 보존사업소, 『우리 나라 주요 유적』 군중문화출판사 1963.12
 - 문화유물 보존연구소,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편람』 군중문화출판사 1966.4
 - 문화보존연구소, 『우리 나라 역사 유적』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7
 - 문화보존연구소, 연탄심원사(역사유적소개) 『역사과학 1987-2호』
 - 미술사 연구실, 조선 미술사 부문에서 거둔 성과 『문화유산 1958-4호』
 - 박문원, 안악 제3호 벽화무덤에로의 미술사적 안내 『조선미술 1963-3호』
 - 박문원, 일본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미술가들(3)-건축 조각가편- 『조선미술 1963-4호』
 - 박문원, 무용 무덤 벽화(1) 『조선미술 1966-3호』
 - 박문원, 무용 무덤 벽화(2) 『조선미술 1966-5호』
 - 박문원, 안악 3호무덤 행렬도의 비밀을 알아내기 까지 『조선미술 1967-3호』
 - 박선훈·리원근, 원시 시대의 큰 부락터를 발견(유적답사) 『고고민속 1964-3호』
 - 박시형,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역사과학 1962-1호』
 - 박영초, 조선인민경제사(원시-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4

- 박윤원, 안악 제3호분은 고구려 미천왕릉이다 『고고민속 1963-2호』
- 박진욱, 안악3호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호』
- 박창수, 427년 평양 천도 이전 시기 고구려 성들의 분포 『역사과학 1988-4호』
- 박황식, 종성 향교의 건축 양식 『문화유산 1957-4호』
- 박황식, 고적과 미술 《보통문》 『조선미술 1962-6호』
- 박황식, 대동문과 련광정 『조선미술 1962-7호』
- 박황식, 금수산 부벽루 『조선미술 1962-10호』
- 박황식, 성불사의 건축미(미술상식) 『조선미술 1965-1호』
- 박황식, 미천왕릉(안악 제3호)의 건축 구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1호』
- 변사성, 고영남, 마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9-4호』
- 변사성, 황해남도 웅진군일대에서 드러난 원시시대의 유물 『조선고고연구 1991-3호』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상원 검은모루 유적 발굴 중간보고 『고고민속논문집 1호』 사회과학출판사 1969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논문집 1호』 사회과학출판사 1969
-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7. 3
-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12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자연사연구실, 『덕천 승리산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1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8. 6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 (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79. 9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 8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고고학연구소, 『조선전사 1 (원시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3
- 서국태, 신의주시 상단리의 고려 집자리(발굴보고) 『고고민속 1966-1호』
- 서국태, 『조선의 신석기 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6. 5
- 서국태, 씨비리지방 신석기시대문화의 특성 『조선고고연구 1989-4호』
- 서국태,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연구에서 이룩된 성과 『조선고고연구 1992-1호』
- 선희창, 최근년간 민속학 연구에서 이룩한 주요성과 『조선고고연구 1987-2호』
- 선희창, 『조선의 민속(재판)』 사회과학출판사 1991. 7
- 손영중, 발해의 서변에 대하여(1) 『역사과학 1980-1호』
- 손영중,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8

- 안병찬, 장수산일대의 고구려유적유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호』
- 장국종, 고구려에서의 도로 발전 『역사과학 1985-2호』
- 장국종, 발해의 6부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0-4호』
- 장종국, 발해본토의 주민구성 『역사과학 1991-2호』
- 장상렬, 룡동성탑(자료와 연구) 『고고민속 1967-1호』
- 장상렬, 발해상경돌등의 재임새(자료와 연구) 『고고민속 1967-3호』
- 장상렬, <건축유산연구> 상경돌등 『건축과 건설 1967-5호』
- 장상렬, 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 『고고민속론문집 3호』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장상렬, 동선관문의 건축년대와 형식(유적소개) 『역사과학 1985-2호』
- 장상렬, 만월대 장화전 건축군의 배치와 거기에 쓴 자에 대하여(자료와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6-4』
- 장상렬, 발해의 도시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3호』
- 장상렬, 고려왕궁-만월대 건축에 쓴 축도기준 『고고민속론문집 1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장상렬, 만월대 회경전건축군에 쓴 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9-3호』
- 장상렬, 고층나무탑을 기본으로 1탑3금당식 사원 건축형식의 역사적 기원 『역사과학 1990-2호』
- 장우진, 조선사람의 시원문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3호』
- 장우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과 조선사람의 시원 문제연구에서 달성한 성과 『조선고고연구 1992-1호』
- 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 『역사과학 1980-2호』
- 전제현, 대성산 못(池) 발굴 중간 보고(자료와 연구) 『고고민속 1964-3호』
- 전주농, 안악 《하무덤》(3호분)에 대하여 -그 발견 1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유산 1959-5호』
- 전주농, 고조선 문화에 관하여 -토광 무덤 년대의 고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1960-2호』
- 전주농, 최근에 발견된 고구려 벽화 무덤 『문화유산 1961-1호』
- 전주농, 고조선의 공예 미술(자료) 『문화유산 1962-3호』
- 전주농, 고조선의 공예(유물소개) 『문화유산 1962-4호』
- 전주농,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유물에 관하여(자료) 『고고민속 1963-1호』
- 전주농, 다시 한 번 안악의 왕릉을 논함 『고고민속 1963-2호』
- 전주농, 미천왕릉의 확인과 고구려 벽화 무덤의 시원에 관한 단상 『조선미술 1964-3호』

- 정백운, 해방후 우리 나라 고고학의 발전 『문화유산 1958-4호』
- 정세양, 덕화리 3호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1-1호』
- 정찬영, 고조선의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문화유산 1960-3호』
- 정찬영, 초기 고구려 문화의 몇 가지 측면 『고고민속 1965-4호』
- 정찬영, 평양성에 대하여(토론) 『고고민속 1966-2호』
- 정찬영, 우리 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고고민속 1966-4호』
- 정찬영, 만월대유적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1989-1호』
- 조인규·김순영·리 철·리임출·박현중, 『조선미술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1
- 주영헌, 약수리 고분을 통한 고구려 벽화분의 년대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59-3호』
- 주영헌, 고구려 벽화분의 편년 기준에 관하여 『문화유산 1959-6호』
- 주영헌, 고구려 벽화 무덤의 구조 형식과 벽화 내용의 변화 발전(I) 『문화유산
1960-2호』
- 주영헌, 고구려 벽화 무덤의 구조 형식과 벽화 내용의 변화 발전(II) 『문화유산
1960-3호』
- 주영헌, 안악 제3호 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2호』
- 주영헌, 고구려 벽화 무덤의 구조 형식과 벽화 내용의 변화 발전(강좌) 『고고민
속 1965-4호』
- 주영헌, 발해 중경 현덕부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1호』
- 주영헌, 발해의 공예 『고고민속 1967-1호』
- 주영헌,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자 『고고민속 1967-2호』
- 주영헌,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주영헌·박진옥·정찬영, 고구려 무덤벽화의 특성과 그 문화사적 의의 『고고민속
논문집 6호』 1975
- 자료실, 해방 후 발굴 년표 『고고민속 1965-1호』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권 원시편』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3권 고구려편1 성, 건축물』 외
국문종합출판사1991.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5권 고구려편3 벽화무덤』 외국
문종합출판사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6권 고구려편4 벽화무덤』 외국
문종합출판사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8권 발해편』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0권 고려편1 건축물, 성』 외국문종합출판사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3권 리조편1 성, 궁성』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4권 리조편2 건물, 구조물』외국문종합출판사1991.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5권 리조편3 절』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6권 리조편4 절, 유물』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 채태형, 발해동경통원부-훈춘팔련성설에 대한 재검토 『역사과학 1990-3호』
- 채태형, 발해 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1-3호』
- 채희국,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유적 -고구려 평양 천도 1530주년에 제하여- 『문화유산 1957-5호』
-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토론) 『고고민속 1965-3호』
- 채희국, 고구려 수도의 변천과 봉황성-환도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0-2호』
- 최길성, 1328년 통도사(通度寺)의 농장 경영 형태 『역사과학 1961-4호』
- 최창빈, 신원에서 고구려시기의 큰 도시유적 발견 (학계소식) 『역사과학 1985-4호』
- 최희림, 박천군 심원사 보광전 건축에 대한 고찰 『문화유산 1961-6호』
-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호』
- 최희림,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성벽축조형식과 시설물의 배치상태 『고고민속 1967-3호』
-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최희림, 황주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2-2호』
- 한상진, 발해 미술 소고(고전) 『조선미술 1963-2호』
- 한인호, 삼국시기의 절간유적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12호』 1990
- 한인호, 정릉사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1-2호』
- 한인호, 고구려건축의 역사적지위 『고고민속론문집 9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4
- 한인호, 삼국시기 탑의변천과 그에 반영된 건축술 『역사과학 1985-1호』
- 한인호, 고구려의 탑터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역사과학 1988-2호』
- 한인호, 정릉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3호』
- 한인호, 우리 나라 중세 도시리방제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2호』

- 한인호, 고구려벽화무덤의 사신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1호』
- 한인호, 발해의 령광탑 『조선고고연구 1988-3호』
- 한인호, 백제의 성곽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4호』
- 한인호, 사비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2호』
- 한인호·리 호, 안학궁터부근의 고구려리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호』
- 한인호, 대령강장성의 축조경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2-1호』
- 한인호·리 호, 평양성 외성안의 고구려도시리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993-1호』
- 한홍수, 조선민속학의 수립을 위하여 『문화유물 1950년 2집』
- 허철준, 정릉사 평면복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고찰 『역사과학 1986-4호』
- 황기덕, 무산읍 범의 구석 원시 유적 발굴 중간 보고 『문화유산 1960-1호』
- 황기덕, 무산 범의구석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론문집 6호』 1975
- 황기덕, 조선의 청동기문화에 대하여 『역사과학 1976-4호』
- 황기덕, 『조선의 청동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4. 4
- 황기덕, 『조선 원시 및 고대 사회의 기술발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4. 6
- 황철산, 지봉 리수광이 조선 민속학 분야에 남긴 유산 『문화유산 1961-4호』
- 황철산, 성호(星湖) 리 익(李 瀾)이 조선 민속학 분야에 남긴 업적 『문화유산 1962-2호』
- 황철산, 조선 민속학의 목적과 대상 범위에 관하여(토론) 『문화유산 1962-5호』
- 황철산, 1964년도 고고학 및 민속학 분야의 중심 과업 『고고민속 1964-1호』
- 황철산, 우리 나라 과거 주택의 유형과 그 형성 발전 『고고민속 1965-3호』
- , 해방후 조선 고고학이 걸어 온 길 『문화유산 1960-4호』
- , 조선 민속학의 15년과 앞으로의 과업 『문화유산 1960-4호』
- , 조선로동당 3차 대회 이후 고고학계가 거둔 성과 『문화유산 1961-4호』
- , 조선로동당 3차 대회 이후 민속학과 미술사 분야에서 거둔 성과 『문화유산 1961-4호』
- , 고조선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학술토론회) 『문화유산 1961-4호』
- ,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학계소식) 『문화유산 1961-5호』
- , 과학원 창립 이후 고고학과 민속학의 발전(권두언) 『문화유산 1962-5호』
- , 고조선 문제에 대한 토론 개요(토론) 『역사과학 1961-6호』
- , 고조선 령역에 대한 학술 토론회(학계소식) 『역사과학 1963-2호』
- , 우리 나라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 발견 『역사과학 1963-4호』

- , 새로 발굴한 고구려 동명성릉(학계소식) 『역사과학 1978-4호』
- , 최근년간 조선고고학 연구에서 이룩한 주요성과 『조선고고연구 1986-1호』
- , 역사 유적과 유물 보존에 대한 강령적 지침 『조선고고연구 1988-2호』
-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이후 고고학과 민속학 연구에서 거둔 성과(권두언) 『고고민속 1963-3호』
- , 1963년 중 민속학에서 거둔 성과(학계소식) 『고고민속 1963-4호』
- , 10월 혁명과 조선 고고학의 발전 『문화유산 1957-5호』
- ,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日本>

- 東亞考古學會, 東京城 -渤海國上京龍泉府址の發掘調査- 1939 日本 東京
- 三品彰英, 高句麗王都考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批判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第1輯』 1961 日本

北韓의 傳統公演藝術의 傳承樣相과 그 背景에 대한 考察

研究責任者 : 田 耕 旭(高麗大學校)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과 그 배경에 대한 고찰

전경욱(고려대 국어교육과)

목 차

<요약문>

1. 머리말	379
2.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태와 그 배경	380
1)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태	380
(1) 가면극	383
(2) 인형극	385
(3) 판소리와 창극	386
(4) 굿	386
(5) 민속놀이	387
(6) 민요	390
2)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배경	379

(1) 가면극	393
(2) 인형극	394
(3) 판소리와 창극	395
(4) 굿	397
(5) 민속놀이	398
(6) 민요	399
3.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현대적 개작과 그 배경	400
1) 민속놀이의 현대적 개작	400
(1) 돈돌라리	402
(2) 회양닐니리	404
(3) 농악 및 기타 민속놀이	405
2) 민속무용의 현대적 개작	406
(1) 아박춤	406
(2) 쟁강춤	407
(3) 물동이춤	408
3) 민요의 현대적 개작	409
4. 결론	400
참고문헌 및 기타 자료	400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과 그 배경에 대한 고찰(요약문)

1.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가면극·인형극·판소리와 창극·굿·민속놀이·민요 등 전통공연예술을 어떻게 전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 보았다. 특히 북한에서는 모든 민중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예술성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므로, 현재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의 접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승양상은 어떤 배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밝혀, 북한의 문화시책과 문화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간된 전통공연예술 관련 책자, 그리고 북한의 TV프로그램 자료와 북한에서 제작한 영상자료(10편) 및 북한 예술단의 실제 공연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와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현재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다.

2.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태와 그 배경

해방후 현재까지의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동안 북한의 문화시책은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도 문화시책의 변화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해방 후부터 모든 사유재산을 폐지한 1958년 10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공연예술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다.

둘째 단계는, 1958년 10월 이후부터 김일성이 『유일사상』이란 책자를 낸 196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실권을 쥐고 있던 박금철, 김창만 등의 후원에 의해서 전통공연예술의 계승에 대한 노력이 활발했던 듯하다.

셋째 단계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통공연예술이 현대적 계승이라는 미명 아래 상당히 변질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과 김일성 우상화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공연예술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넷째 단계는,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김정일이 북한의 실권을 잡으면서 문화시책도 바뀌게 된다. 주목되는 점은 이 기간의 문화시책이 북고적 경향과 개방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단계에서 전승이 단절되었던 전통공연예술을 다시 복원하는가 하면, 전통공연예술의 자료들을 대대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다.

해방 이전 북한 지역의 가면극은 황해도·강원도·함경남도에서 발전된다. 황해도 일대의 가면극은 헤서탈춤이라고 부른다. 강원도에서는 통천지방에서 전승되던 <통천가면극>이 있었고, 함경남도에서는 북청지방의 <북청사자놀이>가 유명했다. 그러나 가면극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전승이 단절되고 만다.

북한 지역의 인형극은 황해도 장연 지방의 <꼭두각시놀음>이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꼭두각시놀음>도 1960년대 중반 이후 전승이 단절되었으며, 대신에 <놀보와 흥보>·<무던이>·<꼬마사령관> 등의 현대화된 인형극이 새로 창작되었다.

판소리와 창극은 해방 이후 월북한 판소리 창자들에 의해서 한때 매우 흥성했던 것으로 전한다. 북한에서 판소리나 창극을 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1948년의 안기옥, 6·25때의 조상선과 공기남, 연대를 알 수 없는 박동실·임소향·정남희·최옥선 등의 창악인들이 월북한 이후이다. 그러나 1964년 11월 7일 김일성이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문학예술계의 전문가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판소리와 창극을 심하게 비판한 이후, 북에서는 점차 판소리와 창극이 사라지게 된다. 대신에 창극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한 혁명가극이 1970년대에 등장하여 <피바다>·<꽃 피는 처녀>·<당의 참된 딸>·<밀림아 이야기하라>·<금강산의 노래> 등 소위 5대 혁명가극을 탄생시켰다.

원래 황해도·평안도·함경도에는 다양한 굿이 전승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굿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민속놀이는 북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전승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북한 지역에서는 해방 이전에 황해도 장연지방의 <시질웃놀이>, 평안남도 온천지방의 <봉죽놀이>, 함경남도 북청지방의 <돈들라리와 달래춤>·<관원놀이>·<햇불싸움>, 함경남도 광천지방의 <마당놀이>, 함경북도 종성지방의 <방천놀이>, 함경북도 재가승 마을의 <주지놀이> 등 특징적인 민속놀이와 함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농악·씨름·그네뛰기·널뛰기·활쏘기 등의 민속놀이가 전승되고 있었다.

민속놀이는 예로부터 세시풍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전승되어 왔다. 그런데 해방 후 북한에서는 기존의 명절을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속놀이도 그동안 상당히 변모되었다.

최근 북한의 민속놀이의 전승현황은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민속놀이의 공연종목에는 돈들라리·그네뛰기·널뛰기·활쏘기·웃놀이·씨름·줄다리기·봉산탈춤·농악과 어린이놀이로 제기차기·바람개비 돌리기·줄넘기·닭싸움·단심줄놀이 등이 있었다. 그외의 영상자료에서는 쟁강춤·아박춤·3인무·물동이춤 등의 민속무용이 발견된다.

민요도 현재 북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전승하고 있으며, 현대화 작업도 활발하다. 원래 북한 지역의 민요는 황해도의 <긴난봉가>·<자진난봉가>·<사설난봉가>·<산염불>·<몽금포타령>·<양산도>·<해주아리랑>, 평안도의 <수심가>·<배따라기>·<영변가>·<기나리>·<메나리>, 함경도의 <어랑타령>(신고산타령)·<애원성>·<궁초쟁기>·<돈들라리>·<전갑섬타령> 등을 꼽을 수 있다.

요즘 북한에서 자주 공연하는 민요는 여러 영상자료나 책자를 통해 살펴 볼 때 <밭갈이노래>·<베틀가>·<까투리타령>·<밀양아리랑>·<아리랑>·<농수버들>·<황금산의 백도라지>·<양산도>·<옹해야>·<양산도>·<영변가>·<바다의 노래>(뱃노래)·<배따라기>·<산천가>·<영천아리랑>·<신고산타령>·<박연폭포>·<정방산성가>·<자진난봉가>·<희양널니리>·<도라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가면극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이유는 가면극이 착취자에

대한 폭로 규탄, 낙천적이며 쾌기있고 투쟁적인 기백, 높은 사상예술성, 행복한 근로생활에 대한 염원, 고상한 인도주의, 진실한 것에 대한 지향,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우리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면극과 유사하다.

북한에서는 1962년 이래 확립된 주체의 음악문예이론에 바탕을 두고 민족음악 문화를 해석한다. 이 이론에 따라 전 인민대중이 이룩한 음악전통은 오늘날 창조적으로 계승하지만, '북고주의'나 '민족허무주의'는 비판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의해 1960년대부터 남도창을 대표하는 판소리는 심하게 비판받는다. 특히 1964년 김일성이 문학예술계의 전문가들에게 행한 연설 이후, 북한에서는 판소리와 창극이 점차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한다. 김일성은 판소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결함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판소리는 양반들의 노래 곡조라는 점이다. 둘째로 판소리는 듣기 싫은 탁성(책소리)을 낸다는 점이다.

해방 후 즉시 북한에서는 무당에 의해 거행되는 곳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한다. 북한에서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종교를 해석하는데, 종교란 아편처럼 근로 대중을 오염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무속신앙도 전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민속놀이는 북한에서 매우 환영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전승된 것이기 때문에, 양반층의 부화하고 투기적이며 타락한 기분을 반영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속놀이는 김일성이 교시에서 표명한 '아름답고 진보적인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계승하여 활짝 꽃피우도록 하자고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는 민요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함께 전하여 온 가요를 비롯한 우리의 민족문화의 유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펼쳐 주신 영광 찬란한 주체시대에 들어서서야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활짝 꽃피어나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민요를 현대적으로 잘 계승하고 있다.

3.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현대적 개작과 그 배경

전통공연예술 가운데 북한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적극적으로 개작하여 전승하고 있는 분야는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이다.

북한에서는 전통적 민속놀이 가운데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던 가무놀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이중 <돈돌라리>와 <회양닐리리춤>의 현대적 개작이 주목된다.

<농악>·<씨름>·<그네뛰기>·<널뛰기>·<줄다리기> 등의 민속놀이도 북한에서 잘 전승되고 있다.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공연한 민속놀이에는 가무놀이인 돈돌라리와 함께 농악·씨름·그네뛰기·널뛰기·줄다리기·단심줄놀이 등이 있었다.

그리고 <아박춤>·<쟁강춤>·<물동이춤>·<부채춤>·<3인무> 등은 현재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인 민속무용을 현대화하여 공연하고 있는 공연물로서 모두 흥겹고 경쾌한 춤과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구경하는 사람들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지향하는 예술의 대중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의 접목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가사의 내용을 개작하거나 연행방식을 새롭게 개발하여 민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본격화된 듯하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민요의 가사를 개작하여 현대의 노동에 맞게 내용을 삽입하는가 하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과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현재 남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 실태를 비교하면, 남한은 전통공연예술을 전통적 양식대로 잘 보존하고 있지만, 그 현대적 재창조는 미진한 형편이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전통적 양식의 전통공연예술은 대부분 전승이 단절되었지만, 전통공연예술의 현대적 재창조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통공연예술

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에서 모든 민중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함께 예술성의 확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80년대 초를 전후하여 현재까지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은 북한의 문화시책과 궤를 같이 하며 전승되고 있는데,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복고적 경향과 함께 개방적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공연예술이 전통사회에서 동일한 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성장해 온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민족적 동질성을 공감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미 해방 이후 상당히 이질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전통공연예술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과 그 배경에 대한 고찰

전 경 욱 (고려대 국어교육과)

1. 머리말

해방 후 남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걸어 왔다. 그러므로 이미 상당히 이질화된 남북의 현실을 직시할 때, 통일에 대비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남아 있다.

민족문화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남북한이 민족적 동질성을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언어·민속·국악·문학·전통사상, 그리고 복식·식생활·관혼상제를 비롯한 생활문화 등 민족문화 전반에 걸쳐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로서의 유대를 긴밀하게 구축할 수 있는 준비가 현단계에서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공연예술은 전통사회에서 일반 민중에 의하여 향유되던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민족적 동질성을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남북간의 전통공연예술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들의 문화정책이나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의하여 전통

공연예술 중 어떤 분야는 적극적으로 현대화시켜 매우 활발하게 공연하는가 하면, 어떤 분야는 아주 전승을 단절시키는 등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래서 남북은 전통공연예술의 전승과 연구에서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현재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에서는 전통공연예술 가운데 어떤 분야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가,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은 어떻게 시도되었나,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의 전승과 단절을 결정하는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전통공연예술을 교류하거나 이 분야의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가면극·인형극·판소리와 창극·굿·민속놀이·민요 등 전통공연예술을 어떻게 전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모든 민중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예술성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므로, 현재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의 접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승양상은 어떤 배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밝혀, 북한의 문화시책과 문화양상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간된 전통공연예술 관련 책자, 그리고 북한의 TV프로그램 자료 및 북한예술단의 실제 공연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문화예술 시책은 1980년대에 들어와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현재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태와 그 배경

1)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태

공연예술 중 어떤 분야는 적극적으로 현대화시켜 매우 활발하게 공연하는가 하면, 어떤 분야는 아주 전승을 단절시키는 등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래서 남북은 전통공연예술의 전승과 연구에서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현재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에서는 전통공연예술 가운데 어떤 분야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가,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은 어떻게 시도되었나,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의 전승과 단절을 결정하는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전통공연예술을 교류하거나 이 분야의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가면극·인형극·판소리와 창극·굿·민속놀이·민요 등 전통공연예술을 어떻게 전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모든 민중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예술성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므로, 현재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의 접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승양상은 어떤 배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밝혀, 북한의 문화시책과 문화양상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간된 전통공연예술 관련 책자, 그리고 북한의 TV프로그램 자료 및 북한예술단의 실제 공연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문화예술 시책은 1980년대에 들어와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현재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태와 그 배경

1)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태

해방 후 현재까지의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동안 북한의 문화시책은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도 문화시책의 변화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해방 후부터 모든 사유재산을 폐지한 1958년 10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공연예술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다. 그래서 김일출이 『조선민속탈놀이 연구』를 1958년도에 발간하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 각종 탈놀이가 북한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는, 1958년 10월 이후부터 김일성이 『유일사상』이란 책자를 낸 196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실권을 쥐고 있던 박금철, 김창만 등의 후원에 의해서 전통공연예술의 계승에 대한 노력이 활발했던 듯하다. 그러나 1966년 말에 이러한 사업이 김일성에 의해 ‘봉건복고주의’라는 지탄을 받게 되고, 1967년에는 박금철이 숙청되었다고 한다.

셋째 단계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통공연예술이 현대적 계승이라는 미명 아래 상당히 변질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과 김일성 우상화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공연예술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이 대대적인 변모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북한의 문화시책이 이때부터 확고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북한 문화시책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지적되는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다.

한편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의 사실은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제목인데, 이 글 중 다음과 같이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방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문화유산에 결코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이야말로 민족의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사명을 지닌 계급이다.

자기 인민이 창조한 모든 애국적이며,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새로운 토대 위에서 더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 …… 만일 과거의 것을 다 부정한다면 무엇을 밑천으로 하여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겠는가.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계승할

만한 민족적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역사적 제한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민족적 유산을 맑스-레닌주의적 유물사관의 견지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긍정적 인 것들을 다 뽑아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다른 극단에 흘러 북고주의적 편향을 범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편향도 반드시 경계하여야 한다.

인용문은 민족문화유산 중 애국적·인민적·선진적인 것을 계승하되,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여 이 시기에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은 북고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넷째 단계는,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김정일이 북한의 실권을 잡으면서 문화시책도 바뀌게 된다. 주목되는 점은 이 기간의 문화시책이 북고적 경향과 개방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단계에서 전승이 단절되었던 전통공연예술을 다시 복원하는가 하면, 전통공연예술의 자료들을 대대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1955년에 찍었던 봉산탈춤의 영화를 1987년에 다시 편집하는가 하면, 1987년 이후 봉산탈춤을 복원하여 다시 공연하고 있다. 그리고 1977년에 김정일의 교시에 의해 시작된 민요 발굴 및 연구사업의 결과로 1987년까지 모두 7권의 『민요연구자료집』을 발간했으며, 민속놀이도 발굴하기 시작하여 ‘돈돌라리’와 같은 가무놀이를 새롭게 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197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문화시책은 북고적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는 전통문화유산을 북고주의라고 배격하던 셋째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상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문화시책이 북고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아울러 이 시기 문화시책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개방적 경향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공연내용을 살펴 보면, 드럼·전자오ργαν·전기키타·트럼펫·트롬본으로 구성된 보컬그룹이 남한의 유행가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점에서 개방적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 공연되고 있는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태는 다음과 같은 영상자

료나 실제 공연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1. 북한의 기록영화 <조선민속명절놀이>를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이 자료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공연한 민속놀이임.
2. 북한의 '신춘음악회'를 담은 비디오테잎(1989년도).
3. 1990년 12월 '평양민족음악단'의 서울 공연자료.
4. 1991년 8월 구소련 사할린에서 공연한 북한 '평양음악무용단'의 실제 공연을 참관한 자료.
5. 북한의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의 영화자료.
6. <조선예술인들의 노래와 춤>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잎.
7. <조선민요>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잎.
8. <민요 군중무용>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잎.
9. <조선무용집>이라는 제목으로 '만수대예술단'과 '평양모란봉예술단'의 공연을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10. '국립평양예술단'의 일본 공연을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11. 최근 변모하고 있는 북한의 공연예술을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북한 텔레비전 프로).

그러면 이제 해방 이전 북한 지역에서 전승되었던 전통공연예술인 가면극·인형극(꼭두각시놀음)·판소리와 창극·무궁·민속놀이·민요 등이 현재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그 현황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1) 가면극

해방 이전 북한 지역의 가면극은 황해도·강원도·함경도에서 발전된다. 황해도 일대의 가면극은 해서탈춤이라고 부른다. 해서탈춤은 1930년대까지만 해도 봉

산·사리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 동쪽지대인 기린·서흥·평산·신계·김천·수안, 북쪽지대인 황주, 서쪽지대인 안악·은율·재령·신천·송화, 그리고 남쪽지대인 강령·웅진·연백·해주 등지에서 전승되고 있었다.

해서탈춤은 주로 단옷날 놀았는데, 가면·의상·춤사위·대사의 유형에 의하여, 기린·서흥·봉산·황주·재령·신천·안악 등지의 탈춤을 대표하는 봉산탈춤형과 웅진·강령·해주 등지의 탈춤을 대표하는 해주탈춤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봉산탈춤형의 가면은 기본 재료인 종이를 잘 활용하여 형태나 색채 면에서 조형 감각이 뛰어나며, 팔목중탈과 취발이탈은 비사실적인 귀면형(鬼面型)으로 요철(凹凸)굴곡이 심하다. 그러나 해서탈춤형은 사실적인 인물탈로 요철이나 혹이 없고 눈망울만 크다. 봉산탈춤형의 기본 의상은 좌청(左靑)·우홍(右紅)의 원동에 초록색 소매를 단 등거리를 나삼 위에 입은 후 묶고 푸른 띠를 맨다. 그러나 해주탈춤형은 주로 회색의 쉼베 장삼을 입는데, 소매는 팔을 내리면 땅에 닿을 정도로 길다. 봉산탈춤형의 춤사위는 장삼 소매를 휘어잡고 뿌리거나 한삼을 경쾌하게 휘뿌리면서 두 팔을 빠른 사위로 굽혔다 폈다 하는 깨끼춤이 기본이다. 그러나 해주탈춤형의 춤사위는 느린 사위로 긴 소매를 고개 너머로 휘두르는 동작이다.¹⁾

강원도에서는 통천지방에서 전승되던 <통천가면극>이 있었고, 함경남도에서는 북청·함주·정평·영흥·홍원, 그리고 함경북도에서는 경성·명천·무산·종성·경원 등지에서 사자놀이를 놀았다고 한다. 이중 북청지방의 <북청사자놀이>가 가장 유명했다.

해방 후에 북한에서는 당의 지도하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황해도의 가면극, 함경남도의 <북청사자놀이>, 강원도의 <통천가면극>에 대한 대본을 채록하였다. 강원도의 <통천가면극>은 그동안 남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새로운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 자료들은 모두 북한에서 간행된 『조선민간극』과 『조선민속탈놀이연구』에 수록되어 있다.²⁾

특히 <봉산탈춤>은 해방 후 북한에서 황해도 예술단의 공연물로 지정되어 매우 활발하게 전승되었다. 1946년 6월 김일성이 <봉산탈춤>을 구경한 후 이를 잘

1)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 연구』(평양: 과학원 출판사, 1958), pp.138-139.

2) 권택무, 『조선민간극』(평양: 조선문학예술동맹출판부, 1966).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평양: 과학원출판사, 1958).

보존할 것을 교시하자, 1955년 영화로 담았다. 1987년에는 이 1955년의 영화를 다시 편집하여 기록영화 <봉산탈춤>을 상영하였다. 1987년 3월 27일자 «로동신문»에 의하면, 김정일이 <봉산탈춤>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다시 편집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1987년에 기록영화 <봉산탈춤>이 재편집되어 상영되었다고 한다. 이 영화는 <봉산탈춤>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록하는 원칙 아래 다시 편집되었다고 한다.

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가면극의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1987년 무렵 <봉산탈춤>을 다시 복원하여 공연하고 있는 사실과 맥락이 닿는다. 그러나 실제로 다시 복원된 <봉산탈춤>은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공연한 비디오 자료를 통해 살펴 볼 때 상당히 윤색된 것으로 나타난다. 원래 봉산탈춤은 제1과장 사상좌춤, 제2과장 팔목중춤, 제3과장 사당 거사춤, 제4과장 노장춤, 제5과장 사자춤, 제6과장 양반춤, 제7과장 미알할미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 그런데 현재 복원된 봉산탈춤은 놀이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원래 두 명이던 소무를 여섯 명으로 늘리고 탈을 마치 귀신탈처럼 꾸미는 등 예전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인형극

북한 지역의 인형극은 황해도 장연 지방의 <꼭두각시놀음>이 조사되어 있다.⁴⁾ 이 놀이는 남한의 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장연의 꼭두각시놀음은 모두 10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사당패의 놀이에는 없는 장안활자와 목랑청 등이 등장한다. 반면에 남사당패의 놀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흥동지와 꼭두각시가 장연의 놀이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장연 지방에서 꼭두각시놀음을 놀았던 사람들은 농촌에 정착하여 살면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짬짬이 인형을 만들어 공연했던 비직업적인 집단이었다. 반면에 남사당패는 유랑예인들로서 직업적인 연희집단이었다.

3) 임석재, 「봉산탈춤 대사」, 『국어국문학』18 (국어국문학회, 1957).

4) 권택무, 앞의 책.

그러나 북한에서는 <꼭두각시놀음>도 1960년대 중반 이후 전승이 단절되었으며, 대신에 <놀보와 흥보>·<무던이>·<꼬마사령관> 등의 현대화된 인형극이 새로 창작되었다.

(3) 판소리와 창극

판소리와 창극은 해방 이후 월북한 판소리 창자들에 의해서 한때 매우 흥성했던 것으로 전한다. 북한에서 판소리나 창극을 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1948년의 안기옥, 6·25 때의 조상선과 공기남, 연대를 알 수 없는 박동실·임소향·정남희·최옥선 등의 창악인들이 월북한 이후이다. 특히 박동실은 당시 판소리 서편제의 거두로서 박유전→이날치→김채만→박동실로 내려오는 정통 서편제 명창이었다.

이들에 의해서 무용극 <심청전>(1955.5)이나 창극 <춘향전>(1956.1) 등이 널리 공연되었으며, <황해의 노래>·<선화공주> 등 새로운 내용의 창극도 창작되었다. 그러나 1964년 11월 7일 김일성이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문학예술계의 전문가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판소리와 창극을 심하게 비판한 이후, 북에서는 점차 판소리와 창극이 사라지게 된다. 대신에 창극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한 혁명가극이 1970년대에 등장하여 <피바다>·<꽃 파는 처녀>·<당의 참된 딸>·<밀림아 이야기하라>·<금강산의 노래> 등 소위 5대 혁명가극을 탄생시켰다. 심지어 1980년대 후반에는 <춘향전>을 혁명가극의 방식으로 개작하여 공연하면서 민족가극 <춘향전>이라고 할 정도로 가극이 보편화된다.⁵⁾

(4) 굿

원래 황해도·평안도·함경도에는 다양한 굿이 전승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5) 『조선예술』 (평양: 문예출판사, 1989.4).

이후 북한에서는 굿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해방 이전 황해도의 무굿은 집굿(家祭)·넋굿·마을굿·신(神)굿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집굿에는 <철몰이굿>·<만수대택굿>·<식상도듬>·<반영천>이 있다. 넋굿에는 <진오귀굿>·<넋건지기>·<오귀굿>·<수왕굿>·<산수왕굿>이 있다. 마을굿에는 <대동굿>·<배연신굿>·<살문>·<개통산>이 있다. 신굿에는 <내림굿>·<허침굿>·<소슬굿>이 있다.

이 가운데 마을굿에 속하는 <대동굿>·<배연신굿> 등은 황해도 서해안에서 전승되는 풍어제(豐漁祭)인데, 무당에 의해 진행되면서도 온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굿의 주인이 되는 마을축제로서, 풍악·춤·노래가 어우러지는 민속예술이다.

해방 이전 평안도의 무굿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초복(招福)과 행운을 기원하는 <재수굿>과 죽은 사람의 극락천도를 위한 <다리굿>·<수왕굿>이 조사되어 있다. 이 중 <다리굿>은 평안도의 대표적인 무굿으로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거행한다. 남한 지역에서는 이런 종류의 굿을 <진오귀굿>이라고 부른다. <다리굿>은 보통 사흘 정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대규모의 놀이적 성격을 지닌 굿이다.

해방 이전 함경도의 무굿은 마을굿으로 <산령(山靈)굿>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함경도에서는 마을굿보다 집굿이 성행했던 듯하다. 집굿의 종류는 병을 고치기 위한 <병굿>, 살아 있는 사람들의 초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재수굿>, 죽은 사람의 극락천도를 위한 <망목이굿>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함남 북청지방에는 망목이굿을 새남굿이라고 했는데, 매우 큰 규모의 예술적인 굿이었다.

(5)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북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전승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북한 지역에서는 해방 이전에 황해도 장연지방의 <시절웃놀이>, 평안남도 은천지방의 <봉죽놀이>, 함경남도 북청지방의 <돈돌라

리와 달래춤>·<관원놀이>·<햇불싸움>, 함정남도 광천지방의 <마당놀이>, 함정북도 종성지방의 <방천놀이>, 함정북도 제가승 마을의 <주지놀이> 등 특징적인 민속놀이와 함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농악·씨름·그네뛰기·널뛰기·활쏘기 등의 민속놀이가 전승되고 있었다.

황해도 장연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시절웃놀이>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 농민들이 춘하추동 철을 따라 진행되는 여러 가지 농사일을 노래와 춤으로 엮어서 놀던 대동놀이였다. 이 놀이를 <시절웃놀이>라고 부르는 것은 집단적 가무놀이에 앞서 이른바 그해 농사의 풍흉을 예견하는 웃놀이를 하기 때문이다. 이 놀이는 <종군놀이>, <부종군놀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씨뿌리는 것을 형상한 내용이 놀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봉죽놀이>는 우리나라 어촌에서 전승되던 민속놀이이다. 이 놀이는 서해안에서 상당히 후대까지 남아 있었는데, 평안남도 온천군 안석리, 평안북도 정주 앞바다의 창도, 경기도 부천 등에서 성행했다. 이밖에 <봉죽놀이>와 유사한 놀이로는 제주도의 <용왕제>, 경기도 장단의 <수신제> 등이 발견된다. 안석리의 <봉죽놀이>는 음력 정월 대보름 전날인 14일에 놀았다. 어부들은 해가 동쪽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새 옷을 차려 입고 놀이터에 모여들었다. <봉죽놀이>는 노래와 춤으로 엮어진 집단적 가무놀이인데, 노래의 기본은 뱃노래인 <봉죽타령>이다.

함정남도 북청군을 비롯하여 신창군·덕성군·단천군·이원군·갑산군·풍산군 등지에 널리 퍼져서 전해온 <돈돌라리>는 <사자놀이>·<달래춤>과 함께 이 지방 사람들이 예전부터 즐겨는 민속놀이이다. 그중에서도 북청 모래산(현재 신창군 속후)의 <돈돌라리>가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해방 후에는 북한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는 집단적 가무놀이로 널리 보급되었다. 북청 모래산은 깨끗한 모래밭, 소나무, 푸른 바닷물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예로부터 한식과 단옷날에 돈돌라리춤과 노래가 벌어졌다. 돈돌라리춤은 누구든지 북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춤판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랜 전승과정을 통하여 놀이구성에는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졌다.

함정남도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에서는 강원도 북평, 경북 영양 등지에서와 같이 음력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관원놀이>를 거행하였다. <관원놀이>는 관원들의

행차의식을 모방한 가장행렬과 새로 도입한 신임 사또가 백성들의 죄를 판단하는 모의재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이것을 <감영놀이>·<관아놀이>·<원놀음>·<원님놀이>·<사또놀음> 등 여러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 놀이는 남북의 여러 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승되었는데, 그중 토성의 관원놀이가 가장 성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놀이는 연 3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때 은북청지방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한다.

함경남도 광천 일대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마당놀이>가 전승되어 왔다. 광천군은 단천에서 북으로 뻗은 협곡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마당놀이>는 단천에도 있었으며, 인접한 김책시 일대에까지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 광천의 <마당놀이>가 가장 성행하였다. 대체로 <마당놀이>는 마당에서 노는 '음률'(音律) 음악(音樂)을 가리킨 것이다. 이 놀이는 단옷날 주로 농악과 칼춤으로 즐긴 것이다.

함경북도 종성의 <방천놀이>는 초여름철 여성들의 야외놀이로 전승되어 왔다. 이 지방은 봄이 짧아서, 강물이 풀리자마자 훈풍이 불고 곧 진달래꽃이 진다. 그러면 점차 초여름 기운이 들고 녹음 방초가 일시에 우거진다. 이런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곳에서는 <화전놀이> 대신 오히려 <방천놀이>가 성행하였다. 마을의 모든 부녀자들이 단오와 유두 사이에 모여 민요를 부르며 놀았다.

함경북도 북부의 산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재가승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주지놀이>를 놀았다. <주지놀이>는 북방계 가면극의 일종으로, 마을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춤추는 놀이였다고 한다. 개가죽으로 사자처럼 꾸민 탈꾼이 나와서 주지춤을 추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뉘두리춤을 추며 밤새도록 놀았다는 것이다. <주지놀이>의 주인공인 '주지'는 호랑이와 잡귀를 지배하는 동물로 등장한다. 주민들을 괴롭히는 호랑이와 잡귀의 행패가 <주지놀이>의 여러 과장으로 꾸며졌는데, 그때 '주지'가 등장하여 호랑이와 잡귀를 쫓아내고 화(禍)를 입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 준다.

민속놀이는 예로부터 세시풍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전승되어 왔다. 그런데 해방 후 북한에서는 기존의 명절을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속놀이도 그동안 상당히 변모되었다. 현재 북한의 명절은 1월 1일(설), 2월 16일(김정일 생일), 4월 15일(김일성 생일), 5월 1일(국제노동절), 9월 9일(북한정권 창건일), 10월

10일(노동당 창간일), 12월 27일(사회주의 헌법제정일)이다. 이 날들은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1988년부터는 추석음, 1989년부터는 음력 설을 다시 명절로 복원하여 지내고 있다. 특히 4월 15일(김일성 생일)은 소위 '민족 최대의 명절'로서 각종 기념행사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특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세시풍속 대신에 새로운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명절을 지내게 됨에 따라서, 세시풍속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던 민족 고유의 각종 민속놀이가 군사놀이·체육경연·서클공연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민속놀이의 전승현황은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민속놀이의 공연종목에는 돈돌라리·그네뛰기·널뛰기·활쏘기·웃놀이·씨름·줄다리기·봉산탈춤·농악과 어린이놀이로 제기차기·바람개비 돌리기·줄넘기·닭싸움·단심줄놀이 등이 있었다. 북한에서 제작한 <조선무용집>이라는 제목의 영상자료에는 사과풍년·만풍년·달맞이·바닷가 처녀들·방울춤·장고춤·도라지·봄맞이·비단 짜는 처녀·아박춤이 들어 있다. 국립평양예술단의 일본공연 영상자료에서는 아박춤·3인무·쟁강춤·농악이 발견된다. 그리고 필자는 1991년 8월 소련 사할린에서 평양음악무용단의 공연을 직접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쟁강춤·아박춤·3인무·물동이춤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북한에서 제작한 <민요 군중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자료에는 돈돌라리·양산도·옹헤야·도라지의 음악반주에 맞추어 남녀 한 쌍이 한 조가 된 후, 여러 조로 구성된 남녀가 마치 사교춤을 추듯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 이는 전통 공연예술을 현대적으로 개작한 극단적인 경우로 생각된다.

(6) 민요

우리나라의 민요는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내용과 가락을 지니고 있다. 민속은

원래 그 지역의 지리·역사·인정·풍습·생활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생성·전승된다. 이러한 배경을 모태로 민요도 지역에 따라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며 전승되어 왔던 것이다.

민요도 현재 북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전승하고 있으며, 현대화 작업도 활발하다. 원래 북한 지역의 민요는 황해도의 <긴난봉가>·<자진난봉가>·<사설난봉가>·<산염불>·<몽금포타령>·<양산도>·<해주아리랑>, 평안도의 <수심가>·<배따라기>·<영변가>·<기나리>·<메나리>, 함경도의 <어랑타령>(신고산타령)·<애원성>·<궁초댕기>·<돈들라리>·<전갑섬타령> 등을 꼽을 수 있다.

요즘 북한에서 자주 공연하는 민요는 여러 영상자료나 책자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1989년도 신춘음악회에서는 뱃노래·양산도·영변가,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영상자료에서는 <돈들라리>·<노들강변>, <조선예술인들의 노래와 춤>이라는 영상자료에서는 <밭갈이노래>·<베를가>·<까투리타령>·<밀양아리랑>, <조선민요>라는 영상자료에서는 <아리랑>·<농수버들>·<황금산의 백도라지>·<양산도>·<옹혜야>, 국립평양예술단의 일본공연 영상자료에서는 <옹혜야>·<양산도>·<영변가>, 1990년 평양민족음악단의 서울공연에서는 <영변가>·<바다의 노래>(뱃노래)·<양산도>·<배따라기>·<농수버들>·<산천가>·<영천아리랑>·<신고산타령>·<박연폭포>·<정방산성가>·<자진난봉가>·<회양닐니리>·<도라지>·<옹혜야>, 그리고 1991년 평양음악무용단의 사할린 공연에서는 <양산도>·<영변가>·<아리랑>·<밀양아리랑>·<진도아리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 배경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 분야 중 민요와 민속놀이는 해방 이후 계속하여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으나, 가면극은 1960년대 중반에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1987년 무렵부터 다시 복원하여 전승하고 있으며, 꼭두각시놀음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전승이 단절되었고, 판소리와 창극은 1964년 이후 점차 사라

졌으며, 무궁은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전승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떤 이론적 배경에 의해 전통공연예술을 계승하고 있는가? 우선 이 점을 밝히는 일이 북한 전통공연예술의 현황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전통공연예술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전반을 해석하는 북한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북한에서 신봉하는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혁명적 본질과 계급적 성격을 특징 짓는 뚜렷한 징표가 된다.

여기서 '당성'이란 문학예술을 혁명투쟁에 충실히 복무시켜 혁명투쟁이 제기한 절박한 과업을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그들이 당면한 혁명과업을 해결하는 데 문학예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것이다.⁶⁾ '노동계급성'은 문학예술을 포함한 모든 선전·선동사업에 언제나 계급적 내용을 담아 계급 교양의 힘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⁷⁾ '인민성'이란 문학예술이 혁명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투쟁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불러일으켜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

이처럼 ① 당성, ② 노동계급성, ③ 인민성에 입각한 문학예술에 대한 지침은 전통공연예술을 비롯한 전통문화 전반의 해석과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전통문화유산 중 경제적 착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갈등을 강렬하게 표현했거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계급적 갈등을 부각시켜서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저항정신과 계급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문예이론 이외에 김일성의 현장교시 등 일정한 원칙에 의해 전통공연예술이 평가되고, 전승의 지속과 단절 여부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간행된 여러 문헌을 조사해 보면 저자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통공연예술의 각 분야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마치 한 사람에 의해 씌어진 것처럼 동일한 내용이다.

6) 「김일성 저작선집」 3, p.159 및 동선집 4, p.144 참조.

7) 「김일성 저작선집」 3, pp.129-130 참조.

8) 「김일성 저작선집」 4, p.156 참조.

이제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해석과 그 계승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면극·꼭두각시놀음·판소리·굿·민속놀이·민요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1) 가면극

북한에서는 가면극을 지나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가면극 작품들은 착취자에 대한 폭로 규탄, 행복한 근로 생활에 대한 염원, 고상한 인도주의, 진실한 것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는 동시에 작품에 삽입된 서정 가요를 통하여 아름다운 조국 산천을 긍지 높이 찬양하고 있는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애국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⁹⁾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가면극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가면극이 착취자에 대한 폭로 규탄, 낙천적이며 쾌기있고 투쟁적인 기백, 높은 사상 예술성, 행복한 근로생활에 대한 염원, 고상한 인도주의, 진실한 것에 대한 지향,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획일화되고 체계화된 그들의 예술관에 의해서 가면극을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면극에 대한 객관적 실상을 온전히 밝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과연 가면극에 행복한 근로 생활에 대한 염원이 있으며, 고상한 인도주의가 발견되는가. 더욱이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긍지 높이 찬양하며 애국사상을 표현하고 있는가. 지나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더욱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가면극에 대한 높은 평가와 긍정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가면극의 전승이 중단되었거나 미미한 실정이란 점이다. 북한에는 <북청사자놀이>·<봉산탈춤>·<강령탈춤>·<통천가면극> 등 우수한 가면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들을 활발하

9) 권택무, 앞의 책, p.80.

게 전승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다만 197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이 북한의 실권을 쥐게 되자,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바뀌면서 <봉산탈춤>만이 1987년 무렵 다시 복원되었다.

(2) 인형극

다음은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살펴 보자.

봉건 시기 우리 조상들의 민주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 두 인형극(꼭두각시놀음 - 꿩자 주) 작품의 바닥에는 악덕과 허위에 찬 봉건사회의 모순들을 폭로 비판하면서, 선량하고 정의로운 것을 옹호하며 행복한 조국의 미래를 염원하는 인민의 생활감정이 명백히 흐르고 있다.

조국의 향토에 대한 사랑, 뜨거운 정의감, 고매한 인도주의 정신은 봉건사회의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폭인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인형극에서는 추악한 것, 즉 타락한 중, 멸망에 직면하면서도 탐욕과 향락에 눈이 어두운 봉건관료, 악독한 착취자에 대한 폭로 비판이 가해진다. 그러한 폭로는 대상의 저열한 타락과 비판자의 높은 사상, 정신적 높이로 하여 풍자의 불길로 타올랐다.¹⁰⁾

인용문과 같이 북한에서는 우리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꼭두각시놀음>에는 당시 인민들의 계급적 감정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 양반·승려 등 특권 지배계급에 대한 증오·정멸·반감의 정신이 예리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 악덕과 허위에 찬 조선사회의 모순들을 폭로 비판하면서 선량하고 정의로운 것을 옹호하며 행복한 조국의 미래를 염원하는 인민의 생활감정이 명백히 흐르고 있다는 점, 조국의 향토에 대한 사랑과 뜨거운 정의감으로 고매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선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폭로 비판한 높은 사상·정신적 모습을 보인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0) 권택무, 앞의 책, p.87.

(3) 판소리와 창극

북한에서는 1962년 이래 확립된 주체의 음악문예이론에 바탕을 두고 민족음악 문화를 해석한다. 이 이론에 따라 전 인민대중이 이룩한 음악전통은 오늘날 창조적으로 계승하지만, '복고주의'나 '민족허무주의'는 비판한다. 그리고 봉건주의 사회에서 착취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음악은 주체의 문예이론에 의거하여 비판한다. 그러므로 민족음악이라고 무조건 옛것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성의 요구나 계급성의 원칙을 떠난 '복고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의해 1960년대부터 남도창을 대표하는 판소리는 심하게 비판받는다. 특히 1964년 김일성이 문학예술계의 전문가들에게 행한 연설 이후, 북한에서는 판소리와 창극이 점차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한다. 다음 인용문은 그 사연을 잘 전해 준다.

남도창(판소리: 필자 주)을 민족음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일부 동무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도창은 옛날 양반들의 노래 곡조인데다가 듣기 싫은 탁성을 냅니다. 조선사람 목소리가 본래 아름다운데 고운 처녀가 책소리를 내는 것은 정말 듣기 좋합니다. 춘향이 어머니가 책소리를 내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춘향이가 책소리를 내는 데는 질색입니다. 지금 춘향전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창극들이 인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책소리를 내는 남도창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1964년 11월 7일 김일성이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문학예술계의 전문가들에게 행한 연설 중의 일부).

여기에서 김일성은 판소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결함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판소리는 양반들의 노래 곡조라는 점이다. 둘째로 판소리는 듣기 싫은 탁성(책소리)을 낸다는 점이다.

이 내용을 포함하여 판소리에 대한 비판은 계급성·시대성·음악의 경험성 등 여러 면에서 이루어졌다. 즉, 판소리는 양반들이 갓 쓰고 당나귀를 타고 다니던 시절에 술이나 마시면서 앉아서 흥얼거리던 복고주의 음악이라는 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지금의 청년들의 감정에 맞지 않아 대부분 듣지 않는다는 점, 발전과정에서 양반계층에 영합하는 오락물로 전락하여 인민들을 봉건통치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는 점, 오늘날도 그들의 혁명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 판소리는 부자연스럽고 기형적인 소리인 '썩소리'를 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 서도창(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와 잡가)에서 경험해 온 음악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특히 이런 비판이 김일성의 현장교시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된다. 그러나 그 내용이 판소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평가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판소리는 원래 그 형성과정에서 천민 출신인 광대들이 끊임없이 음악예술로 발전시켜 점차 모든 계층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음악일 뿐 아니라, 17~18세기에 세련미를 더하여 오다가 20세기 전반부에 대중성을 크게 획득한 것이 '창극'인 점을 감안한다면 판소리 형식이야말로 민족정서의 시대성을 계승해 온 민족형식인 것이다.

또한 판소리에는 한시·시조 등 양반문학적 요소도 있으나, 해학과 풍자가 도처에서 나타나며, 신분제도 타파와 봉건관료의 부패상 폭로 등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진보적' 요소가 많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무가·민요·잡가 등 서민 취향의 요소와 우조·평조·계면조·덜렁제·경드름·석화제 등의 다양한 음조가 얼마든지 발견된다.

그리고 썩소리(탁성)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리성을 갖춘 판소리의 발성을 말하는 듯한데, 이것을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취향의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판소리는 원래 호남지방에서 발생·성장한 예술이므로 그곳 출신의 창자가 불러야 역시 제맛이 나며, 판소리를 감상하는 청중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쪽 지방의 음악적 취향이 다르고, 판소리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창자가 부족하므로, 북한에서는 판소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창극도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도민요가 바탕으로 되어 있는 <강 건너 마을에서 세 노래 들려 온다>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민족음악은 이것을 표준으로 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그가 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인 서도민요에 익숙하다는 음악의 경험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극과 민족음악을 서도민요에 바탕을 두고 발전시키라는 것이다. 그 후 북한에서는 점차 창극이 새로운 형태의 가극으로 전환되었다. 그것이

소위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당의 지도하에 창작되었다는 ‘피바다식 가극’이다. 『조선예술』(1989.4)에서는 <민족가극 춘향전>의 대본과 공연사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춘향전>은 판소리식의 창극이 아니라 혁명가극(피바다식 가극)의 형식과 창법을 본딴 것으로 나타난다.

(4) 굿

해방 후 즉시 북한에서는 무당에 의해 거행되는 굿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한다. 북한에서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종교를 해석하는데, 종교란 아편처럼 근로 대중을 오염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무속신앙도 전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북한의 『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무당의 개념이다.

귀신과 통하는神通력을 가졌다고 자칭하면서 굿을 하고 점을 치는 것과 같은 미신적인 일을 업으로 삼고 허황한 언사와 행동으로 몽매한 사람들을 기만하여 미신을 퍼뜨리며 인민들을 착취하여 기생적인 생활을 하는 자. 무당들은 영혼숭배와 마술이 결합된 복잡한 의식을 통하여 신을 섬기는 제관, 살풀이로써 병을 치료한다는 무의, 복을 받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며 비를 오게 하고 동리와 집안을 편안하도록 한다는 기도사, 점을 쳐서 좋은 일과 굿은 일을 예언하고 굿은 일은 액막이를 하여 미리 막는다는 예언자, 춤과 노래로써 굿을 하여 귀신을 위로한다는 놀이군 등을 겸하여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돈벌이를 한다. 무당은 원시사회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특히 착취사회에서는 지배계층과 결탁하여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착취하여 왔다. 무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해방 후 완전히 없어졌으나 남조선과 세계의 여러 나라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11)

이상과 같이 북한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들어 무당에 대하여 혹평한다. 첫째, 무당은 허황한 언사와 행동으로 몽매한 사람들을 기만하여 미신을 퍼뜨리며 민중을 착취한다고 비판한다. 둘째, 무당은 착취사회에서 지배계층과 결탁하여 민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착취하여 왔다고 비판한다. 무당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무속신앙을 기

11) 『백과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758.

반으로 전승되던 ‘굿’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다.

(5) 민속놀이

다음은 민속놀이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살펴 보자.

우리는 김일성 동지의 교시정신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 민속놀이에서 아름답고 진보적인 것을 적극 찾아내어 그것이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엮는다.

우리나라 민속놀이는 인민성이 풍부하다. 그것은 대부분의 놀이들이 인민들 자신이 창작하여 인민들 자신이 즐겼고, 인민들 자신이 즐긴 것이기 때문이다. …… 중략 …… 따라서 우리나라 민속놀이들에는 착취계급의 부화하고 투기적이며 타락한 기분을 반영한 것이 없다.¹²⁾

이상에서 민속놀이는 북한에서 상당히 환영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속놀이가 북한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그것이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전승된 것이기 때문에, 양반층의 부화하고 투기적이며 타락한 기분을 반영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속놀이는 김일성이 교시에서 표명한 ‘아름답고 진보적인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계승하여 활짝 꽃피우도록 하자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조선의 민속놀이』에서는 여러 민속놀이를 소개하고, 이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농악>에 대하여 “농악소리를 한번 듣게 되면 누구나 절로 벅찬 환희감과 용솨는 힘을 느낀다. 또한 농악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로하는 인민들의 화목한 분위기 속에 끌려들게 함으로써 집단의 단합과 용감성을 배양한다. 그러나 적들은 우리 농악소리에 압도되어 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 공포에 떨게 된다. …… 중략 …… 농악은 해방 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더욱 계승 발전되었는 바 특히 농촌이 전부 협동화하고 모든 작업이 집단화된 오늘 농악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옳은 문화정책에 의하여 농악은 그 어느 때보다 대중적으로

12) 서득창 외, 『조선의 민속놀이』 (평양: 과학원 민속학연구소, 1964) 서문.

그리고 더욱 예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격찬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원래 세시풍속에서 유래한 민속놀이가 해방 후 북한의 새로운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기념일(5·1절, 9·9절, 8·15 해방기념일 등) 행사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6) 민요

북한에서는 민요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함께 전하여 온 가요를 비롯한 우리의 민족문화의 유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펼쳐 주신 영광 찬란한 주체시대에 들어서서야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활짝 꽃피어나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민요를 현대적으로 잘 계승하고 있다.

김일성은 1951년 6월 30일 <우리 문학예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작가·예술인들과 담화를 나누었다. 전쟁이라는 상황 아래에서 문학·예술의 임무와 사명을 강조하기 위한 모임이었던 듯하다. 그 내용 중에 민요의 계승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주목된다.

과거의 모든 민요를 그대로 부르는 것이 민족문화의 계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민족문화 발전의 기본노선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부문에서는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려는 동시에 새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율, 새로운 불뚱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¹³⁾

인용문과 같이 김일성은 민요를 부르더라도 과거의 가사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바꾸고, 선율과 율동도 새롭게 개발하라고 교시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북한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이 일정한 원칙에 의해 해석·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유물사관,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이론, 김일성의 현장교시, 그리고 당의 문화정책에 부합하는 예술만이 높이 평가된다는 점이

13) 『김일성 저작선집』 1, p.294.

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해석은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킨다. 여기에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과 저항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느냐의 여부도 중시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해석은 문학예술에 있어서의 혁명적 본질과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배경으로, 김일성의 현장교시나 당의 문화정책이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¹⁴⁾

3.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현대적 개작과 그 배경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공연예술 가운데 북한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적극적으로 개작하여 전승하고 있는 분야는 민속놀이·민속무용·민요이다.

1) 민속놀이의 현대적 개작

북한에서는 민속놀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민속놀이는 대부분 일반 서민들 자신이 창작하여 놀고 즐긴 것이기 때문에, '인민성'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 환영받고 있다. 『조선의 민속놀이』에서는 민속놀이가 원래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점, 놀이의 방법이 알기 쉬우면서도 내용이 풍부하며 흥미진진하다는 점, 양반층 같은 착취계급의 부화하고 투기적이며 타락한 기분을 반영한 것이 없다는 점, 인민들의 집체적 지혜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대중의 지혜에 의해 세련되고 향기 높은 문화성과 고상한 취미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 우리 민족의 낙천적인 기상과 풍부한 정서로 흘러 넘쳐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민속놀이를 자랑스런 유산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¹⁵⁾

14) 최철·전경옥, 『북한의 민속예술』(서울: 고려원, 1990), p.61.

15) 서득창 외, 앞의 책, 서문.

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해석은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킨다. 여기에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과 저항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느냐의 여부도 중시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해석은 문학예술에 있어서의 혁명적 본질과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배경으로, 김일성의 현장교시나 당의 문화정책이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¹⁴⁾

3.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현대적 개작과 그 배경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공연예술 가운데 북한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적극적으로 개작하여 전승하고 있는 분야는 민속놀이·민속무용·민요이다.

1) 민속놀이의 현대적 개작

북한에서는 민속놀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민속놀이는 대부분 일반 서민들 자신이 창작하여 놀고 즐긴 것이기 때문에, '인민성'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 환영받고 있다. 『조선의 민속놀이』에서는 민속놀이가 원래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점, 놀이의 방법이 알기 쉬우면서도 내용이 풍부하며 흥미진진하다는 점, 양반층 같은 착취계급의 부화하고 투기적이며 타락한 기분을 반영한 것이 없다는 점, 인민들의 집체적 지혜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대중의 지혜에 의해 세련되고 향기 높은 문화성과 고상한 취미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 우리 민족의 낙천적인 기상과 풍부한 정서로 흘러 넘쳐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민속놀이를 자랑스런 유산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¹⁵⁾

14) 최철·전경옥, 『북한의 민속예술』(서울: 고려원, 1990), p.61.

15) 서득창 외, 앞의 책, 서문.

북한에서는 전통적 민속놀이 가운데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던 가무놀이와 민속무용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조선민속무용』에서는 전통적 민속무용을 현대화하는 데 관련된 이론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우리나라 민속무용은 우리 선조들의 애국주의정신과 창조적 로동, 락천적인 생활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방에서 레질 바른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반영하고 있다. 생활내용에서 진보적이며 형식에서 인민적이고 지방적 특색을 안고 있는 민속무용은 오늘날도 우리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조선무용발전의 귀중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 중략 -

민속무용을 로동당시대의 문화적 재부로 되게 하자면 그것을 발굴하고 완성하는 데서 우리 당이 밝혀 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민속무용유산이 일부 제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족무용』에 수록된 무용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적 문제들에 류의 하면서 보아야 한다.

우선 『조선민속무용』은 그안에 있는 자료들을 예술적으로 가공하여 재현한다면 이야기거리에서 현대성을 옹계 구현하여야 한다. 민속무용의 생활내용들은 당시에는 비록 진보적인 것이었다고 하여도 오늘의 립장에서 보면 부족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거리들을 시대의 감정을 구현하여 발전개작하는 것은 민속무용을 재현완성하는 데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또한 춤가락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춤가락을 다듬는 데서는 원래의 색깔을 살리면서 다듬어야 한다. 지나치게 다듬어서 원래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¹⁶⁾

현재 북한에서 전승하고 있는 전통공연예술은 바로 이러한 이론과 원칙에 입각하여 재창조된 것이다. 『조선민속무용』에서는 역사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발굴한 민속무용을 80여종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을 현대화한 종목 가운데 자주 공연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 보기로 한다.

16) 박종성, 『조선민속무용』(평양: 문예출판사, 1991), pp.4~6.

(1) 돈돌라리

<돈돌라리>는 원래 함정남도 북청 지방에서 예전부터 즐겨 논 민속놀이이다. 북청의 부녀자들은 한식 이튿날 오전에는 달래를 캐고, 오후에는 남대천가나 속후면의 모래산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았다. 이때 <돈돌라리>·<이 강산 서산에>·<라리라 라따>·<쏘 쏘 쏘라이쏘>·<삼천리 노래>·<전갑섬타령>·<양류나 칭산>·<봄철 나비>·<리리 훌리리> 등 20여종의 민요들이 불렸는데, 모두 흥겹고 정쾌한 가락의 노래들이다.

돈돌라리춤은 누구든지 북 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춤판에 뛰어 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랜 전승과정을 통하여 놀이구성에는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졌다. 흰 모래밭에 춤판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큰 원형을 이루면서 둘러앉으면, 그중 몇 사람이 춤판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때 모여 앉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흥을 돋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하였던 피리·통소 등 풍악 반주가 뒤따르기도 한다. 이리하여 놀이판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면, 한복판에 나간 사람은 군중들의 손뼉 장단·북 장단·노래에 맞추어 명랑하고 정쾌한 돈돌라리춤을 춘다. 그러면 물러 앉았던 사람들이 춤판에 뛰어들어 함께 어울린다.

이 놀이는 후에 놀이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는데 점차 총각들도 참가하게 되고, 특히 1930년대 이후에는 하나의 반일집회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래서 일경(日警)은 군중들의 놀이 모임을 감시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남녀 청년들은 경찰이 오는 것을 서로 경계하면서 이 놀이를 계속하였다.

돈돌라리에서 ‘돈돌’은 ‘계 자리로 돌아 온다,’ ‘동틀 날’의 뜻을 갖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돈돌라리’가 ‘동틀 날’ 즉 해방을 맞이할 아침으로, 또한 식민지가 되었던 우리 땅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돈돌라리>가 항일민요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의 민속놀이』에서는 “돈돌라리춤과 노래에는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적 사상·감정이 힘차게 숨쉬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가무놀이는 오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청년들과 인민들이 가장 즐겨 부르며 춤추는 가무의 하나로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¹⁷⁾

북한의 ‘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인 《로동청년》(1988. 3. 13)에서는 <돈돌라리>의 특징을 윤무(輪舞) 형식과 패기 있는 춤가락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돈돌라리>는 남녀가 빙 둘러서서 춤을 추는 윤무인데, 춤을 추면서 중간중간에 “좋지!”, “좋지!” 등의 소리를 넣어 흥을 돋우는 등 새롭게 개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이 기사에 의하면 <돈돌라리>는 민속무용을 모두 발굴하고 창작 완성하는 데 대한 김정일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용 창작가들이 새롭게 개작 완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돈돌라리>는 현재도 전승되면서 최근 새롭게 개작되어, 북한의 전 지역에서 각광받는 가무놀이로 부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1987년에 발간한 『조선음악연감』을 보면 1986년도 평안북도 예술선전대의 공연 종목에 <돈돌라리>가 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 필자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공연한 민속놀이를 담은 비디오를 봤는데, 거기에 <농악>·<봉산탈춤>과 함께 <돈돌라리>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 공연하고 있는 <돈돌라리>는 예전의 가무놀이를 완전히 개작한 형태였다. 우선 의상이 매우 화려하고, 소고 같은 소도구를 사용하며, 바구니를 갖고 몸을 완전히 뒤로 젖히는 동작을 비롯하여 춤사위가 달랐고, 템포가 매우 빨랐으며, 관현악의 음악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면서 춤추는 등 상당히 개작된 가무놀이였다.¹⁸⁾ 민요 <돈돌라리>의 가사도 원래의 내용을 많이 변경하였다.

A

(여름)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①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리라리라리 돈돌날이요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리라리라리 돈돌날이요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②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③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17) 서득창 외, 앞의 책, p.41.

18) 필자의 고향이 마천 북청이므로 월남한 북청 출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돌라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1991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돈돌라리>팀이 참가하도록 주선하였기 때문에, <돈돌라리>의 원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 | | |
|-------------------|--------------------|
| 시내 감변에 돈돌날이요 |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
| ④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⑤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 감산아 |
|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 리라리라리 돈돌날이요 |
|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 리라리라리 돈돌날이요(필자 채록) |

B.

- | | |
|---------------------|----------------------|
| (전렴)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 ① 산에 가면 산이 모두 황금산이라 |
| 보배산천에 돈돌라리요 | 열매가 주렁져 돈돌라리요 |
| ② 들에 가면 들이 모두 풍년벌이라 | ③ 집집마다 찾아가면 웃음꽃이라 |
| 금나락 넘쳐나 돈돌라리요 | 기쁨이 넘쳐나 돈돌라리요 |
| ④ 일터마다 찾아가면 노래 소리라 | ⑤ 간 곳마다 경치 좋고 살기가 좋아 |
| 일하기 흥겨워 돈돌라리요 | 금수라 이 감산 돈돌라리요 |

A는 원래 예전부터 부르던 <돈돌라리>이고, B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개작한 <돈돌라리>이다. 해방 후 북한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체제가 우수하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북한이 마치 지상낙원인 것처럼 가사를 개작하여 놓은 것이다.

(2) 회양널니리춤

<회양널니리춤>은 원래 강원도 회양 지방의 가무놀이인데, “널니리가 널니리”라는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춤을 춘다. 회양널니리 장단은 굿거리장단인데 느린 편이다. 조선시대에 머슴들이 가을에 추수 타작을 다 끝내고 하루 낱을 받아서 놀 때 추던 춤이 바로 널니리춤이었다. 그러므로 다소 거칠고 투박한 춤동작으로 위어지는데, 가장 특징적인 동작은 팔을 쭉 펴 손목을 세우고 놀리는 동작이다. 굽혀서 놀리는 동작은 적고 팔을 편 채로 놀리는 동작이 더 많다.¹⁹⁾

<회양널니리춤>은 노래와 더불어 농민들이 모두 즐겨 노는 대중적인 가무놀이로 발전하여, 현재 북한의 예술단에 의해 자주 공연되고 있다. 필자는 1991년 8월 소련 사할린에서 남한과 북한의 전통공연예술단이 공연하는 것을 관람할 기회

19) 박종성, 『조선민속무용』 (평양: 문예출판사, 1991), p.127 참조.

가 있었다. 북한의 예술단은 '평양음악무용단'이었는데, 그 공연 종목 중에 <희양닐니리>가 있었다. 혼성 5중창으로 부르는 민요의 곡조가 매우 흥겹고 경쾌했는데, 민요의 현대화 작업이 매우 잘 이루어진 경우라고 생각되었다.

(3) 농악 및 기타 민속놀이

<농악>·<씨름>·<그네뛰기>·<널뛰기>·<줄다리기> 등의 민속놀이도 북한에서 잘 전승되고 있다.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공연한 민속놀이에는 가무놀이인 돈들라리와 함께 농악·씨름·그네뛰기·널뛰기·줄다리기·단심줄놀이 등이 있었다.

해방 후 농촌이 전부 협동화하고 모든 작업이 집단화된 북한에서는 <농악>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으므로, 당의 문화정책에 의해 농악을 대중적이고 예술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북한에서는 현재 농악에 대하여 “명절날과 특히는 농촌들에서 협동농장의 결산분배와 같은 명절날이면 으레히 따르는 춤으로서 군중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춤으로 일반화되어 있다.”²⁰⁾고 할 정도로 널리 보급하여 활발하게 전승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농악대의 맨앞에 서는 농기(農旗)의 글은 원래 「農者 天下之大本」이라고 한자로 쓰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한글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글 전용을 추구하는 북한의 시책에 따른 것으로 문화의 대중화에도 연결된다.

앞에서 소개한 영상자료를 통해 본 농악은 무동을 3층으로 올리는가 하면 열두 발 상모를 돌리는 등 매우 어려운 연기를 구사하며, 활달하고 경쾌한 춤사위와 음악이 어울리는 놀이로서 예전 농악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씨름>은 우리 민족의 건전하고 진정한 민속놀이로 인정받아서 오늘날 북한의 주요 민속경기의 하나가 되었다.

<그네뛰기>는 그 유래가 오래 되고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속놀이로 평가되는데, 오늘날도 북한 근로자들의 새로운 생활감정에 맞게 계승 발전되고 있다.

20) 박종성, 앞의 책, p.21.

<널뛰기>는 해방 후 북한에서 당의 문화정책과 체육정책에 의하여, 근로인민들의 진정한 군중문화오락으로서 또한 인민체육으로서 여성들의 민족적 운동경기의 하나로 새롭게 발전하였다. 특히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영상자료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에서는 널뛰기 도구를 개량하여 마치 서어키스(북한의 용어로 '교예')를 하듯이 널을 높이 뿔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그리고 네 사람이 차례로 널을 뿔 후 먼저 뿔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4층의 무동을 만드는 방식으로 널뛰기를 개작하였다.

<줄다리기>는 그 놀이의 요소가 소위 “대중적 승리를 위한 노력” 또는 “인민봉기의 형상”등 단결된 집단의 역량을 시위하며 투쟁정신을 배양한다는 이유로 장려되고 있다.

2) 민속무용의 현대적 개작

다음에는 민속무용의 현대화를 살펴 보자. <아박춤>·<쟁강춤>·<물동이춤>·<부채춤>·<3인무> 등은 노래는 부르지 않고 음악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는 무용인데, 전통적 무용을 현대적으로 매우 잘 계승한 대표적인 예이다.

마침 필자는 1991년 8월 사할린에서 북한 예술단의 <아박춤>·<쟁강춤>·<물동이춤>·<3인무>를 구경할 수 있었고, 1989년도 북한의 신춘음악회 비디오를 통해서 <부채춤>·<장고춤> 등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제작한 <조선무용집>이라는 제목의 영상자료에서는 민속무용으로 아박춤·방울춤, <조선 예술인들의 노래와 춤>이라는 제목의 영상자료에서는 장고춤, 국립평양예술단의 일본공연 영상자료에서는 아박춤·쟁강춤·3인무가 발견된다.

(1) 아박춤

<아박춤>은 북한의 예술단이 세계 각국을 순회공연 할 때 반드시 공연하는 예

술종목이다. 이 춤은 고구려의 <동동춤>이 오랜 세월을 거쳐 변화되면서 생긴 춤으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동동춤>이 아박이라는 악기를 들고 춤을 춘 데서 <아박춤>이라는 명칭이 생겼다.²¹⁾ <아박춤>은 매우 수준이 높은 무용으로서, 춤을 추는 10여명의 연기자들이 모두 아박을 들고 반주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일정하게 아박을 친다. 반주음악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개작하여 매우 흥겹고 율동적인데, 이 음악에 맞춰 아박을 칠 때 율동적으로 울리는 음향으로 하여 더욱 예술성 있는 무용이 되고 있다. 매우 우아하면서도 율동적이고 흥겨운 <아박춤>은 북한이 자랑하는 민속무용인데, 일반 대중이 금방 친숙해질 수 있는 음악을 통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 쟁강춤

<쟁강춤>은 팔에 쟁강쟁강 소리가 나는 쇠팔찌를 끼고 추는 민속무용으로 이 춤도 북한이 자랑하는 매우 우수한 예술이다. 이 춤은 가을에 풍년이 들어 기뻐하면서 추었던 춤으로서 농사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농악무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의 하나인데, 어떤 지방의 농악무에서는 여자들이 큰 역할을 맡아 놀기도 하였다. 농악무가 널리 퍼져 있는 황해남도의 어떤 지방에서는 농악무를 출 때면 간혹 춤 잘 추고 활달한 성격을 가진 여자들이 독자적으로 한몫을 차지하여 춤을 벌여 놓았다. 이때에 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쟁강쟁강 맑은 소리를 내는 쇠팔찌를 끼곤 하였다. 농악무에서 여자들이 쟁강거리며 추는 춤은 후에 여러 지방들에서 여자들끼리 추는 풍년가을춤으로도 되고, 또는 남자들도 함께 어울려 추는 풍년춤으로도 변화 발전되었다고 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춤의 율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발목이나 허리같은 데에도 쇳붙이를 달곤 하였다.

<쟁강춤>은 서해안 지방과 남해안 지방에서 널리 퍼졌었는데, 여성들이 기본으로 되고 있으며 활달하고 율동적인 것으로 하여 색깔이 두드러지는 민속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쟁강춤>에서 고유한 율동은 두 팔을 앞으로 쭉 내피고 손등을

21) 박종성, 앞의 책, p.64.

다른 한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는 동작, 팔을 메거나 감을 때 마지막 장단에 억양을 주는 놀림이다. 이때에 팔찌나 팔에 단 그밖의 장식품들이 팔의 놀림과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또한 허리를 약간 제낄사하는 동작과 선 자세에서 급격하게 앉는 동작과 두 무릎을 모아 앉고 머리를 숙이면서 팔로 땅을 두드리는 듯한 동작들도 고유한 동작들이다.

이것이 널리 퍼져 현재의 쟁강춤이 되었는데,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화되었고, 특히 약동적인 성격이 잘 부각되었으며 활달한 맛이 두드러진 민속무용이 되었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필자는 실제로 <쟁강춤>을 관람한 후, 이 춤이 무당춤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91년 8월 사할린에서 공연했던 북한의 예술단원들도 그렇게 말했다. 우선 깃을 꼴은 모자와 의상 그리고 팔찌같은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팔을 놀리면서 허리를 약간 제긴 듯한 동작과 선 자세에서 급격하게 앉는 동작, 그리고 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숙이면서 팔로 땅을 두드리는 듯한 동작 등은 예전 무당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리고 <쟁강춤>의 반주음악은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웅장하면서 흥겨운 가락으로, 마치 슬라브풍의 음악을 연상시킬 만큼 완전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개작된 음악이다.

(3) 물동이춤

<물동이춤>은 <샘물가에서>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데, 경쾌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여러 명의 연기자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살랑살랑 걸으면서 춤을 추는데, <아박춤>·<쟁강춤>과 함께 민속무용의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예술이다. 이외에 민속무용을 현대화한 것으로는 <부채춤>·<3인무> 등이 있는데, 모두 경쾌하고 흥겨운 반주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아박춤>·<쟁강춤>·<물동이춤>·<부채춤>·<3인무> 등 현재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을

22) 박종성, 앞의 책, pp.69-70.

현대화하여 공연하고 있는 예술들은 모두 흥겹고 경쾌한 춤과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구경하는 사람들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지향하는 예술의 대중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의 접목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해방 이후 계속되어 온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민요의 현대적 개작

1989년도 북한의 신춘음악회, 1990년 12월 평양민족음악단의 공연, 1991년 8월 사할린에서의 평양음악무용단의 공연과 이미 앞에서 소개한 10종의 영상자료 및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요즘 북한에서 자주 공연하는 민요는 <양산도>·<뱃노래>·<영변가>·<닐니리아>·<회양닐니리>·<아리랑>·<신고산타령>·<농수버들>·<산천가>·<영천아리랑>·<도라지타령>·<박연폭포>·<정방산성가>·<자진난봉가>·<기나리>·<옹헤야>·<배따라기>·<밀양아리랑>·<까투리타령>·<베를가>·<노들강변>·<돈돌라리> 등 전통민요와 <수령님 은덕으로 대풍이 들었네>·<황금산의 백도라지>·<금수강산 우리 조국>·<금강산을 노래하세>·<대동산 실버들>·<해당화>·<풍년고사리> 등 전통민요를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한 민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이상의 민요들을 전통민요 가수가 부르는 경우와 성악가들이 부르는 경우, 그리고 가야금 병창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성악가들이 부르는 경우는 독창, 여성 3중창, 여성 5중창, 혼성 2중창, 혼성 5중창, 혼성제창 등 여러 방식으로 부른다. 국립평양예술단·평양민족음악단·평양음악무용단 등 전문적인 공연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민요를 매우 잘 전승하고 있다.

북한의 민요 전승에서 주목되는 점은 전통민요라도 평안도의 <수심가>나 함경도의 <애원성>처럼 비애를 주제로 하는 민요는 '창'이라고 하여 자주 공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밝고 경쾌하고 명랑한 민요들을 주로 공연한다.

김일성은 민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하여 “음악예술 부문 일꾼들은 우리의 민족 음악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라고 교시한 바 있다. 그래서 민족음악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정서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방침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가사의 내용을 개작하거나 연행방식을 새롭게 개발하여 민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본격화된 듯하다. 북한에서 발간된 민요집을 조사해 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순수한 전통적인 민요만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 민요의 가사를 개작하여 현대의 노동에 맞게 내용을 삽입하는가 하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과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사 속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삽입한 민요부터 살펴 보자. 『조선 민요곡집』(1) 중 <수령님 은덕으로 대풍이 들었네>·<황금산의 백도라지>·<금강산 우리조국>이 여기에 속한다.²³⁾ 『조선예술』(1982. 5)에 따르면 이외에도 <금강산을 노래하세>·<대동강 실버들>·<농수버들>·<해당화>·<풍년고사리> 등이 김일성의 우상화에 이용된 민요들이다.²⁴⁾

이 가운데 <황금산의 백도라지>를 살펴 보자.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황금산 기슭에 백도라지
 해마다 캐고 캐어도
 도라지 풍년만 든다누나

(후렴) 에헤요 데헤요 에헤요
 우리네 농장 황금산 좋다
 새들도 춤추며 날아든다

꽃피는 새살림 알뜰알뜰
 도라지도 켜다네 약도라지
 어버이 수령님 햇빛 아래

23) 『조선민요곡집』(1) (평양: 문예출판사, 1979).

24) 『조선예술』 (평양: 문예출판사, 1982.5).

도라지꽃도 활짝 피네

이 민요는 <도라지타령>을 개작한 것인데, 가점부분과 같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가사를 삽입하였다.

다음은 가사 속에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는 내용을 삽입한 민요를 살펴보자. 『조선민요곡집』(1) 중 <금강산 우리 조국>·<조선팔경가>·<명승가>·<양산도>가 여기에 속한다. 이 민요들은 여러 절로 구성된 분련체의 민요인데, 그중 일부 가사에 북한이 지상낙원임을 선전하는 내용이 보인다. 개작된 부분은 모두 유사한 가사이므로 <양산도>의 경우만 검토하기로 한다.

에헤이에 양덕 맹산 흐르는 물은
청류벽으로 감돌아온다

(후렴) 에루화 좋구나 금수라 강산
인민의 탁원이 여기로구나

<양산도>는 가점부분과 같이 후렴 속에 북한이 인민의 낙원이라고 선전한다. 가사의 개작은 민요집에만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관람한 북한예술단의 실제 공연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과거의 모든 민요를 그대로 부르는 것이 민족문화의 계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서, 민요의 연행방식도 새롭게 변형시켰다. 필자는 북한에서 1979년에 발간한 『조선민요곡집』(1)에 수록된 민요와 북한예술단의 공연을 통하여, 현재 북한에서 불리고 있는 민요의 가창방식과 춤을 포함한 연행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민요곡집』(1)에는 <수령님 언덕으로 대풍이 들었네>(여성 2중창과 혼성합창곡), <새봄을 노래하네>(여성 2중창곡), <조선팔경가>(여성 2중창곡), <양산도>(여성 4중창곡), <노들강변>(여성 2중창곡), <바다의 노래>(여성독창과 남성합창곡)식으로 각 민요의 가창방식을 지정해 놓았다.

1989년도 북한의 신춘음악회의 공연내용 중 민요로는 <영변가>·<뱃노래>(바다의 노래)·<양산도>가 있었다. 평안북도 예술단이 나와서 <영변가>를 독창과

합창으로 불렀는데, 노래하는 사람들과 춤추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노래하는 사람 이외에 8명의 무용수가 나와서 부채춤을 추고, 노래의 중반쯤에는 4명의 무용수가 더 나와서 장고춤을 추었다. 즉, <영변가>가 불리는 가운데 부채춤과 장고춤이 어우러지는 가무놀이로 발전시킨 것이다.

<벧노래>(바다의 노래)는 『조선민요곡집』(1)에 규정한 바와 같이, 여성 독창과 남성 합창곡으로 불렀다. 그리고 <영변가>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무용수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가무놀이였다.

4. 결 론

현재 남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 실태를 비교하면, 남한은 전통공연예술을 전통적 양식대로 잘 보존하고 있지만, 그 현대적 재창조는 미진한 형편이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전통적 양식의 전통공연예술은 대부분 전승이 단절되었지만, 전통공연예술의 현대적 재창조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에서 모든 민중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함께 예술성의 확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은 북한의 문화시책과 궤를 같이 하며 전승되고 있는데,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복고적 경향과 함께 개방적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공연예술이 전통사회에서 동일한 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성장해 온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민족적 동질성을 공감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미 해방 이후 상당히 이질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전통공연예술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간의 전통공연예술단체의 활발한 교류가 요망된다. 전통공연예술단체의 상호 교환방문 공연이나 각 지역의 특징적 민속놀이 교류를 통하여, 남북간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인식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이질화된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을 올바르게 인

합창으로 불렀는데, 노래하는 사람들과 춤추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노래하는 사람 이외에 8명의 무용수가 나와서 부채춤을 추고, 노래의 중반쯤에는 4명의 무용수가 더 나와서 장고춤을 추었다. 즉, <영변가>가 불리는 가운데 부채춤과 장고춤이 어우러지는 가무놀이로 발전시킨 것이다.

<벧노래>(바다의 노래)는 『조선민요곡집』(1)에 규정한 바와 같이, 여성 독창과 남성 합창곡으로 불렀다. 그리고 <영변가>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무용수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가무놀이였다.

4. 결 론

현재 남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 실태를 비교하면, 남한은 전통공연예술을 전통적 양식대로 잘 보존하고 있지만, 그 현대적 재창조는 미진한 형편이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전통적 양식의 전통공연예술은 대부분 전승이 단절되었지만, 전통공연예술의 현대적 재창조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에서 모든 민중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함께 예술성의 확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은 북한의 문화시책과 궤를 같이 하며 전승되고 있는데,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복고적 경향과 함께 개방적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공연예술이 전통사회에서 동일한 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성장해 온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민족적 동질성을 공감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미 해방 이후 상당히 이질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전통공연예술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간의 전통공연예술단체의 활발한 교류가 요망된다. 전통공연예술단체의 상호 교환방문 공연이나 각 지역의 특징적 민속놀이 교류를 통하여, 남북간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인식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이질화된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을 올바르게 인

식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남한의 전통적 양식의 전통공연예술을 접하게 됨으로써, 민족문화의 올바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서 현재 활발하게 전승하고 있는 분야부터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우선 남북한이 공동으로 전통민요경연대회, 농악경연대회, 장사씨름대회, 그네뛰기를 비롯한 각종 민속놀이의 경연대회, 전통공연예술축제 등을 개최하여 잊혀져 가는 민족 정서를 회복하고 민족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전통공연예술 분야 학자들의 학술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여, 그동안 서로 고정되었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인 학술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현지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바탕 위에서 학문의 본질인 객관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기타 자료

참고문헌

1.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평양:과학원출판사, 1962)
2. 권택무, 『조선 민간극』 (평양:조선문학예술동맹출판부, 1966)
3. 김내창·선희창, 『조선의 민속』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4. 김상훈 편, 『가요집』 (1),(2) (평양:문예출판사, 1983)
5. 김일출, 『조선민속 탈놀이 연구』 (평양:과학원출판사, 1958)
6.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 (서울:박영사, 1986)
7. 물질문화유물보존회, 『조선의 민간오락』 (평양:국립출판사, 1955)

식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남한의 전통적 양식의 전통공연예술을 접하게 됨으로써, 민족문화의 올바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서 현재 활발하게 전승하고 있는 분야부터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우선 남북한이 공동으로 전통민요경연대회, 농악경연대회, 장사씨름대회, 그네뛰기를 비롯한 각종 민속놀이의 경연대회, 전통공연예술축제 등을 개최하여 잊혀져 가는 민족 정서를 회복하고 민족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전통공연예술 분야 학자들의 학술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여, 그동안 서로 고정되었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인 학술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현지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바탕 위에서 학문의 본질인 객관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기타 자료

참고문헌

1.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평양:과학원출판사, 1962)
2. 권택무, 『조선 민간극』 (평양:조선문학예술동맹출판부, 1966)
3. 김내창·선희창, 『조선의 민속』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4. 김상훈 편, 『가요집』 (1),(2) (평양:문예출판사, 1983)
5. 김일출, 『조선민속 탈놀이 연구』 (평양:과학원출판사, 1958)
6.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 (서울:박영사, 1986)
7. 물질문화유물보존회, 『조선의 민간오락』 (평양:국립출판사, 1955)

8. 미 상, 『조선민요곡집』 (1) (평양:문예출판사, 1979)
9. 박종성, 『조선민속무용』 (평양:문예출판사, 1991)
10. 박치함 편, 『구전문요집』 (평양:국립과학출판사, 1960)
1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5)
12.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5)
13.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0)
14.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전33권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15. 서득창 외, 『조선의 민속놀이』 (평양:과학원 민속학연구실, 1964)
16.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 (고대·중세편)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0)
17. 전정옥, 「북한민속예술의 연구동향」, 강광식 편, 『남북 학술교류 여건 진단 및 대비책 모색』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8. 최철·전정옥, 『북한의 민속예술』 (서울:고려원, 1990)
19. 『조선예술』 (평양:문예출판사) 월간지
20. 『조선음악연감』(1987년)

기타 자료

1. 북한의 기록영화 <조선민속명절놀이>를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이 자료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공연한 민속놀이임.
2. 북한의 '신춘음악회'를 담은 비디오테잎(1989년도).
3. 1990년 12월 '평양민족음악단'의 서울 공연자료.
4. 1991년 8월 구소련 사할린에서 공연한 북한 '평양음악무용단'의 실제 공연을 참관한 자료.
5. 북한의 혁명가극 <꽃 피는 처녀>의 영화자료.
6. <조선예술인들의 노래와 춤>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잎.
7. <조선민요>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잎.

8. <민요 군중무용>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잎.
9. <조선무용집>이라는 제목으로 '만수대예술단' 과 '평양모란봉예술단'의 공연을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10. '국립평양예술단'의 일본 공연을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11. 최근 변모하고 있는 북한의 공연예술을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북한 텔레비전 프로).

執筆者 紹介(掲載順)

1. 姜 正 仁: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정치학석사, 동대학원 정치학박사
 - 고려대, 서울대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북한사회의 평등성」 등 저서 다수
2. 李 殷 珍:경남대 사회학과 조교수
 - 서울대 문학석사, 캘리포니아대 사회학박사
 - 서울대, 고려대, 건국대 등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미국 해계모니의 쇠퇴」 등 다수
3. 李 晟 衍:조선대 국어교육과 부교수
 - 조선대 문학석사, 전남대 문학박사
 - 전남 함평군 학다리 고교 교사, 조선대 강사, 목포대 조교수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북한어 조어법에 관한 연구」 등 다수
4. 張 旻 模:국방정신 교육원 교수
 - 해군사관학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문학석사, 동 박사과정수료
 - 해사 정훈참모처장,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정훈참모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남북한 가치관의 동질성과 이질성 고찰」 등 저서 다수

5. 李 王 基 : 목원대 건축학과 부교수
- 홍익대 공학석사, 청주대 공학박사
 - 대덕연구단지 설계 자문위원, 한국 건축역사학회 이사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조선왕조의 영조직제에 관한 연구」 등 연구보고서 등
다수
6. 田 耕 旭 : 고려대 사범대 부교수
- 한국학대학원 석사, 고려대 문학박사
 -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등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봉산탈춤의 주석적 연구」 등 저서 다수

'93 統一研究論文集(VII)
北韓의 經濟, 社會, 文化分野

인 쇄 : 1993. 12 .10

발 행 : 1992. 12. 15

발행처 : 통일원 정보분석실

인쇄처 : 태광인쇄사
